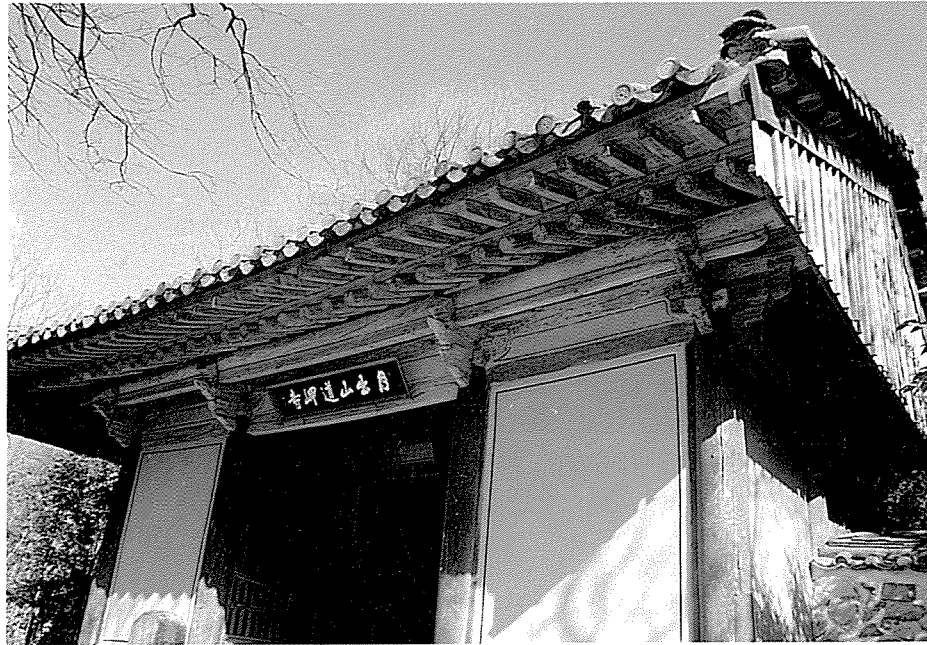


우리 고장의 국보 순례(12)

國寶 第50號 道岬寺 解脫門



월출산(月出山) 도갑사(道岬寺)는 신라 시대 도선(道詵)이 지었다고 전(傳)하며 이조 세조(世祖) 3년(1457)에 신미(信眉)와 수미(守眉)가 중건(重建) 이 때 지은 것으로 해탈문(解脫門)이 남아 있고 대웅전(大雄殿)은 이조 후기(後期)의 건물(建物)이다.

해탈문은 석조기단상(石造基壇上)에 세워진 소규모(小規模)의 문(門)으로 정면 3칸 측면(側面) 2칸(間)으로 중앙(中央)의 간은 통로(通路)가 되고 좌우(左右) 한간씩은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을 안치하게 되었고 내부의 가구(架構)는 2중 홍량(二重虹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포작(包作)기타 세부(細部)에 천축양식(天竺樣式)의 계통을 따르고 부석사 조사당(祖師堂)과 같은 계통으로 공포(貢包)의 출목(出木)이 구조적으로 2출목이면서 그 형태는 1출목으로 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 오영대 전라남도교육감은 제42회 전국과학전 지방순회전시회장에서 학생부 대통령상을 차지한 고흥대서남초등학교 6학년 송혜연·송영은 학생을 격려했다.(전남과학교육원 : '96. 11. 12)



▲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중·고학생 영어이야기대회를 개최했다.('96. 10. 2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74600-81103-45-2

교육전남

통권 제88호 ('96. 12)

特輯：人性教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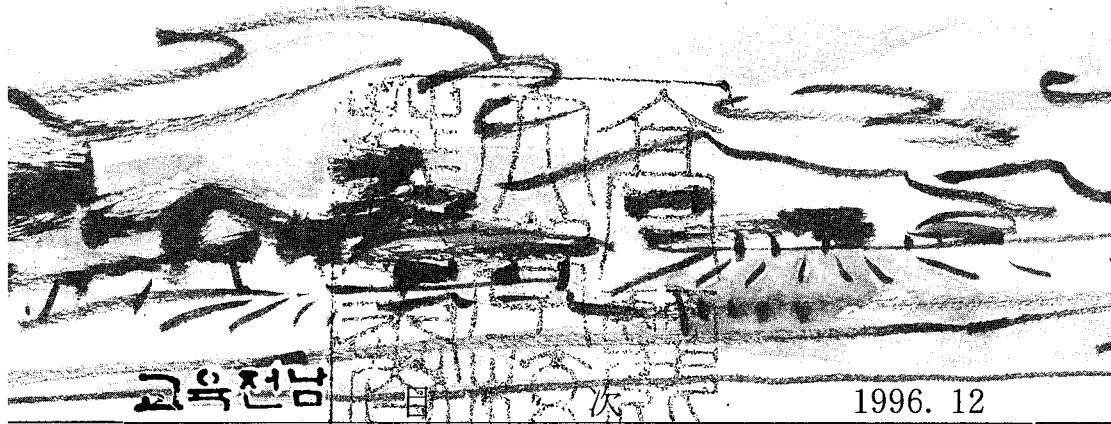
全羅南道教育廳



▲ 전라남도교육청은 제3회 전라남도 특수학교 학생 학예발표회를 개최했다.('96. 10. 24)



▲ 전라남도교육청은 '96하반기 교직원·지역민 합동 해외연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전남교육연수원 : '96. 10. 28)



교육전남

1996. 12

♣ 卷頭言 ♣

- 1996學年度 主要業務報告 教育監 吳榮大(8)
- 學校運營委員會의 效能性 提高 道教育研究院長 黃仁圭(20)

◆ 特 輯 ◆ 人性教育

- 열린教育(授業)과 人性教育 韓炯植(30)
- 障 碍 人 의 理 解 와 人 性 教 育 郭英安(58)
-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의 실제 裴錫淳(70)
-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더불어사는 공동체 의식 제고 宋炳榮(95)
- 多 樣 한 프 로 그 램 實 踐 을 통 한 人 性 教 育 李相培(106)
- 다양한 열린학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 趙炫植(121)
- 열린 체험학습을 통한 정직·예절생활 실천 金善坤(129)
- 事 事 人 性 教 育 處 處 人 性 教 場 崔鳳甲(135)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운 심성 기르기 ... 申八雨(142)
-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바른가치관과 고운 품성 함양 吳彩善(157)
- 특별활동과 예절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 金學瑾(179)
- 도덕적 판단력 및 정서적 성숙지도를 통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 朴貞洙(190)
- 體 驗 活 動 을 통 한 人 性 教 育 白鐵萬(205)
- 열린대화 및 사랑의 편지쓰기를 통한 고운 마음씨 기르기 金南洙(213)
- 現 實 的 人 性 教 育 方 案 의 考 察 鄭鎔澈(224)

☒ 論 壇 ☒

-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金容柱(232)
- 열린학습방식 토착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朴鍾隸(247)
- 都 市 學 生 農 · 漁 村 學 生 委 託 體 驗 學 習 李起洪(260)



題字:河南鎬

表紙畫·속표지 및 目次컷:金龍根

◆ 企劃取材 ◆

- 꿈을 가꾸는 즐거운 學校인 靈巖郡 金井初等學校 朴万澈(267)
- 인성중심의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靈山聖地(高等)學校 ... 教育전남編輯室(289)
- 名門高로 자리 잡아가는 光陽高等學校 教育전남編輯室(299)

◆ 研究論文 ◆

- 特殊學級 담당 教師를 위한 同僚獎學의 模型探索 金上門(308)

◆ 現場研究 ◆

- 特殊學級の 問題點과 改善 方案 李在同(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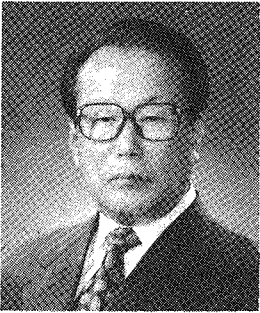
◆ 教壇文藝 ◆

- (時調) • 舍廊 宋泰洪(331)
- (詩) • 산이 아이에게 주는 선물 고정선(333)
- 황금들녘 김재용(335)
- 小滿 김재석(337)
- 無爲寺 강정삼(339)
- (隨筆) • 五段階 人生行路 金鶴來(341)
- 뜨거운 가슴을 위하여 金奉根(344)
- 왜 그랬을까 주광현(348)

◆ 編輯後記 ◆

- 教育전남編輯室(352)

1996年度 主要業務報告



教育監 吳 榮 大

지금부터 '96年度 全羅南道教育行政 主要業務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는,

- 一般現況
- 全南教育의 方向,
- '96年度 主要業務 推進狀況
- 그리고, 懸案課題順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機構는 本廳 3局, 3擔當官, 11個課와 23개 地域教育廳, 그리고 10개의 直屬機關이 있습니다.

定員은 教員 2만 3천 78명을 包含하여 總 2萬9千200名이며, 幼稚園을 포함한 1千842個校에서 42萬8千 餘名의 學生을 教育하고 있습니다.

財政面에 있어서는 總 規模가 1兆1千843億圓으로써 그중 90%를 國庫에 依存하고 있으며, 人件費가 70.9% 입니다.

全南教育의 方向은 21世紀 世界化·情報化 時代를 對備하여 新韓國 創造를 위한 人材를 育成하고자 '폭넓은 學習'을 비롯한 4개항의 教育行政指標를 바탕으로

○ '道德의 人間教育의 實踐'등 다섯가지 主要 施策을 重點的으로 推進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主要業務 推進狀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道德的 人間 教育의 實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禮儀바른 態度를 기르고, 올바른 價値觀 形成으로 參與된 學生像이 整頓될 수 있도록 '마음의 教育'을 實踐해 나가고 있습니다. 月1回 孝敬의 날과 281개교의 禮節教室 운영을 통하여 基本禮節 教育을 強化하고 情緒教育에 充實을 기하여 生命에 대한 尊嚴성과, 울고 그름, 아름답고 추함에 대한 分別力 教育으로 바른 심성을 啓發하는 한편 社會性 涵養을 위한 良習慣 5行 實踐指導와 더불어 사는 나눔의 教育 實踐에도 힘쓰고 있으며 教育課程 전 영역에 걸친 民族 自存意識 지도로 國民的 覺醒을 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健全한 學生生活指導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서 學生生活 規範을 制定·實踐토록 하고 1일1선 實踐指導로 239명의 模範學生을 表彰하였으며 木浦등 4個 地域相談室과 自願奉仕制 運營으로 學生 相談活動에 充實을 기하고 家庭·學校·社會의 連繫 지도로 學校暴力 追放 運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體驗學習을 위해 상반기중 12만여명이 야영훈련 등 수련 활동에 참여하였고 폐교시설을 이용한 '學生의 집' 19개소와 5개소의 綜合野營·修鍊場을 運營 또는 設置中에 있으며 都市學生 農·漁 村學校 委託體驗學習은 全國에서 처음 실시된 全人教育을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서 上半期中 2천8백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擴散

施行될 展望입니다.

‘藝鄉南道’의 傳統 承繼·發展을 위하여 선비精神·忠孝思想을 중심으로 한 傳統思想의 繼承 指導와 27개 初·中學校의 國樂合奏團 운영 남도의 맛·멋·소리찾기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江 周邊 학교를 환경파수꾼으로 지정하여 영산강·셋강 살리기, 섬진강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48개 示範學校 운영 등을 통해 環境保全 教育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讀書教育에 充實을 기하기 위하여 學級文庫 設置, 권장도서 선정지도 등을 통한 책읽는 교실 만들기와 圖書室 現代化 事業에 '94년부터 5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559교의 圖書室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基礎·基本教育에 充實을 기하고 있습니다.

學年 段階別로 基礎·基本教育에 徹底를 기하고 學生 個個人的 思考力, 探究力, 發表力이 伸張될 수 있도록 教育課程 編成·運營에 適正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知·德·體의 調和로운 人間教育을 위한 教育課程 基本原則을 遵守하여 운영함은 물론, 地域教科書와 指導書의 활용으로 教育課程을 地域化·特性化시켜 나가고 있으며 열린교육은 열린학습 實踐과 示範學校 運營, 그리고, 自律 研究會 활동을 통하여 全道의으로 擴散 實施되고 있습니다.

教育評價 方法 改善은 敘述形 主觀式 등 다양한 評價方法 적용과

問題銀行 設置 運營 그리고 優等賞制 위주를 지양하는 多樣的 施賞制를 並行 實施하고 있습니다.

個性尊重 教育 方案으로는 個人差를 고려한 教授·學習 方法 適用과 수준별 移動授業 運營으로 個別化 教育을 強化하고 補助教師制 運營을 통한 特別活動 活性化와 創意性 啓發 教育을 實踐하고 있으며 教育의 質的 水準 向上을 위하여 授業方法을 改善하고 教科研究會 組織, 資料의 發刊·普及으로 教授·學習力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教育의 秀越性·多樣性 追求를 위하여 英才教室과 才能兒教室, 그리고 小規模學校 協同 教育體制를 운영하고 있으며 複式學級·少人數 學習의 內實을 위한 資料 開發·普及과 教師 研鑽會를 實施하였습니다. 또한, 基礎 科學教育에 充實을 기하기 위하여 科學教師 研修와 實驗補助員 配置로 實驗, 觀察·探究 學習을 強化하고, 常設科學班 運營의 活性化를 비롯, 科學實驗室과 科學教具 擴充에 힘쓴 결과 금년 全國科學展覽會에서 學生部門 大統領賞을 受賞한 바 있습니다.

保健·體育 教育의 內實을 위하여 모든 學校에 養護室을 擴充하였고 '97년까지 學校給食 全面實施를 目標로, 今年度까지 113個校에 學校給食을 擴大 實施하였으며 地下水 사용학교 먹물 관리와 騒音公害 對象學校의 防音壁 施設 등 學校環境 汚染防止에 힘쓰고 있으며 體育의 活性化와 體育 特技學校 育成 등을 통해 基礎體力과 運動技能을 伸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幼兒教育의 公教育化 基盤 造成을 위해 單獨形 竝設幼稚園을 增設하였고 幼稚園 施設의 現代化에 60억 7천만원을 投資하였으며 就學率 54.3%로 提高하여 特殊教育 機會를 擴大하였고, 特殊兒와 더불어 마음 나누기 運動을 展開하여 教育에서 特殊兒가 疎外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特殊學校 教具·設備을 3個年 計劃으로 계속 擴充하고 있습니다.

셋째, 世界化 對應 教育을 強化해 나가고 있습니다.

高度技術·情報化 時代에 對應해 나갈 創意的인 人材를 育成하고, 適性과 素質에 맞는 多樣한 進路選擇 機會가 부여되도록 進路·職業 教育을 強化하고 있습니다.

體系的 進路指導를 위하여 진로카드를 初等學校부터 高等學校까지 連繫 活用토록 하고, 學生用 自己探索資料를 開發 普及하였으며 全國 최초로 開通한 全南教育 情報網 運營으로 多樣하고 體系的인 進路情報 및 學習資料를 提供하고 있습니다.

職業技術 教育 擴充을 위하여 未來 產業需要에 對備하는 實業系 高等學校의 지속적인 學科 改編과 함께 機資材 및 施設 擴充에 44억 9천만원을 投資하고 農·水產系 高校의 現代化·特性化 사업도 積極 推進하고 있습니다.

世界化 教育을 위하여 教職員 海外研修와 姊妹結緣 學校 擴大, 農·工·水產系 學生·教師 共同 海外 現場實習 등, 國際交流機會를 擴大하고 있으며, 初等學校 英語 特活班 運營으로 外國語 早期教育을 實

施함과 아울러 52명의 原語民 英語教師 活用과, 教師 海外 現地研修 등으로 外國語 教育을 強化하고 '97년 完了를 目標로 今年에 멀티미디어 機能을 보강한 語學室을 120실 확충하였습니다.

情報化時代에 對應하는 教育으로는 學習用 및 教材研究用 컴퓨터 보급과 擔當教師 研修를 계속해 나가고 研修費 支援을 통한 컴퓨터 資格 取得 自己研修로 情報管理 能力을 培養토록 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教育室 擴充 5개년 계획에 의하여 今年에 30억원으로 31個校에 멀티미디어 教室을 設置하여 컴퓨터教育에 充實을 기하고 있습니다.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으로는 示範學校 運營을 통한 올바른 統一觀 정립 지도와 北韓實相 바로알기 教育에 힘쓰고 있으며 開放經濟에 對應하여 健全한 消費生活 態度를 涵養토록 하고, 우리것 즐거쓰기 運動의 展開와 함께 1인1통장 갖기와 용돈기입장 쓰기 지도 등 勤儉·節約·貯蓄하는 習慣을 길러 貯蓄에 대한 보람을 느끼도록 指導하고 있습니다.

넷째, 教育하는 社會의 造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本道에서는 家庭·學校·社會의 協同의 連繫教育體制 確立으로 教育으로 農·漁村을 살리기 위한 農·漁村 教育 活性化 計劃을 수립, 持續的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市·郡別 教育發展 共同協議體 運營으로 170억 3천만원의 獎學金을 造成하여 '94년 이후 4천7백여명에게 19억3천만원의 獎學金을

支給하였으며 學校 施設·設備의 現代化로 學校教育의 質을 向上시키고자 '97년 完료를 목표로 4개년 계획으로 推進해 온 標準學校 改善 사업은 教職員과 學父母가 함께 참여하여 學校發展綜合計劃에 의하여 계속 추진하는 教育환경 개선 운동으로 지금까지 총 586개 교에 274억 7천만원을 投資하여 教職員·學父母의 集團思考를 통한 共感帶 形成으로 教育環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地域社會와 學校가 教育問題를 함께 認識하여 共同解決方案을 模索하고자 推進하고 있는 教職員·地域民 合同 海外研修는 基礎地方 自治團體의 積極적인 協조로 3차년도인 금년까지 1천6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교직원·학부모·지역민의 意識改革 運動으로 擴散되고 있습니다.

地域社會에 學習하는 雰圍氣를 擴散시키고 地域民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社會教育基盤 造成 事業은 公共圖書館의 機能 擴大와 社會教育館 設立 등을 통해 地域民에게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平生教育運動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學校行事的 地域祝祭化로 地域社會 雰圍氣를 活性化시키고자 邑·面別 地域民·學生·教職員 合同 體育大會와 市·郡別 綜合藝術祭를 開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學校運營의 活性化를 위하여 非合理的인 行政慣行 개선과 自律責任 經營制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單位學校 自律責任經營制를 確立하기 위해 각종 教育規制를 緩和

하여 學校運營의 自律性を 伸張하고 轉入教師 內申制 실시로 학교의 人事權을 擴大하였고 學校運營委員會 또는 教職員協議會의 運營과 學校經營 전반에 대해 教職員 스스로 評價토록 하는 學校經營 自體評價制를 實施하고 있으며 授業獎學要員制 運營과 학교내 自律獎學의 活性化, 「授業研究誌」의 發刊·普及으로 現場中心의 獎學活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教員의 專門性 및 使命感 提高를 위하여 5년週期 義務 研修制를 도입하여 上半期중 1만여명에게 研修를 實施하였으며 研究하는 教師像 정립을 위해 235명의 教員을 現職 研究員으로 任命하였고 教育專門職 公開銓衡任用도 계속 實施하고 있습니다.

教員의 士氣振作 方案으로는 循環勤務制 實施 등 公正한 人事制度 確立과 教職員 子女를 위한 校內 幼兒房 擴充 운영, 教職員 聯立 舍宅 建立 등 教員의 福祉施設 擴充에 힘쓰고 있습니다.

教育與件의 持續的 改善을 위하여 教育行政의 電算化 및 學校 無人警備 設備 擴大로 教員 業務 負擔을 輕減하고 있으며 小規模學校 統·廢合 및 分校場 格下로 適正規模 學校를 育成하여 教育力을 提高시키고 있습니다.

學校施設 現代化를 위하여 열린教室 施設을 示範 推進하고 있으며 水洗式 변소 增·改築, 教室 煖房施設 改善 등 총 21개사업에 551억원을 投資하여 教育環境 改善事業을 推進하고 中等教員 適當 授

業時數 조정과 初等 臨時教師의 過員教師 充員으로 教員 現員管理에 着情을 기하여 今年中 120억여원의 豫算節減 效果를 기하였으며 健全한 私學을 育成하기 위해 財政缺陷 支援, 教育環境 改善事業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教育改革課題 推進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教育改革은 教育現場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推進하고 또한, 地域特性에 맞게 本道 主要教育施策과 連繫하여 推進하고 있습니다.

効率的인 教育改革 推進을 위하여 教育改革 推進委員會와 實務推進班을 運營하고 教育改革 弘報委員會를 통한 持續的 弘報活動과 教育改革 優秀事例 發表會 등으로 教育改革 意志가 널리 擴散되도록 하고 있으며 「教育改革 博覽會」에서는 “農·漁村 教育 活性化로 21세기를 열어가는 全南教育”의 未來像을 提示한 바 있습니다.

主要課題別 推進現況을 말씀드리면 198개교에 學校運營委員會를 設置·運營하고 있으며 學校生活記錄簿制의 施行, 早期進級·早期卒業制 시범 실시와 만5세 兒童의 早期就學을 허용하는 初等學校 入學年齡 탄력적 운영, 그리고, 4개교의 學校長 招聘制와 6개교의 自律出·退勤制를 今年 2학기부터 示範 實施하고 있습니다.

教育改革的 成功的 推進으로 需要者 中心의 열린教育社會와 平生學習社會의 基盤이 構築되고 創意性있는 人材가 育成되리라 展望합니다.

그 다음은 懸案課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教育自治制 5年の 評價와 制度的 改善策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教育自治制 實施 5年の 肯定的인 면으로는 地方教育에 住民意思와 地域特性을 반영할 수 있고 教育에 대한 住民과 教職員의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고 일선 教育現場의 意見收斂 功能이 活性化된 점입니다.

그러나, 地方教育自治가 廣域自治에 국한되어 있고 教育委員會와 道議會의 이중적 구조, 그리고, 行政事務監査의 중복으로 인한 行政力 소모, 教育監, 教育委員 선출 절차 등은 改善되어야 할 것입니다.

地方教育自治 制度的 改善策으로는 地方自治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教育特別自治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地方教育自治區의 管轄 범위는 地域의 特性에 따라 통합·조정하여 설정하고 독립된 審議·議決 機構로 教育委員會를 두는 제도입니다.

現行 制度내에서의 改善案으로는 教育·學藝에 관한 議決機關이 教育委員會와 道議會의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음에 따른 議決節次의 複雜性과 行政事務監査의 중복성으로 인한 行政力 낭비를 없앨 수 있도록 相關 法規를 개정하고 教育監 선출 方法을 住民直選 또는 후보등록제로 하고 教育委員도 現行 2중 간선제를 住民直選 또는 基礎議會나 市·道議會에서 選出하는 方法으로 改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學校暴力 豫防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學校暴力이 조직화, 연소화, 난폭화되어 가고 특별한 犯罪 意識

없이 暴力과 金品喝取를 자행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家庭教育機能 弱化, 入試爲主 教育으로 인한 道德·人性教育의 미흡, 그리고, 地域住民의 指導의지 결여에 起因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檢·警 등 有關기관과의 連繫活動, 學校暴力 追放機構 設치 등으로 學校暴力 豫防 및 根絶을 持續적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집단괴롭힘' 被害事例 發生 豫防을 위하여 教室 巡廻活動을 강화하고 設問調査를 통한 實態를 수시 파악하고 있으며 家庭教育機能 強化 및 社會와의 連繫 指導를 위하여 9개 地域에서 學父母 研鑽會를 실시하였으며 7백여명의 相談 自願奉仕者가 활동하고 있고 全 敎員의 生活·相談指導 體制의 구축과 7백여교 5천8백여명이 참가한 學校暴力 根絶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2만부의 弘報資料를 配布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實踐爲主의 人性教育을 強化하고 有關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學校暴力 根絶을 위한 努力을 계속하여 健全한 學校教育 風土 造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性暴行 現況 및 豫防策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2건의 性暴行 사례가 發生하여 선도하였습니다만 性的 충동을 자극하는 圖書·映像物의 범람과 家庭教育 機能 弱化 性暴行 피해 사례발생은 항상 염려하는 事項이며 性에 대한 傳統倫理의 영향으로 性被害者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도 性暴行

根絶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性暴行 豫防策으로는 體系的인 性教育 實施를 위하여 關聯敎科 指導 強化, 擔任·養護敎師의 豫防지도, 專門家를 초빙한 性教育 등 性교육 기회를 擴大하고 있습니다.

또한, 性教育 資料를 開發·普及하고 女學生에 대한 관찰에 철저를 기하며 學校·家庭·社會의 連繫指導를 위하여 家庭通信文 발송, 夜間 安全 歸家 指導, 자취·하숙생 가정 방문 기회 확대로 性暴行 豫防에 萬全을 기하여 健全한 性倫理觀 확립과 性犯罪 最小化에 最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全羅南道 教育行政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前年度 國政監査 指摘事項에 대한 措置結果와 其他事項은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면 監査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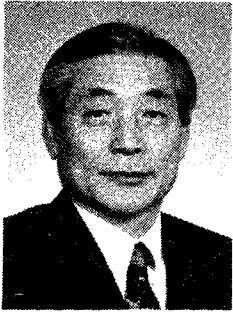
報告드린 內容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推進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感謝합니다.

1996년 10월 10일

全羅南道教育監 吳 榮 大

學校運營委員會의 效能性 提高



黃 仁 圭
(全羅南道教育研究院長)

1. 序言

學校運營委員會 制度는 單位學校의 自律性이 尊重되는 教育體制를 構築할 것을 比見으로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比見을 實現하기 爲하여 初·中等學校의 可視的인 改革方案으로 이 制度를 導入한 것이다. 이는 5.31 教育改革에서 初·中學校 改革의 핵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教育改革은 法과 制度를 改善하고 教育財政을 確保하는 것만으로 成功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教育共同體를 構成하고 있는 學生, 教師, 學父母, 地域人士가 적극적으로 參與하고 自己位置에서 各者의 役割과 能力을 다 할때 可能하다고 본다. 또한 教育의 改革은 單位學校가 變化되어야 하고 學校의 變化는 教壇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 學校長은 確固한 改革意志를 가지고 指導力을 發揮하고 教師는 적극적으로 參與하여 創意的으로 實踐하여야 한다. 또한 學父母는 健全한 教育觀을 가지고 支援할 때 改革이 成功的으로 推進될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서 특히 學父母의 意識變化와 思考의 轉換이 없이는 絶대로 不可能하기 때문에 學父母의 體系的인 啓導가 絶실히 要望된다.

學校運營委員會는 教育의 住民自治 精神을 구현하고 學校의 自律化 확대를 通하여 教育의 效果를 극대화 하기 爲하여 教育 需要者인 學父母, 지

역인사와 教職員등이 參與하는 共同體 기구인 것이다. 이 기구가 成功的인 發展으로 나아갈 때 5.31 教育改革의 成功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때 다음과 같은 條件이 전제 되는 것이다.

- 學校教育의 需要者인 學父母와 地域人士, 가르치는 活動의 專門人으로서의 教師, 學校運營을 위임받은 行政擔當者 등이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하여 學校運營에 對한 權限을 共同으로 行事하고 責任지는 기구로 發展되어야 한다.

-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教育에 關한 權利를 行事하고 責任을 가져야 할 集團의 代表들이 高루 參與해야 하며 代表들은 반드시 그 集團의 代表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公正하고 民主的인 節次에 따라 選出되어야 한다.

- 學校運營委員會는 學父母들의 적극적이고 自發的인 후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산하 組織으로 學級別·學年別 學父母會가 活性化되어야 하고 이 단계별 조직을 通해 學父母들의 結집된 意見이 反映되며 여기에서 決定된 內容 등이 전 學父母들에게 전달 되어야 한다.

-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의 最高 審議 決定機構로 자리를 굳혀야 되므로 學校經營의 집행자인 校長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改革方向과 制度를 定着시키도록 指導力을 發揮하여야 한다.

- 學校運營委員會의 功能이 그간의 育成會처럼 재정조달에만 국한되는 것을 벗어나 人事·財政·教育課程, 방과후 教育活動 등을 포함한 學校運營 全般을 論議하는 기구로 發展되어야 한다.

- 學校運營委員會는 委員들의 專門性이 最大한 發揮될 수 있도록 運營해야 하며 이를 爲해서 산하에 영역별로 多樣한 小委員會를 설치 運營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現在 추진되고 있는 教育改革方案이 가장 重點的으로 추구하는 未來 展望과 目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必要한 教育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열린 教育 社會」를 建設하는 것과 이러한 체제의 구축에 基지가 되는 學校教育 現場의 自律性을 높여 교육 수요자 中心의 教育으로 나가는 것이다. 종래에는 制度教育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닫혀진 상태로 運營되어 教育기관이 이동은 물론 동일한 教育기관 내에서의 이동도 거의 불가능 했으며, 한번 入學 時期를 놓치고 나면 다시 制度 教育안으로 들어 오기가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의 公교육은 多분히 中央으로부터 下達된 획일적인 教育課程과 교육운영 방식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용역배달 체제의 성격

을 띠어왔다. 즉 중앙으로부터 획일적으로 배달된 교육과정과 수많은 교육 지침서에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를 몽땅 맡겨 왔으며, 덤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도 맡겨 버린 셈이 되었다. 이렇듯 학교 운영의自律性이 不足하고, 교육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構成員들의 學校運營에의 參與가 미흡하여 學校現場에서 行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教育活動에 그 構成員들의 要求가 적절히 反映되지 못하는 現 狀況에서 教育需要者 中心으로의 方向 전환을 의미하는 學校運營委員會의 成功的인 운영이 이번 教育개혁안에 포함된 教育改革課題 中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II. 學校運營委員會 準備

1. 參與的 意思 決定의 토론 문화 定着

전술한 바와 같이 學校運營委員會는 教育의 住民自治 精神을 구현하고 單位學校의 自律性을 확대하여 學校教育의 效果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教育活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構成員들(教師·學生·學父母·地域社會人士·教育行政家·教育專門家 등)이 學校運營 過程에 同參與하여 學校運營全般에 관한 事項을 論議할 수 있는 場이 學校共同體의 構築을 지향하는 學校運營委員會인 것이다. 즉 논의의 場을 制度化하여 參與의 길을 활짝 열어 학교를 中心으로 한 共同體 건설의 터전을 마련해 놓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必要性은 1991년 2월 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새로운 教育自治制가 實施된지 여러해가 지났으나 어떠한 큰 변화가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參與的 의사 결정에 따른 바람직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다.

2. 새로운 동반자적 教育構圖

요즈음에 들어 教育活動의 經濟的 側面을 강조하여 教育生産者, 消費者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學校運營委員會는 단순히 소비자 보호 운동 次元의 制度는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닌 意義는 단지 生産者→需要者의 構圖속에서 需要者만을 爲한 참여가 아니라 우리의 地域社會와 變化에 적합하고 그들이 願하는 教育을 만들어 가기 위한 탐색인 것이다. 學

校는 知識, 배움, 學習의 「生産者」이고 학부모와 學生을 비롯한 教育活動의 모든 構成員들은 「소비자」일 뿐이라는 통념을 강화한다면 教育의 공급자나 수요자편의 「용역배달」개념이 지속적으로 教育政策을 支配하게 됨으로 단지 學父母들을 教育에 參與하도록 독려 하는 것은 教育行政에서 官僚制에 대한 힘을 증강시키거나 그 쪽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學校運營委員會의 構成을 그 地域社會의 價値에 적합하고 그 地域사회가 원하는 教育을 學校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구도를 미리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운영위원회는 學生教育을 爲해서 學校와 서로 協同的인 同伴者, 家庭과 學校의 協力, 그리고 地域社會와 學校 체제간의 協同經營의 틀을 형성하여 構成員들의 參與權, 선택, 教育的 同伴者 관계를 充分히 다지는 方向으로 준비되어 가야 한다.

3. 主要 國家들의 學校運營 시사점

美國, 英國, 獨逸, 日本 등 4個國의 學校運營에서 住民 參與의 동향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학부모들이 學校運營이나 行事に 參與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學校마다 사친회(PTA: Parent Teacher Association) 학부모자문협의회(PAC: Parents Advisory Council), 후원회(BC: Booster Club) 등을 두고 있으며 英國 역시 學校마다 學校運營委員會(GB: Gover Body)를 두어 學校經營 全般에 對한 權限과 責任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參與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協議하는 學校協議會(Schul Konferenz)가 있으며 日本도 PTA를 두어 學校運營을 후원하고 있다. 이상 주요국의 학교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學父母, 教師, 地域社會 人士가 相互 밀접한 協力關係를 유지하면서 學校運營 전반에 대해서 發展的인 提案과 決定을 하고 있다.

둘째, 특히 學父母와 地域社會 人士들이 학교운영에 적극 同參與함으로써 住民 參與를 통한 학교 自治를 實現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單位學校는 학교운영을 爲한 物的 財政的 支援을 充分히 받고 있다.

셋째, 학부모 조직,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비단 財政的인 支援의 機能만을 행사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며, 學校共同體가 학교운영 全般에 關해 논의하는 토론의 場으로 기능 하고 있다.

넷째, 學校長과 學校運營委員會 및 學父母 조직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中心으로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삶의 질 向上과 學校發展을 爲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最先策을 다하고 있다.

다섯째, 學校長, 教師, 學父母 및 地域社會 인사가 參與하여 학교운영에 直·間接으로 영향을 미치는 組織의 設置와 運營이 行政기관인 支援이나, 制度化에 依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學校共同體의 自發性과 自治精神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우리의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인 지시 전달 및 규제 위주의 학교 운영상의 타성이나 자율권 및 재량권이 부족한 획일적 학교운영이 몰고 오는 갈등이나, 참여를 통한 民主的 意思決定에 미숙하여 아집만 부리는 토의문화, 그리고 自發的인 參與를 유도하지 못하는 학교측과 특히 경영의 專門性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미숙한 점이 해소되어야만 그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기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效能化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그의 役割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Ⅲ. 學校運營委員會의 役割

먼저 教育배우기를 통한 教育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教育活動이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各 構成 集團이 自身들의 權利와 義務를 바르게 理解하고 이를 올바르게 實行에 옮겨야 한다. 國家, 地方自治團體, 私學財團 등과 같은 學校의 設立者 集團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教育받을 권리가 행사 되도록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制度的 條件의 정비와 運營에 對한 義務와 權利를 實踐에 옮겨야 하고, 教員은 教員대로 公務遂行의 義務와 教育 活動에 對한 專門的 實踐이 올바르게 行使 되어야 하는 것이다. 學生, 學父母, 地域社會도 法律에 의해 보장된 學習權의 범위 안에서 學校선택권, 教育內容선택권, 教育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한편, 教育을 받기 위해 要求되는 各種 規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學校運營委員會의 올바른 운영을 爲해서도 이들 學校共同體의 義務와 權利에 대한 바른 理解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열린 意思決定 체제를 바탕으로 學校運營의 투명성을 確保하는 역할에 힘써야 한다. 現在까지 노출되어 온 많은 教育問題들은 事實上 學校 運營이 非公式的이고 폐쇄적으로 運營된 데서 기인된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學校의 모든 意思決定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學校運營 過程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學校는 신뢰받지 못하여 어떠한 人的 支援이나 物的 支援도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共同體 構成員이 學校와 教育에 대한 바른 情報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들이 보다 더 많은 教育情報를 갖게 되는 길은 학교에의 參與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運營委員會는 학교운영에 參與的 意思결정의 傳統을 세움과 同時에 會議運營 過程을 학교공동체 구성원 들에게 公開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매학년 말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地域사회에 공개 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確立적인 學校運營의 틀을 벗고 융통성 있고 專門的인 학교운영위원으로 創造的이고 多樣한 學校를 만드는 役割에 注力해야 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행정편의주의의 관행을 깨고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러한 自律性 確保와 함께 산하에 小委員會 등을 構成하여 學校經營의 專門性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學校의 教育課程 活動과 教科外 活動 등에 共同體의 의견을 充分히 反映하여 地域特性을 살린 個性있는 學校를 만듦과 同時에 未來를 爲한 多樣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통해 學習者들의 적성과 소질개발에 힘써 教育活動 參與者의 삶의 질 向上에 努力해야 한다.

Ⅳ. 學校運營委員會의 機能

1. 合法的인 機能

地方教育自治에 關한 法律施行會(1996. 2. 22 改正)에 새로 삽입된 「第六章 學校運營委員會 第29條」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기능 등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教育과정의 운영 방법, 教科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放學中 學生의 教育活動, 기타 시·도의 조례(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규정)가 정하는 事項을 심의한다.

② 學校의 長은 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運營委員會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事項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時間的 余裕가 없을 때에는

이를 施行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學校의 長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事項中 이를 시행함에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結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要求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同施行은 第31條 위임 조항에서 이 令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기능 등에 관하여서는 市·道의 條例로 定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위임 조항에 따라 각 市·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는 그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시 하였다. 各 市·道에 따라 어구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8개항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삼고 있는데 그 내용은

- 1) 학교 헌장, 학칙 및 규정의 재개정
- 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 부담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 7)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2. 實際運營에 나타난 實踐 機能

學校運營에 관한 主要事項의 심의 기능으로 선택교과, 수학여행,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 教科書 選定 교복 및 체육복 선정, 학교급식 운영 등을 심의한다.

학교교육과정의 合理的인 편성과 効率的인 運營에 重點을 두고 單位學校의 實情과 學生의 個性, 能力, 進路 등을 고려하기 爲하여 學生에 關한 多樣的 기초조사 結果를 심의 資料로 活用하는 한편 敎員, 學父母, 地域社

會의 要求가 充分히 反映되도록 努力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初等學校의 재량시간, 中學校의 선택교과, 高等學校의 총 이수단위의 증배여부 및 예·체능 과정 그리고 2종 教科書의 선정에 관한 심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學校와 地域社會의 人的 物的 資源을 最大限 活用하여 學生들의 多樣的 學習 要求가 充足될 수 있도록 특별활동의 종류와 운영방법 장소 및 지도강사, 비용 등을 심의할 수 있다. 學父母가 경비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 需要者들의 意見을 수렴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豫算 및 결산의 심의와 學校運營 支援費 지원 및 用度 결정 기능으로 종전의 育成會費를 「학교운영 지원비」로 대체 그 규모와 使用料 등을 결정한다.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敎職員 人件費와 學校 경상운영비로 구분된다. 公立學校 예산중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支援되는 예산은 敎職員 人件費와 學校教育費이고 그 외에 學父母가 부담하는 學校運營支援費가 있다. 학교 경상운영비란 學校教育費와 學校運營支援費로 構成된다. 예산 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예산결산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과정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성실히 遂行하여야 한다. 또한 教育의 質 向上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나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이 필요할 경우 共同體의 意見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 지원비」를 인상할 수 있으며 그 규모와 사용처 등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學校發展기금 造成 및 使用에 關한 결정 기능으로 學校의 長期的 發展 계획에 따라 自發的인 기부금품을 接受하고 發展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改正됨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터 市·道 및 시, 군, 구 教育廳에서 自發的인 기부금품을 接受할 수 없게 되어 각 學校가 學校운영위원회를 中心으로 「自發的 기부금품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學校運營委員會는 各種 기부금품을 使用함에 있어 學校發展의 未來展望과 기부 目的에 따라 學校共同體가 함께 發展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

學校運營에 관한 제안 기능으로 學生 指導 등 學校운영 전반에 관하여 소관에 따라 學校에 제안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學校教育計劃上의 年間 授業日數와 學校의 行事計劃을 고려하여 방학시기 방학기간 등학교 시간 體育行事 등을 提案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나 방학중 유상 프로그램을 開設하도록 提案할 수 있다. 또한 學校 共同體 構成員의 平生學習프로그램 등 그들의 삶의 質 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學校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 기능으로 學生, 學父母, 地域住民등의 건의

나 청원 사항을 심사하고 必要時에는 그 結果를 學校나 관할 教育청에서 제안하는 기능이다. 또한 初·中等 教育의 自律的 伸張에 기여하고 各級 學校에서 學父母등 教育 需要者가 원하는 자를 當해학교의 敎員으로 任用 요청할 수 있게 하는 學校長, 敎師 초빙제를 시범 實施함에 따라 學校運營 委員會가 任用대상자를 심의하여 대상자를 選定한 후 任用권자 또는 任用 제청권자에게 任用 요청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V. 參與의 制度化를 통한 效能化 方案

이상과 같이 重要的 기능을 갖고 있는 學校運營委員會의 性格規定에 따 른 권한 및 기능 設定에 있어서, 자문, 심의, 의결 機能을 가진 自治機構의 性格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協議를 통한 學校 支援活動 권한을 가진 協議 기구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러한 쟁점들의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議決기능이 주어져야 實質的으로 學校運營에 대한 권한과 責任을 나누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아직은 우리 사회에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構成員들이 各者의 입장에서 도구주의적 教育觀에 치우친 主張을 하게 됨으로써 상당 한 갈등을 야기시켜 學校운영을 도리어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協議기구의 성격으로 構成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 다른 한편의 거센 주장인 것이다.

참고로 세계 주요국의 학교행정 참여 組織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체로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을 명시 하는데 의결이나 심의등의 用語를 使用하기 보다는 「학교운영과정에 필요 한 일들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校長과 같이 일하기 위한 기구」라고 표현되 어 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은 重要的 것은 적극적인 參與와 성숙한 토론문 화의 정착을 통하여 운영위원회를 民主的으로 運營하여 이 기구에 힘을 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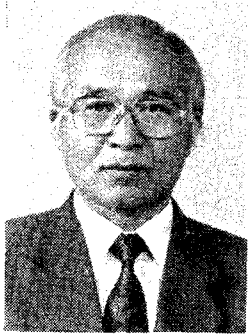
아무튼 이 기구가 設置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 무엇보다 重要的 것은 한 學校教育의 主要 事項들이 案件으로 發議되어 論議되고 그 結果는 實 際的인 學校運營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學校運營 全般에 누구보다 밝은 校長이 學父母, 敎師 등 다른 學校共同體 구성원의 호응과 協助를 받 는 가운데 可能한 한 많은 案件을 發議함으로써 學校運營委員會의 效能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學校運營委員會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住民參與의 限 界性を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參與者들의 代表意識이 學生을 爲 한다기 보다 敎師 代表인 경우 교사측 입장만 고수한다든지 學年代表의 자모이면 그 學年만 생각 한다든지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실질 적으로 도와야 하는 教育需要者인 學生들에게 도움되는 사항은 自己 代表 집단이 불리할 때 합의도출이 안되는 또는 參與意識이 저조한 상황이고 이와 같은 結果는 운영위원회를 效能化 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다. 앞으로 全國民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펴면서, 參與 的 意思決定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의욕 提高에 더 힘써야 한다.

學校運營委員會 制度의 施行으로 예상되는 效果는 무엇일까? 이는 教育 的 住民自治를 구현하고 單位學校의 自律性を 확대하여 學校教育의 效果 性を 극대화 하는 制度로서 教育活動 現場에, 현장의 構成員들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參與의 制度化를 通하 여 토론문화와 民主的인 意思決定 체제의 定着을 통하여 多樣한 教育關聯 集團의 要求를 반영하고 불신반던 學校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지원을 확 보함과 동시에 敎員의 責務性を 높이는 한편, 學校運營의 투명성 및 자율 성을 신장 시키는데 그 效能性を 發揮해야 한다.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이다.
 <루이스>

열린교육(授業)과 人性教育



韓 炯 植

(韓國 열린교육協議會 附設 열린교육연구소 所長)

머 리 말

「人性教育」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일에 쫓겨 곧바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머리속에선 「人性教育」이 떠나지 않는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연구발표를 하는 Y교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버스 승차장을 몰라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中年에게 물었다. 「저쪽이요.」 쳐다보지도 않고 투박하게 말한다. 「저쪽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저쪽이라 함은 어느 쪽입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따 그양반, 지하도를 건너가야 할 것 아니요!」하고 큰 눈으로 치켜보면서 꾸짖는다. 필자

는 그 순간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곧 「하필이면 그 사람이 언짢은 감정 상태에 있을 때 물음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反應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만일 언제나 그와 유사하게 言行한다면 그의 人性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청탁 받은 원고 「人性教育」으로 머리가 사로잡혀 있는 때여서 그러했는지 거리에서 「人性」을 골똘히 생각하였다.

「人性」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人間 本然의 性質」 또는 「人間이 가지고 있는 自然의 性質」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때의 「人間이 가지고 있는 本然의 性

質」은 어떤 것일까? 사람의 「本然의 性質」에 대해서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하여 대립된 철학적 논쟁이 있다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필자는 잘 모르고 있다. 다만 人間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느 백화점의 한 구석 쪽에 있는 문구점에 들러, 전동 지철기를 사고 싶다고 말했더니,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 가게엔 없지만, 저쪽 가게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가게를 비워놓고 손님들 사이를 누벼 앞장 서 갔었다.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게이려니 하고 따라갔더니, 그 넓은 매장의 가장 저쪽 구석에 있는 문구점에 당도하여 「이 가게에서 물어보세요.」말하고 총총히 되돌아 가는 것이었다.

자기네 가게에도 전동지철기가 없음을 미안해 하는 가게 주인에게, 혹시 형제간이나 친척간인가 물었더니 남남이라고 하였다.

세상엔 구두수선공과 같은 사람보다 문구점 아주머니처럼 친절 곧 「人性」이 선한 사람이 훨씬 많다. 弱者 편에 서서 도와주고, 겸손하고, 질서를 지키고, 남의 입장을 존중하고, 부끄러워 할 줄 알며, 저녁 노을을 보며 고향과 부모를 그리워 하는 그런 곱고 선한 「人性」을 그

대로 지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自然이 본래는 천연 오염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人間도 본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본래가 선한 사람들이, 요즘 공해로 인하여 自然의 구석구석이 오염돼 가듯이, 본래의 선한 마음이 오염되어, 뉴스시간마다 오염되고 뺄어떨어진 「人性」이 저질은 惡行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혼자 살면 그의 人性이 惡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만큼, 각자의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學校는 사람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그대로 保存·強化할 뿐 아니라, 그것이 오염됐거나 잃어버린 어린이가 있다면, 그것을 정화하거나 되찾는 이른바 人性教育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래 가지고 있는 고운 人性을 지키고, 오염됐거나 잃어버린 人性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學校가 할 수 있고, 學校가 해야 하는 일로 필자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學習하는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모

든 어린이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學校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선 이 두가지 일의 구체적인 實踐方案을 논의하기로 한다.

1. 學習하는 기쁨을 만끽케 하는 方案

人間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먹이만을 먹음으로써 생존하지만, 人間은 그에 더하여 기쁨을 먹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정신적 존재이다. 그래서 人間은 기쁨이라는 鑛脈을 찾아, 그것이 있는 쪽으로 向하여 능동적 주체적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사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行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方式로 얻기가 불가능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反社會的 또는 非社會的인 方式으로 기쁨을 얻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쁨이란 人間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소일 뿐 아니라, 人間으로 하여금 行動하게 하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學校社會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얻기를 원하는 으뜸 가는 기쁨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學習하는 기쁨이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기쁨,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기쁨이다.

다시 말하면 自身이 向上的으로 變容되어 가고 있음을 認定 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으뜸인 것이다. 學校라는 곳은 본디 學習하는 곳이며, 모든 어린이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人性教育에 있어서의 「學習하는 기쁨 만끽」의 意義

人性教育을 學校가 전적으로 맡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學校가 할 수 있는 限界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學習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일이야 말로 學校가 할 수 있고, 學校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人性教育의 핵심적인 方法이다.

學校라는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충족하고자 원하는 가장 강렬한 욕구는 學習을 잘하여, 學習하는 기쁨을 만끽하고자 하는 욕망일 것이다. 學校라는 곳은 원래 학습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원에서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재미있을 뿐 아니라 존경을 받는 것처럼, 學校라는 곳은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만이 기쁨을 만끽하고 또한 존경 받으므로, 學校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제일의 욕망은 한결같이 공부를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들의 소망은

같지만, 그들이 모두 똑같이 그들의 소망대로 공부를 잘하고, 공부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學習에 失敗한 절망감과 열등감에 젖어 學習意慾을 상실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는 것이다.

要컨대 學校는 어린이들에게 條件없이 學習하는 일 그것이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學習이 즐겁지 아니하는 곳은 學校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 더하여 지금의 學校는 어린이들에게 學習하는 기쁨을 만끽케 하고 있는 곳일까 하고 自問했을 때, 그렇다고 肯定的인 對答을 몇사람이나 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은 날마다 學校에 온다. 그러나 기대적 흥미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學校에 와서, 學習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가야할 곳이니 할 수 없이 등교하여 學習의 기쁨이란 아예 모르는 채 청소하고, 규칙 지키다가 돌아가는 어린이들은 없는 것일까? 외람되지만 모든 어린이들이 즐겁게 學校에 오고, 기쁨을 만끽하며 學習活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自身이 없을 것 같다.

오늘날 非行 不良少年少女가 늘어나고 年少化 돼가고 있는 현실이 있다.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은 본래부터 非行 不良한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니다.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모두가 다 그렇다고 단정하려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대부분은 학교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한 데에 그 要因이 있다고 생각한다. 곧 학업 성취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이른바 欲求不滿狀態가 그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모든 어린이들이 學習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고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길이 이른바 마음의 教育에 가장 효과적이며, 확실한 길이라고 믿는다.

어떤 시책이나 시설을 마련하는 일도 그 일환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對症療法이며, 原因 자체의 치료나 예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學習하는 기쁨의 만끽,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의 방법이며, 타고난 본디의 곱고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강화케 하는 가장 有効한 방법인 것이다.

열린教育(授業)은 학습자 각자로 하여금 學習成就에 成功케 함으로써 학습하는 기쁨을 만끽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가장 우수한 오늘의 대안인 것이다. 열린 教育(授

業)이 곧 人性教育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열린教育이 비뚤어진 人性을 쉽게 치유할 수 있는 신통하고다 마술과 같은 특효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열린教育(授業)은 學習者 각자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요구와 필요에 卽應하게 處遇함으로써, 각자가 學習에 參加하고, 各自가 成就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개별화하고, 학습을 개성화하는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授業이 이루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얻고자 원하여 마지않는 學習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그들은 마치 만족스럽게 식사한 사람이 빵을 훔쳐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구태여 反社會的 方法으로 욕구를 충족하여, 反社會的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學校는 모든 어린이들이 學習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教育(授業)의 생각과 方法에 의한 수업方法으로 코페르니쿠스의 變혁을 이루어야 한다.

다음에 그 열린教育(授業)의 要件과 方法의 차례로 논의하기로 한다.

2. 學習하는 기쁨을 만끽케하는 열린授業의 要件

적어도 그것이 열린 수업이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몇가지 요건이 있다. 이것은 학습자 각자에게 학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인 바, 그는 여덟가지이다.

이 여덟가지 요건 중에는 비유컨대 수업이라는 수레를 받치고 그것이 굴러감에 있어 필수조건인 세 개의 바퀴(三輪)와 이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구실하는 다섯가지 潤滑油가 있다.

다음에서 이에 대하여 약술하기로 한다.

가. 열린授業의 三輪

(1) 自律的으로 學習하는 機會와 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사계의 권위들은 오늘의 수업의 최종목표의 하나는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태도와 능력 곧 자기학습능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 자기학습능력은 지식으로 가르쳐 주어서는 결코 기를 수 없으며, 오직 학습자 각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체험을 통해서만이 체득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기학습능력을 기르려고 하면, 수업과정속에 학습자 각자가

누구의 지시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 현재까지 학습한 지식, 기능, 태도를 총합적으로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기회와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는 바, 그 하나는 자기학습력을 기르기 위해서요, 다른 하나는 자기나름의 생각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학습자가 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각자가 자기나름의 사고와 논리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수업과정 속에 각자가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기회와 장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2) 集團過程을 組織해야 한다.

집단과정이란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말하는 바 수업과정엔 이 과정이 반드시 조직되어야 한다.

부연하면 자기 나름의 사고와 논리가 확립된 학습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내놓음으로써 상호유발하고, 상호갈등하며, 상호보완하는 이른바 집단역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은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의 한계내에서 밖에 사고할 수 없으므로, 일면성과 제한성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혼자

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학습이 성립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각자의 사고와 논리가 확립된 복수의 학습자가 토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같고 같리우는 집단과정을 조직해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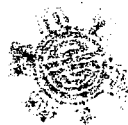
(3) 教授作用을 제대로 해야 한다.

수업이란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와 교수작용의 주체인 교사와의 상호작용과정이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수업이든 수업인 한에서는 교사가 해야 할 일 곧 교수작용이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지만 이때 교수작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당연히 논의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원을 대상으로 일제히 가르쳐주는 일은 아니며, 학습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일도 아니다.

바람직한 교수작용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응요처우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즉응하게 처우하는 일이다. 가르쳐 주어야 할 그런 능력과 적성을 가진 어린이는 가르쳐 주어야 하고, 방향을 가리키기만 해도 스스로 찾아 배울 수 있는 능력과 적성을 가진 어린이들은 그렇게 처우해야 한다.

요컨대 학습자 각자의 특성에 상



용하게 교수작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나. 열린授業의 다섯가지 潤滑油

(1) 個別 處遇하여야 한다.

학습자 간에는 저마다 양적 개인차(수준차)가 있는가 하면 질적 개인차(선호차)가 있다. 한편 학습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학습자 각자의 특성(수준차 및 선호차)에 맞추어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수업은 당연히 학습자 각자의 특성에 적응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처우」라 함은 숙진군은 방향만을 「가리킴」으로서 가급적 자력으로 해결케 하고, 중진군은 그들이 필요한 만큼 도움(힌트)을 주고, 너머지는 자력 해결케 하고, 교사의 교시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지진군은 「가르쳐줌」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공통필수의 내용의 학습을 보장해야 하는 바, 이와 같이 학습자의 특성에 卽應하게 행하는 교수작용을 통틀어 「처우」라고 말한다.

앞에서 이미 시사한 바 있지만, 학습자의 특성에 卽應한 처우방법엔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학습자 각자의 수준차에 맞추는 경우로, 계통학습을 요하는 국어와 수학 등 이른바 도구 교과와 체육,

음악, 미술 등 이른바 예·체능 교과가 이에 알맞다. 다른 하나는 학습자 각자의 서로 다른 흥미·관심의 차 곧 선호차에 맞추어 처우하는 경우로, 사회 및 자연의 이른바 내용교과가 이에 알맞다.

(2) 授業目標, 達成에 最適한 行動을 直接 行하며 찾아 배우도록 한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어서 주지하는 바이지만, 듀이가 제시한 학습성립의 철칙에 「learning by doing」이 있다. 학습은 학습목표를 달성함에 최적한 행동(내적, 외적 행동을 통틀어서 하는 말)을 학습자 각자가 직접 행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학습목표와 관련되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행동은 오직 한 가지가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행동은 교사나 분단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각자가 직접 행함으로써 전원에 학습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적한 행동」을 선정하는 일과 그것을 학습자 각자가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피하는 일이 교재연구 단계에서 교사가 필행해야 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3) 結果보다 過程을 소중히 한

다.

최근의 어린이들은 「결과(답)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주어지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학문적 호기심을 육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아닐 수 없다.

사계의 권위자들이 말하는 수업의 최종목표의 다른 하나는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업과정이 학습자 각자가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사고하며, 일진 일퇴하고, 암중모색하는 지적 탐구의 과정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했을 때 학습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며, 그렇게 획득된 지식과 기능만이 문제해결의 실전상황에서 살려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一般性を 찾아야 한다.

오늘의 수업이 흔히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식을 해설하고 그것을 암기하게 하는 쪽으로 무게가 주어지고 있으며, 일반화된 지식을 탐구하게 하는 일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만 일회성적으로 쓰이는 지식이나 기

능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수업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일반화 된 지식, 곧 유사한 상황에서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방법, 규격, 순서, 성질, 가치, 원리, 법칙 등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이런 지식이나 기능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실전상황에서 응용이 가능한 질이 좋은 지식이다. 따라서 수업은 모름지기 일반성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5) 心震을 일으킨다.

지각을 변동시킴에 있어서는 지진보다 더 큰 힘은 없다.

마찬가지로 학습자 각자를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주체로 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치솟아 오르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른바 심진이다.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심진 곧 학습자의 마음 속에 지적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교사가 가르치고 의도한 바가 스스로 찾아 배우고자 하는 바로 전환되어, 모든 학습자가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 화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몇 가지를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 지적호기심을 일으킨다.
- 의문을 갖게 한다.
- 지적기로에 서게 한다.
- 의표를 찌른다.
- 당혹스럽게 한다.
- 지적궁지로 몰아넣는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테네의 쇠파리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교사는 교실의 쇠파리으로써 학습자를 적시에 쏘므로써, 그들을 지적 행위의 능력적 주체로 화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3. 열린 授業의 方法

전통적인 수업이 교사의 논리에 맞춘 수업인데 대하여, 열린 수업이란 학습자의 논리에 맞춘 수업을 말한다. 수업관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할 것이다.

학습자 저마다의 논리에 맞추는 말은 듣기에도 좋고,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지만, 그 학습자가 단순한 존재가 아닌 데 어려움이 있다. 신체적, 정신적, 지적인 어느 한 면에서도 같은 어린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 간에는 능력, 적성, 성격, 가치관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흔히 개인차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 개인차는 보통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는 바, 그 하나는 양적

개인차요, 다른 하나는 질적 개인차이다.

양적 개인차란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개인간의 차를 말하며, 예컨대 계산능력이나 문장의 독해력 등과 같이 진단에 의하여 그 능력을 수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성 곧 수준의 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양적 개인차란 개인간의 수준의 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질적 개인차란 수량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개인간의 차를 말한다. 예컨대 사람마다 가치판단의 기준에 차가 있으며,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바둑을 좋아하는데, 어떤 이는 이를 싫어하며, 어떤 이는 팝송을 좋아하는데 어떤 이는 그것을 싫어하는 등 개인간에 차가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흥미와 관심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질적 개인차란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의 차, 선호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량으로 나타낼 수 없는 개인간의 차를 질적 개인차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열린 교육(수업)이란 학습자의 논리에 맞춰하는 교육(수업)을 말하며, 이는 학습자 각자의 양적·질적 개인차에 卽應하게 처우하는 교육(수업)을 말한다 하겠다.

다음에서 이 두가지의 처우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가. 量的 個人差(水準差)에 卽應하게 處遇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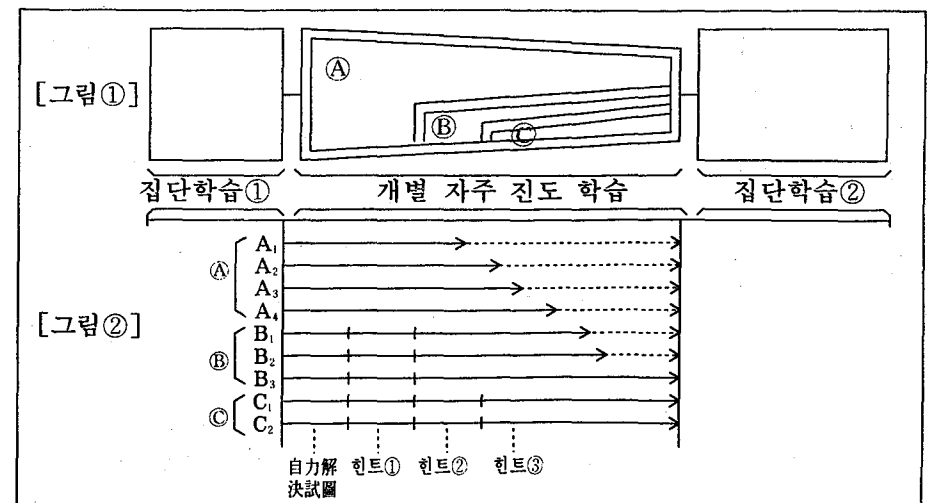
진단에 의해서 도달도며, 습속도의 차 곧 수준차를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야는 국어과, 수학과 등 이른바 도구교과와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등 이른바 예체능교과, 그리고 실과의 기능적 측면이다.

여기엔 개인간의 차가 있기 마련이며, 필요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설정한 수준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학습자는 제 자리 걸음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시간과

지적 능력을 낭비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선수학습 부실아는 아무것도 학습하지 못한 채 이들 역시 시간과 지적능력을 낭비하며, 또 한 층의 학습 결손을 쌓아올리면서, 그의 열등의식의 골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자는 공히 학습에 있어서 가장 값진 가치인 학습하는 기쁨 대신 수업에 싫증을 느끼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각자의 목표를 성취하는 수업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양적 개인차 곧 수준차에 적응하게 처우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다음에서 그 수업의 일반적인 흐름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수준차에 적응하게 처우하는 수업의 일반적인 흐름①
우선 그림으로 그려보기로 한다.



[그림①]과 [그림②]는 똑같은 수업의 흐름을 다르게 그린 것이다. 집단학습 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 본시학습의 안내(각자의 학습 목표나 학습문제의 제시, 학습순서, 학습자료, 약속 또는 유의사항)

• 선수학습 충실도 진단

집단학습 ①은 흔히 러그미팅(교실 앞 공간에 카펫을 깔고 그곳으로 전아동과 교사가 함께 모여 앉아 이루어진다. 이때 교실 앞의 공간이 이용되지만, 필요에 따라 기타 공간을 이용한다)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개별 자주진도학습」에서는 「집단학습①」에서 안내된 바에 따라 문자 그대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개별로 자기 페이스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다. 처음에 누구나 똑같은 수준의 문제(흔히 학습지로 주어진다)에 도전하여 자력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자력의 한계를 인식한 학습자들이 도움(힌트)을 요청하게 되며, 교사는 이들에게 힌트①을 제공(힌트지를 준비해 두기도 하고, 소칠판에 적어 가리워 놓기도 하고, 별지에 써서 벽에 게시해 두기도 한다)한다.

여기에서 힌트를 받지 아니하고 줄곧 자력해결해 나아가는 A군과,

힌트①을 받아 자력해결해 나아가는 영군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B군은 힌트①을 받아 자력해결해 나아가지만, 그 중에서 다시 한계를 느낀 학습자들은 힌트②를 요구하게 되며, 이들이 C군이다. 이들중의 C₁은 나머지 자력 해결할 수 있으나, C₂는 그래도 불가능하여, 힌트③을 요청함으로써 전부를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해결하게 된다.

[그림②]의 A군은 A₁~A₂와 B군의 B₁에게 있는 점선은 학습 목표를 일찍 달성함으로써 남은 시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남은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여야 하는 바 두가지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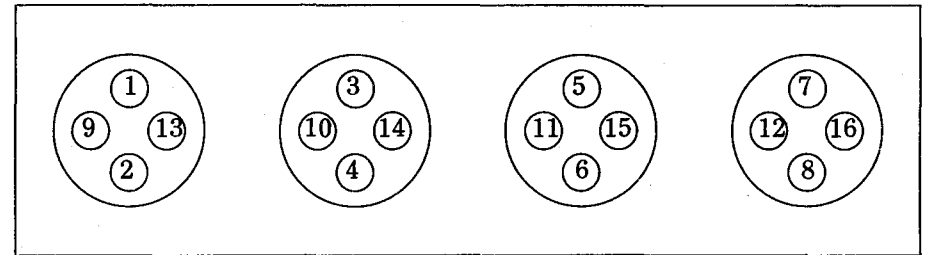
그 하나는 이른바 「선택학습」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준비된 메뉴, 예컨대 당해 시간에 학습한 내용의 심화학습감 풀이, 컴퓨터 조작하기, 비디오 시청하기, 독서하기, 퍼즐 풀이하기 등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남은 시간을 밀도 높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의 하나는 「개별 자주진도학습」을 마친 어린이들은 차례로 교실 앞의 공간이나 복도 등으로 나가 모여 앉아 「설명하고-듣기」를 한다. 「설명하고-듣기」란 문자 그대로 각자의 생각을 남에게 설명하고, 남의 생각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각자가 「개별 자주

진도학습」의 과정에서 확립된 자기 나름의 생각의 일면성, 편파성, 제한성 등을 발견하여, 그를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보다 좋은 생각으로 다듬어 나가도록 한다.

이때 모아 앉는 요령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학습속도의 개인차로 인하여 어린이들은 시차를 두고 나오게 된다. 따라서 가령 16명 학습이라면 다음 그림과 같은 차례로 소집단을 만들어가며 「설명하고-듣기」를 한다.



그림의 숫자는 설명적으로 나온 차례이다. 나온 차례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이어 들은 어린이들이 역시 설명을 한다. 따라서 각자가 세번 설명하고, 세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된다.

그런 뒤에 각 소집단마다 구성원 각자에게 무순으로 번호를 매긴다. 이어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번호의 어린이들끼리 모아 앉도록 한다. 어린이들은 다시 새로운 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 새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설명하고-듣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에 걸친 소집단의 편성을 위와 같은 요령으로 한 것은 혼성 소집단으로 편성하기 위해서이다. 소정의 학습을 빨리 마친 어린이

가 비교적 우수한 어린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차례로 소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들은 전후 두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여섯 명의 설명을 듣고, 6명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 주게 되며, 그 만큼 각자의 생각을 같고 다듬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집단 학습활동을 열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지그소우(jigsaw)학습이라고 부르고 있다.

개별 자주 진도학습을 끝낸 어린이들의 남은 시간의 활용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일제수업에서는 이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수업이 끝나기를 무료하게 기다리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던 것이다. 속진아들이 남은 시간을 유익

하게 살려 쓰도록 하고 있는 점이 야말로 열린 교육(수업)의 특색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 교사는 C군의 C₂아동(학습 속도가 늦은 어린이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끝날 무렵이면 「설명하고-듣기」등 어린이들의 활동도 거의 끝나게 되는 바, 이 시점에서 집단학습②로 들어가게 된다.

이 집단학습②의 형태는 필요에 따라 러그미팅 형태를 취하거나, 전원이 아동석에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한다.

집단학습②는 집단과정을 조직하는 단계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부연하면, 개별 자주 진도 학습 과정에서 자력 해결로써 얻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독자학습이어서 각자의 능력의 한계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사고의 일면성, 편파성, 개인적 한계성을 면치 못하는 잠정적 해답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설명하고-듣기」 과정에서 일차 다들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인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볼 때 오답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초현실적인 황당무계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집단성원 간의 토

의·토론, 이른바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보완되며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져서 객관적 인식으로 변용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미 전술하였지만, 상호작용은 참가하는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확립하고 있음이 대전제인 바, 개별 자주 진도 학습을 마친 학습자는 자력해결에 의해서든, 교사의 직접 지도를 받아서든 예외없이 자기 나름의 사고와 논리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원이 집단학습②의 집단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작용 곧 집단사고를 통해서 교과나 교재에 따라 일반화된 규칙, 순서, 방법, 성질, 가치, 권리, 법칙을 발견하고 본시 학습의 핵심사항 정리에 이어서 학습보고서를 2~3분간에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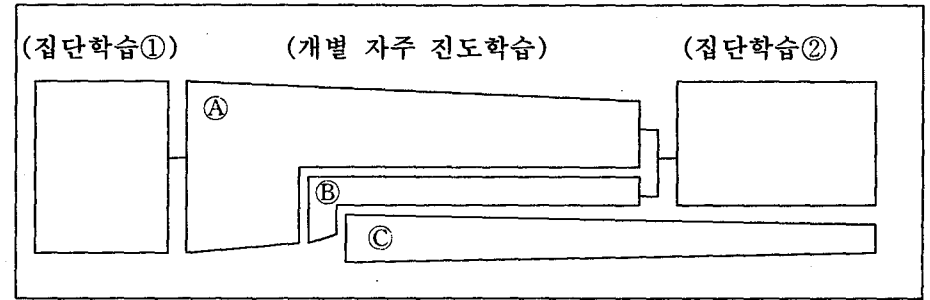
여기에서 학습보고서에 대하여 조금 언급하고자 한다. 학습보고서는 본시의 학습을 통해서 터득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학습 소감,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도 곁들여 소화된 자기말로 쓰도록 한다.

「알았다」는 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소화된 자기 말로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보고서는 학습자들에게는 진실로 제대로 알았는가

를 자기 점검하는 기회이며, 교사에게는 학습자 하나하나의 학습성립 상황을 진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수업의 적부를 자기 평가하는

더 없이 소중한 자료가 된다.

여기에서 「수업의 흐름①」의 변형에 대해서 곁들여 놓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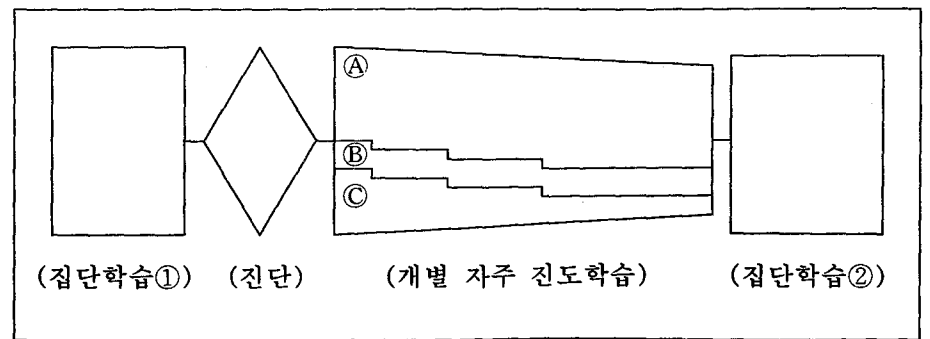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군의 학습수준의 낮아 집단과정에 참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들을 집단과정에 참가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수준에 꼭 맞는 학

습을 끝까지 하도록 처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무리없고, 낭비없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준차에 卽應하게 처우하는 수업의 일반적인 흐름② 역시 그림을 먼저 보기로 한다.



집단학습 ①, ②의 활동요령은 전술한 「수업의 흐름①」가 같으나

다음에서 논하는 몇가지 점에 차이가 있다.

우선 진단을 실시한다. 본시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선수학습의 충실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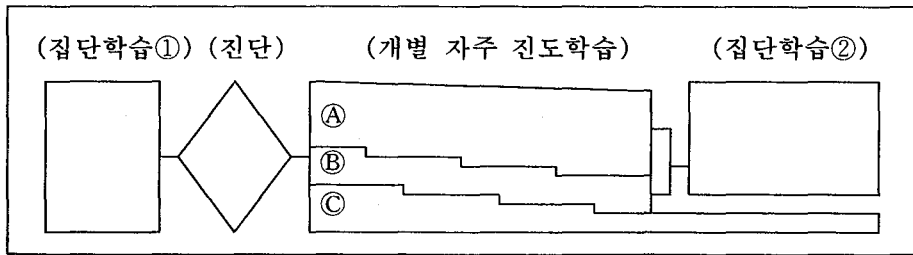
진단결과에 따라 잠정적으로 ㉠, ㉡, ㉢의 세 그룹으로 편성한다. 그러니까 아예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수준에 꼭맞는 개별 자주 진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각 그룹의 수준에 즉응한 처우를 하자는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 그룹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인원이 증가하며, ㉡ 그룹은 처음에 소속했던 학습자들은 대부분이 ㉠ 그룹으로 옮겨가고, ㉢ 그룹에서 올라온 어린이로 구성원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 그룹은 그 인원이 ㉡ 그룹으로 옮겨가고 잔여수가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 ㉢ 양 그룹의 학습자들은 소속 그룹의 학습목표에 도달하면, 그 시점에서 바로 次上 그룹의 학습문제에 도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교사는 ㉡ 그룹에게는 힌트(힌트지 또는 소철판에 판서하여)를 줌으로써 가급적 자력해결하게 하고, 주로 ㉢ 그룹을 집중적, 교시적으로 지도함으로써 ㉡ 그룹 수준으로 밀어올림을 목표로 개별 지도한다.

㉢ 그룹이 집단학습 ㉡에서 집단 과정에 참가할 수 없을 만큼 학습 결함이 많을 때에는 그들은 자기 수준에서 계속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처우하여야 하며, 따라서 집단 학습 ㉡에 참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나. 質的 個人差(選好差)에 卽應하게 處遇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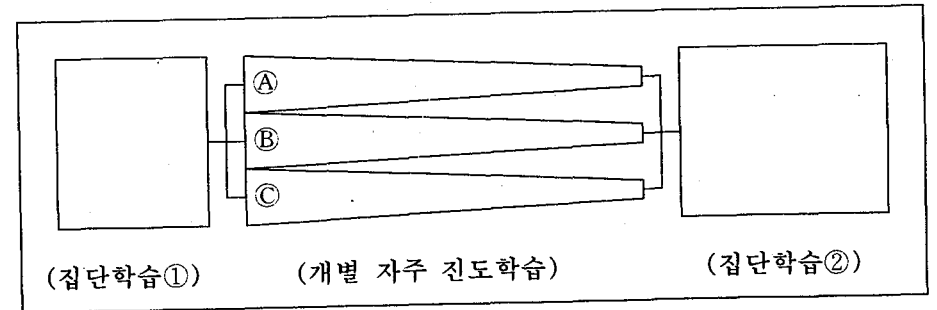
는 물론 모든 사람은 좋아하는(선호하는) 일이 있으며, 그 일을 함에 있어 또한 선호하는 방법이 있

다. 각자가 선호하는 일을 선호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때 일의 능률이 오르며, 결과도 좋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하는 과정이 즐거운 것이다.

따라서 학습에서도 가능한 한 학습자가 선호하는 공부감을 선호하는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학습의 능률이 오를 뿐 아니라, 학습의 결과도 좋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습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음 학습에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어떤 과제를 탐구하더라도 똑같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선호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것이 이른바 과제선택 학습이다. 또 어떤 방법 또는 순서로 추구하더라도 똑같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선호하는 방법 또는 순서를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것이 이른바 방법 선택 학습 또는 순서 선택 학습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의 ㉠, ㉡, ㉢는 경우에 따라서 학습과제, 학습방법, 학습순서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개별 자주 진도학습 과정에서의 교수작용은 학습이 부진한 학습자에 대한 개별 지도에 집중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II. 편안한 마음으로 學校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保障하는 方案

편안한 學校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 學校가 할 수 있고, 學校가 해야 할 人性教育의 두번째 方法이다.

「마음이 편안할 때 일이 손에 잡힌다.」는 말과 같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걱정이나 不安感 없이 마음이 편안해야 일하는 過程이 즐겁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結果도 좋은 법이다. 그럴뿐만 아니라 사

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곧 人性이 그대로 보존·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들 가운데에는 教師와의 관계에서 또는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리고 더러는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걱정 또는 不安感을 안고 學校生活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다 함은 心理的 均衡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다가 내외적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心理的 均衡은 깨지고, 이른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人間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身體的 均衡이나 心理的 均衡을 일단 잃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상실된 均衡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 바, 그런 과정에서 때때로 非社會的인 또는 反社會的인 方法으로 問題를 해결하여 잃은 均衡을 회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均衡의 회복 경험의 누적은 곧 人性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學校는 어린이들이 心理的 均衡을 잃게 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는 바, 그 方案은 學級社會의 心理的 風土를 許容적 持續的으로 造成하는 일이다. 다음

에서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許容的인 學級社會風土의 造成 方案

學級の 사회적 풍토는 허용적 풍토로 가꾸어짐이 바람직함은 웨언을 요하지 않는 바이지만, 그것을 조성하기란 容易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防衛的인 풍토는 전연 힘들이지 않아도 어느 새에 造成되 버리기 쉬운 것이다. 學級の 社會的 風土 관리에 세심하고도 부단한 배려를 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누구나 생활하고 학습하기 快適한 學級の 社會的 風土 조성을 위한 방안을 세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 教師의 面

앞에서 學級の 社會的 風土를 조성하는 여러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學級教師라는 것을 밝힌 바 있었다. Flanders는 「學生들은 그들의 學習課題에 대한 關心보다 教師와의 關係에 보다 더 關心을 가지고 있고 教師가 학생들에 대하여 어떠한 態度를 갖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學習效果가 달라진다」고 말함으로써 教師의 태도의 결정적 중요성을 強調하였고, Canter, N도 學級教師는 「클래스·룸에 있

어서의 風土를 결정하는 중요한 存在」라고 말하고 있다.

病床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의사나 간호원은 가장 依支가 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들의 한마디, 그들의 一舉手一投足은 환자에게는 커다란 精神的, 肉體的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의사나 간호원의 인간성 넘치는 따뜻한 한마디, 자신을 주는 격려의 한마디, 유모러스한 한마디가 환자의 마음에 얼마나 큰 安堵感을 주며 자신과 의욕을 샘솟게 하는지 모른다. 그것은 약 이상의 治療效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學급에 있어서의 教師의 言行的 重要性은 환자의 生사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의사와 간호원의 그것 만큼이나 중요한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教師가 學級の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決定的인 요인임을 의문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學級の 社會的 風土를 支待的인 것으로 가꾸느냐, 防衛的인 것으로 가꾸느냐의 관건은 거의 완전히 教師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조금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이에 學급社會의 풍토 조성에 決定的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의 하나인 教師의 언행, 태도의 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外的 權威의 棄擲

교사는 어린이 앞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내놓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과 같이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므로 不完全한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한다. 배우나 talent가 아무리 扮裝하거나 僞裝하거나 假面을 쓰더라도 관객은 그가 배우 아무개라고 결국은 알아맞춰버리는 것처럼, 교사가 분장하거나 위장하거나 가면을 썼다 하여도 어린이들은 그것을 쉽게 꿰뚫어 봐버리는 銳敏한 感受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장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것이 자신과 어린이들을 人間化하는 길이다.

그러나 學校社會에는 흔히 교사는 어린이들 앞에서 그 自身の 생각과, 감정을 되도록 솔직하게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통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教師가 어린이에게 人間的으로 대하면, 상투 꼭대기까지 기어오른다는 공포심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은 教師들이 無表情하고, 冷淡하고, 엄격한 가면을 쓰고 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야말로 타기할만한 權威主義的 態度가 아닐 수 없다.

權威란 「사람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르게 하는 방법에 따라 外的 權威와 內的 權威가 있다. 위와 같은 교사의 태도는 말할것도 없이 外的 권위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는 恐怖感과 不安感을 갖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忍從이며, 屈從인 것이지, 心服은 아닌 것이다. 이리므로 교사의 위와 같은 外的 權威 부림이야말로 學級の 社會的 風土를 防衛的 風土로 만드는 요인이 될 뿐이다.

따라서 교사는 모름지기 權威主義의 껍질을 未練없이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어린이와 함께 웃고, 괴로워해야 한다. A.S. Neill은 「가장 훌륭한 教師는 어린이와 함께 웃는 教師」이다⁸⁾라고 말하고 있다. 「教師는 어린이와 대등의 人間關係에 서서, 그러면서도 그가 해야 할 職責을 다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다.⁹⁾

(2) 支持的 表情과 寬容性

學級の 심리적 풍토를 허용적으로 가꿈에 있어, 교사의 지지적 표정과 관용성은 불가결의 요인이다.

어린이들은 발언이나 행동을 하고 즉시 교사의 표정을 본다. 무엇

보다 먼저 교사의 얼굴 표정에 자기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가벼운 눈웃음이나 눈살찌푸림 등의 의미를 어린이들은 예민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말은 사실과 달리 위장할 수도 있고 그것은 看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람의 표정은 위장하기가 어렵다. 요컨대 표정의 문제는 어떤 技巧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 개개인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의 문제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寬容性이다. 교사들은 흔히 「여러분 무엇이든 망서리지 말고 자유롭게 말하세요」「생각난 것은, 결과적으로 오답이 돼도 좋으니,躊躇하지 말고 발표하세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발문을 던져놓고 응답을 시켜보니, 기대하는 답이 아니다. 다음 아동, 그 다음 아동을 지명하여 발표시켜도 기대하는 답은 도무지 나오지를 않는다. 때로는 엉뚱한 응답만 연발이 된다. 이때 교사의 얼굴엔 자신도 모르게 실망의 빛이 스쳐간다. 이번엔 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명하였으나 역시 기대에 어긋난다. 그러면 無意識 중에 「저런! 저런!」「어허!」하다가 마침내 「저런

바보같이!」하는 말을 댄다.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 어린이들은 하나, 둘 입을 다물게 된다. 말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사느니보다 말을 안하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어린이들은 특히 學級社會에서 그 지위가 낮은 이른바 學習不振兒들은 지렛대로도 그 입을 열기가 어렵게 꼭꼭 다물어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授業時間이면 행여나 지명되거나 않을까 오만에 떨게 되는 것이다. 앞 사람 등 뒤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듯 움추리고 앉아 있는 어린이를 주의 깊은 觀察者는 흔히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그들이 學習不振兒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方途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발표력을 기르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학교나 교실을 들여다 보면 무슨 안을 만들어 訓練시킨다고 하고 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지반의 마련을 망각한 채 學習者 쪽만 훈련시켜 봤자 제대로 될 리 없는 것이다. 교사 자신의 自己訓練과 寬容性이 요구되는 소이라 할 것이다.

(3) 두터운 信賴感

교사의 指導性은 어린이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경시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된다. 교재를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든가, 수업의 기술이 훌륭해야 한다든가 하는 일이 指導性의 핵심듯이 생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에 아무리 잘 갖추어진 교사라도 어떤 이유로 어린이들로부터 信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指導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므로 어린이들의 교사에 대한 信賴感은 어떤 경우에 형성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생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다.」고 믿는 때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믿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日常的인 具體的 장면에서 형성되는 바, 그 주요한 장면은 어린이가 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뿐 아니라 소중하게 다루어 줄 때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眞摯하게 받아들여 자기 편에 서서 이해해 주고 있음을 실감할 때 형성되는 것이다.

(4) 認定感의 充足

어린이들에게 어떤때에 學校生活이 즐거운가를 물었을 때, 「自己的 생각이나, 한 일이 級友들이나 교사로부터 인정 받았을 때」라는 요지의 반응이 많다. 어린이들 뿐

8) 霜出靜志 譯, イルの教育,(東京:黎明書房, 1965)p.151.

9) 堀眞一郎外, 教育の名言,(東京:黎明書房, 1990) p.162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그의 능력을 타인으로부터, 특히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하는 집단속에서 중요한 構成員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사회적 욕구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 대하여는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급 사회를 허용적 풍토로 가꾸고자 할 때는 물론이며, 학급집단의 성원 모두가 잘 학습하는 학급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 인정의 원리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學習不振兒는 대체로 교사는 물론 학우들로부터 그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365일을 劣等感의 오한에 떨고 있는 바,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의 하나는 수업과정에서 그들의 생각을 살리는 일이다. 敷衍하면 비록 불완전하거나 틀린 생각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보완하고 다듬어 정답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밟음으로써, 첫째 옳은 답이 옳은 까닭을 분명히 알게 되며, 둘째 빠지기 쉬운 사고의 함정을 알려준 공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는 이른바 正答主義의 사고방식

에 사로잡혀, 정답 아닌 모든 생각을 무가치한 것으로 처리해 버림으로써, 인정감이 아닌 버림 받은 자로서의 例外意識이나 劣等意識을 심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분명히 정답 알아 맞추기 대회장은 아니다. 어린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온다. 그러므로 學習過程에서 틀린 생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곳에서 옳은 생각만이 나오기를 기대하거나, 그것만을 우대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된다.

不完全하거나 틀린 생각 모두를 完全學習을 이루는 소재로 소중히 살려 쓰고, 또 어린이들의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는 力量이야말로 프로교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이다.

(5) 管理的 發言의 最少化

대개의 학급에서 교사에 의해 여러가지 내용의 管理的인 발언이 되풀이 되고 있다. 예컨대 「입 다물어라!」「바르게 앉아라!」「어디를 보고 있어!」 등등이 그것이다. 짧게 한 마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상당히 길게 怒氣 騰騰 말이 이어지기도 한다. 교실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런 管理的 발언이 單位時間에 몇 번이나 행해지며,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의 單位時間에

대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 또 해당 아동은 물론, 여타 어린이에게 미치는 心理的 影響은 어떤 것일까? 寡聞한 탓으로 이에 대한 研究結果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짐작은 가는 일이다.

管理的 발언의 대상은 대개는 고정되어 있는 수가 많다. 이들은 어떤 欲求의 불만으로 心理的 均衡을 잃은 아동들이며, 그것을 回復하기 위해서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 받은 注意이므로, 관리적 발언의 효과는 일시적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관리적 발언의 역효과는 꼭 特定人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 留意해야 한다. 이는 마치 公害가 그리하듯이 不特定 多數兒에게도 미치며, 특히 학급에서의 社會的 單位가 낮은 아동들은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곧잘 언짢은 기분에 사로잡히고, 萎縮硬化되고 自己防衛的 緊張을 하게 된다. 이래서

관리적 발언이 多發되는 교실의 어린이들은 거기에 精神的 에너지가 소모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습이 순조로울 수 없음을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관리적 발언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最少化하도록 하고, 그 대신 긍정적인 면을 찾아되도록 많이 稱讚해 주어야 한다.

나. 教授-學習過程 面

(1) 고른 指名

指名 方法의 여하는 아동의 학습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때로는 學級集團의 心理的 指導의 색깔을 바꿔놓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지명이 몇몇 어린이에게 치우치는 경향이다. 어떤 학급에서 전후 7시간에 공한 수업에서의 지명상황을 관찰한 결과, 발언 회수 곧 지명된 회수는 표와 같았다.

발언회수	0	1~4	5~9	10~14	15~19	20~24	25~29	30~	계
아동수	11	16	8	4	2	1	0	2	44
비율	25.0	36.4	18.2	9.1	4.5	2.3	0	4.5	100

일곱 시간동안 끝내 한 번의 발언도 하지 않은 어린이는 11명(25%) 1~4회 발언자는 16명(34.6%)이다. 그리고 총계 268회의 발언중

특정의 11명(25%)의 발언이 204회로 전체의 76.1%를 점하고 있다. 즉 사실상 학급의 4분의 1의 아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됐으

며, 여타 대부분의 아동들은 무언 또는 몇 번의 발언으로 끝나고 있다. 이처럼 지명이 소수의 特定兒에게만 치우쳐졌는데, 특히 7시간의 수업을 통하여 한 마디의 발언도 하지 않은 25%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남들의 발표를 보고 듣고 하였을까? 이들은 일년을 통해서 과연 몇번이나 발언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指名이 학급집단을 학습에 참가하는 집단과 참가하지 않는 집단으로 양분하고, 學習意慾이 旺盛하고 학습하는 기쁨을 맛보는 집단과 학습의욕을 잃고 학습의 지루함을 맛보는 집단으로 나누어 놓는 구실을 한 것이다. 후자 집단의 아동들은 例外者로서의 疎外感을 累積해 가는 가운데 그들은 소속집단을 함께 생활하기에 쾌적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 갈 것이다. 지명이 학습성과에는 물론 학습 풍토에 대한 各自의 의식을 가꾸는데 있어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명을 고루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야 한다. 흔히 좌석표가 그려진 指名板을 마련하여 지명할 때마다 체크해가는 방법이 쓰이고 있으나 교사에게 부담스러운 방법이다. 필자가 勸獎하고자 하는 방법은 어린이 각자가

자신의 발언 회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거수하는 손가락 신호법이다. 어린이 각자가 당일의 첫째 시간부터 현사점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나 발언했는가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므로 한 눈으로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바위」는 아직 없었음을, 다섯 손가락을 편 「보」는 5회 이상을, 손가락을 한, 둘, 셋, 넷 편 것은 1, 2, 3, 4회 발언했음을 표시하는 方法으로 識別하기가 容易하다.

(2) 부드러운 말씨

授業중에 어린이들이 발표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들의 말씨가 학습의 사회적 풍토를 防衛的 내지는 공격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즉 상대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되는 발언을 한다든가 질문을 할 때 공격적, 도전적 말투로 대하는 것을 볼 때 그런 풍토에서 허용적 풍토의 싹이 틀 여지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격적 도전적인 말투는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여, 어떤 어린이에게는 激奮케 하여 그 보다 더 거친 말투로 응수하게 만들고, 어떤 어린이에게는 반대로 萎縮 硬化시켜 열등감을 갖게 만들어 응수조차 못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흔히 반대를 위한 반대, 고집을 위한 고집, 自己

防衛를 위한 詭辯을 늘어 놓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업풍경을 이대로 놓아둔 채 학력이 어떻고, 인성교육이 어떻고 논한다는 것은 한 날의 空論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서로가 상대를 부정하는 곳에서 전원이 生産的으로 참가하고, 柔軟하게 사고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緣木求魚格이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지양하기 위한 指導 方法의 하나로 그들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그들의 말투를 녹음하여 자신의 말투를 직접 들음으로써 자각하도록 한다. 그런 한편으로 말의 본을 마련하여 익히는 일도 効果的이다. 예컨대 반대하거나 상이한 생각을 말할 때 「나는 ○○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 생각과는 반대 됩니다만…… ○○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말끝을 「지……」와 같이 맺는 것도 듣기에 부드럽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感情的 刺戟을 주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知的 交流가 活潑하게 이루어짐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3) 不完全反應 및 誤反應의 處理

單位時間 중의 어린이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正反應보다는 불완전하거나 틀린반응이 훨씬 많은

것이 예사이다. 흔히는 발문에 있어서 일부의 學習者가 거수하고 지명된 아동이 발표한다. 이 때 不完全反應이나 誤反應이 나오면 다음 그 다음으로 지명하여 반응케 한다. 몇 사람이 오미트 된 끝에 정답이 나오면 반갑게 받아들여진다. 이 때 불완전 반응이나 오반응은 별로 掛念할 것도 없이 버려진다. 그러니까 不完全하거나 틀린 반응은 學習過程에서 생긴 쓰레기이거나 실패의 副產物로 간주하여 완전히 無價値한 것으로 處理돼 버린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응답이 불완전했거나 실패한 아동들은 실패자로서의 挫折感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정답만이 받아들여지고 그 밖의 생각은 버려지는 正答主義 하에서는 정답자만이 인정받으며, 불완전하게 또는 잘못 답한 아동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마저 낮게 認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불완전하고 틀린 답은 학습의 쓰레기이며, 失敗의 副產物이고, 無價値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적어도 학교 수업 장면에서의 不完全한 답 또는 오답은 정답과 다름없이 소중한 것이며, 價値있는 것이다. 비유컨대 그것은 투자하지 않고 얻은 값진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다. 물론 그것을 잘

살려 썼을 때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지 언제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리므로 여기에 不完全히거나 틀린 답을 살려 쓰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誤反應을 버리지 않고 이를 받아 板書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전원에게 제시한다. 어린이들은 이것을 받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應答者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 즉 전원이 함께 고치고, 보태고, 다듬는 과정을 통하여 정답으로 만들어 올림과 함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틀린 생각의 陷穽에 빠지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오답 또는 不完全한 답은 마치 하나의 建築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수많은 크고 작은 物資들과 같다. 거꾸집이며, 받침대며, 판자 조각 등등은 결과적으로 버려지나 그것이 없이는 아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받침대 판자 따위는 끝내는 버려지는 오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授業이란 결코 정답만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요, 정답을 찾아내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는 이른바 集團過程을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한다면, 오답이나 不完全한 반응은 버려지는 안될 소중한 資源으로 살려 쓰

여져야 하는 것이다.

다. 成員間의 相互關係 面

(1) 競爭 없는 相互關係

動機誘發이나 行動促求의 방법으로 흔히 쓰이고 있는 방법이 競爭이다. 그러나 그것은 學級의 許容的 風土의 조성을 크게 阻害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왜냐하면 競爭이 있는 장면에서는 언제나 勝者와 敗者가 있기 마련이요, 競爭에서 여러 차례의 失敗를 거듭한 者는 一般的으로 奮發보다는 挫折感을, 協調보다는 排他的인 태도가, 能力感 보다는 無力感이 형성되기 쉽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排他가 불러온 공격적인 상호관계로 의사 소통을 어렵게 만들어서 성원 상호간의 人間關係를 단절 시킬 위험이 높다. Deutsh, M¹⁰은 경쟁을 「個人이 서로 妨害的으로 依存한다는 의미로, 妨害的 相互依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學習者들에게는 이런 경쟁적 분위기와 경쟁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가 분발을 위한 刺戟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보다 많은 學習者들 특히 學習不振兒들에게는 動機를 誘發해 주기보다는 對人關係를 惡化시키고 더욱 깊은 열등감의 골

작이에 빠지게 하는 등 否定的 効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경쟁시키는 방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겠다.

어떤 일이든 그것의 本來의 목적인 일 그 自體에 興味와 關心을 갖도록 해야지, 경쟁이라는 수단을 濫用해서는 아니되겠다. 말할 것도 없이 경쟁은 어린이들에게 특히 뒤떨어지기 쉬운 그들에게 學級의 社會的 풍토를 어둡게 느끼게 하는 쪽에 더 많이 구실하기 때문이다.

(2) 公平한 處遇

어린이에게 있어 교사는 적어도 學校 內에서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교사로부터 信賴와 사랑을 받음으로서만이 마음의 安定을 기할 수 있으며, 學校生活이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教師에 대한 어린이의 이와 같은 기대 때문에 교사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公平하게 대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公평하게 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實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가 교사의 자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교사의 意思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公평하게 處遇한다 하여도 받아들여

는 어린이가 그것을 否定的으로 감지한다면 교사의 努力은 적어도 그 어린이에게는 徒勞가 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지만, 어린이들은 偏愛하는 교사를 가장 싫어 한다. 意識的으로 偏愛하는 교사가 있을 리 없지만, 어린이들은 無意識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사의 偏愛 行爲까지를 正確하게 看破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교사의 눈에서 그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授業參觀 시에 유심히 보면 교사의 눈이 어느 特定兒에게 또는 어느 한쪽으로 자주 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無意識 중에 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무의식적인 교사의 행위가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相對的으로 자기는 교사로부터 疎外된 例外者라는 뜻밖의 意識을 심어 줄 수도 있는 것이며, 이것이 學級集團의 支持的인 相互關係 형성의 阻害 요인이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하나하나의 어린이와 눈을 고루 맞추도록 意識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사는 機械도 聖人君子도 아니므로 일일이 그렇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가능한 한 방안으로 교실 안을 S자형 또는 Z자형으로 살펴보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3) 檢閱의 最少化

10) 蜂屋良彦, 「競爭」, 教育學大辭典(東京:第一法規, 1989), 第2卷, p.369.

어느 學級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檢閱을 한다. 전일에 제시했던 家庭學習課題의 검열, 아침자습 상황의 검열, 청결결과의 검열, 책상 속 정리 상태의 검열, 당번활동 상황의 검열 등등이 그것이다.

檢閱은 교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中學年 이상이면 대개는 어린이 상호간에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누구나 검열을 받을 때는 되도록 좋은 評價를 얻으려고 努力한다. 그리고 교사가 검열하든, 相互間에 하든 檢閱을 하는 자는 하자는 없는가, 거짓은 없는가, 속임수는 없는가 눈알을 크게 굴리며 不信의 눈으로 들여다 본다. 반대로 檢閱을 당하는 자는 되도록 하나의 欠點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때로는 속임수도 쓰고, 적당히 위장하기도 하는 등의 自己防衛의 行爲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는 信賴와 友情이 싹틀 여지가 없으며, 상호의 불신이 조장되고 방위적 내지는 공격적 風土가 조성될 뿐이다. 따라서 檢閱을 最少化하고, 어린이들이 자신의 行動 結果에 對하여 자신이 검열하도록 하는 이른바 自己檢閱法을 訓練시켜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선 당면한 일을 어느 정도로 遂行하였을 때 제대로 했다고 受諾될 수 있는지의 이른바 受諾基準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그 達成度를 스스로 검열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4) 階層形成의 豫防

어느 學級에서나 흔히 班長, 副班長, 會長, 副會長, 分團長, 副分團長 등등 상층그룹과 그 밖의 하층그룹으로 계층이 형성돼 있다. 오랫동안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것이 있어 왔는데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다. 상층의 어린이들은 교사의 대행 내지는 補助者의 역할을 함으로써 상하의 양 계층이 형성되고 이것은 그대로 學級에서의 社會的地位로 고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關係狀況 속에서 성원의 相互關係가 허용적 지지적으로 형성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들이 한 가지씩의 일을 나누어 맡아 스스로의 責任 하에 구현하는 一人一役制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럼으로써 생길지도 모르는 主從의 關係, 命令·服從關係의 형성을 예방하고, 성원 相互間의 羈帶關係를 조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각 學級에 흔히 있는 각종의 長의 존재는 아무래도 許容的 풍토보다 防衛的 風土 조성에 더 많이 貢獻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이는 지양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에서 學級 社會의 허용적 풍토 조성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야기

를 하였지만, 몇 마디 부연함으로써 이 章을 맺기로 한다.

失敗의 研究(Study of failure)¹¹⁾에서는 授業을 실패케 하는 세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그 첫째는 어린이들의 이지러진 人間關係, 그 둘째는 施設 설비의 불비 그 세째는 교사의 人性의 어떤 欠陷이다. 즉 授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곧 모두가 共通必須의 必要最小限의 內용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澁滯要因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朴商浩는 「安定感의 保障만이 학력이나 능력을 증진시키는 唯一의 方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學級 內에서의 安定感이란 學級集團 성원들의 따뜻한 相互作用 關係 속에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가 공히 學級 內의 人間關係를 학력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관하여 Moustaks의 말을 덧붙이면 그도 「學習의 效果를 가장 높일 수 있는 학습분위기는 어느 다른 요인에서보다 人間關係에 의하여 造成되는 것」¹²⁾이라고 말하고 있다.

本論이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교사를 포함한 學

級集團 성원들의 人間關係에 대한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人間關係의 질을 결정하는 學級社會의 風土야말로 授業을 성공시키고 학력을 증진시킴에 있어, 不可缺의 必要조건이 된다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一般적으로 學習不振兒가 과다한 現狀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의 개선이 그 주요 方略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 學級社會의 人間關係 곧 社會적 풍토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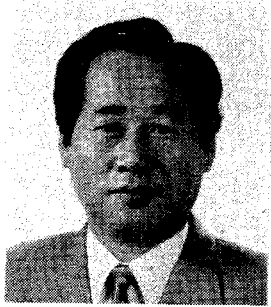
그 동안 많은 시간, 정력, 돈을 학습 부진아 구제를 위해 투입했지만, 실효를 견지 못한 이유가那邊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온통 學級의 社會的 風土를 경시한 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과 무관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學級の 社會的 風土 그것은 실로 어린이들의 학력을 기르는 土壤이요, 人性을 기르는 基盤인 것이다. 소박한 농부도 다 알고 있는 「作物以前에 土壤을」이라는 이 원리를 교육을 맡은 모든 사람들 특히 學級教師들과 함께 새롭게 吟味해 보고자 함이 이 글의 目的이었다.

11) 宮田丈夫, 「學級經營」, 教育學大辭典(東京: 第一法規, 1978), 第1卷, p.337

12) 朴容憲, 前揭書, p.117

障 碍 人 的 理 解 和 人 性 教 育



郭 英 安

(全南教育廳 獎學官)

I. 머리글

지난 10월 23일, 수원시내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聽覺障 碍兒가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잘못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 어린이는 特 殊學校에 다니다가 綜 合教育을 받기 위해 一般 初等學校로 전학하였었는데, 그동안 級友들의 따돌림과 蔑視, 그리고 심한 놀림과 괴롭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세상이 무섭다는 잘못된 遺書를 남긴채 13년의 짧은 삶을 마감한 것이다.

우리는 이 어린 障 碍少女의 죽음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자기의 障 碍에 대한 苦痛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도 하겠

지만, 오죽 했으면 목숨까지 버려야 했겠는가.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간 것은 障 碍人에 대한 理 解不足과 否定的 態度, 그리고 偏見의 높은 벽을 허물지 못한 이 社 會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社 會 構成員 모두가 어린 生命을 잃게 하는 데 방조한 공범자일 수 있다.

오늘날에는, 障 碍人도 엄연한 人 間이게 때문에 이 社 會에서 一般 人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社 會統 合(Social integration)이 基 本的이고 普 遍的인 價 值로서 강조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障 碍를 가졌건 갖지 않았건 어디서나 누구하고나 이웃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權 利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障 碍人들은 一般 人들처럼 완전한 權 利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障 碍人에 대한 일반인들의 理 解가 부족하고 偏見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障 碍人의 完 全한 社 會統 合과 社 會參 與를 위하여 障 碍人 理 解 教育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人 性教育과의 關 聯性을 분석함으로써 그 教育的 基 礎를 마련하고자 하며, 障 碍人 理 解 教育을 活 性化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實 踐方向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障 碍와 障 碍人 理 解 教育

1. 障 碍의 概 念

‘障 碍’란 무엇인가? 우선 障 碍의 概 念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障 碍(handicap)를 다음과 같이 定 義하고 있다.(대한 특수교육학회 1993)

장애란 基 本的, 知的, 情 緒的, 言 語的 등 어느 영역에서 일정한 缺 陷이나 偏 差로 인해 한 社 會가 요구하는 보 通의 成 就水 準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장애의 개념에는 ① 量 的인 기준이 되는 平 均에서 이탈된 偏 差的 基 準 ② 心 身의 生 理的 機 能面에서 설정하는 病 理的 基 準 ③ 한 社 會를 지배하는 社 會 統

念, 常 識, 價 值 등에 두는 社 會的 價 值 基 準이 기본적인 준거로 포함 되어 있다.

이와 함께 Freidson은 社 會心 理 學的 입장에서 「障 碍란 남들과 다 른 점으로 不 利한 條 件이거나 바람 직하지 못한 特 性을 지닌다.」고 정 의하고 있다. 또 障 碍에 대하여 社 會學的 理 解와 心 理學的 立 場을 통 합하여 설명하고 있는 Meyerson 은 障 碍란 한 개인에게 客 觀的인 事 實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社 會的 價 值判 斷에 의하여 필요에 따 라 規 定되어지는 것으로, 어떤 사 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事 實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건 없건 간에 社 會的으로 不 利한 制 裁를 가 하게 되는 條 件이라 규정하고 있 다.

Bartel과 Guskin은, 社 會가 障 碍人을 특별히 淸 給하고, 또 그 사 람들을 社 會의 ‘문 제 거 리’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장애 인을 특별히 淸 給하지 않고 문 제 거 리로 여기지 않으면 장애인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障 碍」는 絶 對的인 客 觀的인 基 準에 의하여 규정되 는 것이 아니고 相 對的인 基 準에 의존하기 때문에 社 會에 따라, 時 代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特性에서 보통사람들보다 심하게 偏向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볼 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正常人이라고 지칭할 수 없는 것이다. 또 障礙人들이 存在해 있다는 사실은 社會的 問題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人間의 힘으로 解決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므로 社會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障礙人을 위한 社會的 對策을 講究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障礙人에 대한 態度

一般人들은 障礙人을 어떻게 대하는가? 障礙人들은 일반인들로부터 拒否되고 否定的 態度 속에서 살아왔다. 社會의 偏見과 沒理解로 말미암아 人間의 基本的인 權利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도 一般인과 똑같은 고귀한 生命體로 태어났으나 다만 障礙人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소위 正常人이라는 사람들로부터 人間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疎外와 蔑視, 그리고 虐待까지 받으며 社會의 統合을 방해받아 물위의 기름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Siller는 一般인이 障礙人을 대할 때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의 否定的 反應이나 態度를 보인다고 한다.

첫째, 일반인이 障礙人을 대할 때 대부분 緊張感이나 不安感을 느낀다. 障礙人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맹인, 농아, 장애인 등의 말조차 쓰기를 꺼리고 괜히 障礙人을 두려워한다.

둘째, 親交의 拒否로 장애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고, 장애인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태도이다.

셋째는, 一般화된 拒否로 장애인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으면서 分離教育을 주장하거나 일반학교 입학이나 고용을 거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拒否하거나 否定的인 태도를 취한다.

넷째, 장애인에 대해서 人間 平等이나 尊嚴性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생각에 의하여 장애인을 돕고 교육하는 것을 美德으로 여기며 동정과 연민을 갖고 施惠的인 태도를 취한다.

다섯째는, 장애인은 누구나 異常性格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의 조그마한 실수에도 과잉반응을 보이고 평상시에는 방어적이거나 억압적인 태도를 취한다.

여섯째, 罪와 障礙를 同一視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장애인을 보면 자신

의 약점이나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자신도 저렇게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일곱째, 장애인은 無能하기 때문에 이 사회인으로서 役割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自立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教育的 可能性을 믿지 않으므로 否定的인 特殊教育觀을 갖는다.

3. 障礙人 理解 教育과 人性教育 과의 關係

왜 일반인들은 장애인을 拒否하고 否定的 態度를 취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障礙人에 대한 理解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障礙人이 人間으로서 尊嚴性을 인정받으며, 人間的 權利를 만족스럽게 保障받고, 이 社會에 바람직하게 參與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障礙人에 대한 一般人的 理解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理解를 增進하는 일은 장애인을 수용하고 社會의 構成員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基本的이고 核心的인 활동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障礙人에 대한 理解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社會的 啓導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교교육에서의 體系的인 障礙人 理

解教育인 것이다.

障礙人 理解 教育은 人間에 대한 絶對的 價値를 형성한다. 장애인에게도 人間으로서의 尊嚴性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基本的人權을 유린당함이 없이 일반인들처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認識시킬 수 있는 것이 障礙人 理解 教育이다. 아무리 障礙가 심하고 能力이 부족할지라도 高貴한 生命을 가진 人間으로 대접받아야 하며, 人間으로서 갖는 基本的人權을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것을 장애인의 이해를 통해서 깊이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人間의 尊嚴性과 人權은 사람이 갖는 어떤 條件에 따라서도 制限받지 않는 無差別 平等性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우주 전체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성경의 한 귀절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障礙 때문에 가벼워질 수도 없다. 이러한 價値觀에 더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人權이 보장되어야 하며 ‘나’와 마찬가지로 귀중한 ‘남’들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는 人本主義的 人間觀이 장애인 이해교육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障礙人 理解 教育은 社會共同體

倫理 意識을 提高한다.

人間은 본성적으로 社會的 存在이다. 그리고 인간은 共同體라고 부르는 사회속에서 살아간다. 共同體는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集團이다. 이 공동체 속에서 他人의 存在에 대한 깨달음을 넓혀가는 과정을 社會化(Soci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社會化 過程에서 갖게 되는 共同體 意識은 그 사회가 존속하고 발전하는 데 關鍵이 된다.

장애인도 社會의 構成員이다. 이 共同體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障礙人도 나와 같은 귀중한 他人이며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人生의 참모습임을 알고 나 자신의 보람이며 행복한 삶을 實現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障礙人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方法을 스스로 익혀가고 또한 장애인과 相互作用하는 技法을 알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의 質을 높이는 성숙된 共同體 倫理意識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Ⅲ. 障礙人 理解教育의 方向

1. 障礙人 理解 教育의 目標

김승국(1995)은 각급 학교에서 도덕과나 윤리과에 '사회복지와 장

애인복지'에 대한 단원을 삽입하여 장애인 이해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청소년들이 障礙人을 이해하고 受容하는 態度를 갖는다고 하였다.

障礙人 理解 教育과 같은 맥락에서 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아와 더불어 마음나누기'의 推進 目的을, 특수학교(급) 학생과 일반 정상 학생들과의 融化的 機會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하고 협조, 봉사하는 '마음의 教育'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共同體 構成員으로서 基本態度를 형성하고 統合教育의 心理的 條件을 조성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障礙人 理解 教育의 일반적 目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윤리의식을 높인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별 教育目標은 학생들의 발달수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목표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障礙人 理解 教育의 內容

이러한 障礙人 理解 教育의 目標을 도달하는 데 필요한 教育 內容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대체적으로 ① 障礙 및 障礙人 자

체의 特性에 대한 理解 ② 障礙人에 대한 올바른 態度 形成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이해 교육의 내용

- ① 장애 및 장애인 자체의 특성 이해하기
 - 장애인의 구분과 장애상태
 - 장애인의 발생과 예방
 - 장애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 장애인의 능력과 가능성
 - 장애극복에 대한 노력
- ②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고 실천하기
 - 어려운 처지 : 이해하기
 -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기
 - 인격과 권리 존중하기
 - 친절히 대하고 양보하는 마음 갖기
 - 함께 어울려 생활하기
 - 서로 돕고 봉사하기

일반 학생이 障礙人을 수용하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障礙와 障礙人 자체에 대한 特性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도의 狀態가 장애이며 장애인은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區分되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장애인은 왜 發生해야 하며 어떻게 豫防할 수 있는가도 살펴야 한다. 어떤 장애는 先天性으로 부모로부터 遺傳되며,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었거나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몸쓸 장애를 입었다는 등의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어떠한 心理的 特性을 가지며 어떠한 行動을 하게 되는가도 알아야 장애인과 非障礙人 서로의 關係를 개선할 수 있다. 장애인은 과연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無能力者인가, 또는 어느 정도의 能力을 가졌으며 어느 程度까지 成就가 가능한가 등 장애인의 能力과 可能性을 알아야 하며 非障礙人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 아울러 障礙를 克服하고 일반인도 成就하기 어려운 훌륭한 業績을 쌓아 올린 장애인들의 障礙克服과 自我實現의 성공사례등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문제로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障礙人 자체의 特性을 이해시키는 교육은 결국 일반 학생

들에게 올바른 障礙人觀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意義가 있다. 지금까지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眼目을 길러야 이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며 올바른 장애인관을 갖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人間과 障礙人에 대한 기본적인 信念과 認識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장애와 장애인 자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러한 信念과 認識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

- 한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 독특한 것이다.
-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각 다른 차이가 있다.
- 모든 사람은 뛰어난 점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점이 있다.
- 장애는 장애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다.
- 장애는 결코 나쁜 것으로 인식되거나 죄악시할 수 없다.
-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평등하다.

장애인 理解 教育의 內容 중 또 하나의 핵심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態度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行動化이다. 아무리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障礙人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면 障礙人 理解 教育의 成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지도내용에 관련된 生活 規範 즉 상대방 처지의 理解,

公平, 人格과 權益의 尊重, 親切, 양보, 협동과 봉사, 수용, 관용 등을 충실하게 지도할 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형성되고 행동화될 것이다. 現行 學校 教育課程에 장애인 이해교육의 內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표1>과 같이 아주 미미한 정도이다.

<표1> 장애인 이해 및 수용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초등) 바른생활

영역 \ 학년	1	2
① 개인 생활		•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해보기
② 가정·이웃생활	• 이웃 사람들에게 예절바르게 행동하기	•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삼가기
③ 학교생활	• 친구를 이해하고, 사이 좋게 지내기	•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가지기
④ 사회생활	• 힘든 일 함께 하기	• 어려운 이웃 돕기

도 덕

영역 \ 학년	3	4	5	6
(1) 개인생활			• 자신의 생활계획과 반성	• 옳은 신념과 꾸준한 실천
(2) 가정·이웃·학교생활	• 친구를 아끼고 믿는 마음	•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	• 이웃간에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 • 친절할 마음과 양보하는 마음 •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	• 사랑과 자비의 마음
(3) 사회생활	• 봉사하는 마음 • 사람 차별하지 않기 •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기	• 다른 사람의 이익 존중 • 건전한 경쟁과 협동	•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초·중학교 전 교과목의 教育課程에 과 내용으로 선정된 것은 단 한건서 장애인 이해 교육의 내용을 교도 없고, 다만 바른생활, 도덕에 위

표에서 밝힌바와 같은 장애인 이해 교육의 내용과 포괄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이고 장애인 特性的 理解와 관련된 내용은 어느 教科에도 선정되어 있

지 않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教科書에 障礙人에 관련된 內容이 다음 <표2>와 같이 수록되어 있어 이와 관련지어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의 교과서 수록 상황(초등)

학년 학기	교과서명	단 원	쪽수	구분	내 용
3-2	도 덕	6. 모두가 소중한 사람	68~72	예화	•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 • 사람을 소중히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3~74	삽화	• 장애인 표시 문양 • 장애인 체육대회
4-2	국어읽기	13. 책을 읽고	105 106	본문 보기글	•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 '베토벤'을 읽고
	사회과 탐구	1.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 사랑의 집을 찾아서	14	본문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내용
5-2	도 덕	4. 더불어 사는 사회	66 101	삽화 "	• 청각장애아들의 언어훈련 장면 • 장애인 운동경기 장면
	국어읽기	5. 월광곡	40~50	본문	• 베토벤과 눈먼 소녀와의 일화
	국어쓰기	7. 순서 잡아쓰기	46~48	"	•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대한 개요
6-1	도 덕	3. 최선을 다하는 기쁨	40~45	예화	•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 사례
		6. 서로 돕는 사회	78~83	"	• 학교가는 길 지체부자유아와 시각장애아가 협력하여 길을 간다는 옛날 이야기

학년 학기	교과서명	단 원	쪽수	구분	내 용
6-2	도 덕	1. 나에게 알맞은 일 • 자신의 길	17	예화	• 안젤센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
		6. 봉사하는 마음 • 작은 행동에 담긴 큰 뜻	92~93	예화	• 꽃동네 오홍진 신부의 이야기
	생활의 길잡이	18. 사랑의 자동차 이야기	97~100	"	• 장애학생을 날마다 택시에 태워 등교시키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이야기
	국어읽기	9. 곰두리의 행진	82~86	본문	•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한 설명

※ 3·4학년은 제6차 교육과정, 5·6학년은 제5차 교육과정

3. 障礙人 理解 教育의 方法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障礙人 理解 教育은 人性教育의 한 분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더욱이 障礙人과 非障礙人 간의 對人關係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社會的 삶을 위한 道德教育이요 價値教育으로 강조된다.

따라서 障礙人 理解 教育 역시 人性教育의 方法으로 接近하는 것이 마땅하다. 人性教育은 知·情·意를 중심으로 하는 心性教育이고 價値와 道德性을 함양하는 教育이라 볼 때 그 방법도 知·情·意·行까지 포함된 綜合的이고 統合的인 방향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들이 많다.

장애인 이해 교육의 방법으로서 우선 착수할 것은 教育課程 運營計劃을 작성하는 일이다. 장애인 이해 교육을 학교 교육의 어느 領域과 어느 場面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計劃을 학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教育課程과 教科書의 단원과 제재에 이미 선정, 수록되어 있는 장애인 이해 교육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合理的으로 再構成함으로써 부족한 이해 교육의 내용을 보충, 확대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障礙나 障礙人 자체의 特性을 理解하는 內容은 자연(과학), 체육에서 관련지

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에 관한 내용은 도덕, 사회, 국어 등에서 關聯指導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再構成함이 없이 그대로 指導하되, 보다 체계적인 지도를 위하여 學校 裁量時間에 關聯 主題를 설정하여 지도하거나 學校 行事活動으로 마련하여 지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具體的인 指導方法으로서 訓話와 명상, 協議 또는 論議活動, 時事 契機教育, 관련 圖書 읽기, 장애인 체험활동 등을 들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效率的인 方法은 장애인 학생과 함께 실제로 생활하는 統合活動이다.

이 統合活動은 장애인의 統合教育을 할 수 있으며, 실제 狀況에서 體驗하고 行動할 수 있기 때문에 意圖的이고 體系的인 지도를 할 수 있다.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 학생의 희망에 따라 비장애 일반 학생과 함께 생활하도록 일반학급에 編成하거나, 特殊學級에 현성하였더라도 原籍學級과의 交流를 확대하여 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非障礙學生은 障礙人의 特性을 이해하고 올바른 態度로 그들을 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方法을 익혀가도록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相互作用을 증

진시키는 일이다. 이들의 相互作用을 증진시키는 方案으로 同僚相互作用模型(김삼섭 1995)을 들 수 있는데, ①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의 수업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同僚 教師模型 ② 일상생활에서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에게 자원봉사하는 同僚自願奉仕者 模型 ③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에 깊은 우정을 나누는 特別친구模型 ④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에게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反對役割 教師模型 등 4개 수준으로 이러한 關係가 形成된다면 人間味가 넘치는 아름다운 教室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다.

IV. 맺음 글

장애인은 社會가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 社會가 通念的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障礙人으로 分類되기도 하고 非障礙人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否定的 態度로 대하고 그들을 疎外새킨다. 障礙人을 몇몇한 人間으로 대우하고, 社會 共同體의 構成員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비장애인의 義務이다.

이러한 態度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理解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서는 보다 活性

化되어야 한다.

障礙人 理解 教育, 그것은 人間 本性을 回復하는 人間教育이요, 心性教育이며 삶의 共同體를 이루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方法을 배우는 道德性 教育으로서 人性教育의 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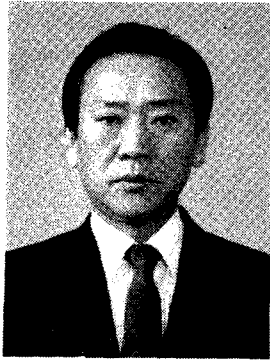
心的인 分野일 수 밖에 없다. 이 장애인 이해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人性教育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障礙少女의 自殺 같은 悲劇이 이 社會에서 사라질 것이다.

<參考文獻>

대한특수교육학회(편), 特殊教育用語辭典,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1993.
이태영(편), 特殊兒童의 心理,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1987.
정영근, 인간과 교육의 이해, 서울: 문음사, 1995.
장애인재활연구소(편),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의 시행·평가, 서울: 장애인재활연구소, 1992.
대한특수교육학회, 특수교육학회지, 제16집 제2호, 1995. 6.

기대없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실한 사랑을 안다. <실러>

基本 生活 習慣 形成과 共同體意識 涵養을 爲한 人性 教育의 實際



裴 錫 淳

(麗水麗文初等學校長)

1. 머리말

학교 교육에서 입시 위주의 주지 교과 학습과 성적 중심의 획일적 교육과정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을 무시하고 인격 함양에 소홀하게 하였다.

지난해 5월31일 발표한 교육 개혁안은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여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일대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성 교육의 강화를 천명하고 그 필요성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인성 교육은 학교, 정부, 가정,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둘째,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고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과

셋째, 지식 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또한, 장학자료 103호 「더불어 사는 사람」 발간사에서 전 교육부장관 김숙희는 인성 교육의 목적이 우리 민족의 긍지며,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적 생활태도를 길러주는 인간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성 교육은 감수성이 강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하여 도덕적 규범이나 정의적 특성의 원형을 이루면서 인격 형성의 대부분이 완성되어 간다는 교육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때 올바른 품성과

기본 생활 태도를 내면화시키는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시대적 배경과 교육적 요청에 따라, 본교는 1996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2년간 교육부 지정 인성 교육 자율 시범 학교로서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7개월에 걸쳐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례들을 약술하고자 한다.

II. 본교의 실태

본교는 여수시 중심권에서 벗어나 신도시에 자리잡고 있어 주변에는 여수시청을 비롯하여 관공서가 많고 재학생의 80%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부모의 학력 수준은 90%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며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4,192㎡의 좁은 부지 위에 급당 40명이 넘는 39개 학급 1,600여명의 어린이와 50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어 대규모 다인수 학급의 학교이다.

이러한 학교 여건 속에서 인성 교육 실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교사면, 아동면, 시설면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면

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성적 위주의 학습 방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 운영이 구티(획일적)를 벗지 못하고 있다.

나. 인성 교육을 막연하게 인간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영역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인 지도 방법이 미숙하다.

2. 아동면

가. 아동 개개인의 용모는 단정하고 고운말을 사용하지만 어떤 행동이 바른 행동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여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학부형 대다수가 핵가족을 이루고 있어 아동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고조되어 있다.

다. 전입, 전퇴 아동이 많아 학교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라. 다인수 학생으로 학급이 편성되어 급우간에 친밀함과 신뢰감이 조성되지 않았다.

3. 시설면

가. 학습공간과 생활공간이 협소하다.

나. 특별 교실이 적고 잉여 교실이 없으며, 개별학습 및 실험학습

을 위한 시설, 설비, 교구, 교재 자료가 부족하다.

다. 정서, 질서, 예절 교육 여건이 불비하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본교의 실정에 맞는 인성 교육 시범 학교를 추진하기 위해 인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여 실천하였다.

Ⅲ. 인성과 인성 교육의 방향

먼저 인성의 개념을 정립해 보고 본교가 추진하는 인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1. 인성의 개념

인성(personality)이란 교육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었으나 본교 실정에 맞는 문헌을 선정하여 본 내용으로 박제오(1994)는 「학교 교육 체제에서의 인성 지도 방안」이란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인간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정신적 신체적 통합으로서 역동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1994)에서는 '덕성을 바탕으로 교양과 능력을 겸비하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인성 교육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인

간의 정신과 신체를 통합해서 변화하는 체제와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지성과 덕성 및 체력을 조화롭게 갖춘 이상적인 인간의 성격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언행을 습관화 할 수 있는 개개인의 됄됨이'를 인성의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2. 인성 교육의 방향

자율적인 인성 교육 시범 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립된 인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실천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전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가. 실천내용

한국교육개발원(1994)에서는 덕성을 바탕으로 교양과 능력을 겸비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대표적으로 논의된 인간 교육 관련 영역과 덕목을

- (1) 기본 생활 습관(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과 위생, 근검 절약등)
- (2) 자아 확립(정직, 근면, 성실, 가치관 등)
- (3) 효도와 경애(기본 예절, 효도, 경애 등)

의감)으로 선별하였다.

나. 실천 방향

먼저 교육부가(1995) 「열린 사회 열린 교육 우리 학교 달라져야 합니다.」에서 제시한 인성 교육 개선 방향을 살펴 보면

- (1) 도덕 윤리 교과 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등 전교과를 통해 인성 교육 실천
- (2) 지식을 통한 도덕 윤리 교육 뿐만 아니라 대화, 토론, 상담, 봉사 활동등의 실천적 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 실시
- (3) 학교 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 도덕 윤리 교육이 구현되도록 학교 교육 운영
- (4)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요청되는 인성 교육 실시를 정보 윤리, 환경 윤리, 평화 애호와 인류애의 정신에 관한 내용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96 교육부 지정 인성 교육 자율 시범학교 운영 방침에는
 - (1) 교육 과정을 통한 열린 학습지도
 - (2) 사고력, 창의력 신장을 통한 바른 인성 정착
 - (3) 건전한 심성을 기르고 예절 바르고 도덕적인 인간 육성
 - (4)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 민주 시민 윤리의 내면화를 추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인성 교육 자율시범학교 운영에서는

(4) 공동체 의식(질서, 공공 규칙 준수, 협동, 준법, 타인 존중, 책임, 봉사, 정의감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995년도 교육부가 발간한 「열린 사회 열린 교육, 우리 학교 달라져야 합니다.」에서는 인성 교육 개선 방향에서 학교급별에 따른 인성 교육 실시를

- (1) 유치원부터 초등 3년 : 예절, 기초 질서(교통 질서), 공동체 의식 교육 강화 등
- (2) 초등 4년 부터 중학교 : 민주 시민 교육(인간 교육, 공공법 질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등) 강화
- (3) 고등학교 : 세계 시민 교육(타 문화의 올바른 이해, 평화 교육, 외국 여행 에티켓 등)강화를 구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본교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와 본교 아동들이 평소 행동하는 습관 중 바르지 못한 행동 영역을 바른 행동으로 교정할 점이 많은 2개 영역과 실천 덕목을 선정 인성 교육을 실천하였다. 선정된 영역과 세부 추진 덕목은

- (1) 기본 생활 습관(규칙적인 생활, 기본 예절, 정리 정돈, 청결과 위생, 근검 절약)
- (2) 공동체 의식(질서, 공공 규칙 준수, 협동, 준법, 인간 존중, 합리적인 의사 결정, 책임, 봉사, 정

전 교육 과정을 통한 열린 학습 방법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장환근(1996)은 「인성 교육을 통한 교육 개혁」이란 논문에서 열린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이 다양한 흥미, 소질, 관심, 필요, 능력을 존중하는 교육의 개별화 개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도 열린 학습이 가능할 때 인성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린 교육은 열린 학습 내지는 열린 수업이 가능할 때 인성 교육의 효율화도 가능하리라고 전제하고 수업의 특징으로는 학습의 주체를 학습자 개개인으로 보며 그들의 자율적, 주체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며 학습자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학습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교육 전담 6월호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열린 학습을 실천할 만큼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 둔다. 문제점에서 밝혔듯이 교사들은 열린 학습을 전 교육 과정에 침투시키기에는 제반 이론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 면에서는 특별 교실이 적고 잉여 교실이 없으며 개별학습 및 실험 학습을 위한 시설, 설비, 교구, 교재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다인수 학생을 수용하는 교실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짧은 기간에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본교 나름대로 자율 시범 학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6 교육부 지정 인성 교육 자율 시범 학교 운영 방침에 준하여 실천하되,

- (1) 부분적 교육 과정을 통한 열린 학습 지도
- (2) 사고력 창의력 신장을 위한 특별 활동 강화
- (3) 건전한 심성을 기르고 예절 바르고 도덕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도덕 교육 강화
- (4)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 민주 시민 윤리의 내면화를 위해 체험 학습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 방법으로는 기본 생활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실천하기 위해 본교 어린이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 (1) 학습 여건을 조성하고
- (2) 전 교육 과정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전 교육 과정을 분석
 - (가) 교과 지도에서는 열린 학습과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 (나) 특별 활동에서는 아동들의 흥미와 특기를 살리는 열린 학습을 실시하고
- (3) 체험 학습 실천 방법으로 교내에서는 노작과 놀이 체육 활동

을 위주로 하는 노작 놀이 학습과 현장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깨우치는 행동을 실천하는 현장 학습을 실시하며

- (4) 심화 학습으로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 학년별 학급별로 실천하게 하고
- (5) 인성 교육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상 계획을 세워 전 아동을 대상으로 수여받도록 하였다.

IV. 인성 교육 지도를 위한 연계 지도 과정안 구안

1. 인성 교육 실천 프로그램 구안

본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통한 설문지 집계와 4-6학년까지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교정할 점이 많은 주제와 교육부가(1995) 발간한 「더불어 사는 사람」 장학 자료에서 선별하여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영역에서 5개 덕목 37개 지도 요소와 공동체 의식 함양 영역에서는 4개 덕목과 20개의 지도 요소를 본교 인성 교육 기획 위원회에서 확정지어 전학년 학급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구안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기본생활습관형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여수여문초등학교

지도 영역	지도 덕목	지 도 요 소	프로그램명 (관련기호)
1. 기본 생활 습관 형성	1) 규칙적인 생활	① 계획을 세워 일하기	1-1-1
		②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1-1-2
		③ 학교에서 하는 일	1-1-3
		④ 학교에 다녀와서 하는 일	1-1-4
		⑤ 잠자기전에 하는 일	1-1-5
		⑥ 규칙적인 생활 습관	1-1-6
	2) 정리 정돈	① 자기방 정리하기	1-2-1
		② 책상 정리하기	1-2-2
		③ 이불과 옷정리하기	1-2-3
		④ 사진첩 정리하기	1-2-4
		⑤ 학습도구 정리하기	1-2-5
		⑥ 신발 정리하기	1-2-6

3. 학습 지도 과정안 구안

교육 과정 분석표에 의거 인성 교육 학습 과정안을 구안 작성하여 본시 학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학년 별로 작성하고 카드화 하여 일정한 곳에 비치하고 사용토록 하였다.

V. 인성 교육을 위한 학습 여건 조성

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프로그램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관점에 따라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 제작 구입하여 실제 인성 교육 지도에 활용토록 하였다.

가. 자료의 수집 제작 구입의 절차

- (1) 지도에 필요한 자료 추출
- (2) 자료 수집 제작 구입 관점 제시
- (3) 자료 수집 제작 구입 실시
- (4) 자료의 검토 및 분석

나. 자료의 수집 제작 구입의 관점

- (1) 지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선정
- (2) 상황 요소와 지도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자료 제작
- (3)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자료
- (4) 기존 개발된 자료들을 재편집하여 재구성하는데 중점을 둔

다.

이와 같은 절차와 관점에 의해서 기존 자료를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필요한 실물이나 모형, 녹음, 녹화 TP자료 등을 자료 분과 위원회에서 확충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2. 복도와 교실 환경 구성

복도 환경 정비로는 아동들이 정서적인 생활을 하려면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있고 조화미가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환경이 구성되어야 마음적 강화를 받고 생동감있게 활동하리라는 가설을 세우고 아동들이 통행하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전 프로그램을 파일 자료로 만들어 평상시에는 벽면에 부착시키고 학습 시간에는 학습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용으로 57개 판을 제작하였다. 파일 구성의 실제로는 앞면에는 프로그램명 삽화와 행동 방법을 글로 써서 구성하였는데 삽화는 아동들과 친근감을 갖기 위해 본교 아동들을 선별하여 사진 자료로 부착하였으며 뒷면에는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할 문제, 지도 자료를 글로 쓰고 각반에서 활용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 카드를

부착하였다. 또한 교실 환경 구성으로는 교실 코너별로 아동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 설치하였으며 아동들이 평소 생각하고 그리고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진열 아동들이 서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급별로 1학급 1특수 시책 인성 교육 추진판을 설정하여 매월 실천되는 누적물을 교실 곳곳에 비치하여 자주 아동들이 접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 권장하는 학급 신문 가족 신문등을 전학급이 만들어 게시하고 있어 전학생이 참여하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대식 교수 매체를 보급할 목적으로 '96 도지정 표준화 학교 가꾸기를 추진 중에 있어 10월 이후에는 알찬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에 있다.

VI. 인성 교육 지도의 실제

'96 교육부 지정 인성 교육 자율 시범학교 방침에 의거 실제로 지도했던 교과 지도, 특별 활동, 생활 지도, 체험 학습 순으로 지도의 실천 사례를 제시해 본다.

1. 교과 지도

교과 지도는 특별히 인성 교육

시간을 설정하여 지도하는 시간은 없었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원 지도는 이미 구안된 학습 지도안에 의해 도덕적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전개하였다. 도덕적 교육의 강조 차원에서는 알기, 느끼기, 의욕 갖기 그리고 행동하기를 균형있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따뜻한 정이 넘친 모범을 보여 주고 아동들에게는 도덕적 공동체를 만들어 도덕적 훈련을 실행하기 위해서 협동으로 보다 나은 바른 행동 습관을 길러 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천하게 했으며, 평상시에는 기초 학력 정착을 시키는데 읽기, 짓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과 기초 학력을 개개인에게 길러주기 위해 부분적인 열린 학습을 시도하였으며, 국어시간에 있어 말하기·듣기·쓰기·짓기 시간에는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자기의 진실을 글로 표현 전아동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빈도 수준높이기 운동을 전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자연 시간에는 소집단체제를 구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사회 현상과 접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예체능 시간에 개개인이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참여하여 알찬 기능을 습득하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2. 특별 활동

교육 과정에 제시된 특별 활동 영역은 본교 인성 교육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학급 활동에서는 바른 생활 습관과 민주 시민의 육성, 봉사 활동, 학교

행사에서는 공동체 의식 함양, 클럽 활동에서는 1인 1특기를 신장 시키는데 주력하고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 실천표는 다음과 같다.

(가) 학급활동

구분	활동내용	지도시기	실천프로그램	지도요령
1. 학급 어린이 회 활동	학급협의	매주 토	1-1-1 2-5-1	매월 실천할 협의 주제 선정 전 아동이 협의를 통해 반성 및 실천 가능한 노력점 결정
			1-1-3 2-5-2	
			1-4-3 2-5-3	
			2-2-1 2-6-1	
			1-1-1 1-3-6	
	역할분담	매주 화·수	1-1-3 1-3-7	전월 1인 1역성 활동반성 금월 1인 1역 활동 선정 개인 전체
			1-2-2 1-3-8	
			1-2-5 1-3-9	
			1-2-6 1-4-3	
			2-3-1 1-5-3	
2-3-3 2-2-2				
1-3-4 2-2-4				
1-3-5				
2. 적응 활동	기본생활습관형성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매주 월	1학급1특색 사업추진	지도요령 1학급 1특색 사업추진
	상담활동과 친교활동	매주 금	1-3-2 2-2-3 1-3-3 2-3-1 1-3-4 2-4-3 1-5-5 2-6-3 1-5-8 2-5-5	공동 활동 실시 벽신문 노작놀이(봉사)등

(나) 학교 활동

구분	활동내용	지도시기	실천 프로그램	지도요령
전교 어린이 활동	전교 협의 (4-6)	매월1회	2-5-1 2-5-2 2-5-3 2-2-2 2-2-3 1-1-1 1-1-3	학교 월훈토의 노력점 결정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수 시로 해결 방법 협의 결정학 우나 이웃에 대한 봉사하는 방법 협의 결정
	행사활동	년간 학교 행사 추진	1-5-1 2-5-3 1-5-5 1-5-6 1-5-8 2-1-1 2-1-2 2-2-1 2-2-2 2-2-3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계획에 의함

(다) 클럽활동

구분	활동내용	부서조직	지도 시기	실천프로그램	지도요령
취미 활동	취미부서 조직운영 (18주)	학교 계획에 의한 16부 운영	매주 1회	1-3-1 1-3-3 2-2-3 2-6-3	4-6년 전 아동을 자기 희망대로 선별 조직 운영한다.
체육 활동	체육부서조직 운영(18주)	학교계획에 의한 9부 운영	매일	2-2-1 2-2-2 2-3-2 2-4-4	"
청소년 육성 단체 활동	준거집단 활동	청소년 연맹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1-1-1 1-1-2 1-1-5 1-1-6 1-2-3 1-3-5 1-3-7 1-4-1 1-4-2 1-4-5 1-5-1 1-5-2 1-5-10 1-5-11 2-2-3 2-6-1 2-6-5	부서별로 희망자를 선발 준거집단 활동 계획에 의거 실시함

3. 체험 학습 실시

체험 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은 동학년별 연간 10회 이상 실천을 권장하였으며 활동 장소로는 교내와 교외로 구분 짓고 교내 활동으로는 학년별 계획에 의거 그리기, 만들기, 짓기, 건전가요 부르기, 단체 게임 학교·학급 봉사 활동 등으로 실천토록 하였으며 교외에서는 실제 현장을 찾아가 활동하게

하였다. 주제 목적에 부합되는 사실을 보고, 듣고, 실제로 피부와 접촉하는 기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스스로 행동화 해보는 기회를 갖는데 역점을 두고 사전 학습, 사후 학습을 꼭 갖게 하여 체험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하였는데 본교가 96년에 계획하고 실천하는 체험 학습 연간 계획표는 다음과 같다.

1996학년도 체험학습 연간 운영 계획

내용 월	일 시	요 일	학 년	교 과	활 동 주 제	체 험	농· 어 촌	시 간	장 소	참가 학급	인원 수	프로그램명
3	5	화	5	국, 특활	·5학년이 되어서	○		5	교실	6	258	1-1-3
	19	화	2	국, 즐	·즐거운 우리반	○		4	교실	6	255	1-1-3
	27	수	3	사, 미	·그림지도 그리기	○		4	구봉산	6	234	2-1-2
	27	수	6	사, 미	·내가 사는 곳	○		4	주암댐, 교인들	7	284	2-1-2
4	1	토	1	슬생	·내가 사는 곳	○		3	운동장	6	233	2-2-3
	17	수	2	슬생	·짝들과 함께	○		4	교실	6	255	2-6-5
	19	금	3	국, 미, 체	·봄소풍	○		3	홍국사	6	234	1-4-5
	19	금	5	국, 미, 체	·봄동산을 찾아서	○		6	동백골	6	258	2-1-2
	24	수	6	사, 미	·진남관 유래 알기	○		4	진남관	7	284	1-5-11
5	26	금	4	국, 사, 미	·우리교장의 문화 탐방하기	○		4	진남관	6	253	1-4-5
	15	수	5	음, 미	·883선생님 감사합니다.	○		4	교실	6	253	1-5-6
	18	수	3	농어촌봄	·농어촌 동, 식물 관찰		○	4	여천시 응천	6	234	2-4-2
	20	월	1	즐생	·아름다운 소리	○		4	교실, 운동장	6	233	2-2-3
	29	수	6	국, 사, 미	·오동도의 전설에 대하여	○		4	오동도	7	284	2-1-2
	31	금	2	슬, 즐생	·동산의 신비	○		4	구봉산	6	255	1-4-5
	31	금	4	국, 사, 미	·저장스러운 문화계 알기	○		4	홍국사	6	253	2-1-2

내용 월	일 시	요 일	학 년	교 과	활 동 주 제	체 험	농· 어 촌	시 간	장 소	참가 학급	인원 수	프로그램명
6	1	목	6	농촌일손	·농촌일손돕기		○	4	화양면 화동리	1,2,3,4	163	1-4-5
	3	토	1	슬생	·동산의 신비	○		3	야외	6	233	2-1-2
	18	화	2	국, 즐생	·마음의 노래를 펴고	○		4	교실	6	255	2-6-5
	18	화	4	국, 사	·충무공 전적지 참배	○		4	동백골	6	253	2-1-2
	20	목	4	농촌일손	·농어촌의 논밭 관찰		○	4	여천시 응천	6	234	2-4-2
	22	금	5	사, 특	·충무공 유적지를 찾아서	○		4	선소(망마산)	6	258	1-5-6
	26	수	6	자,미,음,실	·우리교장의 수산물	○		4	만성리	7	284	1-4-5
7	29	토	6	농촌일손	·농촌 현장 견학		○	4	화양면 화동리	5,6,7	127	2-4-3
	1	토	1	즐생	·즐거운 물놀이	○		3	수영장	6	233	2-6-5
	10	수	4	농촌일손	·농촌 현장 견학		○	4	돌산대교	1,3	85	2-4-2
	11	목	4	농촌일손	·농촌 현장 견학		○	4	돌산대교	2,4	84	2-4-2
	12	금	2	즐생	·즐거운 물놀이	○		4	신덕해수욕장	6,	255	1-4-5
	12	금	4	농촌일손	·농촌 현장 견학		○	4	돌산대교	4,6	84	2-4-2
	13	토	5	실, 도, 특	·우리는 모두 한가족	○		4	동백원	6	258	2-4-2
	16	화	7	자,미,국,사	·동서짓기, 천애변화, 흥행사	○		4	충민사	7	284	2-1-2
	20	토	4	국, 미	·유람선을 찾아서	○		4	돌산공원	6	234	2-5-1
	23	화	5	농촌일손	·우리교장에서 채취하는 농산물		○	4	여천군	6	258	2-4-2
9	2	토	1	국	·내 꿈을 펼쳐라	○		3	시청 앞 잔디밭	6	233	1-1-3
	10	화	2	슬생	·살기좋은 우리교장	○		4	장군산	6	255	1-4-5
	24	화	5	체	·튼튼하게 자라자	○		6	운동장	6	258	2-2-1
	24	화	6	사,미	·왕인박사 유적지	○		4	왕인박사 유적지	7	284	2-1-2
	30	월	3	체,음,국	·가을운동회	○		6	운동장	6	234	2-2-1
10	15	화	3	자,국,체	·가을소풍	○		4	야외(홍국사)	6	234	2-1-2
	16	수	5	자,국,체	·가을 동산을 찾아서	○		6	야외(홍국사)	6	258	2-1-2
	18	금	2	슬,즐생	·걸어서 하늘까지	○		4	대치 뒷산	6	255	1-4-5
	26	목	1	슬생	·조상들의 발자취	○		3	진남관	6	233	1-4-5
12	30	수	6	국,미	·동요, 동시 짓기	○		4	시청 앞 잔디밭	6	284	1-4-5
	12	화	2	즐생	·우리 것이 좋아요	○		4	운동장, 교실	6	255	2-6-2
	14	목	3	가을동산	·가을 동산 관찰하기		○	4	홍국사	6	234	2-1-2
	16	토	1	슬생	·내숨씨 어때요?	○		3	진남 경기장	6	233	1-5-5

과 지출란을 반성하여 바른 소비 생활을 하도록 하고 연 2회의 전시회를 통해 가장 알뜰하게 쓴 우수 아동을 표창하였다. 가끔 학급

별로 용돈 기입장을 쓴 소감을 써 보도록 하여 용돈 기입장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는데 지난 5월 스승의 날이 끝나고 쓴 소감을 소개한다.

담임 선생님의 선물

4의5 김미애

나의 용돈 기입장에 남아 있는 돈은 1,000원이다.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조금씩 주신 돈과 친척들이 주신 돈을 모아 5,000원 이상이 되면 저금하고 5,000원 미만은 나의 책상 서랍속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5,000원을 저금하고 남은 돈이 1,000원 뿐이었다. 그런데 금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다. 작년 스승의 날에도 나는 선생님께 선물을 못드려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순간 정말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왔다. 선생님께서 얼마나 귀여워해주시는데 선물을 못드린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물이 나오려 했다. '부모님께 사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났지만 새벽부터 시장에서 짐을 나르시며 애쓰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도저히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외할머니께서 오셔서 칭찬해 주시며 맛있는 것 사먹으라고 1,000원을 주셨다. 너무나 외할머니가 고마웠다. 나는 2,000원을 갖고 문방구에 가서 볼펜 2자루를 샀다. 아저씨께 포장도 해달래서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 꼭 선생님께 드려야지' 책상 위에 있는 선물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2. 공동체 의식 함양의 시책

가. 사랑의 편지 쓰기 운동 전개 부모님, 선생님, 친구 또는 멀리

있는 친척과 이웃간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인데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는 도시락 가방 속에 선생님, 친척,

친구에게는 우편을 이용하여 펼치는 운동이다. 받고 보낸 좋은 내용의 편지를 선정하여 시상식을 갖도록 하고 월2회 이상 쓰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의 응모 작품이 나와서 좋은 내용을 골라 학년별로 전시회를 갖고 시상도 하였다.

나. 모듬일기 쓰기(분단 일기)

학급 아동을 평소 공부 시간에 앉는 좌석 배치에 의한 몇 개의 조로 나누어서 학급·학교 생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토대로 조별

아동 모두와 부모님이 참가하여 돌아가면서 쓰는 일기의 형태이다. 아동 개개인의 분단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나 부모님이 학급이나 아동에게 바라는 것, 선생님께 바라는 것 등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기록하여 서로가 반성의 기회를 갖고 좋은 모듬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실천하였는데 가끔 학급별로 발표회도 갖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한 토막의 모듬 일기를 소개해 본 것이다.

엄마가 수진이에게 바라는 것은?

3의3 수진엄마

먼저 가정에서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동생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진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진이로 커가기 바란다.

또 2학기 반장으로 모든 친구들에게 공평하게 마음을 써주는 정직한 수진이었으면 좋겠다.

다. 가족 신문 만들기

3학년 이상 월1회씩 가족 신문을 발행하도록 하였는데 월별로 주제를 온 가족이 모여 꾸미며 가족이란 모듬의 즐거움을 함께 모으는데 의의를 두었다. 제작 방법으로

신문의 크기, 순서, 주제 및 내용은 담임 선생님이 사전에 제시하여 주고 다양한 내용과 색연필, 볼펜, 싸인펜 등을 사용하여 전지나 전지의 1/2크기에 제작 매월 누적물을 학급에 모아 게시 우수 작품 내용은

에 실행한 내용으로 계량화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모

님, 선생님, 학생의 실천 소감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학부모 실천 소감

사랑하는 아들의 행동

5의 2 김수동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엇그제까지 철부지 행동하던 모습이 점점 의젓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방을 정리하는가 하며 동생과 사이좋게 노는 모습, 때로는 시키는 일을 귀엽게 잘할 때면 무척 흐뭇하다.

지난달 가족 신문을 만들자고 올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써보지 않았던 글을 쓰고 수집했던 일, 고운 생각 바른 행동 일기를 써서 책상머리에 두고 간 것을 슬쩍 넘겨 보았을 때 생각하고 느낀 점을 솔직히 적어 감동을 준 일은 무척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공부만 하라고 재촉했던 일이 내 자식을 참 귀찮게 하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기도 했다.

지난달 자모회 모임에서 사람으로서 깊은 생각과 바른 행동을 먼저 하고 지식과 체력을 닦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신 교장 선생님 말씀이 생각난다.

바른 인성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천하여 여문 어린이 모두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아들의 변화된 행동에 여문초등학교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실천 소감

깨끗한 용모위에 바른 행동 실천을

3학년 주임교사 박노원

초롱초롱한 눈망울, 깨끗한 옷차림 걸음으로 보기에 귀엽고 다정스러운 여문어린이를 볼때마다 너무나도 예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교실에서 뛰고 떠들며 장난친 모습이나 운동장 구석구석에 버려진 휴지 조각을 볼때면 내 자신의 지도 방법이 미숙했는가를 생각해 본다.

전임지 학교에서 선도교사로 활동하며 휴지를 버린 아동을 발견하면 버린 휴지를 입에 물게 하여 그 자리에 세워두었던 일도 있었다. 너무나 가혹한 벌이었다고 생각된다. 비록 짧은 7개월이지만 인성 교육의 제반 이론을 문헌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익혀 의도적인 인성 교육을 실천한 결과 무서운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한 교실과 학교가 되었다. 학교 규칙을 준수하며 친구들과 오손도손 재미있게 공부하고 뛰놀며 자기 맡은 역할을 술선 수범해 가는 모습, 많은 어린이가 학급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의도적인 교육은 어린이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앞으로 더욱 도덕 교육을 강화시키고 열린 학습 지도 방법을 터득하여 어린이 개개인의 기본 생활 습관이 바르게 정착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여 교직의 보람으로 삼고 싶다.

3. 학생 실천 소감

깨끗한 교실 다정한 이웃

6의 3 김주현

우리 학교는 1,5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이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인데 운동장과 교실은 다른 학교에 비해 좁고 적다는 생각이 든다.

1학기 때에는 교실이 너무 떠들고 뛰어서 시끄럽고 휴지를 함부로 버리고 줍지 않아 지저분하고 운동장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었으며 친구들과끼리 다투기도해서 차분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 인성 교육 자율 시범 학

교를 운영하여 우리들 스스로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며 복도 통행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도 모범을 보여 주시고 우리도 따라 해 보라고 권하신다. 우리들도 선생님의 행동 표정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 5월에 수학 여행지에서는 질서를 잘 지키고 차분하고 예의바르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지금 1,500여명의 학생이 등교해 있지만 복도로 걸어가는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외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예전의 소란하고 시끄럽지만 하던 교실 주변이 절간처럼 고요해졌다. 우리 학교 식구 모두가 복도 곳곳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행동 실천 모습을 눈여겨 보고 실천하여 최고의 학교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

X. 결론

본교가 교육부 지정 인성 교육 자율 시범 학교로 지명받아 '96년 3월부터 지금까지 짧은 7개월에 걸쳐 실천한 내용을 순서적으로 나열해 보았다.

본교 어린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 정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으나 아직까지 계획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성 교육의 성과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본교의 실천 방안과 다양한 시책의 실천 내

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본다.

1.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변화라는 큰 주제 해결은 여문전어린이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2. 실천 위주 인성 교육에 대한 지도 방법이 어느 정도 교사들에게 터득되었고
3. 다양한 학교 환경의 점진적 변화는 교육 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4. 교육부 지정 인성 교육 자율 시범학교라는 학교 명예가 학구에 널리 퍼져 많은 학부모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多様な 教育活動을 통한 더불어 사는 共同體意識 提高



宋 炳 榮

(順天南初等學校長)

I. 人性教育의 必要性

급변해 가는 知識 情報化 社會와 금전 만능의 풍조속에서 知識의 폭발적 팽배와 價値觀 혼란으로 人間의 尊嚴性이 경시되고 이웃과 단절된 生活속에서 自己中心의인 生活을 함으로써 人間의 倫理 道德이 崩壞되는 현상은 가슴 아픈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요즘 學生들의 生活 모습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아는 것도 많고 자기 주장을 서슴없이 말하고 감정을 잘 나타내고 똑똑해 보이지만 세심하게 보면 지나치게 自己中心의이고 基本禮節도 지킬 줄 모르며 責任感이나 참는 힘도 없고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어 작은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

내지 못하고 쉽게 拋棄하거나 挫折하는 마음의 虛弱性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學校에서는 全人的인 教育을 근본 目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나친 知識 偏重 教育으로 人間的이고 精神的인 成熟을 위한 올바른 價値觀을 확립해 주는 본래의 機能이 약화되는 生動感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서 生活 規範이나 삶의 양식 思考의 方法을 넓고 깊게 해주는 人性 教育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방적인 勸誘와 說得 方法의 人性 教育만을 강조하고 있는 現實이다. 본교에서의 現實의 과제도 설명식, 일방적인 일제 지도 방식의 權威主義的인 人性 教育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傳統的인 教育에

서 벗어나 학생이 직접 체험하는 활동으로 感動, 感化하는 多様な 人性 教育의 방식을 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교 학생들의 生活面에서도 여러가지 社會環境과 과보호 때문에 생긴 부족한 基本의 生活禮節이라든가,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 내는 일, 남과 이웃을 위해 奉仕하는 마음 가짐 등이 부족하므로 “나”보다 함께 사는 “우리” 共同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學生을 길러 내는 것이 우리 學校 教育의 가장 優先的인 課題라 생각한다.

이에 意圖的이고 計劃的인 教育이 이루어질 때 學生들은 밝은 품성으로 구김살없이 자라 완전한 人格體로 成長되리라 믿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効果的인 프로그램에 대한 研究와 開發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本校에서는 教育과정 전 영역에서 다양한 人性教育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學生이 直接 체험하므로써, 올바른 價値觀의 確立과 共同體 意識이 透徹한 民主市民이 育成되리라 보아 다음과 같은 目的을 두고 實踐하였다.

1. 教育活動 全領域을 통한 實踐爲主의 人性 教育 實施

가. 教科活動에서의 人性 教育

A. 人性 教育 관련 單元 敎材 分析

1. 教科 관련 內容을 分析하여 健全한 人性 教育의 방향을 探索하고

2. 經驗과 체험活動을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共同體 意識을 기르며,

3. 열린 教育 方法을 통해 다양한 實踐 爲主의 教育을 실시한다.

II. 多様な 教育活動을 통한 더불어 사는 共同體意識 提高

本校는 教育部 指定 人性 教育 自律示範學校로서 主題를 “다양한 教育 活動을 통한 더불어 사는 共同體意識 提高”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本校 學生들이 부족한 共同體 意識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人性 教育의 지도덕목인 基本生活 習慣, 自我確立, 효도·경애 등의 덕목들의 實踐의욕도 微弱하지만 요즈음 우리 學生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共同體意識을 實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本校의 示範課題 세 가지의 實踐 內容을 소개 해하고자 한다.

1) 本校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지도해야 할 人性 지도 덕목 선정

중점 지도 영역	중 점 지 도 덕 목
• 기본 생활 습관	• 기본예절,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위생, 물자절약
• 학년별 강조점	• 1~3학년:예절, 기초질서 • 4~6학년:협동, 봉사, 민주시민
• 공동체 의식	• 질서, 협동, 준법, 타인존중, 봉사, 정의감, 민주시민윤리

2) 敎材 分析 過程

도덕 사회과 敎材 분석(예시)

(1)학년 (1)학기

단 원	제 재	지도 내용	영 역	지도요소	지도덕목
1. 반가운 인사	• 인사할때의 바른자세	• 상대방에 알맞는 인사말	개인생활	기본예절	기본생활 습 관

※ 人性德目과 관련된 단원을 領域別, 指導要素, 指導德目 순으로 分析
 ※ 領域別: 가정생활, 학교생활, 개인생활, 시민생활, 국가생활, 청결생활
 ※ 指導要素: 준법, 봉사, 질서, 협동, 정직, 근면, 민주시민, 타인존중
 ※ 指導德目: 공동체의의식, 기본생활습관

B. 人性 德目 實踐意志를 기르는 敎授·學習 指導 方法

1) 도덕·사회과 수업 方法 개선

도덕·사회과 가치 추구 일반 모용 적용하여 指導하였으며, 그 이외 敎科는 人性 教育 指導 時間을 수업 과정에 삽입(5~10분)하여 指導하마.

나. 特別活動에서의 人性 教育

A. 學級 活動

學級生活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實踐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생

각을 바르게 表現하고 다른 사람의 意見을 존중하여 문제를 合理的으로 해결하게 하기 위해 토론 中心의 學級 어린이회가 되도록 협의 주제를 人性 教育 중점 지도 덕목의 相關 內容으로 마련 알맞은 주제를 선정하여 지킬 일을 스스로 정하게 함.

B. 學級 活動

전교 어린이회 活動으로서 어린이 방송부 活動과 學校 行事로서의 독서 행사를 人性 教育과 相關지어 중점 지도

1) 學校 방송 실시

a) 學校 방송 교육 학습 훈련안(예시)

단 계	교 사	아 동
기본학습 훈 련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 VCP, 전원, 코드선, 리모콘 이상유무확인 • 녹화 테이프 확인 • 시청조건 점검(모니터위치, 차광막, 좌석, 음향) • 발문 요령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 갖기 • 기록할 준비하기 • 주의 집중하기 •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
시 청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할 관점 제시 • TV 켜기 • 시청조건 점검(모니터, 차광막, 좌석, 음향, 화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한 분위기 갖기 • 방송 학습장 준비하기 • 시청할 관점 알기
시 청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함께 시청하기 • 시청 분위기 조성하기 • 주요내용 지휘봉으로 지시하기 • 주요 화면 정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한 부분 자세히 살피기 • TV교사의 지시에 따 기 • 교사의 지시, 정지화면 집중하기 • 주요 내용 기록하기
시 청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한 내용 확인하기 • 집단사고 토의 분위기 조성하기 • 심화, 보충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한 주요 내용 알기 • 교육방송 학습장 기록하기 • 시청한 내용 발표 토의하기 •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 조사하기

2) 讀書 行事를 통한 人性

教育

b) 讀書 指導 計劃

인성지도 덕목 관련 도서 선정 :

學年別 도서 목록-독서록 쓰기

나) 人性 教育 독서 토론

회 실시 : 4學年-6學年制로 실시

① 도서명 : 크리스마스 캐럴

② 토론일 : '96. 9. 20(금) 13:50~15:20(60분)

③ 주제 : 등장 人物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중심 생각

c) 명시, 명구 외우기 실

시

① 명제 제재 : 명시, 명언, 명심보감 등

② 명시 암기 시간 : 월요일 명제 제시 매주 수요일 아침시간 이용

③ 학년별 제재 선정 : 연17회분

④ 명시 외우기 점검 : 바른 生活 실천 기록장에 기록 자기 점검하기.

다. 家庭·社會 連繫 教育을 통한 人性 教育

A. 자녀 教育 方法 홍보

1) “비둘기”學校 신문을 이 용하여 홍보

연5회 (특별 인성 教育 내용 1회 별도 발행) 발간되는 學校 신문 “비둘기”에 자녀의 人性 教育에 대

한 內容과 人性 教育에 관련된 작품을 게재하여 능률적인 教育 홍보 活動이 되도록 함.

2) 어머니 教室 運營을 통한 子女 教育 弘報 實施

a) 活動 계획 (月別 內容 예시)

월	활 동 내 용	월	활 동 내 용
3	• 어머니조직 •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9	• 서예 • 꽃꽂이 • 효교육중요성
4	• 아동교육과 자모의 역할	10	• 바람직한 가정학습 지도
5	• 부모다운부모 역할 • 어린이날 아버지날 체육대회 참여	11	• 인성교육과 어린이들 지도방법
6	• 교양강좌 •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	12	• 결산 및 실적반성
7	• 전반기 활동 실적 반성 • 강한자녀로 키웁시다.	2	• 더불어사는 자녀란?

B. 家族新聞 만들기 및 展示會 實施

1) 일시 : 1996년 9월 30일

2) 대상 : 1가족 1신문 원칙

3) 家族新聞 內容

• 內容은 자유로이 하되 다양한 內容

• 컷을 사용하되 산뜻하게

• 틀과 모양은 창의성 발휘

• B4용지 상1.5cm, 하1cm, 좌3cm, 우1.5cm를 뒀다.

• 글씨는 성의껏, 제목과 기사 분리

C. 敬老孝親의 習慣化 教育

1) 지도 방안

a) 孝를 바탕으로 가치관 정립하고 기본 예절 규범의 습관화

b) 급변하는 家族의 귀중함이 소멸되고 있는 社會의 체재를 바로 잡으며 윗 사람에 대한 존경심 갖기

2) 指導內容(예시)

노력중점	주요활동	지 도 내 용	비고
효 중심의 예절 교육	• 우리예절 갖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관련지도 • 도덕과중심으로 단원을 추출하여 지도한다. • 전통 예절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 교육 · 형제간에 우애있는 태도 · 스승에 대한 존경심 기르기 · 윗어른에 대한 예절 지키기 • 인사하는 법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어른에 대한 인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 인사시 사용하는 인사말 바르게 사용하기 • 1일 1선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한가지 이상 효행 실천을 목표로 한다. · 효행일기를 쓴다.(3학년 이상) • 효경의 날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토요일 어린이회 시간에 효행 발표 순서를 갖고 자기의 효도를 발표하여 친구로 하여금 실천케 한다. • 예절 코너 설치(전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신문에 예절 코너를 설치하여 매일 효도를 한 어린이의 효행사례를 게재케 한다. 	

3) “가족의 계보”카드作成 시
 바른生活實踐 기록장에 기록케
 함. 농·어촌 체험 學習후 감사편지
 * 별첨 : 가족의 계보카드 쓰기, 어버이날 편지 쓰기, 봉사活
 4) 보은의 감사편지 쓰기 실 活化 시킴.

D. 家庭 通信 “꿈나무 가꾸기” 實施
 1) 꿈나무 가정 통신(예시)

학교에서 ← 가정			가정에서 → 학교		
월일	통신 내용	학부형확인	월일	통신 내용	학부형확인
4. 7	희락이의 생활을 바로 잡는데 협조가 필요합니다.		4.9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5.16	과제물이나 숙제 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시시오		5.17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숙제 지도를 못하였습니다.	
7. 5					

2. 多様な 教育 活動으로 共同體
 意識의 實踐 機會 擴大

가. 共同體 生活 曜日別 實踐 記
 錄

A. 共同體 意識 실천 덕목을
 요일별로 實踐하고 자기 점검케
 함. 요일별실천 덕목을 소개하여
 보면 월 : 먼저 정답게 인사하기,
 화 : 줄서서 차례 지키기, 수 : 한가
 지씩 봉사 活動 하기, 목 : 공공 장
 소에서 정숙하기, 금 : 남에게 피해
 안주기

나. 共同體 意識 및 克己心 기르
 기

A. 學生 야영 수련 活動 實施
 4學年-6學年 學生이 “학생의
 집”에서 심성 계발 프로그램에 의
 하여 7月~9월에 걸쳐 실시(학년

별 1회)

B. 농·어촌 체험 學習 活動 實
 施 : 개인 위탁교육을 4~6學年 學
 生중에서 농·어촌에 친척, 친지가
 있는 學生만 實施, 實施후 농·어촌
 체험학습 內容 적어 오고 느낌 발
 표(學校 방송시간에 발표케 함.)

C. 自然 體驗 活動의 強化

1) 소풍, 야외活動을 實施하
 고 느낀점 잘못된 점 반성하고 체
 험기를 적게함. <자연체험 활동
 지도내용 생략>

다. 學生 奉仕活動 生活化

A. 奉仕 活動의 內容

1) 學校 주변 및 주변 하천
 의 자연 보호 活動 實施 : 매주 토
 요일

2) 무의탁 노인 수용 기관
 및 동네 양로당에서 청소, 오락, 연

주, 손톱깎아 주기, 말 동무 해드리기 등등 實施(奉仕조직대 63대 조직, 奉仕活動 확인서 받아 온 매수 : 350매 정도)

3) 환경 정화 活動과 교통지도 實施

B. 奉仕活動 결과 처리

1) 봉사 活動 확인서나 사진(活動內容)을 바른 생활 실천 기록장에 부착하고 생활 통지표와 중합생활기록부에 活動 內容 기록, 연말에 가서 참가 실적에 따라 봉사상 시상케 함.

라. 人性 教育의 날 運營

A. 人性教育의 날 운영 내용
책가방 없는 날(월2회)중에서 월1회 人性教育의 날을 지정, 지도 계획을 세워 人性教育의 날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作成 活用하여 예절 教育에 힘씀.

마. 學級別 實踐 課題 設定, 實行

A. 學級別로 人性教育 實踐

월	지도중점덕목	실천중요내용	월	지도중점덕목	실천중요내용
3	기본생활습관	자기물건 간수하기	9	효도와 경애심	인사잡하기(부모님,선생님)
4	올바른 생각갖기	1인1역 잘하기	10	공동체의식갖기	실내에서 조용히 하기
5	효도와 경애심	친구간의 예절지키기	11	기본생활습관	군것질 않기

2) “더불어 사는 삶의 學習”實施<바른생활 실천기록장 11쪽-53쪽>

바른 생활 實踐 기록장에 기본

課題 선정 指導

학급별로 기본 생활습관 및 共同體 의식 덕목중에서 자기 學級 學生들이 부족한 內容으로 實踐 課題를 정하고 實踐, 實踐 結果를 정리 발표케 함.

<학급별 주제 및 實踐事例>생략

3. 열린 教育 方法을 통한 多樣的 人性 教育 實施

가. 열린 마음 갖기 實踐

A. 劃一主義 生活 指導 止揚

1) 全校 단일 生活 目標에서 學級別로 生活 實踐 目標로 설정 運營

토론 中心의 學級 어린이회가 되도록 협의 주제를 人性教育 중점 지도 덕목 관련 內容으로 마련해 學級別로 시기와 필요에 따라 알맞은 주제를 선정하여 活動하게 함.

<月別 주제 일람표> <예시>

생활 습관 및 共同體 意識 實踐 內容을 예화 자료로 제시하여 그 內容을 읽고 實踐 의욕을 갖고, 자기가 實踐할 덕목을 적어 1주일 또

는 그 이상 기간동안 實踐하고 자기 점검케 함.

3) 生活 규범 제정 實踐

하루 生活 규범 중 주요 行動을 선별하여 全校 일률적으로 實踐 반성토록 하지 않고 다양한 生活 장면과 구체적인 행동 規범을 자기 선택적으로 선정, 실천 기간도 스스로 설정하여 “바른 생활 실천 기록장”에 기록 실천하고 반성케 하였다. <生活규범및 순남어린이 다짐>별첨

4) “순남어린이 다짐”제정 實踐

6개 항목을 정하여 그 중 하나는 學生 스스로가 자기 다짐으로 정하여 암송하고 어떤 문제 行動이 있을 때 순남어린이 다짐 내용과 관련지어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잘 지켜지지 않는 內容이 있는 관련 行動은 “바른생활 실천 기록장”에 기록하여 계속 實踐케 하였다.

B. 자기 선택 자기 보람 찾기 活動 전개

1) 예절 교실 이수제 실시

예절실 이용 지도 덕목에 따른 學習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교생이 정해진 시간에 예절실을 이용하고 참석한 학생에게는 예절교실 이수증(스티커)를 수여하여 全學生들이 가정, 사회, 학교에서 지킬 기본예절을 習慣化하도록 하였다.

2) 讀書教室 이수제 실시

a) 독서교실 운영 시간

本校 청심 도서관 열람 시간을 이용 방과후 1일·1인 40분 이상 1회로 하고 수, 금요일은 2회 운용 하였다.

b) 도서관 열람 시간

1, 2, 3學年은 學級 문고를 活用 하도록 하였으며 4學年은 月, 5學年은 火, 6學年은 木요일 열람하도록 하였다.

c) 독서지도 內容

學年別 人性教育 필독도서와 學年別 필독도서로 정하였으며, “바른생활실천기록장”에 안내하여 읽도록 하였으며, 읽고 난 느낌과 본받을 점을 기록하게 하였다.

d) 이수方法

讀書教室 運營 시간 4회 참가 어린이와 교내외 독서 行事に 참가하여 讀書를 많이 한 학생은 스티커를 발급하여 이수토록 하였다.

3) 폐품 수집 및 活用

學級別로 폐품을 수집하여 月1회 참가한 學生들에게 참가증을 주어 자원의 재활용 教育을 實施하였다.(4, 6, 9, 11월은 폐휴지 수집, 5, 7, 10, 12월은 빈병 수집)

나. 열린 클럽 活動 運營을 통한 全人的 人性教育 實踐

A. 클럽活動의 彈力的 運營

活動부서 學生의 희망에 의해 32개 부서를 조직하여 運營하였으며, 월1회 또는 3개월마다 선택 기

회를 제공하여 재조정하여 運營하였다. 또한 클럽活動 카드를 제작活用하여 活動 실적을 기록하여 학생의 특기 신장에 노력하였다.

B. 自生 奉仕클럽의 組織 運營

1) 校內 奉仕 活動 內容

- a) 校內 청소 미화 活動
- b) 화단 잡초 제거 작업
- c) 불우 학우 돕기 및 소년, 소녀 가장 돕기
- d) 기타 活動

2) 추진 內容

교내 봉사 活動은 學級別, 개인 別로 實施하며, 實施前에 담임 또는 선도교사등에 活動 승인을 받고 1시간 이상 活動한 학생에게는 스티커를 발부하여 “바른 生活 實踐 기록장”에 부착(p70) 학년말, 종합 생활기록부와 生活 통지표에 기재

순천남초등학교

3학년 3반 김국희

5월 20일 ~ 5월 25일(12주)
일주일간의 실천덕목 :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하기 일주일간의 계획 월 :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 개우기(○) 화 : 책상위 정리하기(◎) 수 : 책가방 잘 챙기기(◎) 목 : 학습 과제 스스로 해결하기(◎) 금 :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기(○) 토 : 놀던 자리 깨끗이 치우기(○)
일주일간의 반성 :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이부자리를 개우고 언제나 정리 정돈을 잘하며 놀던곳도 남보다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치워야겠다.

B. NIE 學習 實施

1) 方法 및 시간

학습 주제를 정하여 한글이 주로 나와 있는 신문을 이용하여 필요한 글자나 그림, 사진등을 오려서 적당한 용지에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꾸민다. 월1회 책가방 없는 날이나, 교과 특활 보충 시간등 學級 실정에 알맞은 時間을 이용하도록 했다.

2) 學習 대상은 3~6學年 實施

라. 人性教育 實現을 위한 學生 施賞制 運營

A. 여러가지 賞의 施賞 기준

1) 奉仕賞

불우 이웃 돕기나 學校, 學級, 지역社會에 대한 奉仕에서 그 活動이 모범적인 學生을 추천하여 施賞함. (예)봉사활동 확인서 : 5회분, 奉仕 活動 스티커 : 5회분, 폐품 수집 活動 참가 2회 이상 실시한 學生)

2) 善行賞

마음씨가 착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주위로 칭송 받는 모범學生을 추천하여 施賞함. 예) : 奉仕活動 5회 이상 참여한 學生으로서, 예절

교실 2회이상, 學級 어린이회에서 착한 어린이로 2회 이상 뽑힌 學生)

3) 孝行賞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孝行을 많이 한 學生을 추천하여 施賞. 예) : 동네에서 孝行 어린이로 추천되거나, 가정에서 추천과 담임의 확인이 있을때, 봉사 活動 실적이 5회이상 된자)

4) 자기 선택 보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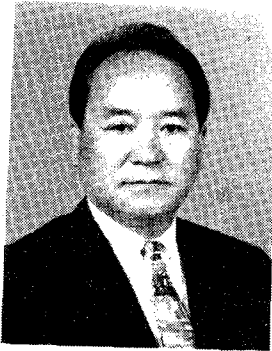
예절교실, 독서교실, 폐품수집, 교내奉仕活動, 기타活動등에 참가하여 참가 스티커가 15회 이상인 學生 모두에게 施賞.

Ⅲ. 示範運營의 중간 結果

교과 活動面에서 지도 결과 9月末 現在 설문지를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점차 좋아지고(人性) 있다고 나타났으며 그 이외 지도面에서도 좋은 人性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이 설문지 분석 결과 나타났음.<결과 의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함>

多様な 프로그램 實踐을

통한 人性 教育



李 相 培

(榮山浦 初等學校長)

1. 여는 말

어린이는 착하고 슬기롭게 자라
圓滿한 人格體로서 밝은 來日의 主
人公이 될 사람들이다.

‘弘益人間’이 우리의 教育 理念으
로 이 땅에 널리 천명된 以來 ‘德
性을 바탕으로 教養과 能力을 겸비
한 바른 사람을 기르려는 人間教
育’은 學校에서의 全人教育의 目標
로 現在까지 持續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知識 習
得위주의 進學教育에 치중한 나머
지 創意성과 道德性을 기르는 人性
教育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共同
體 意識 教育이 다소 疏忽하지 않
았나 生覺된다.

이처럼 다소 疏忽했던 人性教育

의 結果로 家族 離脫 現象과 靑少
年 犯罪, 悖倫行爲等 非人間的이고
反人倫的인 價値풍조가 우리 社會
에 問題가 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人性教育을 強化해야 한다는
당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人性은 感情이나 情緒, 人間 相
互關係 價値觀, 性格 등을 지칭하
는 것으로 理解되어 매우 모호하고
抽象的인 面이 많아 人性教育의 實
施와 評價에 있어서 模糊한 점이
 많았으나 最近에는 ‘情緒的 知性’
‘感性指數’라는 말 등에 關心이 높
아지면서 人性教育 프로그램도 知
的인 領域처럼 變化 與否를 效果的
으로 評價할 수 있도록 開發되어
先進國에서는 많이 實驗, 實施되었
으며 教科의 重要한 部分으로 다뤄

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21세기를 準備하는 우리의
學校 教育에서도 人性教育이 教科
의 重要한 核心 部分으로 指導되고
評價되도록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知識 위주의 教育觀을 가진 學父
母의 態度가 變化되고, 直接的으로
兒童을 가르치는 學校가 責任과 義
務를 다하며 자라나는 兒童들의 바
람직한 人性 形成을 위해 그들의
人格을 尊重하고 그들이 갖는 欲求
不滿을 解消하여 주는 方向으로 意
圖的이고 計劃的인 教育이 이루어
질 때 兒童들은 밝은 品성과 德性
을 지닌 完全한 人格體로 成長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人性教育
이나 價値教育의 效果的인 프로그
램에 대한 研究와 開發이 活潑히
이루어져야 한다. 榮山浦初等學校
에서는 그 동안 全 教師가 마음을
모아 人性教育을 위한 多様な 프로
그램을 研究 實踐함으로써 變化를
가져온 事例들이 있기에 몇 가지
紹介하고자 한다.

II. 人性教育 實踐 事例

榮山浦初等學校의 教育 哲學은
사랑을 알고 實踐하는 어린이 育
成, 卽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참된
人間을 기르는 教育으로 세가지의

人性教育 過程 기둥을 設定하고 있
다.

첫째는 教科 教育을 위한 열린授
業 展開이고, 둘째는 家族,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運營이며, 셋
째는 多様な 特別活動 運營이다.

이와 같은 3가지 核心 기둥을
中心으로 다음과 같은 人性教育 프
로그램을 研究 實踐하고 있다.

1. 個別化 個性化를 위한 열린 授業

주입식 一齊 授業에서 탈피하여 兒
童 個個人의 各者 저마다의 能力이
나 適性 그리고 興味와 關心 등에
알맞은 열린 授業을 適用함으로써
學習 缺損의 累積에 따른 多數 兒
童의 學習 不振이라는 壁을 넘지
못하는 問題點을 解消하였다.

創意性을 살리는 教育은 個性을
살리는 方法이 適用되어야 하는데
個性을 살리는 여러가지 方法 中
個別化와 協力化를 圖謀하는 授業
方式이 適用됨이 바람직하다. 本校
에서는 지금까지의 劃一的으로 단
혀진 一齊 授業을 ‘個別化와 個性
化的 열린學習’으로 바꾸어 授業
形態를 兒童 發達 段階와 教科의
特質에 맞게 多様하게 展開하고 있
다.

특히 여러 가지 열린 學習 方法
中에서도 코너學習, 지그소우學習,

復數教科 並行學習, 個別自主進度 學習 等を 주로 實施하고 있다.

2. 人性教育 指導 資料 開發 活用

(1) '今週의 童謠 童詩' 具案 活用

날로 똑똑해 가는 반면 나약하고 利己的으로 變해가는 우리 어린이 들! 이들을 굳세고 바르게 살아가 도록 이끌고, 知識을 넣어 주고 技術을 익혀 주는 것에 앞서 가슴을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 人性教育이 바라는 점이다.

日常生活에서 노래를 부르고 童詩를 읽는 것이 習慣化 된다면 自身의 情緒生活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活力素가 되며 자라나는 어린이 들의 共同體 意識과 情緒 涵養에 이바지하고 또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童謠·童詩 內容들이 '마음의 故鄉'으로 자리 잡힐 수 있을 것이다. 本校에서는 初等學校 音樂 教科書, 創作 童謠 集等 여러 童謠 童詩集 가운데서 童詩 36編 童謠 36曲을 季節과 行 事等 時期에 맞게 選定하여 工夫할 때, 運動할 때, 놀이할 때 등 틈나 는 대로 어린이와 父母가 부를 수 있도록 今週의 童謠·童詩集을 發刊 하여 活用하고 있다.

[금주의 동시 예시]

1996. 11.4-9

잠 자 리

장 수 철

빨간 잠자리가
노란 꽃에 앉았다.

살금살금 기어가서
꼬리를 잡으려고 했더니

손가락 사이로
냉큼 빠져 날았다.

푸른하늘 흰구름속에
싱싱 날아 버렸다.

[금주의 동요 예시]

1996. 10. 28 - 11. 2

노을

작사 : 이 동 진
작곡 : 안 호 형

바 - 람이머 물다간 들 판에 모 락모락피 어나는 저녁연기
색 - 동옷갈 아입은 가 음인덕에 빨 감게노을이 타 고있어 요
허수아 비 팔 벌려 웃 음 짓 고 초 가지 봉 등 근박 꿈 - 꿀-때
고개속 인 눈 발의 열 매 노 랫게 의 어만가 는 -
가 음바람머 물다간 들 판에 모 락모락피 어나는 저녁연기
색 - 동옷갈 아입은 가 음인덕에 붉 - 게 물 들어 타 는저녁놀

(2) '우리의 마음을 담아' 資料
發刊 活用

스승 尊敬과 孝敬 意識 鼓吹를
위하여 師弟之間, 父母와 子女間의
對話 機會를 擴大하고 따뜻한 教室,
和睦한 家庭 雰圍氣를 造成하
기 위해서 서로 바라는 점, 고마
운 점 等を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을 맞아 便紙로 써서 주고 받음으

로써 不足한 行動과 마음을 고쳐
새롭게 하는 實踐의 機會로 活用하
였으며 그 內容 中 龜鑑이 될만한
便紙를 골라 學校 展示會 및 週刊
學校 放送의 朝會 時間(孝·敬愛 時
間)에 發表함으로써 스승과 父母님
의 사랑을 直接 體驗하여 바른 人
性이 內面化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시]

사랑하는 부모님께

5학년 4반 이 삭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초여름 날씨인데도 몸은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저 키우신 은혜는 정말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4학년때 온몸에 열이 날때 엄마, 아빠께서 온 힘을 다해서 간호해 주셨을 때 이제야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 말썽만 부리고 말도 않듣고 저 때문에 속상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라도 더 잘해야 겠다고 반성 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천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부터라도 안늦었으니까 귀여운 효녀가 되고 싶어요.

저는 무척이나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빠께서는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시고 잘못했을 때에는 꾸지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학원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피아노도 열심히 배워서 엄마, 아빠께 저의 솜씨를 보여드릴게요. 공부도 또 무엇이랴도 열심히 해서 최고의 딸이 되겠어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1996. 5. 13

엄마, 아빠의 귀염둥이 딸 삭이 올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시]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께

5학년 1반 김수란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1반에 재학중인 김수란이라고 해요.

나날이 발전해가는 우리 학교를 보면 교장선생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교장선생님이 우리학교를 오신 뒤 우리학교는 너무나 눈에 띄게 발전하였어요.

인성 교육 시범학교가 된 우리학교는 정말 좋은 교육 환경이 되어 공부하기가 무척 좋아졌으며, 표준학교로 지정되어 담장도 아주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데 후문 기둥에 어른들이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장이 되었답니다. 교장선생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초여름이 다가왔는데 쓰레기를 그대로 버린다면 음식 찌꺼기 냄새가 아주 심할거예요.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에 계시는 동안 제발 우리학교를 전라남도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바로 교장선생님께 바라는 제 소원이예요.

훌륭하신 교장선생님 우리를 위해 우리학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만 연필을 놓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1996. 5. 13

교장선생님이 이끄는 학교에 재학중인 김수란 올림

(3) '열린 마당 指導 資料'發刊
活用

'健全한 놀이 文化가 있는 곳에
健康한 精神이 깃든다'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健康한 集團을 形成할
때 모든 일을 成就할 수 있고, 이

루려고 하는 意慾이 넘치는 가운데
健全한 思考가 함께 함을 뜻한다.

'열린 마당 指導 資料'는 地域民
들과 學生이 함께 參與하는 '아침
運動마당'과 에어로빅, 健康體操,
배드민턴 等으로 땀을 흘려 보는

‘中間 놀이 마당’ 그리고 즐거움과 함께 協同心과 秩序 意識을 涵養 시키는 健全놀이로 이루어지는 ‘學年 놀이 마당’ 忍耐心, 開拓心, 冒險心을 길러 주기 위한 ‘修鍊 活動

으로 構成하여 어린이들을 健全하고 올바른 情緒, 價値觀을 지닌 人格體로 成長시키는데 必要的 資料로 活用토록 하고 있다.

[아침運動 마당]

○ 아침운동 마당(05:30~06:30)

활동명	활동내용
트랙조깅	•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 등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가볍게 운동장을 조깅함.
국민체조	• 조깅이 끝난 후 경쾌한 피아노 반주에 맞춰 국민체조를 실시함.
국기게양식	• 체조가 끝난 후 애국가에 맞춰 국기에 대한 예절을 표시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
자율운동	• 교정내 시민 체육공원에 설치된 여러 가지 운동 기구를 이용하여 체력단련과 서로간의 삶의 정보를 교환함.

[中間놀이 마당]

활동명	활동내용
에어로빅	• 음악에 맞추어 즐거움을 느끼며 움직이는 활동으로 몸의 유연성에 도움
청소년체조	• 전신운동으로 관절 및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활동임.
배드민턴	• 1인1운동의 차원으로 아동,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 운동을 실시함.
바르게 걷기	• 중간체조 후 마스게임 대형으로 바르게 걷기를 하면서 입실을 함.
실내체조	• 폭염 및 우천시 교실이나 복도의 공간에서 TV의 화면에 따라 동작을 실시함.

활동명	활동내용
금주의 노래	• 해진곡 대신 곱고 아름다운 동요(금주의 노래)로 중간놀이 마당을 열고, 끝을 맺도록 함.

[學年活動 마당]

활동명	활동내용
질서훈련	• 중간놀이 마당이 끝나고 교실로 입실을 할때 학년별로 실시
전통놀이	• 계절에 따른 놀이 지도 • 남학생 : 제기차기 • 여학생 : 널뛰기
건전놀이 및 게임	• 공동체놀이(5종류) • 민속놀이(5종류) • 인간관계 개선놀이(6종류) • 체력단련 놀이(5종류)

[修鍊活動 마당]

활동명	활동내용
고적답사 (문화유적지답사)	• 고장의 성터, 사당, 향교, 사찰, 전적지, 박물관, 기념관 등을 답사함.
극기활동	• ‘나주학생의 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극기훈련 프로그램에 동학년 단위로 참가 활동.
야영활동	• 자연에 대한 사랑과 나라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는 활동.

3. ‘사랑의 家族 한마당 잔치’

人間의 모든 行動은 마음의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生覺하고, 느끼고, 行動하는 것과 우리가 나타내

(1) 家族 新聞 만들기

는 感情이나 意志는 마음의 나타남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工夫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것이 곧 人性이라고 할 수 있다. 榮山浦 어린이들이 家族끼리의 對話를 통한 家族新聞을 만들어 봄으로써 祖上들의 사랑거리를 알고, 家族에 대한 矜持와 自負心을 새롭게 하며, 나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家族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알고, 나의 素質과 特技는 어느 것인가를 바로 알아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矜持를 가지고 生覺과 말, 行動에서도 아름다운 香氣가 스며나오는 自我를 確立토록 하였다.

- 日時 : 1996년 5월 8일 아버지 날
- 場所 : 本校 校庭
- 對象 : 1家族 1新聞 만드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모듬별로 모여서 作成한다.
- 內容 :
 - 自由로이 하되 多様な 內容으로 알차고 誠意있게 構成
 - 컷을 使用할 수 있으며 散漫하지 않도록 한다.
 - 틀과 모양은 創意性을 發揮할 수 있도록 한다.
 - 家族新聞의 題目, 만든 날, 만든 이를 꼭 적는다.
 - 글씨는 또렷하게 쓰며 題目과 記事가 分離되도록 한다.
 - 記憶에 남는 事件 未來의 家

族 모습, 우리 家族의 바램, 家族構成 및 紹介, 家族 寫眞, 家族 사랑, 우리집 紹介, 案內, 父母님이 子女에게 주는 글, 家族 對話 코너, 글짓기 作品等 多様하게 構成한다.

○ 施賞 : 家族 모듬별로 施賞을 하고 사랑의 內容이 짙은 것, 和睦의 內容이 짙은 것, 孝道의 內容이 짙은 것, 美談의 內容이 짙은 것으로 분류하여 사랑狀, 和睦狀, 孝道狀, 美談狀을 全 家族에게 施賞한다.

(2) 家庭 對話의 날 運營

○ 每週 土曜日을 家庭 對話의 날로 定하여 對話의 時間을 갖도록 하였다.

○ 父母는 家庭의 형편을 알리고 子女는 學校 問題, 親舊 問題, 異性 問題, 苦悶거리 等の 苦衷을 相談하도록 하였다.

○ 父母와 子息간의 隔意없는 對話로 子息은 父母를 極盡히 恭敬하고 섬기는 至極한 孝誠心을 갖게 하고 父母는 子息에 對한 仔詳한 關心을 갖게 하여 父母와 子息間的 사랑을 敦篤히 하였다.

○ 가정 대화의 날 운영 일지를 기록하여 반성 및 참고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 밝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家族新聞 例示]

행복이 가득한 집

호수 : 제1호
 펴낸날 : 1996. 5. 9
 펴낸이 : 황의심, 김수용, 김경아

행복이 가득한 집

호수 : 제1호
 펴낸날 : 1996. 5. 9
 펴낸이 : 황의심, 김수용, 김경아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가득한 집</

[施賞 例示]

제 호 상 장 김 ○ ○ 가족

효도장

위 가족은 제74회 어린이 날 기념 사랑의 가족 신문 만들기 대회에서 위의 내용과 같이 온가족의 뜻이 새겨졌으므로 이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1996년 5월 8일

영산포초등학교장 이 상 배

4. '늘 푸른학습'제작 활용

스승의 날을 맞아 學父母 1日 教師制를 推進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고마움과 尊敬心을 갖도록 하고, 兒童들의 學校 生活과 家庭 生活에서의 問題點들을 教師와 學父母間의 隔意없는 對話를 通하여 指導함으로써 兒童들의 바른 人性이 生活속에서 定着될 수 있도록 對話

의 場을 마련하였다. 학부모들의 1日 教師 授業 內容은 授業의 며칠 前 擔任 教師와 協議하여 兒童들이 21세기의 主人公으로서 必要로 한 바른 人性教育에 關한 內容을 주로 다루도록 하였으며 授業을 마친 後 所感을 通하여 教育에 必要한 內容과 어려움을 이야기 하도록 하여 效率的인 人性教育 資料로 活用하도록 하였다.

1일교사 수업내용 및 소감

학년반	3 - 1	담 임	조 영 수	1일교사	(편무선 어머니)
교 과	도 덕	주 제	나의 학창 시절 및 진정한 친구		
[수업내용]					
☞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교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초롱초롱 빛나는 어린이들의 순진한 눈망울을 보면서 잠시 나의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그래서 처음 꺼낸 이야기도 나의 3학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하였다. 아이들에게 3학년때의 경험담을 들려줌으로써 그 시절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과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 하나 선생님은 결코 학생들을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 모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마음을 배우자.

◆ 우리 식탁에 쌀밥이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범씨의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부터 단계별로 알려줌으로써 쌀이 되기까지의 농부의 기다림과 어린이들이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까지의 기다림은 묵묵함과 끈기 그리고 그때 그때 필요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다.

☞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 개똥벌레 이야기를 통해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서 소중한 귀한 것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전했다.

[소감]

☞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 준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았다.

◆ 웬지 어색하고 딱딱하고 분위기를 씻기 위해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운 종이접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실을 나왔다. 말쑥꾸러기 3학년 담지않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준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고 그렇듯 꾸밈없고 의젓한 아이들이 되기까지의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자신에게 보람을 느끼며 이런 보람의 기회를 주신 학교측에도 감사의 말을 지면을 통해 전한다.

5. '온 家族이 함께 하는 智慧의 샘' 製作 활용

本校에서는 마음의 教育을 위한 하나의 方法으로 '智慧의 샘'이라는

책자를 펴내 온 家族이 例話가 주는 教訓과 意味를 吟味해 보고 지금까지 自身들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 봄으로써 삶의 里程表를 바로 잡아 보다 意味있고 바람직한 삶은

물론 맑고 고운 心性을 지닌 따듯한 사람을 기르고 온 家族이 함께 하는 열린教育의 場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자기 生活의 龜鑑이 되도록 하였다.

[지혜의 샘 예시]

84. 누가 진짜 부자일까?(재산)
 어느 배(船)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선객들은 모두 부자들이었으며 그 중에 랍비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견주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자 랍비가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얼마 후에 해적이 나타나서 그 배를 습격했다. 부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모두 잃었다. 해적이 사라진 뒤 배는 겨우 어떤 알지도 못하는 항구에 닿았다. 랍비는 곧 그 항구 사람들에게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이 인정되어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랍비는 같은 배로 여행했던 지난 날의 부자들과 만나게 되었으나 모두 비참한 가난뱅이 처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확실히 당신의 말이 옳았소. 학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했다. 이래서 지식은 언제나 빼앗기는 일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생겼다.

- ☞ 인간에게는 요긴한 부분이 여섯군데 있다. 그 중에서 세개는 자신이 지배할 수 없지만 다른 세개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렇게나 되는 부분이다. 눈, 귀, 코가 앞의 것이고 입, 손, 발이 뒤의 것이다.
- ☞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 ☞ 장미꽃은 가지 사이에서 자란다.
- ☞ 보수 없이 처방전을 쓰는 의사의 충고를 듣지 마라.
- ☞ 향아리를 보지 말고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 ☞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업적에 의해서 평가된다.
- ☞ 이제 열린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 ☞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 ☞ 훌륭한 사람이 아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노인이 젊은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지혜의 샘 예시]

월 주	월 - 일	학년 반	번 이름
이 글을 읽고 느낀 점과 생각을 적어봅시다.			
나의생각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생각	*이 글을 읽고 부모님의 느낌과 생각은 어떠하며,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온가족의생각모으기	*앞으로 우리 가족이 달라져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천할일	*내가 앞으로 꼭 실천해야 할 일을 자세히 적어봅시다.		
명언 및 속담	Patience is a virtue. 인내심은 미덕이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榮山浦初等學校의 多樣한 實踐 프로그램을 紹介하였다.

人性教育 프로그램 開發 適用은 兒童들의 共同體意識과 情緒 涵養에 크게 이바지 하였고, 孝敬意識의 鼓吹를 위한 父母님과 스승에 대한 便紙쓰기는 師弟之間, 父母와 子女間의 對話 機會를 擴大하여 따뜻한 教室, 和睦한 家庭 雰圍氣를 造成하였으며, 열린마당 指導 資料를 통한 人性 指導는 兒童들의 健全한 놀이 文化를 形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學校 放送을 통한 瞑想의 時間 運營은 兒童들이 自己 自身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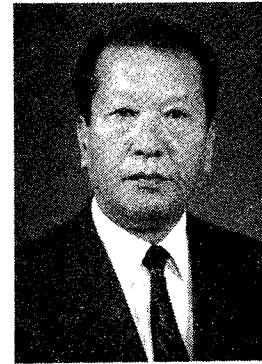
되돌아 볼 수 있는 時間을 갖게 함으로써 自律的 實踐 意志의 涵養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自律化, 多樣化, 開放化가 이루어지고 討論과 選擇이 가능한 合理的인 열린教育 社會를 建設해 감으로써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道德的이고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어린이를 길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學校가 存在하는 곳 어디서나 주어진 與件 아래 思考의 轉換, 意識의 改革을 바탕으로 持續的인 關心과 忍耐를 가지고 渾身의 힘을 쏟아 教育에 임할 때 人性 教育의 實效를 거둘 수 있으리라 生覺된다.

* 좋아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미워하는데도 이유가 없다.
* <세익스피어>
* *****

多様な 열린學習 프로그램 適用을 통한 바른 人性 涵養



趙 炫 植
(光陽西初等學校長)

I. 운영의 개요

A. 운영의 필요성

교단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교육 실천은 이에 미흡한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인성교육의 영역은 복잡 미묘하며, 다인수 학급에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지 못한 수업 진행 방식으로 개념적으로만 중시되고 있고, 둘째, 교과 성적위주의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천적 인성·도덕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며, 셋째, 인성교육에 대한 시설 미비, 학습자료 부족과 교육 관계자들의 인성 교육에 대한 구현

의지가 미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기에 적합한 방법이 열린학습이라고 보아 다인수 과밀 학급 실정에 맞는 열린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본 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B. 운영의 목적

본 운영의 목적은 지도의 개별화와 학습의 개성화 및 활동의 자율화 등의 열린 학습 방식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 1. 학습 지도의 개별화·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2. 참만남의 기회를 조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3. 참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일반화 하는 데 있다.

II. 선행 연구 및 실태 분석

A. 선행 연구의 분석

다인수 학급의 열린교육과 인성교육의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얻은 시사점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개인차에 따른 개별화·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도덕과 뿐만 아니라 사회, 국어 등 전 교과, 학교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지식을 통한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대화, 토론, 상담, 수련활동, 봉사활동 등의 실천적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하였다.

B. 실태분석

본교 3학년 이상 전체 학생들의 특수 인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교성이 가장 높고, 책임감과 자신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하게 나타났다.

학생 행동 경향 분석한 결과 마음이 내킬 때만 말을 듣거나 교사가 없으면 떠드는 학생이 많고, 청

소도 스스로 하는 학생이 적으며, 여럿이 하는 일도 피를 많이 부리고, 생활에 계획성이 부족하며, 자주성이 부족한 등 모든 덕목이 미흡한 실정이다.

학부모의 자녀 인성교육 실태 분석 결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몸소 실천하면서 인성교육을 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 운영 중점

이상의 본 시범 운영 목적과 선행 연구 결과 시사점 및 실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한 운영 중점은 다음과 같다.

- 1. 운영 중점[1] 학습 지도의 개별화·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2. 운영 중점[2] 참만남의 기회를 조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한다.
- 3. 운영 중점[3] 참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III. 운영의 대상 및 방법

- A. 대상 : 광양서초등학교 전학생 1,507명(남771, 여736)
- B. 기간 : '96. 3. 1 ~ '98. 2. 28(2년간)

IV. 시범 운영의 실제

A. 운영 중점[1] 실행

학습 지도의 개별화·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1. 디딤학습 프로그램 개발·활용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학습을 통한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만족도를 높이면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바른 품성이 길러질 것이라는 기본 가정하에 본교가 그 기반이 되고 기초·기본 학습 자료인 디딤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학습 내용은 「음독」, 「반침 바르게 쓰기」, 「수·연산」의 세 가지로 한정하였다.

a. 「음독 디딤학습」은 소리내어 읽기이며, 표준 속도로 더듬지 않고 유창하게 읽음을 목적으로 하고, 학습 자료는 95단계로 되어 있으며, 읽기 내용의 양에 따라 3~6 단계가 한장씩 카드로 되어 있으며, 학습 시간은 아침 8:35부터 8:50까지 15분이며, 완전히 자율적으로 연습하여 한 단계를 유창하게 읽으면 교사에게 요청하여 점검·확인 받음, 여기에서 합격하면 음독 학습 성취표에 합격인을 받아 다음 단계로 간다.

b. 「반침 바르게 쓰기 디딤학습」은 각 학년 읽기 교과서에 나온 글자를 바르게 쓰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학습자료는 1, 2학기용 국어과 읽기 교과서에서 ㄷ, ㅈ, ㅊ, ㅋ, ㅌ, ㅍ, ㅎ 반침과 쌍반침을 갖는 말을 모두 가려내어 학년 학기별, 반침별로 배열하여 만들었다. 학습 시간은 아침 8:35부터 8:50까지 15분간이며, 자율적으로 연습해 나가며, 각자의 학습진도 점검은 같은 단계 안에 있는 말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에 한하여 당해 단계의 합격이 인정되고 해당 단계에 합격인을 받는다.

c. 「수·연산 디딤학습」은 수와 연산의 양 영역이 수학과 타 영역의 학습의 도구라고 보아 수와 연산 영역 학습을 충실히 함을 목적으로 학습자료는 전학년 수학과 교과서 내용 중에서 수와 연산의 양 영역에서 필요 최소한의 공통필수의 내용을 가려내어 차례로 학습 단계를 140단계로 매긴다. 학습 시간은 10:50~11:15까지 25분간이며, 처음에는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완전히 합격한 학생군은 교과서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복습하고 한 단계라도 불합격한 학생군은 각자 합격하지 못한 단계의 카드부터 차례로 학습해 올라간다. 1, 2학년은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하고 3학년 이상은 학년별, 단계별로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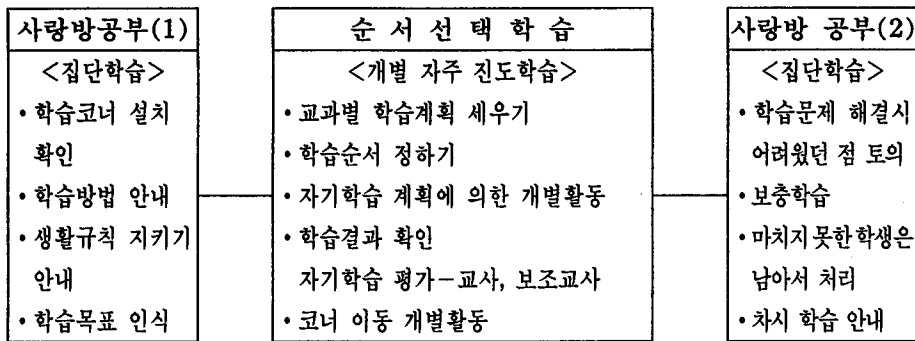
을 지어 팀티칭을 하였다.

2.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개별 처방 학습 전개

a. 선호차에 대응하는 순서선택 학습 모형 정립·적용

학생의 흥미, 관심, 의욕에 따라 복수의 학습감을 각자가 원하는 순서로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였고, 순서선택학습 모형의 시안을 교실 현장에 투입하여 적용한 후 생기는 문제점들을 동학년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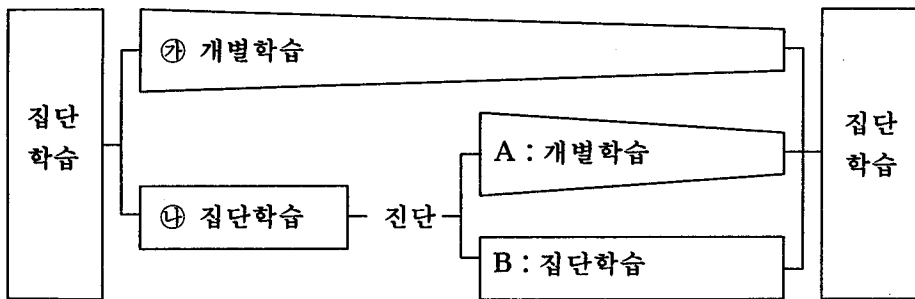
순서 선택학습 과정 모형



b. 수준차에 대응하는 완전학습 및 개별자주진도학습의 병행진행 학습

완전학습과 개별 자주 진도학습이 병행하여 진행되는 학습형태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완전학습 및 개별자주진도학습의 병행학습 과정 모형



1) 집단학습 과정(1)

① 학습길잡이에 따라 학습목표, 학습과정 등 본시학습을 안내한다.

② 본시의 학습감(학습과제)을 개별자주진도학습 형태(㉞)와 완전 학습 방식에 의해 교사와 함께 학습하기(㉟)의 두 가지 학습 방법 중에서 택일한다.

b) 개별화 학습과정

① 학습길잡이에 준거하여 학습 계획 수립하기

② ㉞군은 학습지를 자주진도로 개별학습 하고, ㉟군은 집단학습 후 학습 성립 상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A, B 양군으로 나누어 A군은 학습지를 자주 진도로 개별학습 하고, B군은 직접적인 집중적인 재지도를 받는다.

③ 학습결과를 점검을 받고, 발전학습까지 마친 학생들이 선택학습 활동을 한다.

c) 집단학습 과정(2)

개별 자주 진도학습 결과에 대한 발표→토의·토론→교사의 보충지도→학습보고서의 작성→보고서의 발표 차례로 핵심 사항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B. 운영 중점 [2] 실행

참만남의 기회를 조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한다.

1. 명상의 시간 운영

주2회 방송 시간에 나의 마음 이야기, 위인 이야기 등을 시청하고 소감이나 느낌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2. 가정교육과 연계 강화

부모님께 사랑의 편지 보내고 받기를 실시하였고, 가족이 공동으로 가족 신문 만들기를 하였으며, 가족의 날을 운영하여 가족끼리 대화하는 기회를 늘렸고, 나의 뿌리 찾기 등 11가지의 나의 모습 알기 프로그램을 구안·활용하였으며,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하였다.

3. 봉사활동의 활성화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정서 및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의 함양, 학생 봉사정신과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응력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제공하고, 학생은 그 중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담임은 봉사활동 상황을 학년말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4. 열린 학습의 날 운영

월2회 이상 열린 학습의 날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활동 단위는 활동 주제에 따라 학급 단위, 동학년 단위로 활동하였고, 활동 내용은 교과 시간에 소홀하기 쉬운 체험, 관찰, 실습, 전학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5. 선택과제 학습 활동

신문을 활용한 생활예절, 자유연 구보고서, 독서활동, 동요부르기, 동시 외우기 등을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6. 열린 체육 한마당 운영

아동들이 평소에 학습한 체육의 성과를 놀이 마당을 통하여 표현시키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사, 아동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체육을 통하여 용화를 꾀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놀이마당 종목 선정은 학년 발달 단계에 알맞은 내용을 동학년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놀이 마당 운영은 오전에는 학년별 돌림마당, 오후에는 전체 놀이마당으로 운영하였다.

7. 어린이회 활동

전교 어린이회장과 부회장을 4학년이 이상이 전원 참여하여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였으며, 어린이회 활동을 통한 연간 실천 계획 수립하여 월 실천목표와 주별 실천내용이 선정되면 전교 역할분담 활동 부서에서 책임지고 실천할 임무를 부여하여 실천하였다.

8. 클럽활동 운영

클럽의 편성 꼭 필요한 클럽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정하지만 가능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클럽 선택은 학생의 희망에 따르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지도교사로 활용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운영을 하며,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를 나누어 차등 지도하였다.

9. 전 학생 시상제 운영

점수, 서열 위주의 우등상제를 지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시상제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전인적 인간 교육을 실천하였고, 시상 방법은 학교에서 주는 상과 가정에서 주는 상으로 구분하여 선정 시상하였다.

10. 나의 생활 반성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할 하루 생활 약속을 시간으로 분류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평소에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하였고, 학년초 실태 분석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8개 덕목의 실천 내용과 학교 급식시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카드로 만들어 주 1회 반성하였다.

C. 운영 중점[3]의 실행

참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 자율 실천의 여건 조성

a. 열린 생각·고운 마음 제작하여 인성교육 전반에 걸쳐 학생들이 꼭 실천 해야 할 내용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 공책으로 저, 중, 고별로 학년 단계에 맞게 만들어 활용하였다.

b. 착한 학생 게시판 설치하여 학급별로 조별 이름과 상징물을 함께 게시하였고, 열심히 하는 조와 개인에게 스티커를 주어 강화를 꾀하였고, 담임이 아무도 몰래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암행어사를 선정하여 학급별로 가장 착한 일을 한 학생을 조사하고, 다음날 아침 협의회 때 발표하도록 하였고, 해당 영역에 스티커를 부여하였다.

2. 인성교육 공간 구성과 활용 방안

a. 교실 벽면의 아동 작품판은 첩판을 사용하여 자석판을 만들어 작품 게시를 용이하게 하였고, 발을 설치한 후 학습 결과물과 상장 등을 게시하였다.

b. 인성코너, 독서코너 등 다양한 학습코너를 설치 운영하였다.

c. 열린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동용 소철판, 파일박스, 카페트, 실물화상기 등 교재·교구를 표준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68종 676점을 구입하여 활용하였다.

d. 복도를 학습센터로 활용하였고, 학년 학습실을 만들어 학년 자료를 보관 활용하였으며, 학습 상황에 따라 좌석 배치 변화를 주어 다인수 학습의 전통교실에서도 열린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 사철 꽃피는 학교 조성을 위해 장미, 철쭉 등 10종 902그루의 꽃나무를 심었으며, 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수종으로 1인 1화분 가꾸기를 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예절실 운영

우리의 바람직한 전통윤리에 바탕을 두고 오늘의 바른 예절 생활

을 알게 하고 이를 행동으로 체득하여 생활예절을 습관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예절실을 설치하였고,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예절실 이용 수업안을 작성 활용하였다.

4. 학급별 생활규칙 제정 게시

학급생활 규칙을 토의를 통하여 제정한 후 가사로 반가 지어 부르고, 교실 벽면에 게시하여 항상 보고 지킬 수 있게 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운영에서 다양한 열린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차에 대응하는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아동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시간을 쓸 수 있었고, 학습 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2. 참관담의 장을 조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었고,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이 내면화 되었으며, 전인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는 등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였다.

3. 다인수 학습의 전통교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재배치하고, 학습 집단을 융통성있게 조직화하여 인성교육 공간을 넓히고 열린학습도 가능하였다.

B. 제언

1. 바른 인성을 육성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주위의 상황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교내 안팎에는 악영향을 끼칠 잠재적 요소들이 제법 많아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겠다.

2.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 부모, 지역사회 주민 모두 몸소 실천을 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인성교육을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내 주위부터 시작해야겠고, 교사들이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정비되어야 인성교육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體驗學習을 통한

正直·禮節生活 實踐



金 善 坤

(求禮北初等學校長)

1. 머리말—弘益人間과 人性教育

實踐爲主 人性教育을 5.31 教育 改革의 中心施策으로 선언한 것은 우리 겨레가 이 땅에 定着해 살아 온지 桓紀 9195년이라는 悠久한 歷史와 弘益人間教育(性通光明·在世理化·弘益人間)의 傳統的 思想을 가꾸어 온 人類文明을 創始한 배달겨레(한단고기)로서, 그 전통과 사상을 오늘에 되살려 파괴되어가는 人性과 썩어가는 지구와 파멸의 위기에 봉착한 인류문명을 구원하려는 人類的인 決斷이요, 民族的 使命을 천명한 것이요, 우리 教育同志들의 教育意志를 표방한 教育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해 본다.

우리 民族은 옛부터 自然을 敬拜

하고 항상 환웃을 즐겨 입으며 자신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예의바르게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왔다. 9195년 전 한님(桓仁)천제께서 天山에 강림하시어 開天(桓國)하시고 7대후 5894년 전 한웅체께 양위하시니 한웅천제께서는 홍익인간을 국시로 삼고 신시에 도읍하시어 배달국을 건국 천부경과 삼일 신고를 강의, 在世理化의 길을 열으심으로서 홍익인간의 큰길을 후세에 이어 주셨다.

그러나, 수 많은 외침으로 국력이 쇠퇴해진 틈에 파고든 외세에 시달리던 사이에 몰지각한—아니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조상님들의 지혜로—사대주의 사관·모화사상과 식민주의 사관·식민주의 사상에 의

하여 민족철학은 단절되고 뿌리없는 고아로 살아왔던 배달의 후손인 우리가 잊었던 우리 민족 哲學인 弘益人間을 인성교육이라는 새로운 기치아래 되살리는 일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반가움이 아닐 수 없다.

2. 人性教育의 目標(내용)-

正直과 禮節(기본질서와 효행 포함)

本校가 열린 體驗學習을 통하여 正直·예절생활 실천을 주제로 인성교육을 부르짖는 까닭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다. 본교가 인성교육의 목표를 정직과 예절(기초질서 효행포함)로 삼은 까닭은

첫째, 정직과 예절이 성통광명(정직-성), 재세이화(예의-명), 홍익인간(삶-정)의 바탕을 이루고 性·命·精이기 때문이며,

둘째, 정직과 예절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인간성을 구성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며

셋째, 오늘의 사회가 혼탁한 것은 정직과 예절생활이 제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본교 어린 학생들이 왜 정직해야 하고 예절이 발라야 하는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삶의 기본 도구(정직, 예절)가 무엇인지 구분짓지 못하여 생활 가치 기준이 혼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3. 人性教育 方法-자비와 정성, 모범과 감화, 교화와 토론, 강화와 보상, 명심 반복

본교의 정직성과 예절학습을 유도하는 학습방법은 SOR 이론에 바탕을 둔다. 아동이 정직, 예절생활 방식을 스스로 배우 깨우치고자 하도록 하는 방법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전통적인 방식 즉 자비와 정성, 모범과 감화와 근대적인 지도방법인 교화와 토론, 보상(강화)을 조화있게 사용한다.

첫째 자비와 정성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방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염염불이면 성불이란 간절한 소망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비와 엄격한 규제와 적극적인 지원과 융통성(관용)을 발휘하여 모험감 성취감 행복감을 경험(학습)하게 한다.

둘째 모범과 감화법

모든 어린이와 學生들은 기계적인 能力을 最大한 發揮하여 호기심(흥미)-모방-반복-정착-의문(질문)-교정-정착의 순서로 행동을 익힌 것 같다.

그러므로 부모와 선생님과 형, 누나들은 子女, 學生이 좋은 것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나쁜 것을 보지 않게 하는게 좋다. 正直과 禮節에 관한 모범된 행위를 자주 經驗하게 하고 그때마다 對話와 討論의 기회를 주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무엇을 느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의 발문으로 감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열린 체험학습-모방, 감화)

셋째 교화와 토론법

감화는 이심전심으로 온고이지신 하는 것이요, 교화는 의도적인 타 이름, 모범 보임, 가르침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니 오늘날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는 방법의 하나이지만 너무 직선적이고 강압적이어서 아동 학생이 도리어 반발하는 경향이 종종 보이는 短點을 낳고 있다. 정성스럽고 자비스런 教化에는 感應이 질게 나타나지만 精誠과 자비가 없으면 감응을 얻지 못하여 교화는 되지 않고 반작용만 낳는 경향이 있어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어 감화를 유도해야 한다. 정성과 자비의 얹은 점을 보완하는 방책으로 대화와 토론을 도입하는 것이다.

◎ 學年別 實踐事例

실천사항	학년						구 호
	1	2	3	4	5	6	
정직 생활	○	○	○	○	○	○	정직하게 살자

넷째 행동 강화, 보상법
바람직한 행동 즉 正直·禮節스런 行動에 대한 興味 欲求를 持續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行動強化를 위한 보상이 잇따라야 한다. 칭찬 격려 등의 행동강화는 즉시 보상, 즉시강화가 효과적이다.

다섯째 명심과 반복법

正直과 禮節 內容이 기억되고 기억된 뒤에는 꼭 實行해야 하겠다고 마음속 깊이 심어진 (명심)뒤에 실천 궁행해야 덕인이 된다. 그러기에 매일 아침 명상시간을 두어 正直·禮節 實踐事例를 들려주고 每日 하교 直前에 正直生活 禮節生活 실천사항을 반복 強調한다.

4. 具體的 指導 內容

本校에서는 內容擴大法을 도입 幼稚園과 初等學校 學年 發達 段階에 따라 지도내용을 확대 설정하여 學校와 家庭과 地域社會가 協力하여 형식 비형식의 전 교육과정과 가정 및 지역행사 그리고 학교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지도의 실효를 거양하고 있다.

실천사항		학년						구호
		1	2	3	4	5	6	
예절 생활	1. 착한행동하기(利他行)	○	○	○	○	○	○	예절바르 게 행동 하자
	2. 바른인사와 언행 실천		○	○	○	○	○	
	3.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가정예절)			○	○	○	○	
	4. 친척간의 예절 지키기(호칭·인사)				○	○	○	
	5. 전통예절 익히기					○	○	
	6. 예절의 정신에 맞는 형식알고 실천하기(가정의례준칙 지키기)						○	
	• 국가, 국기에 대한 예절 지키기							
	• 학교행사때 예절 지키기							
	• 선생님에 대한 예절지키기	○	○	○	○	○	○	
	• 친구에 대한 예절지키기							

5. 열린 體驗學習場과 方法

a. 學校-家庭 連繫 指導 學校長
메시지

人性 教育은 學校 教育만으로는 學生들의 行動 變化가 크게 作用되 지 못하므로 '學校-家庭과 連繫하여 共同으로 指導해야 한다.'는 家庭 메시지를 作成하여 全 學父母 家庭에 보냈다. 이 메시지에에는 아버지의 役割, 어머니의 바른 行動을 強調하였고, 매일 아침 子女들이 父母앞에서 '바르게 보고(正見), 바르게 생각하며(正思), 바르게 행동(正行)'를 兒童들이 외우도록 하여 正直하게 行動하는 習慣을 갖도록 指導하였다.

b. 父母, 子女간 사랑의 便紙쓰기 및 가족 신문 제작

父母와 子女간 對話 機會를 擴大하고 和睦한 家庭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바라는 점, 고마운 情을 나눌 수 있도록 월2회 이상 사랑의 便紙를 쓰도록 하였고, 귀감이 되는 內容을 冥想時間에 紹介하여 고운 마음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와 학생이 협력하여 월1회 가족신문을 제작하여 건전한 생활이 실천되도록 하였다.

c. 週刊 바른생활 實踐 家庭 連繫指導

正直하고 예절바른 生活 實踐을 위하여 本校에서 製作한 '고운마음 바른행동' 책자를 全 學父母에게 配付하여 學校와 家庭 協力하여 指導하도록 하였는데, 구성 內容은 정직생활, 예절생활,근검절약, 공중도덕, 보건, 청결, 학습 등 5개 領

域으로 대주제 25개, 소주제 52개로 細分하였으며, 각 소주제는 教師活動 指導 資料와 家庭教育 指導 資料로 區分 活用하였다. 또한 매월1회 全校 어린이 會議를 開催하여 우리들이 지킬 바른생활 實踐 內容을 選定하여 家庭에서 부모님과 함께 實踐할 수 있도록 指導하였다.

d. 靑少年 遶據集團 生活體驗 學習(야영훈련)

本校는 隣近에 位置하고 있는 지리산 國立公園과 섬진강의 自然 條件을 最適 活用하였는데, 今年 7월 23일~25일(2박3일) 피아골에서 4學年 이상 대 자연속에서 學生 個個人의 心性을 陶冶하고 正直, 協同, 奉仕, 秩序등 共同體意識 體驗 活動을 실시하였다.

e. 民主的 自願 奉仕制 運營

民主的으로 全校 어린이회장 任員을 選出하고, 民主的 會議 進行方式에 따라 學生 스스로 환경봉사반, 어린이 교통반, 경로 효친반을 組織하여, 學校 周圍와 地域 環境을 깨끗이 가꾸고, 每日 아침마다 交通 混亂 地域에서 秩序指導, 노인회관 淸掃등 自律的 奉仕活動에 參與하여 民主市民의 기쁨을 다지도록 指導하였다.

f. 나의 實踐 바른生活 기록부 製作 活用

세계에서 가장 正直하고, 禮節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約束 '나의 바른생활 實踐 기록부'를 製作하여 全 學生에게 配付하여, 나의 祖上 뿌리알기, 우리집 家訓, 正直, 禮節生活 實踐 內容을 每月 4회 이상 記錄하여 自己 反省의 機會를 갖도록 하였다.

2) 즐거운 學習活動으로 오고싶은 學校 實踐

a. 學生 個性을 重視하는 열린 學習方法 適用

한 學級을 指導하고 있는 現 學習 方法을 같은 內容, 같은 方法으로 入試 爲主의 注入式 指導는 學習 興味도 能力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學生 個個人의 能力과 成就 水準을 考慮하여 本校에서는 學習 個別化에 力點을 두고, 學習 空間과 時間을 열고, 多樣한 學習 方法으로 指導하는 열린 學習方法을 익혀 指導하고 있는데, 학습 공간을 넓혀 校長室을 學習 支援 資料室로, 職員協議室을 學習資料 製作室로, 教室은 학습資料 活用室로 轉換하였고, 教科 指導 時間을 열어 多樣한 學習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學生 個個人의 能力을 把握하여 자기 스스로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基礎 基本 學習 指導에 充實을 기하여 學生들이 기쁨만끽 즐거운 學習이 되도록 하였다.

b. 學生 主導型 클럽활동 運營

學生 개개인의 個性을 尊重하고,

學生 素質을 키워 나가는 學生 希望 부서 중심으로 組織하여 일반클럽은 주2시간, 상설클럽은 每日 放課後 指導하였는데, 特技教師가 부족한 부서는 地域 資源 人事를 補助教師로 招聘하여 指導하였다.

c. 體驗學習의 날 운영

注入式 일방적인 學習 方式에서 벗어나 열린 學習 現場學習 중심의 多様な 活動을 運營하였는데, 이날은 學生들이 책가방을 가져오지 않는 날로, 주1회 週刊 學習 計劃에 따라 學年別 現場學習을 실시하였다.

d. 多様な 시상제 運營

健實한 道德性和 지, 덕, 체가 兼備한 全人的 人格人을 育成하기 위하여 劃一的인 종래의 教育活動을 強化하는 시상제를 改善하여, 바른 人格 形成과 教育課程이 要求하는 全人的 教育活動에 力點을 두고, 教科活動에서는 탐구상, 발표력상, 창의상, 노력상, 학력 우수상으로, 클럽활동에서는 기능상, 노력상으로, 바른생활 實踐면에서는 봉사상, 정직상, 준법상, 착한 예절상, 효행상으로 區分 상을 주었는데, 특히 人性 측면에서는 實踐 動機를 強化하여 바른 人性이 길러지도록 하였

다.

e. 學級別 즐거운 教室 프로그램 作成 活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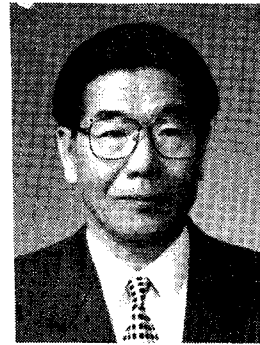
學生들이 즐거운 學校, 즐거운 教室에서 즐겁게 뛰어 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擔任 教師의 趣向에 맞게 프로그램을 作成 運營하여 指導 結果를 7월 6일 發表하여 健全한 心性을 길러지도록 指導하였다.

특히 擔任教師와 사랑의 對話時間, 和睦한 우리 家庭 發表會, 健全歌謠 發表會 부르기 시간, 우리반 特技 자랑 發表會, 口演童話 發表會, 現場體驗 活動 報告會등은 학교 放送用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映像資料로 製作하여 活用하였다.

f. 正直, 禮節生活 教科關聯 德目 實踐

學年別 全 教科를 分析하여 正直, 禮節生活 각각 1개 德목씩 抽出 選定하여 學期初부터 學生들이 習慣化 되도록 反復 指導하였는데, 1學年은 正直 禮節生活 각각 1개 德目을, 6學年은 1-5學年 德目을 包含한 德目 모두를 指導하여 正直과 禮節生活이 生活化 되도록 指導하였다.

事事 人性 教育 處處 人性 教場



崔 鳳 甲

(木浦北矯初等學校長)

I. 序言

옛날 中國의 春秋戰國時代의 混亂期에 孔子는 儒家의 思想으로 當時의 亂世를 克服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요즘 子息이 돈때문에 아버지를 殺害하고 至尊派라고 하는 무리들이 人命輕視風潮, 一國의 指導者가 엄청난 致富로 감방신세가 되는가 하면 不良少年들이 날로 더해가는 세상이고 보면 孔子의 思想에서 그 치유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行有餘力이어도 卽以學文이라” 젊은이들은 집에서 孝道하고 밖에 나가서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信義를 지키며, 널리 여러 사람과 사귀는 등 사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선 해야 한다. 그리고도 時間이 남으면 글을 익히려는 孔子의 말이다. 다시 말해서 知識教育보다는 德性教育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孔子니 孟子니 하는 시시콜콜한 傳統的 倫理 따위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 같다. 이 말이 지니고 있는 平凡한 眞理를 찾아서 溫故知新의 姿勢를 다시 금 가다듬어야 하겠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는 解放後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道義教育이니 全人教育이니 해서 人性教育을 強調해 왔다는 것만은 事實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오히려 그릇되어 가고 있는 人性教育이야말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2. 人性教育의 現住所

먼저 家庭에서 우리 애들의 人性教育의 實態를 살펴보자. 많은 父母들은 어린이가 사달라는 걸 다 사준것으로 父母의 道理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내 子息만 잘 되면 된다는 家族利己主義, 더불어 살아가는 倫理를 찾아보기에는 힘드는 世相이 되고 말았다. 父母의 無分別한 과잉보호, 自己 子女의 道德的인 行動에 對해서는 客觀性 없이 높은 期待나 要求도 하지 않는다. 社會 또한 마찬가지다.

學校에서는 橫斷步道の 交通信號를 지켜야 한다고 배웠지만 一般 行人들은 交通信號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나도 모르게 신사, 숙녀들의 그릇된 行動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유원지에 나가 보면 高聲放歌, 화투놀이, 꺼리낌없이 버리는 담배꽂초, 저속하고 教養없는 거치른 말씨, 自然環境의 오염도 問題이지만, 精神的인 오염, 思想的인 오염, 文化的 社會의 오염은 너무나도 심각하기만 하다.

그 뿐인가! 우리 나라의 人性教育은 누가 무어라고 해도 入試教育의 大變革 없이는 그 회오리 앞에서는 教育의 目的도 教育의 哲學도 無力할 수 밖에 없다. 名門大學 合格이란 出世主義 앞에서는 人性教

育도 民主教育도 당해낼 장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가꾸어야 할 人性教育은 저 뒷전에 밀리게 마련이다.

3. 人性教育의 問題點

兒童의 道德性 發達過程에 對해서 教育學者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低學年은 成人의 權威에 依存하기 때문에 間斷없는 指導가 重要하다고 한다. 中學年의 境遇는 他律的인면서도 規則의 意味를 把握하는 段階이고 高學年은 合理的인 判斷에 依한 理性과 態度를 지닐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1994. 10) 研究에 의하면 逆現狀이 생기고 있다. 低學年에서 高學年에 이르기까지 많은 數의 어린이들은 他律的인 습적 道德性에 머무르고 있으나, 그 發達의 過程에서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初等學校 低學年에서는 父母 또는 教師等의 權威나 道德規範을 엄격히 지켜야만 어떠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自然스런 現狀이다. 그러나 이제 中學年, 高學年이 되도록 自律性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이 教師가 옆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教師의 눈을 피하게 되면 되돌아서서 教育이 되어서는 안된다. 當番活動을 않으면 벌이 돌아오니

까 마지못해 그 시늬를 하는 것도 人性教育의 큰 問題點이다. 他律的인 道德性은 道德的인 權威가 사라지거나 있어야 할 보상이 없으면 언제라도 規範을 이탈할 수 있는 취약된 狀態다.

우리의 人性教育의 問題點이 바로 이 點이다. 어린이는 學年이 올라갈수록 認知能力은 發達하지만 그에 걸맞게 道德性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外部의 權威 代身, 空洞化 되어있는 그 空間을 메워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當面한 教育課題라 하겠다.

이와 같이 學年이 올라갈수록 道德性이 弱화되어가고 있는 現狀을 앞의 研究結果를 가지고 좀 더 仔細히 살펴본다.

試驗에서 不正行爲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反應을 보면 3學年은 64.9%인데 比하여 6學年은 27.6%로 크게 그 道德性이 低下되고 있다. 그 밖에 責任感, 協同性에 關한 問題에서도 一貫되게 6學年이 3學年에 比하여 規範을 지키겠다고 하는 反應이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現狀이다.

이러한 傾向은 初等學校보다는 中學校가, 中學校보다는 高等學校가 더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는 點이 더욱 큰 問題點이다.

4. 克服되어야 할 人性教育

어느 新聞 Gossip欄에서 본 記事를 소개해 본다.

美國의 한 사냥꾼이 아프리카로 사냥을 하러 갔다. 야수들이 있는 곳을 찾아낸 사냥꾼은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一行인 아프리카住民들이 달리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사냥꾼은 절호의 찬스를 놓칠까봐 달려봐도 육박질러도 소용없이 묵묵부답이다. 한참 있다가 住民班長이 말문을 연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왔다. 그런 바람에 마음을 저 뒤에 남겨놓은 채 너무 빨리 몸만 달려왔다. 그러니까 마음이 뒤따라 올때까지 몸이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아프리카 住民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教育은 入試니 經濟開發이니 해서 마음을 저 뒤에 놓은 채 몸만 달려왔다. 다시 말해서 精神을 잃어버린채 物質만 앞세워 왔다.

家庭은 家庭대로 社會는 社會대로 學校는 學校대로 初·中·高 할 것없이 精神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리하여 오늘의 우리는 야수를 보고도 그 자리에 주저앉은 아프리카 住民들처럼 몸에는 마음이 같이 따라야 할 마음의 教育이 우선해야 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學校가 中心이 되어서 家庭과 社會를 啓導하고 비틀어져 가고 있는 人性을 바로 잡을 수 밖에 다른 道理가 없다.

多幸히도 初等學校 低學年의 境遇 道德的 行事を 왜 하느냐고 물으면 “先生님이 시켜서”, “어른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라고 하는 他律性이 강한 反面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그러한 他律的 理由보다는 自律性이 엿보인 點은 무언가 教育의 可能性을 엿보여 준 것이라고 하겠다.

人性教育의 첫걸음은 幼兒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俗談 그대로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白紙에서 出發한다고 한다. 그 白紙위에 어린이의 생각과 行動의 線을 그어가면서 그 線이 굽어져서 習慣이 되고, 이것이 또한 第二天性이 된다. 물이 아래로 내리듯이 우리의 行動은 習慣이라고 하는 江을 만들어 물이 흐르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良習慣이 幼兒때부터 形成되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點이 바로 이 部分이라 하겠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머리띠를 조아매고 가장 基本的인 良習慣形成 教育부터 다시 出發해야 한다. 孔子의 말과 같이 모든 教育에 앞

서서 말이다.

이 良習慣이라 함은 態도와 같은 概念으로 人性과 屬性으로 바로 連結이 되는 것이며 知·情·意가 結合이 되어야 더욱 效果的으로 形成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幼兒나 低學年의 境遇는 間斷없는 반복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家庭과 學校에서는 꾸준히 全力投球해야 한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그 行動이 몸에 베이도록 보살펴주지 않고서는 作心三日이 된다.

바른 생활 時間은 勿論, 國語時間에도 數學時間에도, 良習慣指導의 高씨는 늦추어서는 안된다. 복도에서도 運動場에서도 家庭에서도 校外에서도 指導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事事人性教育, 處處人性教場이 되어야만 한다. 어린이의 하나의 良習慣이란 指導者의 피나는 努力과 집념과 악전고투의 所産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中學年 以上이 되면 어느 程度의 事理가 分別이 된다. 低學年때는 道德的 規範을 따져보지 않고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인 段階라면 中學年 以上이 되면 道德的 問題를 自身の 理性에 依해서 따져보기도 하고 論議해 보고서 自律的인 判斷으로 選擇할 수 있는 段階에 이른다. 피터즈(R.S Peters)의 表現대로 習慣이라고 하는 뜰을 거쳐 理性的 宮殿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具體的인 授業事例를 하나 들어본다.

教室앞에 소담스럽게 피어 있는 함박꽃이 여러 어린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꽃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다. 경식이라고 하는 이웃반 어린이가 자기 집 꽃병에다 꽃기 위해서 꺾어가 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 경식이 한 行動에 對한 問題事態를 授業으로 이끌어 온 것이다.

어린이들은 활발하게 경식의 行動에 對해서 論議한다.

“경식은 평소엔 꽃을 사랑한 나머지 몇 송이 꺾어갔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꽃을 함부로 꺾어간 것은 안된다고 본다.”

“꽃을 좋아 한 사람이기에 그런 것쯤이야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꽃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더욱 꺾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학교 물건은 함부로 손대서는 안된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論議過程을 거쳐서 自然保護나 公衆道德이라고 하는 規範을 찾아낸다. 授業은 그 規範을 찾아냄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더

욱 重要的 것은 이와 같은 規範을 어떻게 實踐케 하느냐는 데 있다. 너무나도 感動되어 나도 한번 그와 같이 實踐해 봤으면 하는 強力한 實踐動機를 심어주는데 授業의 生命이 있다.

“선생님, 저는 우리 교실에 꽃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가꾼 국화꽃 화분을 갖고 왔어요.”

“저는 유달산 체육공원에서 어지러진 휴지를 말끔히 주웠더니 지나가던 아저씨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서로 앞을 다투어 善行事例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은 나도 모르게 비단결같은 고운 마음에 파묻히게 된다.

나도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칭찬을 받아야겠다는 強力한 意志가 생겼을 때 授業은 成功되었다고 할 것이다.

“꽃을 꺾어서는 안돼!”

教師의 權威나 一方的인 說教로서는 어린이를 感動시킬 수 없다. 어린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善惡을 追求하는 道德的 活動이 따라주어야 마음의 教育이 可能해진다.

鄭範模氏는 道德的 論議를 거치지 않는 實踐은 論理的으로 不當하다고 지적하였고 또 강우철씨는 論議에 依해서만 참다운 道德人이 된다고 했다. 道德時間은 말할 나위

도 없거니와 아침 모임 時間, 가는 모임 時間, 수시 時間을 만들어서 이러한 꾸준한 過程을 거쳐야만 한다.

지금까지 論議한 授業事例는 어디까지나 道德的 理性, 卽 道德的 態度的 側面을 말했을 뿐이다. 이 教科活動을 통한 理性層은 日常生活의 實踐路線으로 連結되어서 그것도 수없이 많은 반복훈련이 되어야만 이른바 知行合一의 人性教育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從來의 人性教育이 失敗한 理由는 여러가지 條件이 있겠지만 學校教育의 側面에서 이야기 하자면 授業은 授業대로 日常生活과 斷切이 된 데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授業에 못지 않게 重要的 것은 教科時間에 익혀진 理性層을 實踐할 수 있는 意圖的이고 具體的인 實踐의 場이 提供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具體的인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本校의 事例를 몇가지 들어 본다.

먼저 하루 生活 프로그램의 作成活用이다. 低·高學年別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항상 책상옆에 게시하고 날마다 아침 協議時間, 가는 모임 時間에 이 프로그램에 依해서 自省, 自覺, 自行하는 良習慣形成에 注力하고, 어린이 放送時間의 人性

教育 優秀事例 TV 放送은 어린이로 하여금 굉장한 興味로운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本校에서 가장 重點적으로 實踐하고 있는 것은 고운 마음거울이다. 이 고운 마음거울은 事事人性教育 處處人性教場의 現場 記錄帳으로서 이 內容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귀염등이 어린이, 自律的인 學習力을 다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農·漁村 體驗學習의 領域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책가방 없는 現場學習, 一學級一課題(人性教育分野)의 遂行, 讀書修3制運營等を 意圖的으로 指導하고 있으며, 特히 家族과의 連繫를 도모하기 위한 家族教室運營은 相當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

5. 結言

모름지기 人性教育이 본 制度에 오르려면 全教育課程을 통한 全人教育이 되어야 한다. 全人教育이 되려면 어떻게 되었을 때 可能的인 것인가?

누가 무어라고 해도 먼저 우리 敎職者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고 固定的 觀念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한 點數爲主의 教科中心教育에서 벗어나서 사람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教育이 우선해야 한다. 勿論 우리 敎職者의 모델

링이 重要함은 말할 나위 없다.

先進外國에서는 良習慣教育程度는 家庭에서 이미 形成 되어버리기 때문에 學校教育의 負擔이 줄어진다 고 한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家庭과 連繫하여 家庭에서의 役割機能을 되살려야 한다.

人性教育이란 家庭과 學校, 社會에 共同責任이 지어졌을 때 비로서 이루어지가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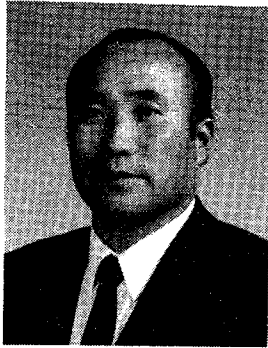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政府가 서두르고 있

는 教育改革은 과감하게 推進되어 入試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敎職者가 誠實하게 全力投球할 수 있도록 報酬體제도 早速히 改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有能하고 誠實한 人材가 敎職을 선호하도록 그 誘因體제가 確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人性教育은 事事教育, 處處教場의 體제가 確立되었을 때만이 可能하다.

*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진리를 얻기 위해 쏟은 고난의 양에 의해 *
* 측정된다. *
* *
* *
* *
* *

<렛싱>

教育課程 運營의 多樣化로 한사람 한사람의 고운 心性 기르기



申 八 雨

(高興東初等學校長)

1. 운영의 개요

A. 운영의 영역

지정구분	영역	운영기간	대상	보고일자
교육부 지정 자율시범학교	인성교육	'96. 3. 1~ '98. 2. 28	전교생 37학급 (1,347명)	중간보고 '96.10.15

B. 운영의 취지

학교교육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도덕적 가치 체계를 내면화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특히 오늘의 우리 사회는 산업 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 학교에서의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인성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적 인간 형성의 교육이며,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기르는데 있다.

이와 같은 인성교육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폭넓은 인성교육을 펴 나가야 하겠기에 본교의 현실적 과제를 파악한 결과 학생들이 옳은 생각을 하면서도 몸소 실천하지 못하고 단친 교실에서의 생활에 젖어 발전 지향적인 사고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II. 운영의 실제

A. 과제 1의 실천

인성 관련 덕목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 전개

1. 인성 관련 실천 덕목 선정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측면에서 본교 학생들의 교과·특활·생활 및 가정 생활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9개의 인성 관련 실천 덕목과 그에 따른 주요 실천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에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 가치관 정립을 위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지속시켜 볼 것인가의 문제 요인만 차츰 줄여 간다면 본교의 학생들은 보다 밝고, 맑은 품성이 도야되리라 본다.

이와 같은 현실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운 심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펴 나가고자 초점을 모았다.

C. 운영의 목적

인성관련 덕목을 선정하여 교과 관련 수업과정을 통해 올바른 가치 판단력을 기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운 심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

인성 관련 실천 덕목 일람표

영역	덕목	실천내용	중심관련		
			교과	특활	생활
기본생활	질서 청결 절약	• 고흥동어린이 기본생활 수칙 실천			○
		• 자연 탐사 활동		○	
		• 아껴 쓰기, 저축 목표액 실천	○		○
자아 확립	성실 자주	• 생활일기 쓰기	○		
		• 자율봉사 활동	○		○
		• 국기 그리기, 나라 사랑 글짓기	○	○	○
		• 우리집·우리고장 자랑 발표회	○	○	
		• 나의 주장 글짓기			○
	• 가훈 전시회			○	

영역	덕목	실천내용	중심관련		
			교과	특활	생활
효도·경애	예절	·마음공부방 운영 ·마음 공부 지도안 작성 ·인성관련 영상자료 확보	○		○
	효도	·가족 신문 만들기, 전시회 ·사랑의 편지 쓰기, 모음집 ·뿌리 알기 교육	○	○	○
공동체의식	협동	·수련 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농·어촌 체험 학습	○	○	○
	인간 존중	·NIE 학습, ·체험학습의 날 운영 ·고운심성 기르기 실천 기록장 구안 활용 ·학예 발표회 ·독서 토론회	○	○	○

2. 인성관련 덕목 중심의 교과·단원 내용 분석
 교과·단원 내용 분석표(예시)
 학년별, 학기별, 교과별로 인성 덕목과 관련된 단원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표를 작성하여 학습활동 시간에 활용하였다.

학년별, 학기별, 교과별로 인성

인성 관련 단원 내용 분석표(예시)

(3)학년 (2)학기

교과	단원(제재)	차시	활동구분		지도내용	인성관련 실천덕목	지도요소
			중심	보조			
도덕	1.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쓰레기통 없는공원)	1/2	○		○ 자연환경 오염에 따른 동식물의 피해 알기 ○ 동식물을 길러 본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알기 ○ 동식물이 잘 자라게 돌보기 ○ 개를 치료해준 나이팅게일	인간존중 청결위생	·생명의 귀중함 ·주변 깨끗이 하기 ·환경의 보전

3. 인성관련 덕목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전개

전년도에 본교에서 도덕과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적용한 토의수업 과정 모형을 참고하여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다음과 같이 가치 탐구 수업을 실시하였다.

a. 수업 방법의 다양화

1) 가치 탐구 수업의 적용

가치갈등수업 모형

과정	교수·학습활동	비고
① 갈등사태 제시	○ 경험을 상기시키고 학습문제를 잡는다. ○ 둘 이상의 규범이나 덕목간의 갈등을 포함하는 문제사태를 제시한다.	○ 일상수준 용어로 제시방법의 다양화(극화, 영상화)
② 문제사태의 분석	○ 여러 가지 관점을 찾는다. · 주인공의 입장 · 관련규범 및 덕목 · 규범들간의 관계 · 규범들간의 갈등 확인	○ 교사는 어느 한 입장에 서지 않고 반대 입장의 경우 보조 질문한다.
③ 자기입장의 선택	○ 자기 입장을 선택하여 제시-근거 제시 ○ 논리적 일관성과 타당성 검토 ○ 다른 관점의 장단점 찾기 ○ 자기의 관점 변경의 가능성 진단	○ 자신의 입장 타당성 제시
④ 양립된 입장의 결과예상	○ 모두 자기와 같이 했을때의 결과 예상 ○ 여러관점의 이로움과 해로움 찾아보기	
⑤ 자기입장의 수정 또는 대안 찾기	○ 제시된 문제사태와 비슷한 다른 사태 찾아보기 ○ 자기가 선택한 행동 원리가 합당치 못하면 수정하거나 대안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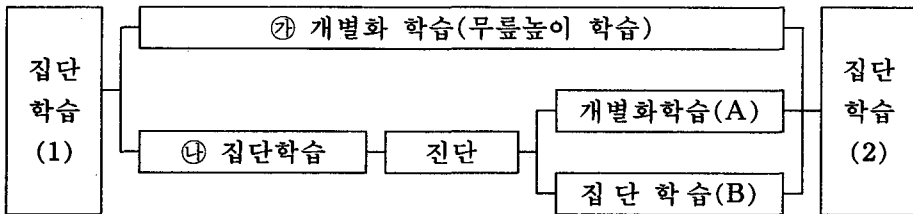
교수·학습 지도안(예시)

교과	도덕	단원	4. 용서하는 마음	일시	1996.4.24 6교시	지도교사	이경진
본시 제재	일식이의 고민	차시	1/2	덕목	지도요소	활동별	중심 ○
				인간존중	용서하는 생활		
학습 목표	○ 용서의 뜻과 용서의 좋은 점을 안다. ○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생활을 한다.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및유의점
문제 파악	○ 생활 경험 상기	* 평소 잘못을 저지른 후 용서를 빈적이 있나요? 잘못을 빌었는데도 용서를 받 지 못한적은 없었나요? 그 때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또 잘못 한 사람을 용서해 준적은 없나요? ☆ 자신의 경험 발표하기(생략)		○ 자신의 경 험과 느낌 을 솔직하 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

2) 열린학습 방법의 적용
 본교에서는 열린학습에 대한 이
 론을 정립하고 학습 방법을 적용하
 기 위하여 전 교원이 전국 열린학
 습 공개회에 6회 참여했고, 선진학
 교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받아 들
 였으며, 자체 시범반을 통하여 열
 린학습 형태인 완전학습 및 개별
 자주 진도 학습 방법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개별 자주 진도 학습 형태



교수·교수학습 지도안<예시>

교과	사회	단원	1-(2)가정의 살림살이	일시	1996.9.20 6교시	지도교사	남혜진
본시 제재	미래를 위한 저축	차 시	1/2	덕 목	지 도 요 소	활 동 별	중심 ○
				물자절약			
학습 목표	○ 여러가지 자료를 정하여 저축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 올바른 저축 생활을 하기 위한 마음 가짐을 말할 수 있다.						

학습순서	수업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및유의점
문제 파악		◆러그미팅(1) ◎ 학습동기 유발 · 예화자료 들려주기(황희정승 등) · 옛날 우리 조상들의 근검 절약 생활 발표 · 저축을 한 경험 발표하기 ◎ 학습문제 확인 저축이 필요한 까닭과 올바른 저축 생활을 위한 마음 가짐을 말해보자.	5	○ 퀘멘 양말, 몽땅연필 등
문제 추구 및 탐색		◎ 학습 방법 및 순서 안내 ① 조별 학습 주제 정하기 ② 학습 주제 해결하기 ③ 학습 내용 정리 및 발표 준비하기 ④ 선택 학습 하기		

b. 밀다짐 학습자료의 제작 활용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효과적
 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각 학년별
 음독 밀다짐 학습자료, 받아쓰기
 밀다짐 학습자료, 수학과 밀다짐
 학습자료 등을 단계별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각
 학년 복도의 자료함에 비치하고 개
 인별로 자기의 수준을 확인하여 학
 생 스스로 자신의 기초·기본 학력
 을 다지게 하는데 활용하였다.

위주의 우등상제를 지양하고 학생
 의 능력에 따른 다양한 시상제 개
 선으로 전인적 인성교육을 실천하
 기 위하여
 · 점수 위주의 우등상제를 지양
 하고 교과 성적보다 도덕생활과 특
 별활동면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인성 중심의 시상이 되도록 하였
 다.

· 결과 중시의 시상에서 과정 중
 시의 시상으로, 지식·내용 중시의
 시상에서 행동 중시의 시상으로 시
 상 기준을 설정 운영 하였다.

4. 학생 시상제 개선

학교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과 일
 치하지 않거나 모순된 점수, 서열

· 학교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에
 부합되어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
 라 강화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상

제를 실시하였다.

- 상대 기준 시상에서 절대 기준 시상제로 전환하였다.

B. 과제 2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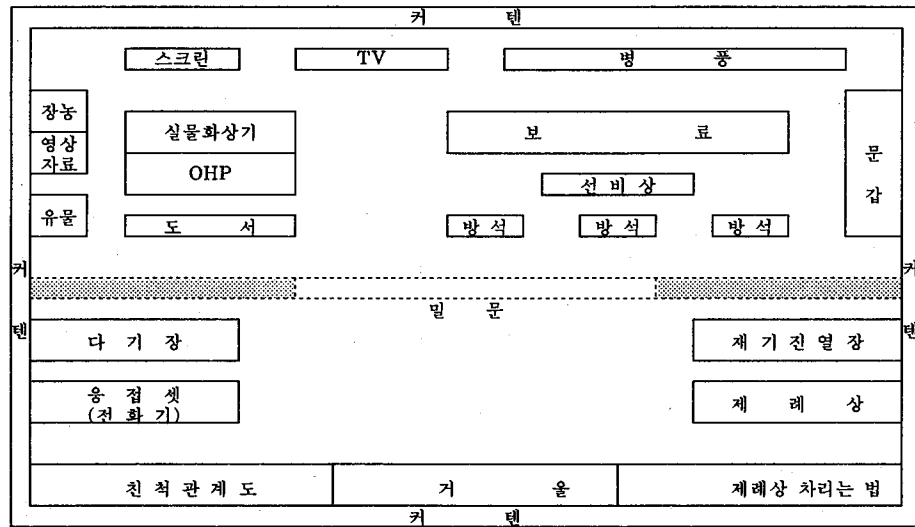
고운 심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의 다양화

1. 마음공부방 설치 운영

a. 마음공부방 설치

유휴 교실을 이용하여 마음공부방을 설치하고 마음공부 지도에 필요한 기본 시설과 각종 교재·교구를 다음과 같이 확보 배치하여 고흥동교 어린이들의 예절교육과 정서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마음공부방 시설 배치도



교재·교구 자료 구비 현황

품명	문갑	탁자	3층장	양주장	선비상	병풍	보료	방석	제례상	다과상
수량	2	2	1	1	1	1	1	40	1	5
쟁반	제기셀	다기셀	커피셀	커피팟	주전자	가스렌지	거울	진열장	전화기	태극기
5	선풍기	4	4	2	2	2	1	3	2	1
제례상실물모형	4	이동석칠판	VTR	TV	실물화상기	영상자료	카세트라디오	액자	예절생활본	명상테이프
38		1	1	1	1	89	1	2	120	30

b. 마음공부 지도안 구안 활용
마음공부 지도안은 다음과 같은 일반안을 받아 들여 바른생활, 도덕, 국어, 사회, 실과 등 5교과의 단원 중에서 도덕 규범 내용을 분

석 추출하여 학년 수준에 맞게 학년별로 작성하여 매월 1~2회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예절과 정서 생활을 강화하였다.

마음공부 교수·학습 과정 일반안

과정	내용	자료·관련행사
도입 의식화 (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의 중요성 이야기 • 나의 행동 반성 • 올바른 예절 규범 탐색 • 본시 학습 문제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공부 지도안 • 예절의 문제점 • TP, 영상자료 • 학급회
시범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생활 내용 설명 • 영상, TP자료 활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상의 시간 • 예화, 실화 자료 • TP, 영상자료
가치화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생활 시범 • 소집단 개인별 집중 지도 • 예절 규범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자료 • 예절 생활본 • 자원 인사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실시 • 나의 예절생활 반성 및 느낀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 자료 • 영상자료
행동화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행동 규범 다짐 • 실천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짓기 • 교운심성기르기 실천기록장

마음공부 지도안(예시)

교과	바른생활	관련단원	1. 반가운 인사	주제	예의 바른 인사	지도시기	3월
지도표	웃어른께 인사할 때 바른 태도로 알맞은 인사말을 사용할 수 있다.					지도시간	40'
단체	지 도 내 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를 잘하여 칭찬을 들었던 경험 발표하기 • 공부할 문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경험을 발표하게 한다. 	
	웃어른께 인사할 때의 태도와 인사말을 알아봅시다.						

단계	지 도 내 용	자료 및 유의점
시범 및 훈련	TV를 보고 웃어른께 인사하는 법을 알아본다. TV시청(5) • 때와 장소에 맞는 인사 • 병문안 때의 인사말 • 문안 인사 • 웃어른께 인사할 때 마음가짐 알아보기 • 선절, 앉은절 익히기 • 여러 가지 인사 방법 알아보기 • 길거리에서 어른을 만났을 때 • 사무실에서 • 방 안에서 • 알맞은 인사말 알아보기 • 때와 장소에 맞는 인사말 알아보고 시연하기 • 바른 인사 방법 시연 • 때와 장소를 제시하고 시연해 보다. • 바른 태도와 인사말을 사용한다.	• 영상자료(48) • 예절에 알맞은 인사말 • 교과서 4~7 • 패도 • 인사말과 태도를 바르게 알고 시연하도록 한다.
	• 웃어른께 바른 태도와 알맞은 인사말을 사용하여 인사하였는지 생각해 보기 • 일상생활에서 예의바른 인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 마음, 행동, 말씨가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c. 마음공부방 이용 시간 ~6학년은 월2회(연10시간) 관련 교과 시간 및 재량시간을 설정하여 이용하였다.
 • 바른생활, 도덕, 국어, 사회, 실과 교과와 관련된 시간에 이용하였다.
 • 요일별 활용 학년을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 1~2학년은 월1회(연6시간), 3

요일별 활용 학년 배당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년	6	5	4	3	2	1

2. 기본생활 습관 기르기

- a. '나의 하루 생활' 코너 설치 활용
 학생들이 바르게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중 특히
 • 먼저 바르게 인사하기
 • 줄서서 차례 지키기,
 • 교통안전규칙 지키기,

- 내 일은 내가 하기,
 • 공공 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등 5가지 생활 수칙을 선정하고, 각 교실 우측에 다음과 같은 '나의 하루 생활'코너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하룻동안 실천한 일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생활 습관이 바르게 형성되도록 하였다.

나의 하루 생활			월 일
생활 수칙	오늘?	1. 먼저 바르게 인사하기	자랑스런 고흥동 어린이는 정직합니다.
1. 먼저 바르게 인사하기	○	♣♣♣ ♣♣♣ ♣♣♣	학습 전체 학생의 이름을 모아 놓은 곳
2. 줄서서 차례 지키기		♣♣♣ ♣♣♣ ♣♣♣	
3.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	♣♣♣ ♣♣♣	
4. 내 일은 내가 하기			
5. 공공 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	♣♣♣(실천한 학생이름 부착)	
5가지 생활수칙 카드와 날짜 카드를 모아 놓은 곳			

- b. 기본생활 습관 실천카드 활용 인별로 자신의 실천 상황을 기재한 후 교사와 학부모의 확인을 받는데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도하였다.
 기본생활 습관의 내면화와 강화를 위해 '기본생활 수칙 카드'를 다음과 같이 구안 제작하여 학생 개

고흥동어린이 기본생활 수칙 카드(예시)

고흥동초등학교 5학년1반 신윤철

실천과제	월 주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먼저 바르게 인사하기	△	△	△	○	○	○	○	○	△	○	○	○	○	○	○	○	10	5	4

실천과제	월 주	3				4				5				6				7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	△
2. 줄 서서 차례 지키기		△	△	○	△	△	△	○	△	○	◎	△	○	◎	◎	◎	◎	○	◎			7	6	6
3.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	△	○	◎	○	◎	○	△	○	◎	○	◎	◎	◎	○	◎	◎	◎	◎	◎	10	6	3
4. 내 일은 내가 하기		△	△	○	○	○	△	○	○	○	◎	○	◎	◎	◎	◎	◎	○	○	◎		7	9	3
5.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	△	△	○	○	△	○	○	△	○	◎	○	◎	○	◎	◎	◎	◎	◎	◎	6	8	5
확 인	담 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학부모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잘함 : ◎ 보통 : ○ 부족 : △

3. 바른 가정 생활 지도

a. 학교신문 발간

바르고 고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게재하여 매월 1회씩 각 가정에 발송하여 자녀교육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수록 내용>

• 기본생활 실천과제, 중점지도 사항

- 바른 인성교육 자료
-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작품
- 선행 아동 소개
- 학교 소식 홍보
- 자녀 지도 우수사례
- 사랑의 편지 등

b. 자녀 지도 우수사례 발표

본교의 학부모들이 그동안 자녀들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바른 인성을 가꾸기 위해 지도하고 경험한 실천 사례를 원고지에 작성 제출하게 하여 엄정한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사례는 학교신문에 발표하여 여러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학년별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총 36명을 표창함으로써 자녀의 바른 인성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c. 가운 실천 지도

• 각 가정에서 가운을 제정하여 '고운 심성 기르기 실천기록장'에 기록하고 실천하도록 지도 하였다.

• 각 학년별 가운 전시회 예선을 거쳐 우수작 2편 이상을 제출, 전

교 전시회를 개최하여 가운의 실천 의지를 고취시켰다.

d. 뿌리 알기 교육

나의 조상과 부모, 가족에 대한 내력을 알게 함으로써 조상에 대한 자긍심과 존경하는 태도를 기르고, 형제 자매간에 더욱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운 심성 기르기 실천 기록장'에 나의 시조, 나의 조상, 우리 가족의 이름과 생일, 나의 계보, 나의 친척표 등을 제시하여 작성케 한 후 반복적으로 지도하였다.

e. 사랑의 편지 쓰기

효경 의식을 고취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기회를 확대하며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바라는 점, 고마운 점 등을 매월 1회씩 편지로 주고 받음으로써 부족한 행동을 반성하고 마음을 고쳐 새롭게 하는 체험의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귀감이 될만한 내용은 학교신문에 게재하였고, 편지글 모음집 80부를 발간해서 학급당 2부씩 배부하여 읽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효경심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f. 가족신문 전시회

학급별로 담임 교사가 가정통신으로 가족신문의 모델, 구성 내용 등을 지도하여 온 가족이 함께 제작한 다양한 신문물을 학급별로 우수

한 작품 2~3편씩 총 89편을 모아 교내 전시회를 개최하고 36명을 시상하였다.

가족신문 만들기를 통해 가족간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고 우애를 돈독히 하며 가족의 의사를 충실하게 전달 대변함으로써 부모님의 사랑과 자식의 효성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가족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4. 자기 주도 중심의 다양한 표현 및 발표 기회 제공

a. 고운 심성 기르기 실천 기록장 개발 활용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운 심성을 기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 내용을 누가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을 구안하고 저, 중, 고학년용으로 구분하여 1,400부를 제작하였다.

고운 심성 기르기 실천 기록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본교 학생들이 실천해야 할 것으로 6장 43개 항목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1,400부를 전 교생에게 무료 배부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 상황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게 하고 그 실적이 타의 본이 된 학생 72명을 표창하였다.

고운 심성 기르기 실천 기록장 목록

★ 교가	1	Ⅳ. 자랑스런 우리 학교	14
★ 하루생활 장면별 실천 규범	2	1. 학교의 위치	14
Ⅰ. 고흥동어린이의 기본생활 기르기	4	2. 학교의 역사	14
1. 다섯가지 기본생활 수칙	4	3. 학교의 상징	14
2. 고운말 쓰기	5	4. 학교를 빛낸 졸업생	14
3. 착한어린이의 생활 태도	5	5. 고마운 나의 담임선생님	15
4. 효행하는 어린이	6	6. 우리 학교 선생님	15
5. 노인 돌봐 드리기	7	Ⅴ. 자랑스런 우리 고장	16
6. 벼들과 알뜰히 사귀기	7	1. 고장의 이름	16
7. 감사하는 마음 갖기	7	2. 우리 고장의 땅 모습	16
Ⅱ. 자랑스런 나	8	3. 우리 고장의 역사	16
1. 나의 모습	8	4. 우리 고장에서 가장 유명한 곳	17
2. 나의 이름과 생일	8	5. 우리 고장의 자랑	17
3. 나의 주소	9	6. 내가 만들고 싶은 우리 고장	17
4. 나의 장래 희망	9	7.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들	18
5. 내가 본 받고 싶은 인물	9	Ⅵ. 여러 가지 기록장	19
6. 나의 자랑 나의 긍지	10	1. 나는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19
7. 미래의 나의 모습	10	2. 나는 좋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22
Ⅲ. 자랑스런 우리 집	11	3. 나는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25
1. 행복한 우리 가족	11	4. 나는 기본생활수칙을 잘 지킵니다.	26
2. 우리 집 가훈	11	5. 나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28
3. 자랑스런 나의 시조	11	6. 나는 용돈을 아껴 저축을 합니다.	34
4. 훌륭한 나의 조상	12	※ 수학 기초·기본학습 확인표	35
5. 우리 가족의 이름과 생일	12		
6. 나의 계보	13		
7. 나의 친척	13		

b. 독서 토론회
인성관련 도서를 읽고 논의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발표력 신장과 정서를 순화하며

평생학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독서 토론회를 실시하고 반별로 우수한 학생 12명을 선발하여 학

교대회를 개최하였다.

c. 우리 집·우리 고장 자랑 발표회

가정의 소중함과 애함정신을 고취하고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해 저학년은 우리 집 자랑, 고학년은 우리 고장 자랑을 주제로 각 학급에서 발표회를 실시하고 각 학급에서 1명씩 선발하여 학교 발표회를 개최한 후 우수한 학생 36명을 표창하였다. 이외에도 나의 주장 글쓰기 대회, NIE 자료모음 전시회, 학예발표회 등을 실시하였다.

5. 폭넓은 현장 체험 활동 전개

a. 체험학습의 날 운영

학년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학교 중심으로 월1회 이상 운영하였다.

열린교육 차원에서 교실을 개방하고 특별교실 여건 정비와 현장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b. 농·어촌 체험 학습

농·어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일의 즐거움과 봉사, 성취의 기쁨을 체득시켜 건전한 근로관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5~7월중 82명의 희망 학생을 도내 40개 농·어촌 초등학교에서 개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학습 보고서를 쓰도록 하였다. 모범 사례는

학교 방송을 통해 전교생에게 전달하였다.

위탁교육의 실천 효과는

-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가 되었으며,
- 가정을 떠나 생활하게 되어 부모님의 고마움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 직접 땀흘려 일해봄으로써 농·어촌 사람들의 힘든 점과 우리 농·수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 또한 시골에 계시는 조부모님을 자주 방문해야겠다는 각오와 농·어촌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다.

c. 학생 수련활동 실시

학생들에게 대자연을 사랑하고 진취적인 기상과 조화로운 심성을 도야 하며,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교 5, 6학년 452명을 대상으로 96. 6. 25일부터 1박2일간 각 학년별 프로그램에 의하여 고흥군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합숙 훈련을 실시하고 모범적으로 활동한 학생 84명에게 우수조원상, 봉사상, 친교상, 협동상 등을 표창하였다.

Ⅲ. 1차년도 운영 결과

A. 과제1의 실천결과

1. 인성관련 덕목을 선정하고 교

과 단원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 시간에 지도한 결과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과 학생들의 실천 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여 인성교육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2. 가치탐구 수업과 열린학습의 적용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열린학습에 대한 연수가 더욱 필요하며, 학생 시상제도 더욱 다양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B. 과제2의 실천 결과

1. 마음공부방을 마련하고 기본 시설과 자료, 지도한 등을 구비함으로써 예절과 정서교육의 도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 '나의 하루 생활' 코너의 자율적 실천 점검으로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이 점차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3. 학교신문 발간, 자녀지도 우수 사례, 가훈 실천, 뿌리 알기 교육, 사랑의 편지 쓰기, 가족신문 만들기 등을 통하여 부모 자녀간에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어 경로·효친하는 생각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4. '고운 심성 기르기 실천기록장'의 개발 활용, 독서 토론회, 우리 집·우리 고장 자랑 발표회, 주장하는 글쓰기 대회 등 다양한 표현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이 신장되었다.

5. 폭넓은 체험활동의 전개는 학생들이 직접 5감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바른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만, 현장 체험활동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참여 방안이 재구상 되어야 하겠다.

* 인생은 성실로써 내용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다.
*
* <러스킨>
*

多 樣 한 體 驗 學 習 을 通 한 바 른 價 值 觀 과 고 운 品 性 涵 養



吳 彩 善
(和 順 女 子 中 學 校 長)

1. 머리말

인성교육이란 인간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며 그러한 것들을 찾아 골고루 교육시키고 인간의 개인적 특성과 그 특성들의 가치를 인정하여 많은 기준의 가치들이 독특한 모습으로 자기와 타인에게 공헌하도록 안내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이미 생성된 지식의 결과를 주입시키기 보다는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안내하여 새로운 결과에 도달토록 하는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이라는 말은 주로 심리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인간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특성들이 존중되며 자유롭게 개발되어 그 특성대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하자는 말이다. 그리고 '인간교육'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시킨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중심 교육으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는 교육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아는 따뜻한 인간으로 교육시키자는 교육정책은 크게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 며칠간의 과외수업 비로 역대의 돈을 사용하려는 정신 분열환자들이 된 부모들이 우리 사

회에 잔재해 있는 현실이고 보면 누구를 꾸지람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은 지식의 주입식 교육과 눈앞에 나타나는 효과만을 중시하여 모두가 같은 길로 가야 하는 경쟁에서만 활용되는 비인간적인 지식을 안내하는 역할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한결같이 나만 잘 되고 남이야 어찌되든 남을 짓밟고 올라가 나만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의 고개숙임을 즐기고 땀 흘림 없이 번돈으로 병든 향락에 육신을 맡겨 스스로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들을 키우기 위해 우리의 귀중한 생애를 희생치 말자. 국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이유를 달지 말자 학교 현장의 부족한 교육 여건을 들추지 말자.

참으로 인간을 교육시킬 수 있는 유일한 Key는 오직 참다운 사랑과 아픈 희생밖에는 없다고 했다. 부모의 희생을 보고 자란 자식은 결코 빛나가지 않는다. 학생을 보면 그 학교를 알 수 있다고 했다. 학교의 열매는 학생이다. 탐스런 열매가 많이 달리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듯이 좋은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이다. 좋은 학생이 많이 다니게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인가 바로 우리 교사들의 유일한 사명이다. 모든 것은 가르치는 우

리들 자신에게 교육의 성패는 주어져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사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중생(重生)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교육도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학생들이 올바르게 변화되지 못하는 교육은 바로 죽은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을 되찾아 아름다운 품성을 가꾸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일체가 되어 실천해 본 내용들을 소개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인성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우고자 한다.

II. 실천내용

A. 교직원 활동면

1. 교직원 품성 도야를 위한 특별 연수 실시

a. 주2회(월, 목) 마음담기 10분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학생에게 존경을 받는 덕망있는 인격자로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내면성이 바람직하지 못한다면 언제인가는 학생들의 심성을 오염시키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본교

에서는 우선 교직원들의 품성을 개선키 위하여 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아침 전 직원 조회시간 10분을 할애하여 마음담기 특별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 내용은 주로 성현들의 진리의 말씀과 천연계 진리로 마음을

다듬으면서 오늘 교단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자신있게 교실에 서도록 다짐하였다. 주2회 10분 특별연수시간 만큼은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한 마음이 되어 참다운 교사로서의 인성을 지녀보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10분 특별 연수 내용(예시)

월일	훈화주제	훈 화 내 용 요 약
3월 11일	사람다운 사람 (人人人人)	사람이 사람다워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다워지려고 노력하는 점이 사람의 사람다운 점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하려는 노력이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닌 줄 알면서 꾸준히 노력하는데에 교육의 참된 의의와 보람이 있는 것이다.
3월 14일	학교는 있어도 교육은 없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은 없다. 건물과 시설이 버젓한데 교육의 내실이 보잘것 없음을 두고 한 말이다. 건물과 시설이 교육의 주체일 수는 없다. 학식 인격이 겸비된 교사없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은 없다. 이 말은 오늘날 참된 교사가 아쉽을 슬퍼하는 하소연이기도 하다.
3월 18일	교사는 사람을 가꾸는 교육 농부	곡식이나 나무를 가꾸고 기르는 사람은 농부다. 사람을 가꾸고 기르는 농부는 교사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선 알맞은 흙과 일광과 물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자라는 데에도 알맞은 물이 필요하다. 교사는 사람을 알맞은 환경에 두고 물을 주는 사람이다. 너무 많이 주어도 너무 적게 주어도 안된다. -교육의 이론이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이것을 실행할 교사 자신이 불완전하다면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싸르쓰만)

월일	혼화주제	혼화내용 요약		
3월 28일 ~ 4월 29일	나의 천연계의 교사들	태양-편애없는 사랑	달-흑암 세상에 빛	발(足)-희생, 봉사
		물-온유, 희락, 화평, 겸손	대(竹)-허심직절(虚心直節)	
		소나무-인내, 정절, 충성	흙-겸손, 인내, 사랑	
		뿌리-무아, 희생, 봉사	낙엽-희생, 봉사	소금-온유, 겸손, 변질되지 않는 사랑

b. 전 교사가 인성 교육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연수하였다.

흔히 일선 학교에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지정을 받게 되면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의외엔 전 교사가 연구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는 학교는 드물다. 본교는 인성 교육 자율 시범학교이므로 모든 교육 활동 계획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실현되어야 하므로 전 교직원 각자가 주된 업무자가 되어 한 마

음으로 움직여 주지 않고서는 운영의 효과가 미약하리라 믿고 시범운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교사가 1인 1 실천 과제를 설정하여 스스로 연구 실천해 보도록 하였다.

3월초 인성교육 추진 계획을 협의할 때 각자가 다음과 같은 연수 주제를 설정하여 실천한 후 연수록에 그 결과를 기록해 가며 교내 직원 연수시에 발표해 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 '96학년도 본교 교직원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주제(예시)

연번	성명	직책	좌우명	인성교육 실천사례 주제
1	오채선	교장	有志即有道	바른생각 고운 품성을 기르기 위한 사랑의 학교 운영
2	이만재	교감	心清即事達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 의식교육 실천방안
3	유병대	주임	精進	더불어 사는 마음 기르기

c. 주임교사, 원로교사, 학급담임, 여교사별로 간담회를 열었다.

아침에 출근하여 바쁘게 교실에

서만 활동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 대화 나누어야 할 교직원들끼리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흔치 않다. 매일 교내에서 쉽게 발생하는 교육

적인 문제는 교장, 교감을 비롯한 몇몇 중추적인 교사끼리 의논되어 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 교직원이 항상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였다.

월1회 주임교사, 원로교사, 학급담임별, 여교사별로 간담회를 갖고 학교내에서의 제반 문제들을 들추어 공동으로 해결해 보도록 주선하였다.

간담회는 월 계획에 의해 열고 간담회 장소에는 학생들 손으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도록 지도하였다. 처음에는 별 호응이 없는 듯하였으나 차례가 거듭될수록 그룹 미팅이 되어 교직원 분위기 쇄신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d. 교직원 생일 및 결혼 기념일을 함께 축하해 주었다.

한 인간이 가장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자기가 태어난 날이다. 아무도 몰라 주어도 자신만은 꼭 기억하고픈 날이기도 하다. 생일날 전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한 동료를 하루쯤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주기 위한 조그마한 축하 행사는 교직원들을 한 마음으로 단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어 학년초부터 “교직원 생일 축하해

주기”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 날엔 간단한 생일 축하연을 베풀고 생일을 맞은 동료의 가장 아름다운 생애의 면을 일일이 들추어 전 직원 앞에서 칭찬해 주며 박수를 보내주는 등 서로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맞은 직원은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고 가족에게도 축하 전화를 잊지 않았다. 그 어느 행사보다도 교장과 교직원, 교직원과 교직원간의 마음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바람직한 활동이었다.

2. 최첨단 특별실 신축으로 질 높은 교수-학습 실천

a. 특별실을 확충하고 학습기자를 현대화 하였다.

본교는 전년도에 최신식 설비에 의한 별관 특별실을 신축하였다. 또한 도 표준학교 가꾸기 학교로 지정받아 교수·학습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 내용을 들면 무선 헤드폰을 완비(1학급분)한 최첨단 이동식 어학실과 인성교육에 필수적인 시설인 아늑하고 정갈한 예절실, 전학급 이동식 실기 수업을 위한 미술실과 음악실, 소외된 특수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교실, 어머

니회 협의실을 겸한 독서실 등을 신축 특별실 안에 확충하였다.

본교 어학실은 컴퓨터, 실물화상기, 대형스크린, 교육방송 및 외국어 방송 청취기능 등 다양한 최첨단 장비를 갖추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테이블의 공학적인 설계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통신시설을 갖추어 국내 PC 통신은 물론 인터넷을 접속하여 가장 최근의 새로운 정보와 학습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어서 도서실이나 시험실로 활용 가능하며 이동형 의자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자유롭게 학습기자재를 활용하며 수업할 수 있다.

이처럼 신축 특별실에 확충한 특별실마다 그 특성에 맞게 양질의 기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교수 학습 활동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본교의 특별실은 열린 교육의 장으로 도내 각급 학교들로부터 매일 견학을 오고 있으며 선진 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b.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완비하여 전교사가 시범수업을 실시하였다.

본교는 표준학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95년 초부터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완비하여 전교사가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극대화를 기해 왔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은 전교직원의 교수·학습 방법을 크게 개선시킴과 동시에 수업에 자신감을 갖게 하여 학력 향상에도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올해는 전교사가 시범 수업을 공개하는 등 명실공히 열린 교육의 선봉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c. 학교 내부와 외부 환경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였다.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청결한 환경은 그 자체가 소리없는 교육의 장으로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청결하고 잘 정리정돈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지저분한 장소를 싫어한다. 본교는 여학생들만이 생활하는 학교이다. 우선 학교에 들어서면 학교 내부 환경이 여학생들의 학교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환경 조성 내용은 실외 공간으로는 깨끗하게 다듬어 논 정심원, 운동장 잔디 조성과 교실에는 실물화상기를 비롯한 각 교실 컴퓨터 시설과 냉온수기 설치 칠판 닦이 먼지 제거기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날로 정리정돈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학교

의 모습에 외부 학교로부터 견학사례가 늘고 타학교에 환경구성시범을 보여주는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B. 학생 지도면

1. 실천 위주의 바른 인성 교육

a. 주5회 10분 아침 명상 시간을 운영하였다.

흔히 일선학교에서 운영되는 명상의 시간은 전교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의도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하지 않고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은 일선 교사라면 실감하리라 믿는다. 아무리 좋은 교육 활동과 교육 자료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본교는 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명상시간의 운영을 학년 초부터 전교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일 실시하여 이제는 매일의 일과가 되었다. 명상 자료로는 톨스토이 인생독본, 청소년의 명상집, 학생 개인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명상 내용은 전 학생이 명상록에 기재하여 일기 쓰기 전의 자료와 개인별 심성도아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10분 명상은 하루의 생활을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이끌고 있으며 명상의 습관을 갖게 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월별 요일별 명상 주제(예시)

월일	요일	명 상 주 제	자 료 명		
			톨스토이인생독본	청소년명상집	생활체험
3.14	목	• 선행의 기쁨	○		
3.15	금	• 진정한 사랑		○	
3.16	토	• 절약은 미덕			○

※ 명상록(예시)

년 월 요일	명상 주제	이 기 주 의
명상 내용 및 소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루를 살고 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남을 헤치고 남의 인격을 짓밟을 수도 있다. 남의 인격도 나의 인격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 생활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자.		

b. 참된 품성회복을 위한 선·효행 교육을 강화하였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학생은 모든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올바른 교육을 받은 학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고 했다. 본교의 교육 핵심은 '효행 교육'이다. 부모님께 순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여학생을 기르는 것이 본교 교육활동의 주된 목표이다. 본교에서 중점적으로 실천해 온 선·효행 교육은 우선 월요일을 '효경의 날'로 운영하였다.

전교생이 월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효경록, 효행일지, 실천사례, 부모님께 편지 쓰기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장은 효행 훈화를 발행하였다. 훈화 내용은 훈화록에 별도로 기록하여 학생 개개인의 인성도야 자료로 활용케 하였고, 효행 실천사례 발표하기, 부모님께 감

사편지쓰기, 효행글짓기, 효행시 암송, 부모의 마음 되어보기, 효자들의 효행담 모아듣기, 효행 학생 선발, 가훈 자랑, 내 가족 소개해 보기, 나의 좌우명 명상, 우리 집의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해 보기 위하여 학교적인 행사로 효행 사례발표대회, 효행시 암송대회, 효행글짓기대회, 가훈 전시회, 우리 부모님 자랑대회를 각 1회씩 개최하여 우수학생은 표창하고 효행 실천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선·효행 교육으로 문제학생이 줄었고 (학년 초 21명, 현재 4명)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생활태도가 형성되어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였으며 지역사회로부터 참교육의 장으로 평가받는 등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좋은 활동이 되었다.

※ 학교장 효행훈화 내용(예시)

월일	훈화주제	훈화내용요약
3월 11일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	부모님은 내 생명을 나아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부터 먼저 섬겨야 참 축복을 받는다. 성경 말씀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12]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은 온갖 것 다 희생하여 주고 되돌려 받지 않는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월일	훈화주제	훈화내용요약
3월 25일	살아계실 때 진정한 효도를 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살아실 제 섬기기 다하여라 /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 하리 /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 뿐인가 하노라 정철 •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 자식이 아버기를 받들고 섬기고자 하나 아버기가 기다리며 살아계시지 아니 하신다.
4월 1일	행동 습관 성격 운명	우리의 생각을 씨뿌려 행동을 거두고 / 우리의 행동을 씨뿌려 습관을 거두며 / 우리의 습관을 씨뿌려 성격을 거두고 / 우리의 성격을 씨뿌려 운명을 거둔다. 찰스알버트훈(영국)
4월 8일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p>스물하나...당신은 고개를 두 개 넘어 얼굴도 본적없는 김 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p> <p>스물여섯...시집 온 지 오년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p> <p>서른둘...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이십리를 달렸습니다.</p> <p>마흔...그해 겨울은 유난해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이 외투를 입고 동구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덥혀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p> <p>쉰 둘...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단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p> <p>예순...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p> <p>예순다섯...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p> <p>오직 하나 자식 잘되지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p> <p>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p>

월일	혼화주제	혼화내용 요약
4월 15일	• 지혜로운 손자 할머니 구하다	아버지 : “애! 오늘은 할머니를 지게에 저다가 깊은 산에 버리고 와라.” 손 자 : “할머니! 양지바른 곳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그러마” “갖다버리고 왔느냐?” 손자는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 낡은 지게를 창고 벽에 정성껏 달아매는 것이다. “그 낡은 지게를 버리고 오지 왜 그렇게 정성껏 매달아 놓느냐?” “이걸 잘 보관해두어야 아버지 늙으면 이 지게로 또 저다 버리지요.” 그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아들이 틀림없이 자기가 늙으면 저다 버릴 것 같은 것이다. “빨리 모셔와라.”

c. 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해 예절교실을 운영하였다.

예절 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선 교육현장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예절교육이 소리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는 여학생만이 생활하는 학교이므로 무엇보다도 여학생으로서의 다소곳한 예절을 갖추어 생활하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함은 전교직원들이 바라는 바이다. 본교는 훌륭하게 시설된 인성교육장에서 2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학년초부터 월요일

7~8교시를 할애하여, 한 학급씩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생활예절, 가정생활예절, 복식예절, 차생활예절 등 4영역으로 나누어 특설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절 교육 내용은 이미 개발된 한국교육 개발원 예절교육 VTR 자료를 미리 분석하여 예절 지도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시킨 뒤 반드시 예절실 수련을 통하여 몸에 익히도록 하였다. 예절 수련후에는 반드시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예절익히기 자기반성의 기회를 삼고 그 결과를 성적에 반영토록 하였다.

※ 수련 후 자기 평가표(예시)

학년 반 번 이름		
예절실 수련을 마치고 느낌이나 행동 변화를 자기 반성하여 봅시다.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수 련 일		
월 일		
월 일		
실 천 한 내 용		잘 함
1. 공손히 인사하고 있다.		보 통
2. 앉아서 하는 절과 서서 하는 절을 잘 하고 있다.		
3. 부모님에 대한 예절을 잘 지키고 있다.		
4. 형제 자매 친구간의 예절을 지키고 있다.		
5. 한복 입는 과정을 잘 알고 입을 수 있다.		
6. 차를 끓여낼 수 있고 예의를 지켜 마실 수 있다.		

d. 참 사랑의 마음을 기르기 위한 '우정 가꾸기 날'을 운영하였다.

참 사랑이 있는 곳에 인간 관계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가장 인간스러운 정이 있어 행복이 생성된다고 믿는다. 요즘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지나치게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다분하여 인간을 교육하는 일은 불가능 하다고까지 말하는 교사도 있다. 본교에서는 학년초부터 의도적으로 정나누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각 교실에 전학급 급우들의 생일을 게시케하고 실장의 주관 하에 전 급우의 생일을 축

하해 주는 행사를 갖게 하여 정을 가꾸는 교실이 되도록 하였다. 급우의 생일날은 전 학우가 가벼운 선물로 축하해주고 선물이 없으면 급우에게 주는 우정의 글을 선물하도록 하였다. 생일을 맞은 학생은 자기 소개서를 미리 써 와 급우들 앞에서 발표하고, 급우들은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어 박수를 보내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내도록 하였다. 특히 내가 싫어하는 학우의 생일엔 특별히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마음닥기의 날로도 정해서 우정 가꾸기에 힘쓰도록 하였다. 학교적으로는 '우정 가꾸기'의 날을

습관을 기르고 있다. 적은 양의 저금 돈일지라도 내 힘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다. 7월에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부지런하고 낭비하지 않는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전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근검절약 미담사례 발표대회'를 갖고 우수한 학생을 표창하였다. 또한 전교생이 절약하여 수시로 모은 성금은 극빈학생 13명을 지금껏 돕고 있으며 5월엔 노인당 2곳과 자애원 학생을 돕는 활동도 전개하여 지역민의 칭송을 듣고 있다.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궁핍한 생활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낭비했던 생활을 반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2. 방과 후 특별교육활동

a.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했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은 체험학습의 효과를 강조하는 말이다. 학교라는 한정적이고 제한된 공간에서의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얻고자 '체험학습의 날'

을 운영하였다.

체험학습 과제는 '자연답사 및 유적지 탐방' '내 고장 기관 탐방' '농촌체험학습' '도시나들이' '자연보호활동'으로 학년별로 교사와 학생이 합동으로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체험학습의 경비는 학생이 부담하고 체험학습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사고 없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사전대비에 충실을 기하였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내 고장이 살기좋은 곳임을 재확인시켜 주었고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지고 내 고장을 위해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는 바람직한 발견학습이 되었다.

b. 사회의 학교화 추진을 위하여 명예교사제를 운영하였다.

명예 교사제 운영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신뢰하고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이 힘들다. 본교는 학교 교육을 개방하여 학부모와 지역민으로부터 부담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하는 신뢰로운 분위기가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있으므로 명예 교사제 운영은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본교에서는 다양한 지역인사 11명을 선정하여 본교의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하

였다. 11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실제로 학교 교육에 참여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생 개개인의 인성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명예교

사의 특강을 소감록에 기록하고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적어 명예교사님들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지역 유지와의 유대강화에도 학생들이 앞장서고 있다.

※ 학생 소감록(예시)

주제 : 자연에서 얻은 질서와 교훈					
일시	1996년 4월8일	장소	강 당	강사	김형식 교육장님
내			용		
<p>자연에서 우리들은 배우는 게 참으로 많다. 자연의 부산물인 불을 사용하고부터 인류는 발전했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이다. 서양의 여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생활방식이나 역사도 다르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 그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왔으며 거기에서 어떠한 질서나 교훈을 얻으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두 가지의 착한 일은 '선'과 '효'이다. 그 중에서 '효'는 인간으로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p> <p>'성자'라고 하지만 '자연'처럼 훌륭한 것이 있을까? 어떠한 불평 불만없이 인간에게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자연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p> <p>때때로 자연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만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지름길이 아닐까?</p>					

c. 잠재된 특기와 취미를 기르기 위하여 상설클럽활동을 운영하였다.

매주 수요일 7교시를 전교생 클럽활동 시간으로 운영하였다. 클럽활동부서는 지점토, 편물, 컴퓨터,

영어회화, 배드민턴 등 23개 종목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가사반과 지점토 반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를 해 오고 있다. 가사반(40명)은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매주 다양한 뜨게질(모자뜨기, 스웨터뜨기, 생활용품 뜨기 등) 기

술을 배우고 있으며 그 중 18명의 학생은 상당한 수준의 기능을 습득하였다. 특히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마늘로 마늘장아찌를 만드는 법을 익혀 가정에서 담그는 등 실기교육의 성과를 얻고 있다. 지점토반(40명)은 대나무 액자만들기 등의 다양한 공작품을 제작하여 교내에 전시하는 등 취미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산만했던 학생들이 차분히 작품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취미활동의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다양한 클럽 부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특색활동

a. 전교생이 1인1문집, 학급문집, 학교문집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독서 작문 특설 시간 운영으로 글짓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독후감, 효경록, 일기쓰기, 각종 교내외 대회 활동에 의해 쓰여진 작품을 무집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1인1문집은 전교생이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문집은 2회 발간하였고, 학교신문도 4회 발간하여 활용하였다. 개인문집과 학급문집

은 2회 발간하였고, 학교신문도 4회 발간하여 활용하였다. 개인문집과 학급문집은 수시로 담임이 지도 조언해 주고 우수작품은 학교신문이나 문집에 기고하여 활용하고 있다. 문집과 신문은 지역사회 각급 기관단체와 도내 여러 학교에 배포하여 본교의 교육활동을 홍보하는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b.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전교생의 시상제를 운영하였다.

본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과를 칭찬해 주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기나 재능을 신장시키려는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전교생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상 후보자는 인성부문과 기능부문으로 나뉘고, 모두 20개의 수상영역을 설정하여 영역별로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수상자는 담임교사와 교과 관련교사, 특별활동 담당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상 타당성을 타진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였다. 시상근거는 개인별로 시상근거자료 카드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고, 매월 한번씩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고 있다. 전교생의 시상제 운영으로 전교생의 학습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c. 교육과정운영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본교에서는 해마다 1년간 학습 활동 결과를 한 곳에 전시하여 교육의 성과를 평가해 보는 교육과정 운영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종합발표회를 통해서 잘된점 잘못된점 더 노력해야 할 것 등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더욱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려는 의욕을 갖게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종합발표회는 지역민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함께 감상해 봄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과정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 종합발표회는 1부 학습 발표회와 2부 작품전시회로 나누어 공개했는데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훌륭한 교육 시책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종합발표회 내용은 제1부 학습발표회 목록 생략 제2부 작품전시회 목록 생략

C. 학부모 교육면

1.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실현

a. 월1회 학부모 연수활동을 실시하였다.

부모는 가정의 최초의 교사이자 평생의 교사이기에 본교에서는 매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연수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학교장은 36가지의 제재에 대한 부모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가정배부함으로써 부모 교육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자모들로 하여금 연수 활동에 참여토록 권유하였다. 또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모들의 실제 자녀교육에 대한 실천사례를 연수 활동 시간에 발표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여 큰 호응을 하고 있다. 학교장은 자모의 심성을 계발시키고 올바르게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강의 안을 준비하여 청취케 하였던 바 지역민까지 크게 호응하여 연수일엔 지역민까지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지역사회교육 중앙협의회 '문희옥' 부모교육 강사를 모시고 [부모 자녀의 대화 기법 토론회]를 실시하였는데 자녀와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배웠다고 참여한 어머니들께서는 크게 기뻐하였다. 토론기법을 익힌 15명의 자모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학부모 연수활동 내용(예시)

월일	연수주제	연 수 내 용 요 약
3월 14일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어느 바쁜 아빠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 식구들의 간청에 못이겨 낚시를 갔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오늘은 아이들과 노느라고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일기장에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했다.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썼더랍니다. 모든 아버지들이여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스케줄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지혜로 여는 아침 중에서-
4월 19일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 은혜스런 말 한 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합니다 /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5월 8일	귀머거리 소경	남의 죄악을 볼 때는 날아가는 재티같이 보고 나의 죄를 볼 때는 큰 쇠고랑 같이 볼것이요 남의 결점을 볼 때는 소경이 되고 남의 약점을 말하는 곳에서는 병어리가 되고 남의 단점을 들을 때는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 -石仙-
5월 8일	부부생활의 십계	1. 두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시오./2.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시오./3.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시오./4.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오./5. 아픈 곳을 긁지 마시오./6.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시오./7.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오./8. 결코 단념하지 마시오./9. 숨기지 마시오./10. 서로의 잘못을 감싸 주고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도록 노력하시오.

월일	연수주제	연 수 내 용 요 약
5월 29일	어머니의 기도	아이들을 이해하고/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대답하도록 도와주소서/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소서/아이들이 우리에게 공손히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을 때/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비웃거나 창피를 주거나/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우리들의 마음 속에 비열함을 없애 주시고/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로시 놀트(Dorothy Low Nolte)
6월 13일	소년을 알아보지 말라	소년을 알아보지 말라/그 아이의 집이 평범하고 보잘것 없는 집이라고/그 아이를 알아보지 말라/에브라함 링컨의 집도 통나무 집이었다./그들의 부모가 무식하다고/소년을 알아보지 말라/세익스피어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다./그들이 보잘것 없는 직업을 택했다고/소년을 알아보지 말라./“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도 뺨장이었다./육체적 결함이 있다고 해서/소년을 알아보지 말라./‘밀튼’도 맹인이 아니었던가./소년을 알아보지 말라./그들이 인생행로에 있어서/언젠가는 앞장설 수 있어서가 아니라/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불친절한 일이고, 온당치 않은 일이며/무례한 일이기 때문이다. -베이든 포우엘-
7월 18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20계명	1.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2. 좋은 말을 먼저 하라./3. 좋은 일을 우선 행하라./4. 좋은 일을 흉내내 보라./5. 좋은 일은 이웃과 함께 나누라./6. 항상 검소하고 부지런하라./7. 항상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라./8. 항상 밝은 마음과 밝은 얼굴을 가지라./9. 항상 문화를 사랑하는 가풍을 세우라./10. 항상 온 가족이 좋은 미래를 꿈꿔라./11. 자녀 앞에서 부모님 흠을 보지 말라./12.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13. 자녀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하라./14. 자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15. 자녀에게 공부만 강요하지 말라./16. 자녀를 함부로 매질하지 말라./17. 자녀에게 너무 자주 혼계하지 말라./18. 자녀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 말라./19. 자녀를 남과 비교해 말하지 말라./20. 자녀 앞에서 의연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라.

2. 어머니의 활성화를 통한 대화의 장 마련

a. 즐거운 어머니회를 운영하였다.

본교 어머니회 (임원 25명)에서 매월 1회씩 정규 모임을 갖고 연수활동을 비롯한 각종 취미활동(민요창, 민속춤, 꽃꽂이 등)도 병행하여 이루고 있다. 매월 교직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자녀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협조함은 물론 교사 학생 자모가 연2회씩 관내 노인당과 불우시설을 찾아가 방석, 과일, 용돈 등을 전달하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경로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5월의 스승의 날과 어머니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랑의 축제'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행사가 되고 있다. 이 날의 축제에는 제1부에 교사, 학생, 부모가 서로에게 주는 편지 낭송, 서로에게 꽃다발 증정, 서로에게 바라는 일을 한 곳에 모여 듣고 즐기며, 2부에서는 함께 출연하는 조그마한 학예회를 준비하여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즐거운 어머니회의 운영은 학교와 학생, 부모님이 하나되는 좋은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어 학생들에게 내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부

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

b. 어머니 독서 교실 운영으로 독서하는 어머니 상을 정립하였다.

독서하는 부모, 노력하는 부모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매년 한국 지역사회학교 중앙협의회에서 제시한 29권의 권장도서를 가정에 소개해 왔다. 9월에는 어머니 독후감 발표대회도 열어 학생들에게 독서의 모본을 보였고, 자녀 교육에 대한 체험사례를 비롯한 교내 어머니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여 모두 25명을 표창하였다. 그 결과 화순 교육청 주관 어머니 백일장 대회에서 본교 정은실 자모(2년 박소라의 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지역사회 학교 중앙협의회에서 추진한 어머니 독후감 모집에서 본교 임복임 자모(3년 구현남의 모) 임원이 '딤스'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여 동상에 입상한 바 있다. 어머니회의 행사에서 입상한 작품들은 학교 문집이나 학교 신문에 수록하여 가정에 선물해 드리는 등 어머니 독서교실 활성화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교사가 한 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어머니 독서교실' 운영은 학교 교

육에 큰 힘이 되고 있다.

c. 좋은 이웃 만들기 어머니 봉사회를 조직 운영하였다.

지난 5월 11명의 자모로 구성된 '좋은 이웃 만들기 어머니 봉사회'는 바람직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민으로부터 찬사와 격려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고 질병에 시달려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든 오일봉 노인(92세)등 3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김치와 화장지 등 생활 용품을 전달하고, 10년 동안 고장나 사용이 불가능했던 형광등을 교체해 주는 등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 봉사회 활동은 학생들에게 선행의 모본이 되고 있어 교직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있다. 앞으로 어머니 봉사회의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

Ⅲ. 맺는 말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바람직한 교육 방법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르쳐 온 학생들의 자란 모습은 어떠한가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인성을 버리지 못하며 '나' '나'밖에 모르는 인색한 인

간들로 성장하고 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우리들은 지금껏 노력했지만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죽어 버린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는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타인의 의사에 의해 주어진 교육 내용을 그저 충실히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그만이 아니냐고 자위하지나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겠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친다 하여도 배우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인간 교육의 성과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사라는 신분을 되돌아 보며 과연 가르칠 것을 똑바로 가르쳤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현실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교에서는 그동안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처럼 되는 교육의 장을 마련키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실시해 왔다. 앞에 소개한 이러한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 교육은 전 교직원들을 한 형제처럼 단합하게 하였고, 학생들은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학교를 적극 도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본교에서 실시해 온 인

성 교육의 내용은 결코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다. 교육 내용이 잘못되고 방법이 미흡하며 교육 여건이 부족하여 지금껏 우리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본교에서 실시해 온 인성교육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가르쳐 보리라'는 전교직원의 '사랑과 봉사, 희생적인 교사상 정립'이 요인이었다.

교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인성교육은 현 수준에서 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우리네 속담은 참으로 진리중의 진리이다. 물은 결코 거슬러 위로 흐르는 경우는 없다. 우선 교사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교사들을 관리하는 교장이 윗물의 역학을 잘해야

한다.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한 후 반드시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윗물이 맑게 소리내어 흐르면 아랫물도 맑은 물로 소리내어 흐른다. 우리는 분명 지금 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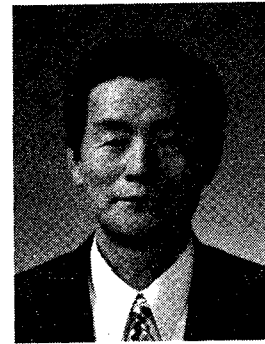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21세기의 사회적 특징은 경쟁과 개방, 과학 기술과 정보, 개성의 사회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바른 가치관과 고운 품성을 지닌 인간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사라면 무엇이 어렵겠는가. 모처럼 소개한 본교의 실천 내용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길 바라본다.

세상에서 원한보다 더 빨리 사람을 소멸시키는 것은 없다.

<니체>

特別活動과 禮節室 運營의 活性化를 통한 自己 正體性的의 確立



金 學 瑾

(麗川中學校長)

I. 여는 말

우리는 1人當 國民所得이 1만불을 넘고 무역 규모로는 세계 12위권내에 들며, 北韓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도 여행할 수 있는 開放 社會에 살고 있다. 또한 컴퓨터의 보급으로 짧은 시간내에 情報 發達의 위치와 관계없이 全 世界에서 情報를 共有하고, 1964년에는 職業 종류가 1,500가지였던 것이 1994년에는 15,000가지로 크게 증가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하며 급변하는 社會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학교 교육은 그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히 발전하는 高度의 情報化, 世界化의 물결 속에서 21

세기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學校, 家庭, 社會의 相互 責任과 유기적인 連帶를 통하여 物質보다는 人間을, 自身보다는 이웃과 人類를 더 생각할 줄 아는 利他的 精神과 학생들의 基本 生活 習慣, 先進 市民 意識을 함양하고, 나아가 健全한 價値觀을 지니며 성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傳統 禮節을 익혀 禮節 바른 日常生活을 하게 하고 自然, 社會 秩序와 的 調和, 상대방 존중 등 民主 市民으로서의 資質을 키우려 노력하였다. 또한 學習者 個人의 個人差를 존중하고 自己 主導的 學習 態度를 존중하는 교육을 통하여 學習자 모두에게 自己 發展의 기회를

부여하며, 討議, 討論의 학습을 통하여 民主的 生活 方式을 익히고 健全한 價値觀 形成을 통하여 自己 正體性을 確立하고 그를 바탕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과 社會 生活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생의 自己 正體性의 實現을 위하여 學校 生活 全般에 걸쳐 여러 活動을 했고, 그 중 특별히 모두의 관심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 事例 몇가지를 紹介한다.

II. 實踐 內容

먼저 첫번째 과제인 特別活動 活性化를 통한 社會共同體 意識과 民主市民 意識 고취를 위해 學級會 活動과 學生會 活動의 民主的인 운영, 클럽 活動의 活性化, 바른 生活 行動 實踐 自己 評價를 통한 기본 생활 습관의 정착, 청소년 단체 활동의 活性化 등을 위한 실천을 하였다. 그 중 기본 생활 습관의 정

3. 評價表

바른생활 행동 실천 자기 평가 나의 다짐

No	행 동 내 용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	
1	가정에서 점수와 결전을 생활화 하였는가?																																

착을 위하여 실시한 바른 生活 行動 實踐 自己 評價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방침

(1) 바른 生活 行動 實踐 自己 評價表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自身의 生活를 매일 反省하게 한다.

(2) 담임 교사는 1주일에 한번 각 학생들의 통계를 내고 그를 바탕으로 相談과 助言을 한다.

2. 內容

(1) 項目의 選定-示範 學校 운영위원회가 모여 기본 생활 습관 영역별로 項目을 選定하여 전체의 項目數를 10개로 맞추었다.

(2) 評價表-'아주 잘 지킴'에서 '잘못 지킴'까지 4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내지 않고 각각의 統計만 내도록 하여 스스로 지나친 부담을 갖지 않게 하였다.

()월 제 학년 반 번 이름:

No	행 동 내 용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				
2	외출할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귀가 시간을 지켰는가?																																			
3	부모님과 웃어른을 대할 때 바르게 인사하였는가?																																			
4	친구간에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대하였는가?																																			
5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굵고 바른 말을 썼는가?																																			
6	웃어른을 대할 때 예절 바른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드렸는가?																																			
7	교통질서를 잘 지켰는가?																																			
8	학교에서나 거리에서 휴지를 안버리고 스스로 줍는가?																																			
9	자기 방과 집안 청소를 하는가?																																			
10	하루 일과를 반성하는 생활일기를 쓰는가?																																			
기 재 사 황 1. 잘 지킴◎, 2. 잘못 지킴×		자 기															담 임																			
		반 성															조 언																			

이 카드는 매일 나의 생활을 반성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기록해 보고, 잘 지켜진 것은 앞으로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하고 잘 안지켜진 것은 꼭 지켜서 모두 ◎표를 받아 바람직한 여권중학생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두번째 과제인 禮節室 運營을 통하여 傳統 禮節을 生活化 하고 自己 正體性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절실의 운영, 教授-學習 方法의 改善, 先祖의 文化 遺産 조사 活動을 하였다. 그 중 禮節室의 運營과 先祖의 文化 遺産 조사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禮節室의 運營

(1) 方針

1) 학교 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指導內容은 基本 禮節에 관한 사항으로 選定하여 實踐 위주의 活動이 되게 한다.

3) 指導 教師와 학급 담임 및 訓話 教育을 통하여 지도하며 內容에 따라 外部 人士를 초빙한다.

4) 禮節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內容

1) 基本 禮節

절의 의미와 마음 가짐, 절의 유형, 호칭 예절, 위계 질서

2) 個人 禮節

○ 基本的인 바른 마음 갖기

• 모든 일에 정성, 공경, 사람, 양보하는 마음 갖기

•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 갖기

• 모든 시설물을 아끼는 마음 갖기

○ 바른 몸 갖기

室內 出入時, 어른 앞에서, 청결, 단정의 몸가짐 生活化

3) 家庭 禮節

○ 부모님, 형제자매간, 친척간의 예절

4) 학교 생활, 스승과 제자간,

동문 先後輩간의 예절

(3) 指導 資料의 예는 다음과 같다.

合理的인 消費生活

9.2~9.7

分數에 맞은 生活을 위한 行動指針(1)

- 버려야 할 고정관념 -

* 값이 비쌀수록 좋은 물건이다.

* 고급 점포에서 사야 좋은 물건이다.

* 역시 외제가 좋다.

* 할인 판매를 하니깐 좀 사둔다.

* 공동으로 사는 것이니까 아낄 필요가 없다.

* 집에 가서 버릴지라도 고급포장지에 싸달라고 한다.

* 푼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2. 先祖의 文化 遺産 조사 활동

正體性을 確立한다.

(1) 方針

(가) 과목별, 단원별로 해당되는 先祖의 文化 遺産을 모듬별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討議한다.

(나) 學習 內容

先祖의 文化 遺産 조사 학습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각 과목, 각 단원의 先祖의 文化 遺産을 모듬별로 조사하여 討論을 통하여 韓民族의 優秀性을 발견함으로써 西洋文明 中心의 意識을 타파하고 祖上의 얼과 探究精神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 自己

* 선조의 문화유산 조사를 통한 토의식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구고현 정리의 활용
학습 자료	참고문헌, 여러 가지 사진
학습 모형	일반 토의 학습
지도 덕 목	한민족의 우수성과 자기정체성 확립

단원개관

■ 대 단 원 : VII. 피타고라스의 정리

■ 중 단 원 : 1. 피타고라스의 정리

■ 소 단 원 : §1. 피타고라스의 정리(2)

■ 학습목표 : 1. 구고현 정리의 뜻을 알 수 있다.

2. 구고현 정리를 연구 활용한 선조의 지혜를 알 수 있다.

* 자료

실물화상기, OHP, TP, 차트, 여러 종류의 책

도 입

■ 출석확인 및 단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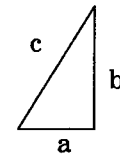
☞ 교사 : 단원의 개관을 설명한다.

♣ 학생 : 단원의 윤곽을 인지한다.

■ 전시학습 및 선수학습 내용 확인

☞ 교사 :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무엇인가?

♣ 학생 :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즉,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a, b라 하고, 빗변의 길이를 c라 하면, $a^2 + b^2 = c^2$ 이다.



<그림 ①>

☞ 교사 : O.H.P를 이용하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확인시킨다.

☞ 교사 : 현재까지 알려진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법은 몇가지인가?

♣ 학생 : 280가지 정도이다.

■ 동기유발

☞ 교사 :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건축, 토목공사에 많이 이용되었던 점과 이 정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선조의 문화유산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유사한 <주비산경>의 구고현정리가 쓰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구고현 정리를 활용한 선조의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본시 학습목표 제시

☞ 교사 : 학습목표를 정확히 제시한다.

♣ 학생 : 학습목표를 확실히 인지한다.

전 개

☞ 교사 : 모듈별로 토의를 주제를 제시한다.(차-트 ① 제시)

1. 구고현 정리의 뜻과 증명법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학생 : 모듈별로 모듈원 상호간에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토의한다.

☞ 교사 : 모듈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시킨다.

♣ 학생 : 토의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 교사 : 실물화상기를 이용하여 구고현 정리를 보충설명한다.

♣ 학생 : 설명을 듣고 모듈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 교사 : 모듈별로 토의할 주제를 제시한다.(차-트 ② 제시)

2. 우리 선조들이 구고현 정리를 이용했던 문화유산의 종류와 그에 대한 구체적 접근을 시도해 본다.

♣ 학생 : 모듈별로 모듈원 상호간에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토의한다.

☞ 교사 : 모듈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시킨다.

♣ 학생 : 토의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 교사 : 실물화상기를 사용하여 구고현 정리를 이용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한다.

♣ 학생 : 설명을 듣고 모듈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이후 생략>

(3) 學習活動 展開時 留意點

(가) 학생들의 討議 과정을 담당교사의 의도대로 이끌거나 結論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나) 담당 교사는 사전에 충분한

한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事前 조사에 필요한 書籍, 資料, 遺跡地 등을 제시하고 조사에 충분한 시간

을 주어야 한다.

(다) 討議 集團을 4~6명으로 하여 모든 구성원이 參與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과제인 家庭, 社會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日常生活이 되게 하기 위하여 學父母~學生 편지쓰기, 家族新聞 만들기, 家族캠프 運營, 一日教師 및 講師 招請 강연을 가졌다. 그 중 학부모~학생 편지 쓰기와 家族新聞 만들기, 家族캠프의 운명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학생 편지쓰기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편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를 더욱 信賴하고 이후로 더 많은 對話의 通路를 확보하게 한다.

(1) 方針

1) 家庭의 달과 연말에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便紙 쓰기를 한다.

2) 담당 교사는 단순히 仲介 役割로 기회만을 부여한다.

3) 모두가 便紙를 쓰게 유도 하되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한다.

4) 少年 家長은 주위의 존경하는 사람이나 선생님께 쓰게 한다.

(2) 內容

1) 어버이날에 전체 학생이

썼고 학부모 102명이 답하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에게 이 오월이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은 나의 아들과 많이 닮았구나. 오월의 푸르름은 어느 달보다 건 강해 보이는 실록의 계절, 새싹이 오염되지 않은 엄마의 욕심은 영원히 그러했으면 좋으련만. 그대 아들이 요즘 3학년들어 너의 공부 시간이 많아져서 엄마도 안타깝구나. 엄마보다 더 늦게 잠드는 너의 방 불빛을 볼 때마다 안스러울때가 많다. 그러나

2) 自律學習 時間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便紙를 쓸 시간을 주었고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일괄 발송하였다.

3) 학부모의 便紙는 家庭 通信文을 통하여 2차례, 어머니 會議를 통해서도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4) 학부모의 便紙는 학생들에게 設問을 통하여 그 매수를 확인하였다.

2. 家族新聞 만들기

家族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新聞 製作 과정을 통하여 對話를 나누고 이로써 家族 相互間의 理解와

信賴를 갖게 하며 核家族化로 떨어진 가족들의 긴밀한 연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1) 方針

1) 發行 回數 : 家族新聞은 매월 1회씩 발행한다.

2) 發行 方法

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新聞의 규격은 B4 크기에, 內容은 家族 紹介, 家訓, 家族 會議 內容, 行事, 家族의 動靜을 創意的이고 자유롭게 구성한다.

③ 製作된 新聞은 학교로 제출하

고, 가족들에게는 복사해서 배포한다.

④ 매회 優秀 作品을 選定하여 게시판에 展示하고 施賞한다.

⑤ 家族新聞의 명칭은 家訓이나 家族의 特性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⑥ 新聞 製作의 全 과정에 全 家族이 參與하게 한다.

(2) 內容

家族新聞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지밭 등우리를 펴내면서] 아버지 신동선 (생략)	[가훈] 가족단체 사진 (생략)	가족사진과 소개 (생략)	양 지 밭 등 우 리 (창간호) 발행일 신금섭 편집인 신미혜 편집장 황정자 고 문 신동선 사 진 신동선 알 림 ▷자원봉사자 모집:(생략)
[부모님께 바라는것] 아들 신금섭 (생략)	[시] <시한토막> 딸 신미혜 (생략)	[시] <우리엄마> 아들 신금섭 (생략)	
[책소개]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 (생략)	[우리가족 식탁] (생략)	[시골외할머니 떡] 생활용품 무료로 드립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머니 홍경자 (생략)	

3. 家族캠프의 運營

家族끼리의 野營 活動을 통해서 자녀와 깊은 對話와 身體 接觸의 시간을 갖고, 다른 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랑과 信賴를 확고히 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자 家族캠프를 運營하였다.

(1) 方針

1) 年2回(7月, 11月) 1回2日로 실시한다.

2) 1回 運營시 參加 가족은 100가족 이내로 한다.

3) Tent 生活을 원칙으로 하고 취사는 가족 단위로 한다.

4) 희망하는 本校 教師들도 參與한다.

5) 缺損 家庭의 학생은 교사와 結연을 맺어 자연스럽게 參與한다.

6) 매회 參加 가족에게 所感 文을 받아 미비점을 보완한다.

7) 參加 족에게는 「家族 캠프 修了證」을 준다.

8) 環境 保全에 勸誘수법을 보인다.

(2) 內容

本校에서 7月 20日에서 7月 21日에 걸쳐 실시한 家族캠프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運營조직

단계	내 용	시기	담당자	자료	비고
준비	*가정 통신문 및 신청서 배부	10일전	기획분과		
	*접수참가 가족 확인	5일전			
	*사전교육(학생)	3일전			
	*조편성	1일전			
실행	*가족캠프 개최				
반성 및 평가	*소감문 내용 분석 *문제점 보관 *성과 처리		평가분과		

2. 運營의 실제

첫째날(7월20일)

시간	내용	PROGRAM	담당자	장 소	비 고
14:30-16:00	설 영			운동장	

시간	내용	PROGRAM	담당자	장 소	비 고
16:00-16:30	개영식			운동장	
16:30-17:20	-우리는 하나-				친교게임
17:20-19:00	요리는 누가 할까?		학생	스탠드	
19:00-20:00	FOLK DANCE				
20:00-21:00	RECREATION				
21:00-21:40	인간 관겨 훈련(주제토의)				
21:40-22:30	촛불의식				
22:30-23:00	명상의 시간				
23:00	이야기좀 합시다.				

둘째날(7월21일)

시간	내용	PROGRAM	담당자	장 소	비 고
06:30	기 상				
06:30-07:00	체 조				
07:00-09:00	학 생 : 요리 솜씨 발휘 학부모 : 자녀 교육은 이렇게(특강)				
09:00-11:00	장기자랑, 토의 발표				
11:00-11:30	소감문 쓰기, 평가회				
11:30-12:00	폐회식				
12:00-12:30	주변정리, 귀가				

II. 結論 및 提言

이상의 示範學校 運營의 결과 日常生活에서 예절바른 行動을 하고 自然, 社會와의 조화, 상대방의 존중 등 民主市民으로서의 行動 樣式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自信心을 갖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영위하여 家族과의 관계도 바람직한 변화가 있는 등 自己 正體性 確立에 成果

가 있었던 것으로 評價된다.

1. 올바른 人性 教育을 위한 活動의 沮害 要因

- (1) 家庭과 社會와의 연결 관계 未洽
- (2) 학생들의 成就感의 喪失로 인한 학교 活動에 대한 興味 喪失
- (3) 自身과 民族에 대한 正體性

이 없어 文化的 隸屬이 가속
 (4) 교사의 業務量과 授業時數 過多로 인한 올바른 人性 教育을 위한 時間 부족
 (5) 열린 教育의 導入에 대한 現實的 한계
 (6) 非教育的 觀點의 매스컴에 둘러싸인 環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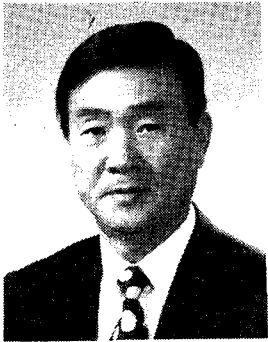
2. 학교에서의 올바른 人性 教育의 方法

(1) 올바른 學生觀과 열린 教育에 대한 認識이 先行되는 것이다.

- (2) 基本 生活 習慣은 꾸준한 觀察과 指導가 계속되는 것이다.
- (3) 학생 모두가 成就感을 갖도록 多樣한 才能을 발굴하여 指導하는 것이다.
- (4) 自身과 民族에 대한 自矜心을 심는 教育을 全 교과에 걸쳐 운영하는 것이다.
- (5) 家族 구성원 간의 對話를 자주 갖는 것이 학생의 心理的 安定을 가져 오고 이웃과 人類를 사랑하는 利他的 精神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인간만큼 불가사의 한 것은 없다. <소크라테스>

道德的 判斷力 및 情緒的 成熟 指導를 통한 健全한 價値觀 涵養



朴 貞 洙

(全南外國語高等學校長)

I. 人性教育의 必要性

우리 사회에 만연된 利己的 性向은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사회 모든 곳에서 무한경쟁의 깃발을 드높이며 상대를 공생의 關係로 보기 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 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全人教育의 깃발을 내걸고 있으나 사실 知育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규정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道德的 危機' 속에 내던져져 있다 할 수 있다.

건전하게 자라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 지옥에 허덕이고 '더불어 사는 지혜 터득'과 '건전한 가치

관을 지니기 위한 노력' 및 利他心 涵양 등을 도외시한 채 정서는 매 말라 딱딱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오히려 教育의 本質의 回復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때, 가정과 학교에서 情意教育, 人性教育, 道德教育의 문제를 끈질기게 붙잡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교는 교육부로부터 人性教育 自律 示範學校로 지정되어, 실천 위주의 자율적 人성 教育 要件을 조성하고 그 관심도를 높이며, 학교 생활 전반을 통하여 人성 教育과 관련된 認知的, 情意的 프로그램을 고안·실행함으로써 학생의 도덕적 판단력을 함양하고 정서

적 성숙을 도야하여, 그들에게서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넘치고 그들이 타인과 더불어 살며 타인의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大乘의 人 心田을 가꾸어 주고, 자신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매사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人성교육을 실시해 온 바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육적 조치'이다. [건전한 價値觀 涵養]이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우선성을 부여하여 행동으로 옮기려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주요 人성 教育 요소는 본 글의 주제이기도 하다.

2. 統合的 接近

인성 教育은 학교 教育의 모든 영역에서 統合的으로 이뤄져야 한다.

II. 人性教育의 基本 原理

1. 道德的 判斷力, 情緒的 成熟, 健全한 가치觀 涵양

이상의 세 변인은 人성 教育의 요체이다. 도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맹목적인 정서적 행위는 경박할 수 있고 주체적 행위가 될 수 없으며, 정서적 성숙을 무시한 教育 역시 차갑고 경직된 이성만을 키우는 셈이 된다.

도덕적 판단력과 정서적 성숙 도야는 건전한 가치觀 涵양을 위한 두 수레바퀴이다. [道德的 判斷力]이란 '개인과 사회를 균형있게 고려할 줄 아는 능력이며, '나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헤아려 보는 추리 능력과 감성적 예민성'이다. [情緒的 成熟 指導]란 '자신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교

3. 自律性

인성 教育은 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 올바른 의식을 지니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4. 體驗

가급적이면 '言語的인 일러주기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III. 人性教育의 實際

1. 實態 分析 및 示範 課題의 選定

人性教育 시범 운영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 투여하여 '인성 교육의 당위성과 중요도', '인성 교육에의 적극적 참여 의지' 및 '도덕적 판단력 정도' '도덕적 발달 단계', '정서적 성숙도', '교사 실태' 등을 체크해 보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과 선행 연구·문헌 연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두 가지 실행 과제를 선정한 바, 첫째는 '학생의 도덕적 판단력 제고를 위한 인지적 프로그램을 고안·실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학생의 정서적 성숙지도를 위한 정의적 프로그램을 고안·실행하는 것이다.

2. 과제 1의 실행

학생의 도덕적 판단력 제고를 위해 고안·실행된 인지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가. 교과 관련 지도

(1) 관련 10개 교과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여 단원별, 차시별로 정리해 본다.

(2) 교수-학습 지도 모형을 구안한다.

구안된 학습 지도 모형은 '일반적 모형', '가치 명료화 모형', '가치 갈등 수업 모형', '인지적 도덕 발달 모형'이 있다.

(3) 구안된 학습 지도 모형에 따라 지도안을 작성 후 관련 지도한다.

(4) 시간은 교사가 관련 수업 내용과 분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나. 자기 주장 발표

(1) 이 프로그램은 1, 2년 학생들이 공동 참여, 공동 사고를 해 보는 것이다.

(2) 교사가 가치관 함양과 관련된 주제를 사전에 제시해 주거나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 보는 경험을 갖게 한다.

(3) 모든 학생이 자기 주장 발표 노트에 정리해 보고, 각 학급에서 우수 학생 1명씩을 추천하여 자기 주장 발표대회에 참가시킨다.

(4) 소감문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학생의 변화를 체크해 나간다.

(5) 월별 주제 및 발표 내용(예시)

<월별 주제>

월별	주	제	월별	주	제
3	학	생	9	학	생
4	"	"	10	"	"

월별	주	제	월별	주	제
5	1년-기업의 윤리성		11	1년-전통사상의 현대적 가치	
	2년-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2년-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	
6	1,2년-뇌사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12	1년-음악의 생활화	
				2년-TV의 반윤리성	
7	1년-윤리·도덕의 필요성		2	1년-학교에서의 민주적 생활태도	
	2년-법의 역할과 준수			2년-장애인 천대문제에 대하여	

<자기주장 발표 원고내용>(예시)

발 표 일 시 : 1996. 4. 10	발표학생 : 1년 영어 임오정
발 표 주 제 : 친구와의 대화에 관하여	
발 표 내 용	
안녕하세요. 1학년 영어과 임오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척 망설였습니다. 못부르는 노래를 해야 할까, 하다 못해 막춤이라도 추어야 할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제 자신을 표현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참새네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 교과목은 날기, 훔쳐먹고 도망가기, 허수아비 알아보기 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수양 특강이 있었고, 참새들이 전깃줄에 줄을 지어 제비들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재수있는 새가 되려면'이었습니다. 제비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엔 갖가지 소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데 모두들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집에 등지를 틀고 삶으로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전에 우리가 살던 집에 출가한 딸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전화를 걸 때는 기쁜 소식이 있을 때였습니다. 당첨소식, 아이 낳는 소식, 합격소식..... 그러나 동생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소식, 망한 소식, 슬프고 괴롭다는 이야기 등등.	
나중에 보니 인생의 길도 그렇게 갈리더군요. 언니는 어디서나 반가이 맞아주는 샘물같은 사람이 되고 동생은 더운 물처럼 피해가는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전하려는 소식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확	

인해 보세요. 만약 쓸모없고 괴로운 것이라면 침묵해도 좋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못견디는 사람이 있을테니까요.

여러분은 친구를 대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친구들에게 누가 누가 싫다는 것, 또는 괴롭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요. 오늘부터는 바꿔보십시오.

“너 오늘 정말 예쁘구나.” 아니면 “너 참 목소리가 좋구나.”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 토론교실 운영

(1)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가치관의 정당성과 신념을 합리적 근거를 통해 주장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논거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생활방식을 터득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2) 토론에 적합한 인성관련 논제를 선택하여 월1회 학급토론 주제로 1주일 전에 제시해 준다.

(3) 사회자와 토론 참가자 및 토론형식을 선택하여 학급토론을 갖는다. 그 결과 우수 학생을 학교

토론 대회에 참가시킨다.

(4) 토론이 논리에 의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임을 강조하여 “논제와 관련없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무시하는 태도 등을 나타내어서는 안된다.”는 토론 예절을 습득시킨다.

(5) 토론 내용은 학생의 도덕적 판단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6) 토론 형식은 2인 토론, 직파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의 세 형태를 사용한다.

(7) 월별 토론 주제 및 토론 형식

<월별 토론 주제 및 토론형식>

월별	주 제	토론형식	비 고
3	임신중절 수술은 허용되어야 한다.	2인토론	학급토론
4	성적우수자 표창제도를 없애야 한다.	"	" , 학교토론
5	식물인간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떼어내야 한다.	"	학급토론
6	아버지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을 때 자식은 아버지를 경찰서에 고발해야 한다.	직파토론	학급토론

월별	주 제	토론형식	비 고
7	가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남녀의 구별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직파토론	학급토론
9	학교 음악시간에도 대중음악을 가르쳐야 한다.	"	학급토론학교토론
10	영국의 거던은 1962년 개구리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다른 개구리의 난자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핵을 꺼내 무핵 난자에 이식하여 발생시킴으로써 핵을 이식받았던 개구리와 똑같은 복제개구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생쥐에서 같은 방법으로 발생시켜 시험관에서 포배기까지 발생시킨 다음 모체의 자궁속에 착상시켜 복제 생쥐를 성공시켰다. 이에 따라 그 후 유전자의 조작과 복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 하나를 택하여 토론하십시오.	반대신문 토론	학급토론
11	우리 학교 바로 뒤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도 무방하다.	"	학급토론, 학교토론 교실, 학생선정개최
12	농약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직파토론	학급토론
2	교복은 폐지되어야 하고, 두발단속 규정도 없어야 한다.	" , 학교토론 교실운영	학급토론학교토론

(8) 토론 교실 운영 일지(예시)

일 시 : 1996년 5월 6일(월)요일		2학년 중국어과	
토론형식 : (직파토론)			
토론주제 : (일본 대중 문화는 개방해야 한다.)			
사 회 자 : 현 덕			
토론참가학생 : 김기찬, 서형국, 김종석, 염동호, 이동하, 남상환, 이종이, 허일현, 배국진, 문지환			
토론내용		반대발언	
<p><u>찬성발언</u></p> <p>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많은 문화가 유입되고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된다. 이 같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 대중 문화에</p>		<p>우리나라는 많은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 수용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화 유입을 위해선 먼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주체성이다.</p>	

대한 빗장을 굳게 걸어둘 것인가?
 다른 나라의 문화는 무비판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입하면서도 일본 문화에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족쇄는 일본 문화의 음성화만 가중시켰고, 일본 문화는 퇴폐, 폭력적인 문화라는 선입견을 심어 주었으며 대중 음악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이라는 비도덕적 행동을 양산했다.

이제 우리도 개방해야 한다. 과거 문호개방을 막고 스스로 퇴폐의 길을 걸었던 역사를 되새기며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족쇄를 풀어야 할 것이다.

주체성 없이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큰 위험이다. 서구와 미국의 문화는 우리에게 꽤 낯설다. 옛부터 전혀 다른 환경에서 문화가 형성되었고 또 우리의 정서와는 거리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비판적인 면에서 이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얼핏 보면 꽤 흡사한 문화인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무방비 상태이다. 서로 같은 문화지역이고 서로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왔다.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전파되면 우리는 빠르게 흡수할 것이다. 게임, 만화, 비디오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 문화는 상품화되고 대중화 됨에 따라 저질화 현상을 빚고 있다. 아무리 일본 문화가 질 높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문화는 어떤 면의 문화일까?

개방은 아직 이르다. 해방 1세기 도 아직 안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리도 안된 판에 또 다시 일본 문화를 수입한다면 우리는 진짜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될 것이다.

평 가

- 토론일지를 정리할 때 토론 참가자의 성명을 기록 요망
- 토론 참가자는 타인의 의견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을 지니고 토론에 임해야 하며
- 자신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
- 토론 과정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생활 방식을 터득

3. 과제 2의 실행

학생의 정서적 성숙지도를 위해 고안·실행된 정의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가. 심성계발 프로그램 운영

(1)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서는 평소 생각해 보지 못한 인생관이나 가치관 문제, 자아실현의 문제에

대해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해 봄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찾게 하며 바람직한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간다.

(2) 심성계발 프로그램은 월1회 갖는다.

(3) 각 프로그램별로 교수-학습안을 작성, 활용한다.

자화상 프로그램(교수-학습안)(예시)

주 제	자화상	일 시	1996. 9. 12	장 소	회 화 실
교육목표	자신의 특성을 기술을 종합적으로 자기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지도 과정 및 활동 내용			유 의 점	
1. 준비	돕는 이 ○ 프로그램 설명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건강, 소원, 장점과 단점, 좌우명, 교우관계, 슬펐을 때와 기뻐할 때를 돌아보고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봄으로써 스스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 유인물 배부 ○ 기재 요령 설명 <미완성 문장을 읽고 자신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빈 곳을 완성해 봅시다.>				○ 진지한 태도유지 ▶ 자화상 ◀ 1.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2. 가장 슬펐을 때는? 3. 나의 장점은?
2. 활동(30분)					
참가자	○ 미완성 문장 읽기 ○ 미완성 문장 완성하기 ○ 완성한 문장 읽기				

지도과정 및 활동내용	유의점
<p>3. 정리(10분)</p> <p><u>답는이</u></p> <p>○ 발표 내용 정리</p> <p>○ 기대 효과 설명</p> <p><u>참가자</u></p> <p>○ 소감발표</p>	<p>4. 나의 단점은?</p> <p>5. 나의 좌우명은?</p> <p>6. 나의 건강은?</p> <p>7. 나의 소원은?</p> <p>8. 나의 교우관계는?</p> <p>9. 10년후 나의 모습은?</p> <p>10. 최근에 결심한 일은?</p>

(4) 행하면서 배우는 체험학습이므로 주저함이 없도록 분위기를 자유스럽게 조성한다.

(5) 체험 뒤에는 생각, 행동, 습관,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강조하여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

(6) 교수-학습안의 주제로는 '자기 개방', '자화상', '장님 안내', '조사 쓰기', '귀환 반응', '다짐의 시간'등을 들 수 있다.

나. 예절 교실 운영

(1) 예절 지도는 12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이론과 실기를 병행 지도한다.

(2) 효행 교육은 계기 교육 및 심성계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3) VTR 자료를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고양시킨다.

(4) 예절 지도 분야별 덕목은 예시와 같다.

예절지도 분야 및 지도 덕목(예시)

분야	지도 덕목
예절의 기본	마음가짐, 몸가짐
개인생활예절	서있는 자세, 앉은 자세, 걸음걸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문을 출입할 때
가정생활예절	가족간의 예절, 친척간의 예절, 근친간의 존수와 계보, 호칭

분야	지도 덕목
일상생활의예절	집에 있을 때 부모에게, 어른에 대한 자세, 자동차에서의 좌석
학교생활의예절	선생님에 대한 예절, 동문·선후배간의 예절, 학생간의 예절
사회생활예절	모임 예절, 손님맞이와 방문 예절
절에대한예절	바른 인사, 여러 인사법
전화예절	걸때, 받을 때
식사예절	가정에서, 음식점에서
한복입기	남자 한복입기, 여자 한복입기
세계화시대예절	외국인을 대할 때, 해외 여행시 알아들 일 서양식 인사법, 자동차, 기차, 비행기 타는 법 방문시 지켜야 할 에티켓, 음식 먹을 때의 예절 해외여행 기본 안내
가정의례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

(5) 예절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며, 예절 지도 공간으로 십분 활용한다.

다. 명상의 시간 운영

물질사회 속에서 인간성 회복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이다. 「명심보감」에도 '一日不念善이면 諸惡皆自起'라 했고, 소크라테스 역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 인격 도야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여 자기가 바라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상시간을 운영한다.

(1) 명상 원고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다.

(2) 매일 조회전 시간을 활용한다.

(3) 명상 진행 요령은 예시와 같다.

진행요령(예시)

프로그램	명상시간	일시	매일아침 07시50분-08:00	장소	각 교실
교육목표	자아반성과 성실 및 자기와의 싸움에 관해 명상함으로써 새롭게자신을 설계한다.				

지도 과정 및 활동 내용	유의점
<p>1. 준비 -주관 : 방송반 학생(담당학생) -방송실 연락 : 준비상황 확인 -참석자 : 지도교사, 원고발표 학생</p> <p>2. 명상(2분) ○ 바른 자세를 갖도록 한다. ○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 눈을 감게 한다. ○ 명상안내(아나운서) “전남외국어고등학교 학생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참 나의 발견을 위하여 ‘자아반성’을 주제로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2분간 계속 명상하도록 한다.)</p> <p>3. 소감 쓰기(4분) “눈을 뜹시다.” “지금부터 ‘자아반성’에 대한 명상 소감을 소감록에 적어봅시다. 소감을 쓰는 시간은 약 5분입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쓰고 있는 문장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씹시다.”</p> <p>4. 소감 발표(3분) “이어서 여러분이 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p>5. 정리(1분) ○ 명상 내용의 핵심과 발표한 소감을 종합하여 정리해 준다. “이상으로 명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에서 자기주변 정리 정돈 ○ 책걸상 줄정리 하기 ○ 정숙지도 ○ 윤번제로 소감록 발표한다. ○ 참 나의 이해가 지도력의 기초임을 강조 ○ 일과안내 : 방송

라. 봉사 활동

(1) 본교의 봉사 활동은 일반적

인 자원 봉사 활동이 아니라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이다.

(2) 봉사 학습은 참여-반성-평가로 이어지는 학습의 과정을 밟는다.

(3) 봉사 활동 평가에 있어서는 시간을 중시하는 평가로부터 시간-과정-내용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4) 평가 덕목은 참여성, 지속성, 자발성, 적극성, 이타성, 희생성 등을 들 수 있다.

(5) 봉사 학습 프로그램 중 정신 교육은 예시와 같다.

봉사 학습 프로그램(예시)-환경윤리(야외)

학생 여러분! 오늘 극기 훈련에 앞서서 환경보호에 관한 훈화 몇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넬슨의 열의에 의해서 1970년 4월 20일 미국에서 지구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날 2,000만명의 시민이 지구의 보호를 위해 시위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는 더럽혀져 왔으며, 물과 공기의 오염은 날로 더해져 인간의 생명을 감소시켜 왔습니다. 1972년 바바라 워드가 UN의 환경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극에서 살고 있는 곰의 간에서도 DDT가 검출됐다고 하니 화공약품이나 자동차의 매연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도처에 버려진 유리조각, 비닐봉지, 각종 폐기물 한조각의 유리, 쓰레기들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한방울의 물과 한줌의 흙도 함부로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결심과 술선수범하는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혜택 받기 위해서라고 전제하고 싶습니다.

대자연은 인간에 있어서 생명의 원천입니다. 산과 강, 집안이나 직장, 농촌이나 도시 어디를 가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질서와 조화있는 환경조성이 그 참뜻이 되겠지요.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2차 대전전 영국의 한 산림청장이 일본의 산림계획을 보고자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의 산림청장은 그를 안내하며 나무가 잘 심어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산림청 장관은 지팡이를 짚으며 산에 오르는데 그 뒤를 따르는 일본의 산림청장은 영국의 산림청장이 짚은 지팡이 구멍을 발로 떼우면서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도 이상하여 영국의 산림청장이 물

어 보았더니 그 대답이 “이 지팡이의 구멍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나무를 찍어 지팡이를 만들 것이고, 또 산을 험하게 만들게 될 것이 걱정되어 구멍을 메운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일본 사람이 한 일이지만 배울 점이 너무나 큼니다. 우리들은 늘 환경을 깨끗이, 오염되지 않게, 아름답게 꾸미며, 나무가 울창한 푸른 주변,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며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을 마음껏 먹고 즐기며 몸과 마음이 넉넉하고 건강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함께 복창해 봅시다.

- 에너지를 아껴쓰자. ○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합시다.
- 재활용 용품을 활용합시다. ○ 식사 후 잔 밥을 남기지 맙시다.
- 환경 파괴 행위를 신고합시다.

마. 자기 표현 기회 확대

(1)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화전, 연극, 노래 경연 대회, 시 낭송, 포크댄스, 에어로빅 경연 대회 등을 진행한다.

(2) 시화전을 통하여 질서와 조화가 이뤄진 미적 심성을 도야하고 학습으로 긴장된 마음을 유연하게 한다.

(3) 상설클럽 활동반으로서의 연극 활동을 통하여 직접 참여 내지 연기자와 호흡을 같이 해 보는 공감의 장을 형성해 나가고, 타인의 삶 속에 뛰어 들어 보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한다.

(4) 노래 경연 대회를 통해 학력위주의 풍토에서 메말라 가는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매월 2

편씩의 악보를 배부해 주고 생활 속에서 즐거운 노래와 함께 지내도록 한다.

(5) 시 낭송을 통해서 시 언어가 주는 정교함과 절제미를 습득하도록 한다.

(6) 포크댄스나 에어로빅은 매일 2교시 직후 중간 체조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하며 체육대회를 통해 경연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협동심과 창의력을 드높인다.

바. 세계 시민적 자질의 육성

(1)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는 1학년 학생 65명이 참석했다. 17박18일 동안 진행된 어학연수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Rollins College의 현지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국제

적 시야가 훨씬 확대되고, 미국인의 실용적 생활양식 이해, 자신감 배양, 질서의식의 고양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2) 외국인 초청 특별 수업

외국인 초청 특별 수업은 학기 중 각 과별로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여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의 세 과에서 1년에 3-4회 실시한다. 2-3명의 대학 외국인 강사가 본교에 초청되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화 능력의 배양, 외국 문화의 이해를 한층 깊이 할 수 있다.

(3) 해외 학교와 교류 추진

본교는 '96년 5.31~'96년 6.19까지 Wenatchee Valley College 및 Wenatchee High School과 교류 협정을 맺었다. 자매 결연을 맺은 결과 원어민 영어교사 수급에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학술적 교류와 제반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에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IV. 實 行 結 果 의 檢 證

결과를 검증하는 데는 설문지 및 소감문을 활용했다.

1. 실행 과제1의 검증

(1) 도덕적 판단력의 변화

사전·사후 측정치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도덕성 발달 단계의 변화

사전·사후 측정치를 비교해 보면 긍정적 변화를 보여가고 있다.

(3) 인지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자기 주장 발표, 토론 교실 운영, 교과 관련 지도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토론 교실 운영이나 교과 관련 지도는 그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나 내용상의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실행 과제2의 검증

(1) 정서적 성숙도 변화

‘자신에 대한 긍정감’등의 5개 항목에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고려’ 항목이나 ‘자신에 대한 이해 관리’ 항목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정의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자기 표현 기회 확대’, ‘외국인 초청 특별 수업’, ‘해외 연수’, ‘심성 계발 프로그램’, ‘예절 교실 운영’, ‘봉사 활동’순으로 그 만족도를 표시했다.

V. 結 論 및 提 言

본 시범 운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성지도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성교육 참여도,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2. 인성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3. 인지적 프로그램의 고안·실행으로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성 발달 정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4. 정의적 프로그램의 고안·실행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성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5. 인지적, 정의적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한해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필요로 한다.

6. 인성교육의 성공, 실패 여부는 무엇보다도 전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실행한 결과를

검증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으며, 통제되지 못한 여러 변인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인성지도에는 끈질긴 인내심과 창의성, 긍정적 변화를 위한 학생과 교사의 신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다음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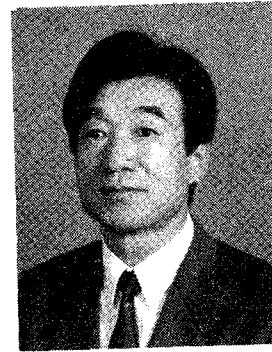
첫째, 인성지도는 가정 및 학교, 사회에서 각각 대상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효과가 학생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모든 장의 풍토가 건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셋째, 각종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데는 학생과 호흡을 같이 하여 그들의 참여 의식을 고양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학생의 인성교육에의 참여활동이 학교의 여타 교육활동 이상으로 중요성을 갖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

體驗活動을 통한 人性教育



白 鐵 萬

(所安中學校長)

1. 人性教育의 必要性

오늘의 우리 社會는 급속한 産業의 發達과 家庭, 學校, 社會 教育機能의 弱화, 그리고 開放化, 自律化, 民主化의 轉換期的 상황에서 價値體系의 혼란으로 禮義凡節은 땅에 떨어지고 人間 輕視風潮와 극단적인 利己主義, 黃金萬能主義의 澎湃로 인하여 靑少年 犯罪는 急增하고 흉악범은 날뛰고 있어 이를 治癒하기 위한 根本對策이 教育現場에서 講究되어야 겠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教育은 人間의 潛在能力을 最大限 開發하여 人間다운 人間을 育成하며 自我實現을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으므로 教育現場에서 人性教

育은 그 어떤 教育보다도 重且大하다 아니할 수 없다.

人性教育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教育으로서 智-德-體가 調和된 全人的 人間 形成의 教育이며 올바른 價値觀과 道德的 判斷 能力을 갖추게 하는 人格 教育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學校 教育現場은 入試爲主의 知識 偏重주의 적인 教育에 치우쳐 教育의 本來 目的인 人間의 올바른 心性 涵養에 는 소홀히 하고 있어 學校는 있어도 教育이 없고, 敎員은 있어도 敎師는 없다는 말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筆者는 教育의 궁극적 目的인 人間다운 人間을 形成하는데 重點을 두고 人間行動의 變化를 追求

할 수 있는 教育風土를 造成하여 오늘의 學生들을 올바른 人間으로 길러내어야 할 必要性이 절실하여 '96學年度에 實踐해 왔던 事例를 整理해 보고자 한다.

II. 實態 分析

1. 學生의 實態

學生들은 多情하고 부드러운 선생님, 教室에서 授業時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 先生님을 要求하였으며, 즐거운 教室 運營을 渴望하고 있었다.

이는 協同 奉仕하는 心性 形成과 즐거운 教室 造成, 學生들의 基本 生活習慣形成, 健全하고 긍정적인 性格 形成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教師의 實態

教師들은 人性指導 意識의 低調, 열린 學習指導의 미흡, 現場體驗學習의 經驗이 低調하여 學習方法 改善과 學生들의 基本 生活 形成의 學校長 研修와 訓話를 展開하였다.

3. 學父母의 實態

學父母는 農業과 水産業을 主業으로 하므로 年中 重勞動으로 因한

人性 지도에 關心이 미흡하고 學生의 特技 伸張 지도와 關心에 소홀하였다.

이에 웃어른 恭敬 孝行心 內面化 및 實踐, 父母님 말씀 잘 듣는 착한 學生, 交通 및 公중도덕 실천을 위한 學父母 관심을 두도록 하였다.

III. 人性教育의 事例

1. 生活規範 實踐 自己點檢 實施

學生들의 基本 生活 習慣 形成을 促進하기 위하여 먼저 教師가 앞장서서 規範을 實踐하는 生活 風土를 造成하고 集團意志를 重視하는 社會的 강화 방법을 適用하여 생활 규범을 反復하여 實踐에 옮기도록 하였다.

學生 生活 規範 基準은 學校 生活 實態상의 문제점, 사회적 要求와 期待의 반영, 傳統的 道義 德目과 未來指向의 關心 考慮, 實踐 가능성을 考慮해 制定토록 지도하였다.

生活 規範 실천의 추진은 3단계 거쳐 實踐 분위기 造成에 주력하였다.

제1단계로는 教師가 앞장서서 實踐분위기를 造成하였다. 學校 社會에서 學生들이 教師로부터 받는 同一視 現狀은 매우 열렬하기 때문

에 教師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生活 風土는 곧 學生들의 基本 生活 習慣 形成의 토대가 된다고 믿어 全職員이 學級擔任을 초월한 任場지도로 生活 規範 實踐 風土를 造成하였다. 教師는 學生을 내 자식처럼 보살피며, 보는대로 칭찬하고, 보는대로 도와주는 雰圍氣 造成, 어떠한 경우에도 相談과 併行 처벌을 最少化하는 學校 분위기를 擴散하였다.

제2단계로는 全教職員, 學級任員(바른생활부장)이 수시 點檢하여 協力 指導로 실천 분위기를 造成하였다. 바른생활부장이 點檢하여 솔선수범하고, 擔任教師는 現場에서 지도하여 좋은 行動 발견 즉시 칭찬으로 強化하며 改善할 點을 발견하면 즉시 是正지도를 하므로 스스로 反省하는 분위기를 造成하였다.

제3단계로는 學生들의 自律的인 실천분위기를 造成하므로 生活 規範 實踐이 몸에 배이도록 誘導하였다. 學級會議 時間에 自律的으로 反省하므로 실천하게 하고 自己 點檢表에 每月 反省의 結果를 적게 하므로 自律的 실천 분위기를 造成하였다. 生活 規範 실천 自己 點檢表는 強調 지도 要素로 基礎질서, 禮節協同, 奉仕, 責任, 清潔, 節約의 6個 領域에 各 領域의 지도要素에 細部 實踐指導 內容을 4~7個 項目을 每月 點檢해 나감으로 生活

規範의 內面化를 이루도록 지도하였다.

2. 奉仕活動 展開

多様な 奉仕活動의 體驗을 통하여 情緒 涵養 教育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地域社會의 봉사활동 對象이 되는 各種 施設, 여러기관團體, 産業體, 環境 등의 실태를 分野別로 調查 파악하여 추진計劃 樹立에 活用하였다. 奉仕活動 領域으로 兒童을 위한 奉仕, 老人을 위한 奉仕 환경 보전을 위한 奉仕로 나누어 有關기관과 면밀히 協助 體制를 이루어서 展開하도록 하였으며 可能限한 活動 計劃은 學生들 스스로 樹立, 役割 分擔하여 自律的으로 實踐하며 事後 反省 評價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奉仕活動의 實施에서 모든 學生이 年中 持續的으로 參與하도록 유도하였으며 學校에서 프로그램을 編成하여 學生에게 提供하고 學生은 그 중에서 希望하는 프로그램을 自律的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各 마을 奉仕活動班을 組織 運營하고 學年, 學級別, 自然保護 活動班을 조직 運營하였으며, 個人的으로 奉仕活動 전개시에는 計劃書를 事전에 提出, 學校長의 承認을 받아 實施토록 했고, 學級擔任은 이

를 검토 調整하여 指導해 奉仕精神을 발휘토록 하였다.

各 마을 奉仕活動班 운영을 살펴 보면 내고장 發展에 奉仕 헌신할 수 있는 精神을 기르고 各 마을 奉仕活動班을 통해 淸淨海域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고 海洋 汚染 防止 및 마을 주위를 깨끗이 淸掃하여 愛郷心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共同體意識 및 協同心을 함양하는데 目標로 하였다.

이의 운영은 每月 첫째週와 셋째週 日曜日 아침 6~7까지 1時間동안 各 마을別 淸소 및 海邊淸掃를 實施한 後 마을 里長 淸소를 받아 月1회 마을 奉仕活動班 反省 및 評價會를 가져 活性化를 期하였다.

學級別 自然保護 活動班 운영은 地域 環境의 淨화와 淸淨水域의 汚染防止를 事前 教育시켜 豫防하는 學習 經驗과 버리지 않는 習慣을 길러 주변 環境을 깨끗이 하고 좋은 습관을 形成하는데 目標를 두고 운영하였다.

이의 운영은 各 班 擔任教師가 인솔 지도하며 安全事故에 유의하였으며 學生들의 自然保全意識 함양이 몸소 體驗되도록 하였다.

3. 孝·敬 教育의 推進

學生들에게 孝와 敬의 思想을 體

系的으로 指導하여 바른 人性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먼저 孝道精神 涵養을 위해 實踐 領域을 人事 잘하기, 공부 잘하기, 敬言 사용하기, 父母님 은혜 알기, 孝行日記 쓰기를 展開하였고,

家風 維持의 實踐 領域으로는 祖上의 뿌리찾기, 家訓 設定하기, 正直한 生活하기, 칭찬받기, 德性기르기 등을 展開하였다.

敬老思想의 實踐 領域으로는 老人 恭敬하기, 禮義 지키기, 겸손한 마음 갖기, 공손한 태도 갖기, 불우 노인 돕기 등의 領域으로 實踐하였다.

“孝” 教育의 效果的인 추진을 위해 우리 學校 全校生에게 “孝道하겠습니다.”라는 人事用語를 使用하게 하였다. 孝道의 生活化를 위한 人事法으로 家庭에서는 아침에 “○ ○님 건강하십시오.”, 오후 下校時에 歸家하여서는 “○○님 孝道하겠습니다.”라고 人事하도록 지도하였으며 學校에서는 授業時에는 目禮로 “저는 孝子입니다.” 授業 끝에는 目禮로 “孝道하겠습니다.”라는 人事法을 지도하였다.

祖上의 뿌리 찾기 教育의 展開는 學生들 스스로가 自身の 뿌리를 찾게 함으로써 祖上에 대한 矜持를 찾게 하고 父母 恭敬의 心性을 伸張시키기 위하여 學生들에게 自己의 祖上 자랑 調査를 해 오도록 課

題를 부여하여 祖上에 대한 恩德과 後孫으로서 自矜心을 갖도록 하였다.

家訓 設定 지도는 學年初 學生들 各 家庭에 家訓이 있는 家庭 數를 調査해 본 결과 全體 學生中 6% (18名) 만이 家訓이 있고 나머지 94%(301名)는 家訓이 設定되지 않아 各 家庭에 돌아가서 家族領域을 通하여 家訓을 設定토록 하였으며, 家訓의 內容을 揭示하도록 學校에서 붙글씨로 깨끗하게 써주었더니 새삼스레 家族의 所重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教育 效果가 있었다. 또한 4月 둘째週에는 家訓 展示會를 開催하여 다른 家庭에서 의 家訓을 살핍으로 바른 人性을 다지는 契機가 되었다.

孝行 用語 지도는 週1회 每週 土曜日 下校 直前 孝行用語를 明心寶鑑에서 발췌하여 提示해 주고 金曜日 下校직전 淸소하는 과정에서 지도하였는데 3月 첫째週의 孝行用語는 “父生我身, 母鞠吾身”을 提示하여 學生들이 풀이하여 보고 뜻을 깊게 새기도록 지도하였고, 學習 有無를 살피기 위해 金曜日 終禮時間에는 任意의 學生을 지적하여 漢字用語 쓰기, 풀이, 뜻 새기기, 우리의 마음 다지기 등을 發表케 하여 孝生活의 內面化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에서 實踐한 孝·敬教育을 바탕

으로 孝·敬生活이 擴散되도록 “孝와 敬의 自己 點檢表”를 제시하였다. 實踐 事項을 16個項으로 作成하여 項目別로 실천 結果를 每週 2회 기록하여 自身の 行動을 反省하고 孝와 敬의 實踐意志를 形成해가도록 指導하였다.

自己 點檢表는 스스로의 行動을 反省하고 솔직하게 自身の 한 일을 反省할 수 있도록 하여 잘한 일은 더욱 伸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잘못된 일은 이를 是正하여 自己 行動을 改善해 나가려는 意志를 키워 줄 수 있도록 誘導하여 月1회 보조사 淸소印을 거쳐 學級擔任이 확인하고 淸소時에는 잘한 점에 대한 칭찬을 주로 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꾸중이나 지적보다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方向으로 指導하였다. 自己 點檢表를 活用할 때 留意할 점은 孝와 敬의 心性 變化의 過程을 把握하는 資料로만 活用되어 지도록 하였다.

孝行 日記는 每日 쓰게 함으로써 父母님의 恩惠를 萬分의 一이라도 보답하려는 계기가 되고 차분히 하루를 反省하고 父母님을 생각하면서 쓰도록 하였으며 孝行 日記帳의 內容은 孝行의 實踐과 反省, 每日 實踐 사항 點檢(孝行 人事 횟수, 칭찬 받는 횟수) 感銘깊은 선생님 말씀(감명 깊게 읽은 책과 內容), 瞑想의 時間, 오늘의 漢字, 英

語 한마디를 主要 內容으로 우리 學校 學生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필자가 創案하여 學生들에게 配付하여 쓰도록 하였다. 孝行 日記 쓰기를 通하여 진정한 효의 意味를 表現하는 方向으로 지도하여 月2回 擔任教師가 點檢하여 잘 쓴 學生은 칭찬하도록 하여 成就感을 맛보게 하였더니 점점 優秀한 事例가 많이 發見되었고 優秀한 事例는 學級會 時間을 通하여 發表케 하여 全體 學生에게 內面化를 이루는 계기로 하였다.

IV. 人性教育 指導 結果

生活 規範 實踐 自己 點檢의 실시 結果를 分析하여 본 결과 “公衆 道德 지키기” 項目에서 4月初에는 아주 低調한 實踐率이었지만 9月末 點檢 結果는 93%의 높은 水準으로 向上되었으며, 禮節 分野에서는 比較的 높은 실천율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父母님께 孝道하기” “웃어른 恭敬하기”에서는 98%의 실천율을 보여 이는 本校에서 持續적으로 실시해온 孝와 敬의 教育的 效果라 보여진다.

協同, 奉仕, 清潔 領域에서는 처음 實施 10%에도 못미치는 低調한 실천율을 보였지만 每月 꾸준한 지도로 높은 伸張率을 보여 9月末 點檢 結果는 거의 全 德目이 90%

以上 實踐하고 있다는 結果로 나타났다.

全般的으로 基礎秩序 領域의 實踐率이 낮은 반면 禮節, 協同, 奉仕, 清潔, 領域에서 높은 實踐率을 보였으며, 全體 30個 實踐 德目中 90% 以上이 實踐한 德目이 14個 項이었으며, 70% 以下 실천율을 보인 德目이 2個 項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公衆道德이나 公共施設物 아끼기로 나타나 公衆道德 分野에서 보다 重點的으로 지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奉仕活動 展開 結果는 月2回 日曜日(첫週와 셋째週) 自發적으로 實施하는 마을 奉仕班 活動은 學年初에는 參與率이 比較的 낮았지만(4月 51%) 매월 점진적으로 奉仕 活動의 參與 意識 고취로 9月末에는 97%의 높은 參與율을 보였으며 學生들도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이 해야겠다는 責任感과 自負心을 가지고 參與해 奉仕活動을 通한 情緒 涵養과 協同 團結의 意志를 키워주고 있다고 보아진다.

마을 住民들도 學年初에는 전혀 無關心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호응도가 좋아 住民 參與 人員數가 增加하여 9月末 現在 71% 以上の 參與率을 보여 주고 있어 自發적으로 實施한 奉仕活動이 地域住民 啓導에도 큰 영향을 주어 긍정적인 面을 反映하고 있다.

孝道 人事 지도 結果는, 오늘날 孝教育은 그 어느 때보다는 절실하지만 教育現場에서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孝教育을 示範的으로 실천하기로 하고 學年初(3月) 學級會, 學生會議 決議를 거쳐 “孝道하겠습니다.”의 人事지도를하기로 하였다.

아침 登校 할때와 下校하여 歸家 時에 子女들이 父母님들에게 “孝道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人事를 하며 人事를 받은 父母님들은 孝子를 둔 기쁨을 맛볼 수 있었고 子女 學生들도 말과 行動을 一致시키려는 意志가 씩터 7個月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孝 意識이 造成되어 가고 있다.

孝行言語 및 孝行日記 쓰기 지도 結果는 學生들에게 每週 1주일 “四字少學” 孝行編을 위주로 土曜日 課題를 提示, 金曜日 終禮時間에 擔任教師의 確認을 거치는 과정에서 學生들에게는 持久力이 伸張되었고 漢字 공부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反復적으로 孝行用語를 외우다 보니 自身도 모르게 孝行의 意識轉換이 일어났다.

특히 父母님의 立場에서도 설사 이 없이 공부를 하여 기쁨을 주었고 內容 또한 孝道의 意味를 내포하고 있어 加一層 신나는 家庭生活을 영위할 수 있었다. 孝行日記 쓰기에 全校生에게 孝行日記帳을

自體 製作 配付하여 지속적으로 쓰게한 結果 學生들의 孝 意識이 점진적으로 伸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孝의 自己 點檢表 分析 結果는 모든 學生 스스로가 累加 記錄한 點檢 內容이 孝道精神과 家風 維持 및 바른 生活 伸張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하게 變化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學生들의 變化가 實踐 1個月 사이에 현격한 變化를 주었으며 그 다음은 持續적으로 바람직한 方向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孝道精神 項目에서 “인사 잘하기” “父母님 恩德알기” “孝行日記 쓰기”는 극히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家風維持나 敬老思想에는 좀 不足한 點이 엿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成果는 집요하게 실현 지도해 온 孝道와 恭敬의 教育이 學生들의 實踐하려는 意志와 態度的 變化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V. 끝맺는 말

體系的인 體驗 活動의 일환으로 每月末 實施해 온 生活 規範 實踐 自己 點檢을 經驗한 學生들은 善意志를 伸張시켜 주었으며 心性 變化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3단계에 걸쳐 實踐 戰略은 內面化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多様な奉仕活動を展開하고 自發的인 參與를 誘導한 奉仕活動은 自律性和 創意力을 伸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며, 共同體意識의 形成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學生들의 義務적인 奉仕活動은 地域 주민 啓導를 유발하였으며, 愛郷心을 고취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孝·敬의 실천을 통해서는 “孝道 하겠습니까.”라는 人事지도는 和睦한 家庭을 이루는 起爆劑가 되었으며, 매우 지속적으로 指導해온 孝行心의 지도는 學生들에게 孝道를 실천할 수 있는 意志를 심어 주었다. 孝와 敬에 대한 自己點檢表 製作 活用은 敬老 孝親 思想을 昂揚시켜 주는데 많은 影響을 끼쳤으며 孝行日記 쓰기 지도는 孝와 敬

을 실천하여 바른 人性 涵養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서 論議된 體驗活動을 통한 人性 教育을 展開하면서 몇가지 提言한다면 바른 人性 涵養 지도를 學校에서 體系的으로 할 수 있는 多様な 資料 製作, 프로그램 開發 등이 보급되어 一線 教育 現場에서 活用되었으면 한다.

靑少年들의 바른 人性 涵養 지도는 教育 現場에서 뿐만 아니라 全國民의 課題로 認識시켜 추진되어야 한다.

孝와 敬의 教育은 家庭과 學校 社會가 三位一體가 된 지도 方案이 講究되어야 바른 心性이 涵養될 것이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친다.

* 靑年의 德은 수줍음, 中年의 德은 正義, 老人의 德은 智慧에 있다. *
* <아람> *

열린 對話 및 사랑의 便紙 쓰기 통한 고운 마음씨 기르기



金 南 洙
(長興中學校長)

I. 머리말

인성은 ‘마음’과 ‘사람됨’이라는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인성교육의 접근 방향을 심성교육과 가치·도덕교육으로 지적인 바 있는 남궁달화(한국교원대)에 따르면 그중 ‘마음’은 사물은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인 知와, 사물을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하는 情과,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결심하는 意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인성의 또다른 요소인 ‘사람됨’은 知·情·意가 통합된 마음이 가치의 실현을 통해 드러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참된 사람의 모습은 자아를 실현하며 도덕적으

로 살아가는, 즉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나를 자각하고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허친스(R.M.Hutchins)에 의하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곧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과 동일한 것이다.

本校는 邑所在地에 있는 15學級, 600여명의 學生을 수용하고 있는 남자 中학교로서 1996學年度 1個

年間 道教育廳 指定 인성교육 자율 시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본 글은 시범 운영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II. 示範學校 運營의 概要

가. 運營의 必要性

(1) 社會的인 面

高度로 發達된 産業 社會와 物質 萬能主義 속에서 자라고 있는 靑少年들은 社會의 모든 부정과 犯罪에 露出되어 있고 好奇心과 模倣心理가 強한 靑少年들의 脫線을 社會人들은 外面하거나 無關心으로 대하여 이들을 積極的으로 保護하려 하지 않고 있어 이에 便乘한 靑少年들은 罪意識이 稀薄해 지고 詩性은 황폐화 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道德性을 일깨워 바른 心性을 갖도록 指導해야겠다.

(2) 家庭的인 面

産業 社會의 發達로 女性의 社會 進出이 活潑해 짐에 따라 맞벌이 夫婦의 增加와 더불어 核家族化 현상과 家族計劃 實踐에 따른 외아들 比率이 높아져 父母의 過剩 保護 속에서 생활하는 靑少年은 自己 中心의이고 利己的인 面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子女에 대한 期待가 한 子女에게 集中됨에 따라 負擔이나 父母의 經濟的 問題와 葛藤으로 因

한 離婚의 增加에 따른 부모에 대한 欲求不滿 등이 心理的 葛藤을 일으켜 자칫 비뚤어진 성격으로 變貌되고 이것이 行動으로 表出되어 社會問題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靑소년들에 대한 人性 指導의 責任을 家庭에서도 상당량 分擔하여야 할 것이다.

(3) 學校 學生面

오늘날 入試 爲主의 教育에서 오는 靑少年 問題點의 하나로 過熱 競爭에서 오는 心理的 負擔感과 相互 不信에서 비롯된 個人主義 意識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社會人으로서의 양보와 協同 奉仕 精神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마음으로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겠다는 協동·봉사 정신 갖기 指導가 필요하다.

나. 運營의 目的

21세기 情報化 社會를 이끌어 나갈 未來의 주인공들에 대한 충실하고도 의도적인 지도로 問題 解決을 위한 創意力을 개발하고 誠實性과 道德性 그리고 안정된 情緒를 갖춘 人間으로 育成하는데 있다.

다. 運營의 方針

1) 관련 教科 활동을 통하여 人性 指導에 힘쓴다.

2) 特別活動을 통하여 個性과 素質·適性을 啓發한다.

3) 集團修練 活動을 통하여 責任感, 協同心, 忍耐力을 기른다.

4) 奉仕活動을 실천하여 犧牲·奉仕精神과 社會的 責任感, 社會 적응력 및 自然保護精神을 기른다.

5) 사랑의 便紙 쓰기를 實踐하여 學生·學父母·教師間의 理解와 사랑의 交流가 이루어지도록 힘쓴다.

4) 運營 절차

구분	절 차	기 간	실 행 방 법
계획 수립	기초조사	96.3.1~96.3.15	선행 연구 분석 문헌 연구
	과제선정	96.3.15~96.3.20	학생 실태 분석 후 과제 선정
연구 실행	과제분석	96.3.20~96.3.30	기초 조사 분석 설문 자기 인식 관련 설문 행동 경험 관련 설문
	실행계획수립	96.3.25~96.3.30	설문 분석
	시범연구추진	96.4.1~97.2.28	추진 계획에 의거
평가	검증및평가	96.10.1~96.10.15	설문 조사 觀察, 分析
	보고서 작성	96.10.15~96.10.30	추진 과정 점검 및 검증의 결과에 의거

III. 理論的 背景(생략)

IV. 運營의 基底 및 課題 設定

가. 實態 分析

<표1> 缺損 家庭의 實態

N=216

구분	편모	편부	계모	의부	고아	계	비고
인원	20	7	8	1	6	42	19.4%

라. 運營의 設計

1) 對象: 全南 長興郡 長興中學校 3個年間(589名)

2) 期間: 1996. 3. 1 ~ 1997. 2. 28(1년간)

3) 運營 組織 (생략)

學生 人格 形成의 뿌리가 家庭에 있으므로 家庭 環境을 調査하였다.
<표1>, <표2>

<표2> 의아들 實態

N=216

반	1	2	3	4	5	계	비고
인원	18	12	15	17	9	71	32.9%

나. 結果 分析

缺損 家庭 學生이 42名으로서 指導 對象 學生의 19.4%에 달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조사한 의아들이 71명으로 32.9%이다. 이러한 數值는 缺損 家庭에서 야기될 수 있는 問題點과 父母의 過剩保護와 期待에서 오는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는 學生들이 指導 對象 學生의 거의 절반에 해당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인 指導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다. 運營 課題 設定

[課題 1]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情緒를 純化시킨다.

[課題2]

父母·子女·教師間的 열린 對話를 위한 사랑의 便紙 쓰기를 實踐하여 고운 마음씨를 기른다.

[課題3]

忠·孝 奉仕 日記 쓰기와 集團 修鍊 活動을 통해 協同·奉仕精神을 기른다.

V. 示範 課題別 實踐

가. 示範 課題(1)의 實踐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실천 사항	실천방법		실적	담당자	비고
	목표량	시기			
• 冥想時間 運營 설문조사	2회	3·10월	2회	도덕과	설문지
• 冥想의 資料 再構成	30회분	3월	완료	도덕과	Tape
• 冥想의 時間 運營	주2회	월, 금	총26회	최형성	방송일지
• 關聯 教科 指導 要素 抽出 指導(道, 國, 社, 體)		연중	지도중	교과담임	-
• 教科時間 5分 訓話 실시	수시		-	교과담임	학급일지
• 輪番制 訓話 실시	주2회	월, 목	21회	도덕과	혼화철

실천 사항	실천방법		실적	담당자	비고
	목표량	시기			
• 명상의 시간 감상문 쓰기	주2회	5·10월	10회	도덕과	감상문철
• 人性教育 敎職員 研修	2회	3·10월	2회	연수계	연수자료
• 小集團 協力 學習 運營	연중	연중	운영중	해당교과	지도안

나. 示範課題(2)의 實踐 計劃

부모·자녀·교사간의 열린 대화를 위하 사랑의 편지 쓰기를 실천하여 고운 마음씨를 기른다.

실천 사항	실천방법		실적	담당자	비고
	목표량	시기			
• 父母님께 便紙쓰기	6회	월1회	5회	학생	편지사본
• 子女에게 答狀 쓰기	6회	월1회	5회	학생	편지사본
• 便紙 관련 家庭 通信文	2회	4·9월	2회	자료개발	통신문
• 先生님께 便紙 쓰기 및 先生님 答狀 쓰기	4회	5·7·9·10	3회	학생 교사	편지원본
• 輪番制 열린 對話 時間 (1日 5名 對話 하기)	개인당 월1회	교사 前後	개인당 5회	담임교사	학급일지 관찰기록
• 教科시간 稱讚 많이 하기	연중	연중	-	교과담임	
• 全體 教師 擔任 役割하기	연중	연중	-	비담임	
• 子女 教育 관련 通信文	6회	월1회	5회	시범주무	통신문
• 學父母 研鑽 時間 運營	2회	4·9월	2회	시범주무	관련기안
• 外部 人士 招請 訓話	2회	5·10월	2회	시범주무	관련기안
• 學父母 1日 教師 運營	2회	5·10월	1회	교무주임	관련기안
• 要善導 學生 指導	2회	5·10월	2회	학생주임	지도일지

<부록: 편지글의 예 학생글, 부모글 각1편>

<부록>

받는 사람 : 전남 장흥군·읍 측내리 탐동 175번지
강 춘 단 (귀하)

어머니께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봄날씨가 찾아오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어머니께 이런 편지를 쓰는 것도 오랜만인것 같
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많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통통 부은 손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을 싸주기 위해 고생하시지만 저는 일요일에도 어머니를 도와주기는
커녕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형과 싸우기만 합니다. 어제 또 제가 숙제를
하다가 형이 저를 놀린다고 해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화가 난다고
불편을 분질러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참으려고 생각했으면 되
었을걸 왜 그걸 참지 못했는지 형하고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막내라서 저를 특별히 귀여워 해주는 것은 저도 좋지만 제가
잘못할 때는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이번시험을 잘 봐
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
아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편지 줄이겠습니다.
어머니의 막내아들 성근이가 1996년 4월19일

받는 사람 : 장흥읍 장흥중학교 3학년 1반 30번
김 승 곤 (앞)

사랑하는 아빠가 보낸다.

우리 승곤이에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서 바퀴를 돌리는 페달을 움직이지 못해 안간힘
을 쓰고 울던 어린애가 벌써 의젓하고 자랑스런 중학교 3학년이 된걸
보면 아빠는 제자리에서 있고 네가 살고 있는 혼자만의 지구가 돌아
나 싶구나.

아빠가 학교에 다닐적엔 걸어서 걸어서 다녔는데 지금 “학교에 다
너오겠습니다.”하고 자전거를 끌고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
면 아빠랑 엄마랑은 무척이나 대견스럽단다.

꼭 공부만 1등 하라는 건 아니다.

학교 우등생이 사회 월등생이 되리라는 법도 없고 오직 열과 성을
다했을 때 최선이라는게 있다. 정직하고 배풀면서 정의적인 생활이 될
때 바로 인생은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께 의논하면서 친구들과 좋은 얘기 나누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반성할 줄 알면 그게 백점인간이 아닐
까 싶다.

이번에 이런일이 있었지. 얼마전 입학식때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교
장선생님께서 손수 꺾어 만든 회초리를 학부모님께 선물한 일이 있었
지. 너무나 온상속에서 과잉 사랑으로 메꾸어 가다보니 상식밖의 이상
형이 되더라는 거야. 서로 “사랑의 매를 들어주소”라고 인사했더니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회초리를 보내달라는 편지와 전화가 끊임없이
오더라는 거야. 즉,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
에 자르는 일 아니겠니?

최선을 다했을때 내일이 열리고 정직한 생활을 해 나갈때 바로서는
사람이 되는거다.

앞으로 학교에서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길 바
란다.

그게 부모님을 위하는 효이고 나가서는 자신을 위하는 일이란다.

이제 의문점이나 고민이 있으면 엄마랑 아빠랑 항상 가까이서 얘기
할 수 있는 대장부가 되길 원한다. 부모님은 무슨일이든 이해하고 있
다는 걸, 그리고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단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96. 4 아빠랑 엄마랑 함께

다. 示範課題(3)의 實踐 計劃

忠·孝 奉仕 日記 쓰기와 集團 修鍊 活動을 통해 協同 奉仕 정신을 기른
다.

실천사항	실천방법		실적	담당자	비고
	목표량	시기			
• 日記 쓰기 實態 調査	1	3월	1	담임	설문지
• 忠·孝 奉仕 日記帳 준비	1	3월	1	담임	일기장
• 忠·孝 奉仕 日記 쓰기 指導	80	주2회	22회	담임	일기장
• 선정된 日記 發表 실시	2회	5·10월	2회	담임	학급일지
• 實績 優秀 學生 表彰	3회	분기말		학생과	수상대장
• 檢證된 내용 綜生簿 기록	1회	학년말	1	교무과	중생부
• 校內 奉仕의 날 운영	30	주1회	22회	환경과	교무·학급일지
• 학생 奉仕活動 추진 계획 수립	1회	3월	1	학생중	계획서
• 奉仕活動 지원자 調査	1회	3월		학생주임	조사철
• 支援 奉仕活動 運營	5회	4~10월		학생주임	계획·실적
• 奉仕活動 결과 反省	5회	4~10월		학생주임	회의록
• 奉仕活動 報告書 提出	5회	4~10월		학생주임	보고서
• 물자 節約 環境 愛護 指導	수시	4~10월		환경과	
- 學用品 아껴쓰기		연중		담임	
- 헌교과서, 교복 물려주기		학년말		학생과	
• 쓰레기 分離 收去	연중	연중		환경과	
<修鍊活動 실시>					
- 野營 活動(2박3일)	1회	5월	2(5·7월)	학생	별도계획
- 模範活動班 表彰	1회	5월		학생	
- 야영 感想文 쓰기	1회	5월	1	학생	
- 우수 感想文 表彰	1회	5월	1	학생	

※ 주제글 쓰기 제목의 예

- 3/26 자기 자신 표현(집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 친구들 중의 나)
- 3/27 통일에 대한 생각 3/29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4/ 2 내가 존경하는 인물
- 4/ 3 10년후의 나 4/19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기 4/20 나의 장래 희망
- 4/24 나의 어머니 5/ 1 보림 축제 5/ 7 부모님·은사님께 편지 쓰기
- 5/31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6/ 7 호국영령 6/21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IV. 그 밖의 실천 사례

다음은 열린 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범학

교 운영과 병행하여 실천한 몇가지 사례이다.

1. 국민의례 중의 “묵념”에 대한 지도

학생들은 운동장이나 강당 혹은 교실의 TV 모니터에 의해 행해지는 각종 의식이나 행사시의 “묵념”시에 무엇을 생각할까? 그 묵념의 바른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한번이라고 지도를 받아 보았을까?

중학생인 우리 학생들은 묵념의豫令인 “호국영령(護國英靈)”이나 “전몰용사(戰歿勇士)”의 의미가 무엇인줄 정확히 알고 있을까?

호국영령 :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훌륭한 사람의 의로운 영혼

전몰용사 :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용감한 병사

학생들은 전쟁의 경험의 없다. 눈앞이나 상사속에 실제로 떠오르는 영령이 없을 때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도록 한다거나, 경건한 마음자세로 나라를 생각하게한다거나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2. ‘육’ 짚지 쓰기

고운말을 쓰도록 지도하나 어떤 말이 고운말인가? 바른말인가? 알고서도 쉽사리 고쳐지지 않은 우리 학생들의 육설 버릇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육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연습장에 지적받은 일시와 육을 한 상대방 학생을 기록하게 하고, ‘그’ 육을 500번 정도 쓰게 한다. 무수하다고 생각되는 ‘그’ 육을 기록하면서 손도 아프게 하고 ‘육’쓰는 일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하여 앞으로는 다시 그 육지거리를 하지 않도록 아니 다시 썼더라도 500번이나 썼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스스로 주의하도록 하는 자세를 기대한다.

3. 하되 원칙에 맞게 하기 실천하기……

무조건 “안된다”하지 말고 “하되, 원칙에 맞게 하도록 한다.”

◎ ‘학교에 등교하면 외출은 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외출한다.”

◎ ‘껌을 씹거나, 군것질은 안된다’가 아니라 → “너의 이를 씹게 한다. 하되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물, 껌질, 캔 등은 반드시 휴지통(쓰레기통)에 바르게 넣어라.”

◎ ‘떠들지 마라, 조용히!’가 아니라 → “옆사람의 학습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말소리를 낮추거나 필담으로 대화하라.”

4. 점심시간 관찰하기

혼분식 검사를 하던 때가 있었다. 어머님들은 자식의 점심만은 정성을 다해 싸주시느라고 흰 쌀밥을 도시락에 담고 윗부분에만 보리를 몇개 뿌려 주던 시절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아닌데도 도시락을 까 먹으려면 도시락을 열어서 뒷부분만 동그랗게 파먹던 추억이 그리 아련하지만은 않다. 지금도 웬만한 가정이면 먹고 사는 것은 대개 해결이 되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식의 점심 도시락만은 정성을 다해 싸주신다. 그럴 것으로 모두가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3학년 어떤 학급의 학부모님의 말씀 “선생님 우리에게 점심 반찬을 맛없는 것으로만 골라서 싸주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점심시간에 도저히 자기 반찬으로 밥을 먹을수가 없대요.”

우리 학교의 점심 시간은 정말 가관이다. 젓가락만 들고서 교실을 유람하는 젓가락 도사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밥위에는 자신의 반찬이 모두 올라가 있다.

도시락을 들고 음악실 앞 벤치로 삼삼오오 몰려가는 학생들 그들에

게 물었다. 왜 교실에서 먹지 않고 “할일이 따로 있니?”, “반찬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은 담임교사가 동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수시로 관찰되어야 한다. 교사가 먼저 식사를 끝내고서 행하기도 하고 시작하기 직전에 한번쯤 둘러봐야 한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에 역행되는 일일까?

동그랗게 모여 자신의 반찬을 모두 내놓고 먹으면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젓가락 예의가 교실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인성 교육의 출발이 아닐까?

VII. 맺는 말

우리 교사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바란다. 재잘재잘 떠들어대고, 교실 마루에서 엉켜서 뒹굴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 등을 싫어한다. 그저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서 무슨 과목이든 자율학습에 열중하고 수업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은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기는 힘들고, 사회 가치관을 거스르는 일탈 행동이나 학교 나름대로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행동은 쉽게 발견된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는 학생, 없어지는 학

용품, 실내화를 신은 채 밖으로 뛰어다니는 학생들, 비오는 날 신발을 신은 채로 2층, 3층까지 올라오는 학생들, 시험을 치르면서 수정액을 (혹은 수정펜을) 책상위에 올려 놓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학생들의 소란함을 그저 시끄러움으로만 느끼거나 세상을 학생들 같은 눈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교사들의 생활 태도에는 차가운 그 무엇이 있다. 그들은 우리 교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이 가지런히 정돈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들은 또 우리 어른들이 무시하려고 애써 온 정서와 본능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작은 기적들을 못보고 지나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

인성 지도는 전체 교사의 몫(무관심→유의미적 관찰)

열린 학습이 현 시점에서 우리 교육의 최후의 대안이라고 한다. 완전학습·탐구학습이 그랬듯이 열린 교육도 우리 교육계에 잠시 스

쳐지나가는 것으로 보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다. 어느새 우리 교사들 사이에는 무관심이 열린교육이 그렇듯 인성교육이 이제서야 필요하고 지금에서야 등장한 것은 아니다. 우리 중의 많은 교사들이 몸소 실천해 오고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전이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교사는 많은데 참스승은 드물다. 학생은 많아도 제자는 적다는 말이 점점 더 실감을 더해주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현안인 인성지도 또한 담당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교사·여교사, 담임·비담임을 구분할 수 없다.

눈 앞에 전개되는 학생들의 모든 행동은 전체 교사에 의해 유의미하게 관찰되고 그것은 그냥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가벼운 대화(응그래!, 잘하고 있니!,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등)나 혹은 지적하여 행동을 수정해(인사도 않고 그냥 지나가냐!, 너 머리가 너무 긴 것 같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혹은 자신있게 걸어라!) 주거나 해야 한다. 교사의 위치는 항상 학생의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現實의 人性 教育 方案의 考察



鄭 鎔 澈

(麗水高等學校長)

I. 序言

일찍이 실버만(Silberman, Charles.E.)은 '教室의 危機'라는 著書에서 人間 教育이라는 觀點에서 오늘날의 學校 教育을 '學校는 秩序, 統制, 強制, 抑壓, 不信으로 가득차 있다'고 辛辣하게 批判하였다. 이러한 學校 教育에 대한 비판은 우리의 教育에 있어서도 例外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教育은 入試 教育이라는 韓國的 病弊까지 더해져서 그 深刻성이 더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反人倫的인 犯罪 行爲와 非道德的인 社會의 行態에 대하여 教育만이 責任질 일은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教育이 책임져야 한다는 主張에 異議를 提起하기는 어렵

다.

지금까지의 우리 教育은 이러한 病弊속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課題에의 全面的인 挑戰이나 對應을 피하기보다는, 도리어 學校가 率先해서 學歷 于先 社會에 副應키 위한 입시나 受驗 中心 教育에 偏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탈피치 못해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의 調和로운 成長 發達을 위해서는 發達 段階에 따른 適切한 人性 指導가 必須的이며, 이러한 人性 教育의 必要性이 學校 存立 根據임은 너무나 自明한 事實이다.

따라서 學校 教育에 있어서 人性 教育은 當面한 課題이나 현재 一般系 人文高等學校에서는 別途의 시간을 確保하여 학생의 全人的 發達

에 필요한 特別 活動이나 학생들 스스로의 參與를 誘導하는 教育 활동을 全面的으로 展開하기는 사실상 여러 事情으로 不可能에 가깝다.

學校가 갖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할 때 現實的인 人性 教育 指導 方案은 현 學校 教育체제의 大幅的 變化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學校 教育活動 중에서 全人 教育에 필요한 教育내용을 精選하여 可能的 方法을 통하여 效率的으로 指導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人性 教育에 있어서 考慮點

一線 人文高等學校에서 效果的으로 人性 教育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를 우선 考慮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나치게 一般 教科의 人性 教育을 強調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이다. 入試 爲主 教育에 대한 現實的 要求가 크게 줄기 전에는 一般 教科 教育의 틀을 새롭게 構成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현 體制 속에서 지나치게 一般 教科의 人性 教育을 強調하는 것은 오히려 人性 教育의 形式化를 초래하여 實質的인 人性 教育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一般 教科의 支援 限界를 認定하고 教育의 有機的 關係가 維持될 수 있는 最小限의 努力

이라도 投與되도록 誘導하는 것이 形式的인 人性 教育을 豫防하는 合理的 方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特別 活動의 活性化 또는 內實化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現在 學校에서 人性 教育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主要 要因이 教科 教育 이외의 教育 課程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教科 教育에 置重하다보니 相對的으로 다른 분야는 不實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學校 現場에서 特別 活動 등의 教育 課程을 正常的으로 內實있게 運營할 수 있는 方案을 模索한다면 人性 教育이 脆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自發的 參與가 誘導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教師나 學校의 一方的 指導는 또 하나의 注入式 教育을 늘리고 학생 負擔만 키우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특히 高等學校에서는 發達 段階上 學生들의 自主性이 충분히 發揮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학생들의 參與를 誘導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意思 收斂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定期的으로 학생들의 意見과 實態를 調査하는 方法을 具案 實行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學父母 教育을 考慮해야 한다는 점이다. 現實的으로 학교에

서 學父母 總會와 같은 大規模의 학부모 모임을 試圖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의 教育 方針이나 方案이 學父母들에게 認知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協助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찾아보아야 한다.

다섯째, 人性 教育을 위한 一貫된 方針속에서 科別, 教科別, 學年別 등의 活動이 人性 教育을 위한 有機的 關係가 維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學生課의 學生 指導가 體罰 爲主로 이루어지면서 倫理課에서 人性 教育을 위한 行事가 企劃되고 있거나 學級 成績을 올리기 위한 抑壓的 指導가 一般化되고 있는 實情에서 心性 啓發 프로그램을 實施한다면 學生들의 價値觀만 더 混亂스럽게 될 뿐이며 教師들의 人性 教育에 대한 잘못된 認識만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Ⅲ. 本校 人性 教育 實施 內容

本校에서는 現 學校 體制의 큰 틀을 維持하면서 可能的 變化와 改善을 통하여 學校 實情에 알맞는 人性 教育과 學生들의 自發的 參與와 體驗을 誘導하는 方案을 模索하여 96학년도 一年間 示範學校를 運營하였다.

實行 課題는 1) 特別 活動의 內實化를 통한 自發的 體驗 機會의

擴大, 2) 人性 教育 프로그램의 適用을 통한 自己 表現 活動 體驗 機會 擴大, 3) 人性 教育 支援 環境 造成을 통한 教育 效果의 極大化로 定하였다.

對象은 여러 事情上 3학년을 제외한 2개 학년으로 하였다. 또한 特別 活動도 多數의 學生들이 참여할 수 있는 領域들로 제한하였다. 이것은 一時에 학교 全般의 教育 活動을 改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 중인 內容속에도 일정 部分 人性 教育의 側面이 內包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紙面 關係上 示範 運營의 內容 중 몇가지만을 簡略히 紹介하기로 한다.

가. 實態 分析

먼저 學校 實情에 알맞는 人性 教育의 과제를 選定하기 위하여 學生, 學父母, 教師들을 대상으로 自體 製作한 設問紙를 통하여 實態를 調查한 結果 본교의 人性 教育실시 狀況에 대한 反應은 學生, 學父母, 教師 모두가 매우 否定的이었다. 學生들 중 90% 정도가 학교에서 人性 教育이 제대로 實施되지 않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教師와 學父母의 否定的 反應도 60%가 넘었다.

人性 教育의 活性化를 위해 學校에서 推進해야 할 것들로는 特別

活動과 學生 自治 活動의 活性化 및 人性 教育關聯 프로그램의 開發을 들었다. 또한 入試에 妨害가 된다고 할지라도 人性 教育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學生들이 50%를 넘었으며 학부모들도 40%에 가까운 數가 같은 反應을 보였다.

學生들의 人性에 대한 肯否定度를 調查한 結果 본교의 學生들의 人性에 대한 信賴는 모두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父母들은 50% 以上이 子女의 人性을 信賴하고 있었으며 教師들이 제일 낮았다.

나. 實行 內容

1. 學級 活動

가) 自律的 任員 選出

임원 選出 全過程을 擔任 教師의 指導下에 學生 스스로 管理하도록 하였다. 選舉 管理를 學級 選舉管理委員會 構成과 學級 選舉 管理 規定을 學級別로 學生들 스스로 定하도록 하여 自律 管理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學校 全體規定은 民主的 選舉 原則, 選舉 對象 任員과 名數, 選出 期間, 選舉 運動의 制限事項 등 학교 전체의 圓滑한 進行을 위한 몇가지 事項만을 規定하였다.

任員 選出의 時期는 學生들 間의 人間 關係가 어느 정도 形成될 수 있는 3월 18일부터 3월23일까지 1

주일간으로 하였으며 任員 選出 전까지는 1일 室長制를 실시하였다.

任員 被選 資格 制限은 學校 規定에는 두지 않되 學級別로 自律的으로 協議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나) 學級會 部署 組織

設置를 희망하는 部署를 學生들로부터 申請을 받았으며, 學級 會議을 열어 설치 部署를 조정되 학급 定員을 勘案하여 部署가 8개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部署別로 部署員 수가 지나치게 均衡이 맞지 않을 경우 可及的 擔任 教師의 干涉을 排除하고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부서 활동은 學級 運營에 필요한 不可避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부서별 계획서는 교실에 게시하여 學生들이 關心을 갖고 推進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1회씩 定期的으로 학급 임원들이 모여 前月 活動 內容을 평가하고 計劃을 檢討하도록 하였다.

다) 學級會 運營

校內 年間 運營 計劃을 세워 제공되 이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學級 年間 運營 計劃은 각부서 계획을 參考하여 각 부서장과 학급 임원들이 모여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전체 學級會議에서 修正 補完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정기적으로 主題 討論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결정 사항
履行 與否에 대한 反省과 評價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라) 學級 內規 規定 運營

學生 自律의 學級 運營은 자칫
無秩序와 傍觀으로 이어질 수 있어
學級內規를 制定하여 運用하도록
하였는데 규칙의 制定과 遵守에 앞
서 學生들의 自發的 參與와 이에
따른 討議의 活性化에 觀點을 두고
運營하도록 하였다.

2. 클럽 活動

가) 클럽 活動 部署 組織

클럽 活動의 領域을 體育活動,
學藝活動, 趣味活動, 常設클럽 活動
등 4개 活動 領域으로 나누어 실
시하였으며 클럽의 組織은 설치 希
望 클럽 調查<교사, 學生>, 클럽
의 선정 및 指導教師 組織, 入部
案內 및 希望書 提出의 段階를 거
쳐 組織하였다. 그 결과 學藝活動
21개, 體育活動 7개, 趣味活動 5개,
常設클럽 活動 5개의 부서가 조직
되었다. 時間 運營은 원활한 活動
이 이루어지도록 隔週로 2시간 單
位로 운영하였다.

활동 主題 選定도 學生들과 교사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
는데 <교사의 부별 活動 안내-부
원의 주제제시-토론-교사와의 대
화-주제선정>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클럽 活動 過程은 準備, 計劃 協

議, 實踐 活動, 整理 및 評價, 次時
協議順의 과정을 一般的인 活動 방
식으로 하였다.

3. 奉仕 活動

奉仕活動의 目標을 人性 啓發,
社會性 涵養, 共同體 意識 涵養으
로 설정하였다. 봉사 活動은 학교
의 計劃에 따라 實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교 계획과 無關한 別途
의 個人的 奉仕 活動을 인정하였으
며 이 경우 事前에 학교의 承認을
받도록 하여 봉사를 하지 않고 개
인적으로 確認書만 제출하는 거짓
봉사를 豫防하였다. 또한 具體的인
활동 계획은 學生들 스스로 樹立하
여 役割을 分擔 자율적으로 실천하
고 事後 反省과 評價(보고서 작성
발표 등)를 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미리 봉사 活動 需要
調查를 위해 봉사 活動 對象 機關
및 被奉仕者를 파악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봉사 活動 領域과 內
容을 학우돕기, 깨끗한 학교 만들
기 등 32개 영역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狀況의 變動을 예상하여 每月
初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수요
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활동 반별로 봉사 活動을 실시하였
다.

봉사 活動의 經驗이 不足한 學生
들의 未熟함을 덜어주고 被奉仕者
에 대한 無禮한 行위가 突出되지
않도록 철저한 事前 教育을 실시하

였으며 學生 전체의 奉仕 活動 實
績 累積 累價 記錄簿를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4. 瞑想의 時間 運營

運營이 形式化 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學生들의 發達 段階를 고
려하여 興味를 가질 수 있는 주제
를 月別 特性과 時事性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아침 自律學習 시작
전 5분 이내로 放送을 하였으며
실시 횟수는 新鮮함을 잃지 않도록
주2회로 하였다. 既存의 테이프 방
송과 함께 필요한 경우 學生과 교
사들이 직접 肉聲으로 방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學生의 反應과 意見
을 調查하여 반영하였으며 秩序 維
持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學生들을
통제하여 拒否 反應이 나타나는 일
이 없도록 留意하였다.

5. 便紙쓰기 프로그램 運營

學生들에게 자기 省察과 자신의
생각을 率直하게 表現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成熟한 人間 關係
를 조성하기 위하여 월1회 이상의
편지 쓰기를 勸獎하였다.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強壓的인 雰
圍氣로 쓰기를 강요하기 보다 적절
한 動機를 부여하였다.

6. 5분 이야기하기 프로그램 운 영

學生들이 自身の 생각을 正確히
표현하고 능동성을 기르며 자신의
言行에 대하여 責任感을 갖도록 하

기 위하여 學급별로 一定 時間을
이용하여 이야기하기를 실시하였
다. 3월에는 자신의 소개를 중심으
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나 그
후에는 主題나 形式 등에있어서 自
由로운 發表가 이루어지도록 유의
하였으며 발표 후 일정한 樣式으로
발표 內容을 整理 提出토록 하여
학기 말에 學級 文集 제작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7. 심성개발프로그램과 가치명료 화프로그램의 실시

교양 선택 과목인 教育學 時間을
통하여 심성 개발 프로그램과 價値
明瞭化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學生
들의 心性을 啓發하고 合理的 價値
觀을 갖도록 지도하였다.

8. 가정 통신문<장대통신> 보 내기

人性 教育을 家庭과 連繫하여 지
도하기 위하여 월1회 학부모들에
게 通信文 보내기를 실시하였다.
통신문의 내용은 학교장 人事, 학
교 월중 行事 紹介, 人性 關聯 사
항, 傳統 禮節 紹介, 기타 사항, 學
父母 意見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란을 添附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學父母의 建議事項이나 意見은
반드시 그 결과를 回信하였으며 用
紙의 크기는 A4용지 2-4쪽으로
하였다.

다. 成果 分析

放置되다시피 하던 학급 활동이 活性化 되었으며 학생들오 積極的으로 학급 활동에 參與하고 있어 人性 教育에 큰 成果를 거두고 있다.

클럽 활동이나 奉仕 活動 등은 變化가 進行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아직 큰 成果가 擧揚되지 않고 있다. 특히 奉仕 活動이 時間 不足으로 인하여 校內 活動 爲主로 운영되고 있어 是正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클럽활동은 교사들의 自己 研修에 의한 專門的인 能力의 伸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瞑想의 時間은 프로그램 자체가 日常化 되어 더 이상 학생들의 興味를 끌고 있지 못하다. 瞑想의 時間은 心性 啓發 프로그램이나 野營 修練 등의 特別한 프로그램이나 行事와 함께 一回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좀 더 效果가 있을 것이다.

5분 이야기하기는 학생들이 積極적으로 參與하였으며, 표현력과 사물에 대한 觀察力, 合理的 價値 判斷力의 培養에 도움이 되고 있다. 素材와 方法의 多樣化를 위한 지도 방안이 모색되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편지쓰기는 실제로 큰 效果가 없는 것 같다. 편지를 쓰는 등의 情緒가 움직여야 하는 활동은 契機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一定한 틀 속에

서 활동을 強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심성 계발 프로그램의 시행은 즉시 效果가 發生하는 것은 아니나 학생들의 參與度나 進行 過程 등을 살펴보면 대단한 教育的 效果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활동 時間과 空間의 制約을 解決할 필요가 있다.

家庭 通信은 학부모에게 學校 事情을 이해 시키고, 좀 더 나은 자녀와의 關係를 定立하는 契機가 되었다는 반응이 있었다.

IV. 結言

人性 教育에 特別한 方案이 있을 수는 없다. 教育이라는 말 자체가 人性 教育을 도외시하고는 成立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教育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모든 것이 人性 教育 그 自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教育이 注入式으로 入試 指導에만 置重해 왔던 그간의 事情을 감안한다면 조금은 人性 教育을 위한 效果的 方案을 模索할 필요가 있다. 學校級別로 사정에 따라 그 방안은 다르겠으나 무엇보다 重要的 것은 學校長의 關心과 推進力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推進力이 교사들의 의사를 受容할 수 있는 民主性과 包容性을 發揮할 때 더욱 強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自明한 사실이다. 人性 教育에 대한 學校長의 一貫된 經營 方針과 教師들의 一致된 努力이 合致되었을 때 人性 教育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學校長의 確固한 教育觀과 함께 필요한 것은 전교사들의 학교 教育의 于先 順位에 대한 認識의 轉換이며 이를 위한 特別 活動 指導力 培養 등 교사의 專門性을 높일 수 있는 道教育廳 차원의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一線 學校

에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人性 教育프로그램의 開發과 普及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의 人性을 測定할 수 있는 正確한 道具 開發도 人性 教育의 當面課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本稿에서 提示한 여러 예들은 人性 教育의 正道라기 보다는 現 狀況속에서 學校가 갖는 限界를 認定하면서 가능한 人性 教育의 方案을 模索한 結果임을 밝힌다.

*
*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으
* 리라.
*
*
*
*
*
*
*
*
*

<스피노자>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全羅南道教育研究院 教育情報網(CNEI)



金 容 柱

(강진 작천중학교장)

1. 서론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의 모습은 지난 5.31 교육 개혁 방안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이다.

정부는 “근대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민간 부분의 정보화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국을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엮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부분의 정보화는 80년 후반부터 시작하여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의

일부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학교 컴퓨터 보급, 교육 전산망 구축 등 교육 정보화의 최소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 센터와 학술 정보 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등 교육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남교육정보망 개통도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의 단계별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본도의 지역 특성상 도서 및 농촌벽지가 많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일선 교사와 학생, 그리고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신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데 그 뜻이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현재까지의 교육에서 중시되었던 것이 점점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전혀 중시하지 않았던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등, 앞으로의 학교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따라서 인쇄 위주의 교육 매체인 칠판과 분필에 의존하는 강의에서 벗어나 21세기 정보사회에 걸맞는 학교 교육의 정보화가 요청된다. 학교 교육 정보화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정보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학교 교육 정보화의 범위를 교사가 수행하는 교수 학습 활동에 국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정보의 특성과 PC통신

우리 일상 생활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정보란 무엇이며 자료란 무엇인가? 흔히 정보(information)는 “사용자에게 불확실성을 줄이며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가공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data)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관찰하거나 측정된 실제 값을 말한다.

자료를 적당히 가공하면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되며, 이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속성으로 모든 정보는 적절한 시기에 유용한 정보이어야 한다.

둘째, 시한성이다. 정보는 시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이용되는 데에 더욱 중요하다.

셋째, 한정성이다.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무한한 가치성과 특정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가치 변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독점성이다.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 더 이상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된 정보와 비공개된 정보를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경쟁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는 누적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저장한 데이터 베이스는 많은 정보가 생성 축적되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정보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정보끼리 결

합되고 가공되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내는 결합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망을 관리하고 정보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중시 여겨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는 유익한 정보(학술, 무역, 농업, 금융, 군사, 기상)일 수도 있고 무익한 정보(음란 영상물, 바이러스, 불건전한 컴퓨터 게임)일 수도 있다. 이는 곧 일선 교사가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몫이기도 하다.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통신이라고 하며 인간은 예로부터 통신 수단으로 봉화나 파발, 우편, 전신, 전화 등을 이용하였다.

통신은 직접 만나서 정보 교환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 궁극적 목표로서 현재 음성을 통한 통신은 발달하였으나 정보 제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

PC통신은 근거리 혹은 원거리에 있는 다른 컴퓨터와 디지털(계수형) 방식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 받는 것을 의미한다. TV나 라디오는 정보의 흐름이 일방적인데 반해 PC통신은 정보의 전달이 쌍방향간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함에 따라 더욱 직접 만남에 가까운 통신 수단으로 되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통신을

계기로 많은 부분의 통신이 컴퓨터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컴퓨터 통신을 위해서는 컴퓨터들간에 연결된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해야 한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첫번째 목적은 인간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있고, 두번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특히 초고속 통신 기반에서 멀티미디어 통신이 제공되면 부가가치 통신, 케이블 TV, 주문형 비디오, 화상 회의,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전자 신문, 전자 도서관 등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일선 교사들은 이상과 같은 정보의 흐름과 PC통신의 급격한 발달을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통신에 눈을 돌려야 한다. 교사 자신이 전공 교과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향후 재택근무 준비를 위해서도 통신 이용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학교 교육의 정보화와 컴퓨터

종전에는 모든 정보의 처리는 사람이 문자 인쇄 매체 및 기억력에 의존하여 자료를 분석 처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정보가 폭

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많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 분류, 저장,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기기가 컴퓨터이다. 컴퓨터는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기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컴퓨터이며 정보화란 어떻게 컴퓨터를 잘 활용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어서 우리의 의사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보화를 이루기 위한 컴퓨터의 발달로 요즘에는 문자 정보, 음성 정보, 영상 정보 등이 동시에 한 시스템에서 처리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층 더 나아가 통신 기술과의 결합으로 근거리 통신망(LAN), 부가가치 통신망(VAN), 원거리 통신망(WAN),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통신들을 수행하는 PC통신 기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변화하고 있는 컴퓨터의 역할에 따라 이에 알맞는 정보화의 발전과 이를 위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급속한 하드웨어의 발달과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모든 사회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교사들은 그에 대응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보화를 위하여 중요한 사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정보 처리의 주체는 사람이며 컴퓨터는 보조적인 기기라는 것이다. 과거에 비하여 정보의 양이 많아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컴퓨터라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며 컴퓨터에서 모든 정보를 전적으로 처리하여 우리 의사 결정까지 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학교 교육 정보화는 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직접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하여야 하며 학교 운영에 관련된 상당 부분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한 바와 같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주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 부분을 중심으로 한 교사의 역할로 그 범위를 국한하여 교사가 어떻게 컴퓨터를 잘 활용하여 정보화를 이루는 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겠다.

4. 컴퓨터에 관한 교육의 정보화

학교 교육 정보화에서 교수-학습 부분에 대한 정보화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교수-학습 활동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교육 현장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부분에 걸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교육 현장의 교수-학습 부분에서의 컴퓨터 교육은

① 컴퓨터에 관한 교육, 즉 컴퓨터 리터러시 습득을 위한 컴퓨터의 활용과 ② CAI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컴퓨터에 관한 교육 내용의 요목으로는 학교급간별로 조급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자판 익히기 교육

컴퓨터 하드웨어의 운용 기술은 비교적 단순하다.

주로 조작내용으로는 ON/OFF, 디스켓 넣기/빼기, 화면 조정 등이다.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판 익히기를 하여야 한다. 자판 익히기는 매우 중요한 컴퓨터 활용의 기초 훈련이므로 학교 교육에서 그 중요성

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자판 익히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으나 교사의 수업 기술적인 면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2) 시스템 프로그램 (DOS, WINDOWS)교육

지금까지 시스템 프로그램으로는 DOS 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WINDOWS의 등장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나 시스템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본다.

시스템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① 명령어 입력형식(DOS) ② 메뉴 선택 방식(DOS-Shell, Utility Program) ③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Windows, OS/2)형태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화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어차피 초보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은 직접적인 명령어 교육이나 사용 방식에 관한 교육의 부담은 과감히 줄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내용 주제를 선

정하여 그때 그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본 요목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때에 반드시 교사는 사전에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단계별 요목별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응용 패키지(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 DBMS)교육

성능 좋은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공급됨에 따라 컴퓨터 이용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며, 컴퓨터에 관한 교육도 크게 패키지 교육으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로는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 DBMS, 통신용 프로그램과 같은 기본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그래픽 프로그램, CAD/CAM, 통계처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전문가 시스템, 가상 현실, 신경망 패키지)등 전문 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구분할 수 있다.

(4) 프로그래밍(BASIC, C)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의 교육으로 60년대에는 FORTRAN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에서 시작하여 70년대의 COBOL언어를 거쳐 80년대 초기에는 BASIC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다가 최근에는 C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이 초창기에는 기기에 대한 호기심과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코스로 여겨져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워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드웨어와 새로운 제품의 출현-멀티미디어 PC, TV와 결합한 PC, 오디오 기기와 결합한 PC-과 Windows 95의 등장으로 과거의 교육의 주류를 이루었던 DOS는 더 이상 그 교육의 의미를 상실하고, 새로운 기능의 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지속적인 출현,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사용, 컴퓨터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에 관한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교육 내용이 더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든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진 이유는 첫째, 컴퓨터 기기 역할의 확대로 과거의 수치 계산용에서 시작하여 문자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다가 요즘에는 멀티미디어 및 통신 처리 기기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가전 제품을 통합하여 가상 현실을 경험할 수 있고 정보 통신을 통합한 기기로서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의 변화로 국가에서 특별히 정한 표준을 제외하고서는 일반 회사에서 제작한 소프트

웨어는 항상 과거에 주로 사용한 기능을 좀 더 편한 사용 방식으로 바꾸어 주고 있으며, 컴퓨터 역할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항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러한 제품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컴퓨터는 매우 상업주의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의 생리에 따라 새로운 여론 형성과 무차별적인 지원 공세가 그 기본 생존 전략인 것이다.

컴퓨터에 관한 교육의 방식은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며 앞으로는 모든 노력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으로 그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겠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컴퓨터의 능력은 보다 원론적인 이론의 접근이 요구되며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중심으로 실시하여 컴퓨터에 관한 교육 내용은 교사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수-학습 형태의 모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컴퓨터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에 의한 교육 형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교사의 편견주의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

가 예상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바람직한 컴퓨터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자체만을 가지고 실시하는 바람직한 컴퓨터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자체만을 가지고 실시하는 교육은 가능한 시간을 줄이고 응용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에 교사는 미리 컴퓨터에 관한 교육 내용의 요목을 추출하여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그 원리를 걸어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습득토록 하여야 한다.

5.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의 정보화

학교 교육 현장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를 수업의 도구로 이용하여 여러 교과들의 학습이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요즈음에는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을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프로그램과 이를 학습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즉 학습 환경의 마련이 가장 중요하며 학습 내용이 담긴 교육용 프로그램-CAI 프로그램-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을 위한

수업 체제 구축을 위하여 고려할 몇가지 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 교사의 수업 개선의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교육 공급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평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경쟁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수업 방식의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의 기본적인 CAI 프로그램의 운용 능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CAI 프로그램의 운용 방식은 매우 간단하여 주로 방향키와 엔터키로 조작성이 가능하므로 컴퓨터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셋째,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별도의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 개의 좋은 프로그램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학교 단위에서 표준화하여 선정된 단계별 프로그램 그룹의 운용은 교육 내용의 체계적 지도뿐만 아니라 컴퓨터 운용 기술의 단계적 습득에서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CAI 수업을 위한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는 컴퓨터 실습실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CAI 수업을 위한 바람직한 장소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

한 하드웨어의 규격 등의 환경에 관한 정보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CAI 프로그램 수업을 위한 수업안에 대한 연구 결과의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업 지도안은 교사가 수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지침서로서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과정을 기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CAI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 주도형으로 할지, 교사 주도형으로 할지, 도입/전개/정리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지, 아동의 자리 배치와 학습 활동을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적용 연구를 실시하여 수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컴퓨터 관리 요원의 부재와 정보의 부족이다. 관리 요원의 부재는 단위 학교별로 전산 주임의 신설과 컴퓨터 교육 전담 교사의 적극적 육성으로 앞으로 점차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정보의 부족은 컴퓨터에 관심있는 교사와 교과 교육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교사들의 모임에서 많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의 방식에서 요즈음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 방식과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방식에 대한 논의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멀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PC의 공급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지만, 인터넷은 통신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은 아직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터넷의 무한한 영향력은 반드시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형태를 미래의 교육 형태로 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교육 체제와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정보화의 방안 마련에 모두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 즉 문자, 음성, 영상(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사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을 교육에 활용하면 지금까지 사용되는 교육 내용(교과서 위주)과 교수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의 특징으로는 ①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의 상호 작용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② 수업의 체계화 및 교육의 편의성과 시간 절약, 비용 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멀티미디어 수업 체제 구축을 위해 이미 정부에서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6년에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 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멀티미디어 시스템 교육의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에 있다고 하겠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기반 조성(infrastructure) 단계와 이의 활용 단계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수업 체제의 기반 조성은 하드웨어와 통신망의 마련,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베이스의 마련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수업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정보망의 구비가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컴퓨터 실에 신기종의 보급 확대와 통신 전용 장비 확충, 교육 정보 관리 시스템(W/S) 보급, 교내 전산망(LAN)구축, 교사 연구용 PC(1인 1대)공급 등에 관하여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 PC를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S/W 및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으로는 멀티미디어용 S/W가 현재 국내외적으로 CD-ROM 형태로 매우 많은 학습 자료가 공급되고 있으며,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는 1996년 1월말까지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DB의 시범 사업을 완료하여 초등학교 자연과에 대한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범 운영을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통신에서도 공공 데이터 베이스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주로 교육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베이스는 향후 국가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설립 이후 많은 양의 데이터 베이스의 제작 및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교과서는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로 상당 부분이 대체가 가능하고, 학교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모호해지는 가상 학교(Cyber School)의 형태가 존재하며,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정보의 구성자와 정보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교수 학습 부분에서 정보화는 어떻게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앞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업의 내용 면에서는 보다 학습 주체에 접근한 각종 자료의 제시가 요구되며 수업의 방법 면에 관해서는 학생의

활동을 높인 능동적인 수업 형태를 필요로 하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6. 전남교육정보망의 특징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교무실에 교육 전산망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교육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진학, 취업 등 진로지도와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인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정보 통신사용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도래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자 교육 정보 자료실을 개설하여 '96년도 4월부터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교무실에 모델을 장착한 586이상의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도교육청에 마련된 주전산기에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저장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본 교육 정보 자료실에서 구축할 데이터 베이스와 기타 전자 게시판에서 제공할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학 진학 정보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선발 방식 → 대학 교육 협의회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 대입 전형 자료 : 종합생활기록부 작성방법,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안내, 논술 시험 안내, 면접·구두시험 안내 등을 교육부 발표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 대학 정보 : 지역별 대학 현황,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안내, 수능 가중치 적용 대학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대학 입시 소식 : 연중 제공되는 대학 입시 소식 및 대학가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② 취업/자격증

• 취업 준비 안내 : 면접 시험 요령,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논문·작문 작성법, 적성·인성 검사 요령 등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업체 정보 : 업체소개, 업체별 채용 정보, 유망 직종 등을 안내하여 취업시 참고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 국가 기술 자격 정보 : 국가 기술 자격증의 계열별 시험 일정 및 시험 과목, 검정 안내, 등록 및 보수 교육, 직업훈련생 모집 안내, 관계 법령/출제 기준 변경 사항 등을

한국 산업 인력 관리 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도내 실업계 고교별 정보 : 도내 실업계 고교별 전년도 취업 현황 및 취업 업체 등을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파악하여 정리 제공하고 있다.

• 기출제 문제 은행 : 각 기업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공개 채용할 때 출제한 문제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각종 시험 정보 : 공무원, 공사, 기업체 등 각종 공개 채용 시험 정보를 총무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③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문제 은행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력 향상 자료로 활용할 각종 시험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역별, 과목별, 평가요소별, 난이도별로 검색하여 출력한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전 교사를 상대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여 본실로 송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논술 방이 개설되어 논술 문제와 해설이 제공되고 있다.

④ 고등학교 정보 : 도내 고등학교를 계열별로 분류하여 각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및 졸업후 전망을 소개, 중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고입 전형시 필요한 각종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국민학교 문제은행 : 본원 조사연구부에서 작성한 출제 문제를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⑥ CAI 및 CMI 프로그램 보급 : 본원에서 수집된 각종 CAI 및 CMI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⑦ 동호회 : 상호 관심 있는 분야별(전문/학술 분야, 친목/생활 분야, 학교급별)로 동호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⑧ 편지쓰기/읽기 : 학교간 또는 본센터와 학교간에 연락할 사항들을 파일 또는 직접 문자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편지쓰기, 편지받기, 보낸편지 확인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⑨ 대화실 : 컴퓨터 앞에서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여 회원들끼리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이다.

⑩ 게시판 : 학교의 이용자들 간, 또는 운영자와 사용자들 간에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의견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⑪ 공개자료실 : 이용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직접 제작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싶을 때

또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받고 싶을 때 이용하는 곳으로 학사 자료, 컴퓨터 관련 자료, 일반 자료, 인터넷자료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⑫ 이용 안내 : 교육 정보 운영에 필요한 공지사항, 문의처, 접속번호/유의사항, 명령어 안내 등의 서비스 안내와 비밀번호 변경, 자기정보 관리, 이용자 검색, 접속 통계 등의 회원 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리하는 방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체제는 기존의 PC통신의 방식을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도내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실에서 제공할 자료 중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대학 진학 자료, 취업/자격증,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은행 자료 그리고 대입 논술 모의고사 자료로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다른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된 선행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도내 교사들의 요구 자료를 설문문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선행 자료와 사용자 요구 자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대학 진학 자료는 진학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의 잡지를 참고로 하여 재편집하여 구성하였으며, 취업 자료는 취업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 및 광주지방노동청과 노동부중앙고용정

보관리스 직무분석과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편성되었으며, 자격증에 관한 정보는 한국 산업 인력 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격 정보를 참고로 하였다.

넷째, 기타 다른 정보는 중등 장학과, 과학 기술과, 중등 교직과 등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외에도 본 원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송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으며 도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자료 수집 및 자료 개발 분과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를 정보로 가공하여 입력하기 위해서 수집된 원시 자료를 선행 조사를 중심으로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재편성하여 입력 수정한 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교육청 전산실에 마련된 주전산기에 저장하여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자료의 입력은 각종 정보는 문자 형태로 입력하였으며,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문제 은행 자료는 한글 3.0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정보는 본실에서 개발하여 보급된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신을 통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운영 프로그램은 통신 에뮬레이터의 사용 방법, 문제의 검색 방법, 한글 3.0을 이용하여 문제를 출력하는 방법 등이 제공되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용자라 할지라도 활용상의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예상된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모뎀이 장착된 개인용 컴퓨터에서 전용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공중망(Hinet-P)으로 접속한 후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교육정보자료실의 운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으로 진학, 취업 등 진로지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둘째, 초등학교 문제은행 및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문제 은행 자료의 제공은 능력별 개별 학습이 가능해져 학력 향상 자료로서 이용되리라 생각된다.

셋째,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통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역할은 매우 지대하리라 예상되므로 본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교사들의 통신 이용법의 숙달은 컴퓨터 통신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5.31 교육 개혁 조치로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평가원에 개설

되는 진학 상담실 및 멀티미디어 지원센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초고속 정보 통신망 시대에 대비하는 원격 수업의 기반 구축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7. 결론

교육부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교육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96년 3월부터 초중등 학교에 인터넷 보급 운동이 언론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 정보화를 위해서는 교사들 스스로 정보의 가치와 특성,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보 통신과 멀티미디어라고 불리는 현대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하여서도 학교 교육의 정보화를 위해서도 교사는 먼저 인식하여 이의 교육적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컴퓨터에 관한 교육의 방식은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며 앞으로는 모든 학습의 컴퓨터를 이용

한 교육으로 그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는 컴퓨터에 대한 더욱 원론적인 이론의 탐색이 요구되며 컴퓨터에 관한 교육 내용은 교사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수·학습 형태의 모형이라고 생각한다.

컴퓨터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을 할 때에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운영 방식을 실제로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운영 지침서(매뉴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교수 학습 정보화를 위해서 교사에게는 지금보다는 더욱 다양하고 강화된 교사 스스로의 연구가 요망되며 학생에게는 흥미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 보따리 또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에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 현장에서 얻어진 정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수업 체제에 대한 교사의 연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활용과 정보 통신 활용은 미래의 우리 나라의 다양한 교육 형태와 교육 방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활동에 일선 교사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미래 교육은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량의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우리 교사들은 불철주야 정보화 교육에 힘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본다.

 *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들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항상 *
 * 우리들이다. *
 * *
 * <웃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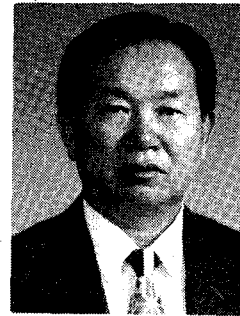
◆ 論 壇 ◆

열린 學習 方式 土着化의

問題點과 그 代案

朴 鍾 隸

(全南道教育廳 獎學士)



1. 열면서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열린 교육방식을 연구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지도 어언 11년째가 되었다. 그동안 서울의 두 사립초등학교인 운현, 영훈에서는 보다 현장감 있는 열린교육방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해외 파견하거나 참여 관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특히 영국, 미국, 일본의 열린교육 모델을 모방하거나 우리의 풍토에 맞도록 재창조하는 관심과 열정을 모아왔다.

이러한 열풍은 공립초등학교에까지 파급되어 과밀학급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지금까지의 고질적이고 닫혀진 교실 교육의 높은

담을 허물고 타성에 익숙해진 관행의 틀을 새롭게 바꾸기 위하여 늦게나마 과감한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 후 열린교육에 대한 애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한국 열린교육연구회(지금은 사단법인체인 한국열린교육협의회)와 전국 열린교실연구응용학회의 두 연구 단체가 탄생하여 각종 세미나, 워크샵을 여러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이에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는 교원 가족이 배가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맞추어 5.31, 2.9 교육개혁은 교육의 본질과 궤도를 이탈한 우리 나라의 비정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바꾸고 제 모습을 찾기 위해 열린교육을 더욱 클로즈업 시켰

다.

이는 개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려는 학습자 주도의 교육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새교육 틀을 짜는데 총력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어쩌면, 현장교원 집단이 능동적이며 자연발상적으로 '아래에서 위로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교육 본질 회복 운동에 발맞추어 교육부가 열린 학습을 강조하면서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 지정 확대와 시·도별 교육정책 개혁 실적 평가 등 관주도의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을 조화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오오노렌타로, 大野運太郎)을 기르는 대안인 열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교원(교장, 교감, 교사)과 관리층(교육전문직, 교육행정가)의 일부에서는 열린교육에 대한 개념과 준거가 모호하며, 1960년대나 그 이후의 여러 일과성 학습형태처럼 일시적인 유행이요 시행착오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사시적 시각, 심지어는 부정적 견해와 비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건전한 충고를 받아가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열린교육의 개념정립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도 있고, 한국열린교육협의회

에서는 강령을 정립해 가고 있기도 하다.

교육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않는 모든 국민도 21세기의 한국적 대안 학교와 대안 교육방식을 탐색하기에 더욱 더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차제에, 이념차원에서 전개할 열린교육을 학교 교육현장으로 끌어들여와 열린수업방식이나 열린학습방식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 우선 열린학습방식의 개념을 명료화 하고 방향을 바르게 이해하며 지향하는 범주를 밝혀 이의 현장 착근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야별로 노출시킨 후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한국의 풍토에 맞는 열린학습 방식이 토착화 될 것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열린학습방식에 대한 편견 및 만족 조건

열린교육의 보다 실천적 접근인 열린학습방식은 목적론적 이념보다는 오히려 방법론적 원리와 기법에 가까운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사회에서 추구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교육원리가 아니며 열린학습방식은 확일성, 기계적 학습, 권위주의적 교사 주도적 교육, 타율적 통제식 훈련, 학습기회의 불평등성을 지양

하는 대신, 적어도 열린학습방식의 요건이 될 학습자의 인격적 존중과 총체적 성장, 개별화와 공동체적 삶의 경험 조화, 자율성과 창조성의 성장 촉구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열린학습방식의 기본생각과는 거리가 먼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이의 현장 착근을 더디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돈희, 1996)

1. 열린학습방식은 전혀 새로운 학습방식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수업기술을 지닌 자만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열린학습방식은 우리 나라의 고질적 병폐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의 유일한 특효약이며, 기존의 교육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다.(성용구, 1995. 한형식, 1996)

3. 열린학습방식은 러그미팅, 복수교과 병행학습, 직소우 학습, 물레방아 학습,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주간 프로그램에 의한 학습, 코너학습, 주중 정해진 날 학습 등 일정한 모형이나 과정과 같은 일정한 형태나 틀을 가지고 있으며, 교실과 복도 사이가 트인 벽없는 넓은 교실과 수업보조자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나, 교사가 자의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놀이 중심 개별 학습만을 강조하고, 집단학습은 없

다고 보는 것이다.(위의 글)

4. 열린학습방식은 모두를 학생에게 일임하여 무질서하고 소란해도 되며, 가리키거나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한형식, 1996)

따라서, 보다 한국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열린학습방식의 현장 토착화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열린학습방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방관자적 입장에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교육행정가나 학교관리자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미래의 새로운 학력관에 초점을 맞춘 열린학습방식 도입의 당위성을 수용하여 교원집단이 먼저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열린학습방식은 소규모 학교, 소인수 학급, 넓은 공간, 풍부한 학습자료, 넉넉한 교육재정 등 여건이 호전될 때 까지를 기다려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적용하기 쉬운 방법부터 골라 지금 이 순간 자기학교(학급)에서부터라도 한 가지씩 천천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아야 한다.

셋째, 열린학습방식은 여러 제약 조건 또는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리킬 것은 가르키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는 유연한 수업조직을 통하여 익힐 것은 익히고 다듬을 것은 다듬어서 타인에게 방해하지 않고 자기 결정, 자기 선택,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생활화해야 한다.

넷째, 열린학습방식은 학부모와 주민 등 자원 봉사 집단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되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열린학습방식은 국가정책, 제도면에서 저항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공히 시도하여 점차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Ⅲ. 열린학습방식 토착화의 문제점

21세기에 대비한 국가 교육개혁 전략 차원에서 토착화 하려는 열린학습 방식은 현 시점에서는 여러 형태의 걸림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교원의 의식과 근무면, 학부모와 주민의 우려, 열린학습 적용 여건, 교원 인사 및 행·재정지원, 교육과정 성격 및 운영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교원(교육행정가)의 의식과

근무면

열린학습의 토착화는 교원의 관심과 이해 및 적용 능력 수준만큼 이루어진다고 본다. 시·읍지역 대 규모 학교의 과밀학급에서는 학생수가 과다하고 공간이 협소하며, 열린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하고, 면·리소재지 소규모 학교의 소인수학급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영세하여 열린학습을 위한 교재연구나 자료 개발 등에 애로가 많아서 열린학습을 도입하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오랜 동안의 익숙해진 관행과 타성에 의해 정해진 교실과 정해진 좌석의 벽, 학기내 주간 고정 시간표(1단위시간40분) 담임교사, 교과와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진도표, 학년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이수, 천편일률적인 하모니커형 재래식 학교에서 전통적인 교수방법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한 경직되고 틀에 박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학습방법이 학습훈련 기회가 부족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력, 정보처리 능력, 탐구력이 제대로 길러져 있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

교관리자(교장, 교감)와 교육행정가(교육전문직)는 물론 일부 교사 집단의 학습방법 개혁에 대한 배타성과 고정관념이다.

열린학습 또한 과거의 유행풍조식 학습모형처럼 일과성을 지닌 것으로 잘못 알고 부정적 시각으로 열린학습방식을 비판하고 거부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갈등과 열린학습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의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부족하고, 스스로의 노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열린학습에 관심을 가졌던 교사들도 선행 문헌자료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 일천하여 자신감이 서지 않고 적극적 연수 시간이 부족(서울은 64시간중 45시간 : 한국교육신문 '96. 8. 28. P.5)하여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학부모와 주민의 우려

교육개혁은 정부·국민·교원의 공동체 의식이 전제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 열린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계속 이 학교를 다니면 별문제이겠지만 타학

교로 전학을 가게 되어 전통적인 일제식 학습으로 바뀔 경우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열린학습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까지를 걱정하고 있다.

인쇄매체나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 나라의 21세기 대안학교의 사례들이 일부 소개는 되고 있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은 열린학습의 배경, 목표, 방향, 방법, 자료, 평가와 가정학습안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을 한 바가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다.

3. 열린학습 적용 여건면

열린학습이 시도되어 정착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료와 교구 및 설비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면 공염불에 그칠 염려도 있다.

그러나 현장의 사정은 단계형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개별학습 및 소집단 학습자료와 교구가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 배치된 대부분은 칠판, 교탁, 책상이 '교수구조'로 설치되어 있어서 자기학습을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즉, 강의와 설명에 의한 받아 배우는 교실 구조이다. 학습이 이루어

지는 장소는 비단 교실만은 아닌데 교실학습에 의존한 채 복도와 유휴 교실 및 잉여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실을 좁다고만 할 뿐 넓게 쓰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모으려 하지 않고 있다.

4. 교원인사 및 행·재정면

열린학습 방식이 서서히 뿌리 내려지려면 교원의 개혁의지, 교육여건의 개선, 교육정책의 지원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열린학습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학교의 근무교원은 적어도 순환근무원칙에서 상당기간을 배려하여 안정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에도 인사제도면에서는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학교내에서 저학년은 열린학습방식을 적용하고, 중·고학년은 전통적인 닫힌 학습방식을 적용하는데서 오는 이질감으로 직원간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잦은 상대평가에 의한 심한 스트레스, 재래식 통지표 남발로 인한 경쟁의식 유발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 선택의 폭이 제한된 각종 규제와 획일식 제도 등도 열린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그리고, 열린학습 연수 이수자에게는 연수학점제 등을 실시하여 승급, 연수, 승진에 가산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해야 함에도 이런 대책이 미흡하고, 열린학교 신축 예산 확보와 열린학습운영에 대한 특별예산 배부(차등 배부)가 현재 단계에 선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는 열린학습 연구·실험·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연구경험을 누적시켜야 함에도 예산상 제한적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5. 교육과정 성격 및 운영면

비형식 교육 형태로 열린학습이 시작되고 일반화된 나라는 영국이라고 한다. 영국은 '질관리형 교육과정'으로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서 선택권을 대폭 위임하고 있으며, 교과서가 개발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준별 학습지가 필수적으로 개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침형 교육과정'이어서(이돈희, 1996) 교육과정령에 의한 법칙 규제를 받으며,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재량권을 위축당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마음놓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모듈제 시정 운영 등 융통성있는 시정을 운영하

지 못할 만큼 시간 이수의 압박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이수주의, 시간 배당표 이수 주의에 익숙한 채 총체적 성장을 돕는 통합학습, 주제학습, 프로젝트 학습, 자기플랜 학습에는 아예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IV. 효율적인 열린학습방식 토착화 대안

시대와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국가들이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슬기롭게 강구하는 차원에서 현실감을 살린 각종개혁을 앞다투어 서두르는 차제에 아무리 보수성을 지닌 교육분야라도 이에 보폭·보속·보조를 맞추어 교원 스스로가 선도적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열린학습방식의 현장 토착화를 위해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원의 역할로 구분하여 열린학습방식이 토착화 되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교원의 역할 과업

우리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비례하고 교사의 질은 연찬의 질에 비례한다'고 하고 '교사가 달라져야 교육이 발전된다'고 믿고

있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참다운 개혁'의 방향을 바르게 시사한 것 같다.

관주도의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은 그 강조나 빈도가 쇠약해 지거나 여러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일시 멈추거나 영원히 구호로 그칠 수가 있다.

먼저, '학교는 교장의 얼굴이다'라고들 한다. 학교는 학교장의 모습이라고 한다.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소신 그리고 경영수행능력은 단위 학교교육의 전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장이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열린학습방식에 대한 선구자적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열린교육 선진학교 정보탐색과 국내·외 현지 방문연수는 물론 학교 직무연수 과정에서 경영기법의 신사고와 새로운 교육정보를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소화하고 교직원들의 연찬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

정통 열린학습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학교장은 유치원의 개방교육 개념을 연구하여 이와 연계하는 활동중심 접근기법도 관심을 가져서 1학년 부터 해마다 단계적으로 열린학습방식을 도입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복식학급과 특수학급에서도 이의 열린 생각과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해 보도록 권고할 수도 있겠다.

특히, 본도와 같이 표준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고정된 '교수구조'를 '학습구조'로 교실의 틀을 바꿔야 한다. 즉, 고정된 칠판과 높은 교탁 및 낮은 개인용 책상을 '이동식 다목적 소칠판과 자료운반대 및 학년전용 다각형 집단학습용 책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우물을 파 놓으면 개구리가 뛰어들다'는 속담처럼 교실이 열리면 학습방식도 바뀌지 마련이다. 그리고, 다인수 학급에서는 복도를 자료실 또는 보조교실의 기능을 살려 오르간, 패도걸이, 사물함 보조교사석 등 제한된 교실을 넓게 만들어 학생이 이동하며 수준별 선택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담임교사는 미래사회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예견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전단계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열린학습방법의 학습'을 익혀서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학습하는 기본을 다듬으면서 학생의 요구, 필요, 흥미, 적성, 능력에 따르는 수준별 개별필수(기본) 학습(힌트지 포함)와 선택학습지(힌트지 포함) 및 상설코너활동자료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열린학습에서는 새로 만든 자료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보급된 자료도 재정비하여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 풍족한 학습자료가 보급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개발이 가능한 자료부터 개발하되 동학년 협력체제나 이웃 소규모학교 간 연계체제가 또한 필요하다.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은 담임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과 교과서 재구성할 때 교과서의 단원순서, 내용, 수준, 시간 등의 조정을 하여 교과간, 학년간 통합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통합학습을 권장해야 한다.

이제, 주간 고정시간표와 40분 수업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종 안치는 학교'가 되도록 자율적 시정운영을 해야 한다. 철저한 개인학습, 개별학습도 좋지만 집단교육을 기르는 집단학습도 병행하며 '가리킬 것은 가리치고, 가르칠 것은 명확하게 가르쳐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열린학습 선행연구, 실험, 시범학교나 연구단체(한국열린교육협의회, 전국열린교실연구 응용학회)의 연구보고회나 워크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경인지방의 밤샘 워크샵에 가서 보면 자비로 자원해 온 젊은 교사들이 열린학습기법을 배우기 위해

10여개 코너를 하나 빠짐없이 순회하면서 회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열린학습에 대한 학구의 열풍이 이곳 남도에도 불어 금년만 해도 1,300여명의 교사들이 운집하여 열린학습의 다양한 정보탐색에 전력을 투구하는 현장을 가끔 볼 수 있었다.

아무튼, 우리의 시각은 '한줄로 세우는 닫혀진 교육에서 여러 줄로 세우는 폭넓은 선택의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각종 컴퓨터 정보망을 이용해서 정해진 코드(나우리, 천리안 등)에 들어가면 열린학습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국, 내외 열린학습 문헌자료와 실천사례들을 획득할 수 있다.

2. 학교의 역할 과업

새학교는 교직원 집단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경영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만큼 전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열린학습의 당위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이 서도록 하고, 도입에 대한 합의를 거쳐 적용 시기와 구체적 방법들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학교 예산집행의 우선을 열린학습자료, 교구, 설비 확충에 두어 진

정으로 학생중심, 학생주도의 본질적 교육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점진적 전환이 되어야 한다.

열린학습은 교원의 교내 연찬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외 현지시찰, 선진학교 방문, 시범공개회 참여 등 집단적 연찬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연찬에 이어 학부모와 함께하는 열린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실」을 통해 열린학습의 가치와 필연성을 인식시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가정에서 열린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모든 환경은 과거의 전시, 게시식 방법을 지양하고 활동중심 열린학습의 계획 및 과정 산물(학습보고서, 자유연구보고서, 학습계획서, 미래의 설계도 등)을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도록 하며 학생 개인별 화일을 비치하여 수행평가의 방법으로 전환하고 평가방법을 혁신하며 학생생활 통지표 양식을 대폭 개선하여 숨은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열린학습은 팀티칭 등 교과 수업 기술은 물론, 특별활동, 생활지도, 인성교육, 학교재량시간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교실의 벽이 열리지 않는 고정교실에서라

도 그 여건에 맞춘 열린학습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므로 해당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살린 학교 나름의 열린학습방식이어야 한다.

아직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린학습이 크게 확대보급은 되지 않았더라도 열린학습을 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문제해결력이 월등하게 향상되었다는 정보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학부모와 주민을 설득하는 배려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3.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과업

전문직종은 본디 자생적인 연찬에 의해 성숙한다. 따라서, 교육행정 기관인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열린학습연구서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 단단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열린학습 전달 핵심요원을 양성하고 열린학습에 관한 최신 장학자료를 발간하여 전교원에게 보급해야 한다. 인성교육부문에서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자율시범학교를 확대 지정하는 것과 같이 열린학습 연구, 실험, 시범학교를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하고 이를 수시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게 해야 한다.

서울상명초등학교 등 일부 사립

학교에서는 열린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가 벽없는 다목적 공간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열린학교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열린학습이 토착화 되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통합하여 열린학습자료, 교구확보와 시설, 설비하는데 우선 투자하는 것이 21세기를 대비하는 현명한 대안일 것이다. 그리고, 인사팀에서는 열린학습의 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인정하면서 연구하도록 순환근무제 보원에 힘써야 하고 열린학습에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의 공, 사립간 전보의 길을 보다 열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열린학습을 위해 개교한 학교의 전입교원에 대해서는 특별 우선권을 부여하여 모든 학교의 모델이 되도록 인사상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위원들의 시·도교육청 평가시 열린학습추진 실적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평가결과 국고의 차등 배분도 중요하지만 열린 학습을 꾸준히 실천하여 큰 성과를 거양하였거나 일반화에 기여한 공이 많은 교원들에게는 응분의 보상대책으로 해외 국비 시찰, 해외파견연수, 승진우대, 승급가산 등 유인효과를 거양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거나 '교사가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열린 학습'이 아니고서는 이 역시 「바람, 바람, 바람」의 핀잔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대학입시제도의 개혁과 함께 학교평가 방법의 제도적 개혁과 학생종합생활기록부의 제반 총체적 성장기록 내용 및 방법도 바꾸어야 한다.

V. 한국적 열린학습방식의 토착화 전망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 외국의 열린학습방식을 토대로하여 본격적으로 10여년간 연구, 실험, 적용해온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교원, 학부모, 교육여건, 인사해정 및 재정면에 걸쳐서 개괄적으로 반추하여 보았고 또 그에 따른 필자 자신의 견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서가 다른 외국의 여러 교육방식들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채 통과하고 말았으며, 교육이론가나 학자들이 제시한 수많은 수업모형등도 소화도 되기 전에 모형으로 남았을 뿐임을 교단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열린학습방식이 한국의 풍토와 한국인의 정서에 접근해서 토착화할 수 있다는 가정은

첫째, 열린학습방식의 최초도입

과 안내는 교육학자 집단이 아닌 초등학교 교사집단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둘째, 13세기 이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고 개별화 학습과 소집단학습이 이루어져서 개성을 살린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셋째, 교육개혁의 핵심은 열린학습, 열린수업, 열린교육에 두어 민주도와 관주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교원의 변화, 학부모의 변화, 교육여건의 변화, 행·재정적 지원의 변화측면에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교원의 변화에 따른 전망

가. 열린교육 연구단체나 자생적 연구서클의 열린학습 워크샵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수가 날로 증가하는 한편,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린학습에 대한 실질적 체험학습을 함으로써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 시각으로 전환될 것이다.

나. 교사집단끼리 스스로 학습지 개발 등 다양한 자료개발을 위한 자생조직을 하여 풍부한 자료를 보급할 것이다.

자비로 일본이나 유럽등지의 열

린학습 선진학교를 탐방하는 연구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2. 학부모의 변화에 따른 전망

가. 열린학습에 익숙한 학생이
 타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상당수
 의 학교가 일반화 되었으므로 이질
 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나.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중학
 교에서도 열린학습을 적용함으로써
 초등학교의 열린학습에도 학부모는
 안도감을 갖게 될 것이다.

다.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대안
 학교계'에 대한 신문·방송매체의
 홍보로 열린학습 인식도가 높아갈
 것이다.

라. 각 학교의 「학부모 교실 프
 로그램」에 열린학습 강좌가 개설되
 므로 학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가정학습지도의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3.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전망

가. 강의, 설명중심의 '교수구조'
 가 개별학습·소집단학습의 '학습구
 조'로 교실의 모습이 변화되어 자
 기 주도적 학습력이 길러질 것이
 다.

나. 「열린학습」 연구단체 및 각
 종 서클에서 체험중심의 연찬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실

질적인 학습방법을 체득하게 될 것
 이다.

다. '표준학교 가꾸기'등 선진학
 교가 교실중심, 수업중심, 학습지
 중심으로 조성됨으로써 즐거운 학
 교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학습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 각 시·도교육청이 앞을 다투
 어 열린학교를 신설하여 감으로써
 학생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으로 바
 꾸어져 학생들은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행·재정적 지원체제의 변화에 따른 전망

가. 각 시·도교육청이 국외연수
 의 기회와 수를 증대하여 열린학습
 연수경험이 확대되고 외국의 우수
 사례를 우리의 풍토에 맞도록 재구
 성하는 의욕이 향상될 것이다.

나.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연구교사제'가 열린학습 연구
 의 분야를 확보하므로 보다 심도있
 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연구
 기관의 열린학습 이론가와 현장교
 사가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한
 국적인 열린학습 방식이 새롭게 고
 안되어 토착화 될 것이다.

라. 열린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가 확대 지정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져 조

화로운 인간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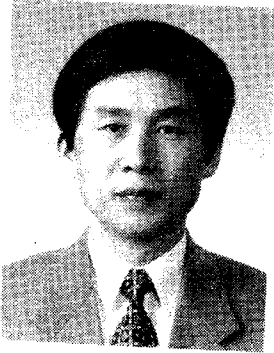
교직에 종사하던 하지않던 국민
 누구든지간에 현재의 교육제도와
 실상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다양한
 학습이론의 발전을 돕는 필수조건
 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뿌리내
 려지지 않은 열린학습방식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고 이 나라

의 미래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입
 장에서 교단교원은 '지금부터' '자기
 학교에서부터' '선생님 자신부터'
 열린학습 방식을 주저하지 말고 도
 입·적용하는 지혜와 용단이 필요하
 다. 그것만이 세계중심국가로 가는
 제일 보일 것이다.

<참고 문헌>

1. 강영은, '미국 열린교육의 운영사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전남」 통권 제82호, 1993. 12
2. 문관용, '열린교육과 현장 적용의 과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전남」 통권 제82호, 1993. 12
3. 박종래, 「무릎높이 열린교육방식 도입에 의한 새수업의 창조」, 한국열린교육협의회 전남지역연구회 하계 워크샵 발표 자료, 1995. 8. 12
4. 성용구, '한국열린교육의 오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국열린교실연구응용학회 「열린교실 연구」 제3집 제1호, 1995. 3
5. 이남봉, 「열린교육의 시작」, 서울: KBS 문화사업단, 1996
6. 이돈희, '열린교육의 지양점과 지향점', 한국열린교육협의회 부산연구회, 「열린수업연구대회 및 워크샵」 1996. 7. 6
7. 이인호, '학교교육의 문제와 열린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편) 「광주교육」 제18호, 1996. 7
8. 은용기·길형석, 「열린학교 열린교육」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9. 전라남도교육청, 「열린학습의 문제점·대책·전망」 교육부보고자료, 1996. 8. 21
10.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교에서의 열린교육」, 장학자료, 1995.

都市學生 農·漁村學校委託 體驗學習



李 起 洪

(全南道教育廳 獎學士)

I. 한승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95년 10월로 거슬러 오르자. 도시학생 농·어촌학교위탁 체험학습 시책은 교육감님의 지시로 황인수 기획감사담당관의 지휘아래 기획계는 말할 것도 없이 감사1·2계 직원까지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일본의 산촌 유학 계획까지 팩스로 받아 참고했고 목포북교초등학교와 목포용호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까지 동원되었다.

본도가 지향하는 전인교육 실천과 정부발표 5·31 교육개혁의 방향과도 부합되는가 따져보았고 실천가능성도 쟁해 보았다. 목포의 2개 초등학교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

러한 우리들의 노력에 힘을 더해 주었다. 정동술 장학사의 마무리 손질과 장학정보에 게재된 것으로 도시학생 농·어촌학교 위탁체험학습 시책은 그 위대한 탄생의 첫장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시도한 본 시책은 일선학교에 전달되지도 못했고 대부분이 지역교육청에서조차 3월의 다가도록 방치되고 있었다. 공식적인 방법을 놔둔채 전화와 편지로 간곡히 당부했고 본 시책의 교육적 가치와 추진상의 간편성을 역설해 나갔다.

순천교육청 김두석 장학사는 본 시책에 심취했고, 목포북교초등학교 최봉갑 교장은 초등교육의 진수를 만난양 열성을 보였다. 완도 보

길동초등학교 예송분교장 강준구 주임과 영암금정초등학교의 김선종 교장, 신안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장의 김광휘 주임, 구례간문초등학교의 이종섭 교장은 간곡히 도시학교에 위탁생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위대하게 태어난 시책은 참여학교가 하나둘 늘어남에 따라 가속이 붙기 시작했고 농·어촌학교 곳곳에서 들려오는 체험학습생들의 육성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홍도신흥분교장의 3명뿐인 학생은 물에서 온 3명의 학생과 어울려 활기찬 생활을 한다는 소식이 파도를 넘어 들려오고, 순천부영에서 장성삼서서 초등학교에 체험학습을 온 4학년 조보라 학생과 학교를 방문한 안병영 교육부 장관님이 체험학습에 대해 얘기를 나눈 모습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여기 저기서 이사람 저사람에게서 본 시책에 대한 반응이 터져 나왔고 그 반응의 대부분은 기대 이상이었다.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보내고 받기를 주저했던 교사들도 소매를 걷어 붙이고 달려들었다. 속셈학원에나 연연할 것 같은 학부모는 담당자들의 우려를 깨뜨리고 적극 참여해 주었다. 신록의 5, 6월은 체험학습 열기로 가득했다.

하나의 시책이 일선에 정착되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

력이 필요한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 절감했다. 시책개발, 행정행위, 홍보, 실태확인, 문제점 수정, 재추진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꾸러미 되어 학생들의 손에 들리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96년 상반기동안 81개의 도시학교 어린이 2,811명이 389개의 농·어촌 학교를 찾아 체험학습을 하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10월 말일 현재도 5, 6월과는 다른 10월의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농·어촌학교를 찾아가고 있다.

10월 10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서한샘의원은 본 시책의 교육적 가치를 소리높이 외쳐주었고 광주와 연계하여 추진할 의사가 없는가도 물었다. 우리는 광주 뿐만 아니라 어떤 시·도도 원할 경우 받아들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본 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목포북교초등학교의 「가슴으로 체험한 농·어촌 학습」이란 체험기록 책자를 국정감사장에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II. 학교간의 장벽은 무너지고

장학정보에 자세히 나왔지만 실행방법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학교공부

를 계속하며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학생은 희망서를 제출한다. 그 희망서에는 희망 학교명과 기간, 현지 숙식장소, 현지 보호자들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희망서를 받은 학교장은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위탁교육 의뢰서를 발송한다. 의뢰를 받은 학교는 동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는 곧 학생에게 전달된다.

농·어촌의 일가친척이나 결연을 맺은 친지집에서 숙식을 하며 일정기간 농·어촌학교에 다닌다. 간단히 말해 학생의 희망절차와 학교의 동의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런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기만 하면 학교간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데도 주저주저하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 버렸다.

전국의 매스컴은 우리도의 본 시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면서 비중있게 다뤄 주었다.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을 비롯하여 KBS·EBS라디오, KBS·MBC·YTN텔레비전, 경향잡지 등에서는 「경직된 교실탈출」, 「대자연속에서 독립심 길러요」, 「추억만들기 이상을 체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어린이」란 제목을 붙여가며 본 시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었다.

건국 이후 처음 실시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 우리도가 전국

1위의 실적을 거양하였는데 본 시책이 일조를 했다.

Ⅲ. 노리는 과녁들

1. 일가친척과의 애정 다지기

핵가족은 당숙, 당숙모, 당고숙, 당고모란 단어를 곱팡내 나게 만들었고 「둘도 많다」는 가족계획 캠페인은 사촌마저도 우리결에서 떠나가게 만들었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백부댁이나 조부댁에서 하루밤도 지내지 못한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침식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정을 깊게 만드는 것인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성장기에 실수도 하고 어리광도 피우며 부모아닌 또다른 살붙이, 피붙이와 한동안이나마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본 시책은 일가친척과의 애정회복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2. 농·어촌 생활 익히기

어린 시절 여름 밤 무논에서 마구잡이로 울어대던 개구리 울음소리를 필자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뗏목을 치며 목청을 다듬어 울던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다. 호미로 고구마 캐던 일, 옥수수 따고 무 뽑던 일, 풀숲을 헤치며 풀벌레소리, 새소리를 쫓던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어났던 섬세하고 진진한 경험을 필자는 지금도 기억한다.

손톱에 꽃 물들이고 감뚝(감꽃)으로 목걸이 만들고 해돋이와 함께 형형색색의 나팔을 불어대며 우물가 화단에서 순식간에 피어나는 나팔꽃을 보는 것을 어찌 교실수업과 비교하라. 자연을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하지 않던가. 농·어촌을 어머니의 젖가슴이라 하지 않던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의 농·어촌 경험을 만금을 주고라도 사야 한다지 않던가.

3. 혼자만의 시간 갖기

어린시절 엄마가 잠시만 곁에 없어도 괜히 눈물이 앞서던 일을 필자는 기억한다. 엄마가 생활주변에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기가 죽는다. 기가 허물어질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사람 저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맘껏 동작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눈에 들기 위해 일상생활속의 표현들을 다듬게 된다.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지나온 생활을 반성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참모습을 찾게 된다.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은 시간문제다. 본 시책은 어린시절 낯선 곳에서 혼자되어 생활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4. 가능해진 열린교육

작금의 열린교육 바람은 마치 필자가 교사 초년병이었을 때 학문탐구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불어닥친 브르너학습이론을 연상시킨다. 열린교육은 수요자중심교육과 발을 맞추어 다품종 소량생산시대와 맞물려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융통성있는 시정 운영, 탄력적인 학습진단 조직, 다양한 학습방법 적용, 개별화된 자료와 평가로 대변되는 열린교육은 선택에서 필수로 바뀐지 오래다. 열린교육은 시간의 벽을 허물고 공간의 벽을 뛰어 넘어 결국 학교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볼 때 단위학교내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시책은 도단위 교육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열린교육이다. 학교마다 교문을 열어 놓고 진정한 수요자중심교육을 해보겠다는 의지이다.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필요한 기간만큼(시간의 벽을 허물고) 공부

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6년동안 한 학교만 다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제도다. 현행의 교육제도 속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경직된 교육의 틀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누군가 본 시책을 전학교의 모교화 운동이라고 일컬었는데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5. 5·31 교육개혁과의 만남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이 교육개혁안의 슬로건이다. 열린교육사회는 교육기관간에, 단위학교와 단위학교간에, 학교와 사회 교육기관간에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천명했고, 교육기관끼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 인정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 시책은 초등수준의 일종의 학점인정제도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타학교 학습과정 인정제 도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IV. 아직도 주저하는 몇가지 이유

1. 부담받는 선생님

위탁체험학습차 온 타학교 학생에게 부담을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자존심을 훈장으로 여기는 교직원사회가 아직은 건재함을 느끼게 한다. 새끼 장학사가 앉았으니 매시간 연구수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선생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담감을 안겨줄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학생을 맡아준 것만으로도 그 학생은 충분히 학습을 하고 있다. 자신의 학교와는 다른 학교, 다른 교실, 다른 선생님, 다른 급우 그리고 다른 교육방법과 분위기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되고 있다. 위탁생을 반 학생에 포함시켜 선생님이 늘 하던 대로 해주기만 하면 된다. 학교에 따라서 성의를 보여준 곳도 있지만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해 본 시책의 확산을 막는다면 오히려 성의를 보이지 않음만 못할 것이다.

2. 걱정하는 부모님

학생이 있는 곳에는 활기찬 동작이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어느 곳에서나 접촉사고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고를 우려해 우리의 교육 활동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풍도, 수학여행도, 뽕틀 운동도, 과학실험도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이 있는 곳에는 교육자의 보살

핍이 있기 마련이고 교육자의 보살핌이 있는 한 위탁교에서 생활도 재적학교에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위탁교의 교직원도 위탁기간동안 위탁생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하교후의 생활도 현지 보호자가 있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일부 학부모 가운데 학원을 중단할 수가 없어 체험학습을 시키지 못한다는 말도 듣고 있다. 그것은 농·어촌 체험학습 기간을 노는 것으로 생각하고 농·어촌 체험 학습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

V. 어느 학부모의 잠도 오지 않는 밤을 뒤로하고

순천이수에 다니는 5학년 아들을 고흥도화초등학교로 체험학습을 보내 놓고 마음이 안놓여 위탁교를 찾아갔던 윤난희 여사의 글을 소개한다.

「학교에서 농촌체험학습 희망자 모집을 하였을 때 도시생활에서는 체험하지 못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규철이에게는 시골에 친척이 없어서 갈곳을 정할 수가 없었다.

마침 3월에 광주에 사는 동생이 고흥도화초등학교로 옮긴게 생각나 그곳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흔쾌히 보내라 하였다.

막상 보내고 보니 여러가지 걱정으로 불안하기까지 하였다. 식성이 까다로운데 밥은 잘먹고 있을까? 하루종일 뛰어놀고 샤워나 제대로 하고 잘까? 친구들과는 잘 사귀었을까? 농촌생활이 규철이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현지답사를 하기로 하고 5월 9일에 그곳 도화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에 도착하니 그곳 학교의 교정이 너무 정겹게 느껴져 웬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교장, 교감선생님, 또 규철이를 만나보고서야 내가 그동안 우려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너무나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 규철이가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입이 쭈뼛 잘먹지 않던 애가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밥맛도 좋아져 무엇이든 잘먹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고 했다.

운동장 모래밭기를 하면서 손수레도 처음으로 끌어보고 삼질도 해보고 가까운 바다에서 낚시도 해보았다 한다. 마침 그 기간에 운동회를 했는데 도시운동회와 농촌운동회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이모집에서 다닐 예정이던게 바뀌어 그곳 도화에 살고 있는 5학년 2반 반장인 용훈이 집으로 숙소를 옮겼다. 활달한 성격때문인지

친구를 금방 사귀었다고 했다. 일주일의 체험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더욱 건강해진듯 하였다. 도화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마치고 떠나온 날 교장선생님께서 “보람있고 활기차게”라는 좋은 글을 붓글씨로 써서 선물로 주셨다. 또 도화어린이장을 규철이가 받았다. 너무 많은 신경을 써주신 그곳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이 농촌체험 학습을 통해 규철이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다.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욱 더 농촌생활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이러한 경험이 어찌 윤난희 여사 뿐이겠는가?

수많은 학부모가 전화나 편지로 본 시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 도시학생 농·어촌 학교 위탁

체험학습은 우리들이 늘상 꿈꾸어 왔던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다.

말 그대로 교육수요자가 자신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받고싶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에듀토피아(Edutopia)로 진일보할 수 있는 발상이다.

입시지옥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교육본연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어도 초등교육기간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인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필자는 확신한다. 본 시책은 우리 전남을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지고야 말 것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교육의 틀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 유우머의 가장 깊은 근원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다. *
 * * * * *
 * <투우엔> *
 * * * * *

꿈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인 靈岩郡 金井初等學校

朴 万 澈
 (教育 研究 士)

1.

吳榮大 全羅南道教育監 就任 後 主要施策인 標準學校 가꾸기는 '94년부터 '97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학교의 시설·설비 완성에 대한 종합구상이 없이 경영책임자나 몇 사람의 의지에 따라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 완성학교 종합 구상이 미비하고, 부분적인 예산투자로 학교 변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어 투자효과가 미비하며, 학교 경영 및 예산투자에 대한 교직원·학부모·지역민의 참여 기회가 없었고, 학교 교육현장의 개혁은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시설·설비와 교구·설비 확충으로

교육과정 정상화 여건 추진과 의식개혁 차원에서 교직원의 사명감 고취를 유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의식개혁이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데 있었다.

標準學校의 개념은 학교 시설·여건 개선면에서 학교 시설·설비기준령과 학교 교구·설비 기준에 의해 잘 정비된 학교, 현대적 기자재를 완비하여 가르치기 편리하고 배우기 쉽도록 여건이 잘 갖추어진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필요시설이 확보된 학교를 뜻한다.

교육과정 운영면에서는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학교의 교육활동이 교육과정 운영을 돕는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학

교 교육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교 운영면에서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교의 시설·설비와 교구·설비를 확충해 가는 학교를 뜻한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학교시설·설비 및 교구의 현대화를 통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가르치고 배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에 있는데, 추진절차는 학교 실무위원회 조직 → 선진지 견학 → 모델안 작성 → 학교 발전 종합 계획 수립 → 교육과정 내용분석 학습자료 일제조사 정비 → 연도별 예산투자계획서 수립 → 교육청 실무위원회 심의 → 학교발전 종합계획 및 예산 투자계획 확정 → 예산집행부서 결정(당해년도 투자계획 가운데서) → 예산배부 및 집행 → 실적평가

→ 보고회 개최 → 기자재 활용 및 관리지도 등이다.

본 사업 추진절차의 특징은 실무위원회 조직·운영으로 교사와 학부모 의견반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행착오의 최소화, 개별학교의 여건과 특성 존중, 교직원의 의식개혁을 의도적인 유도, 단기간에 종합적·집중적 예산 투자 등이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2000년까지 통·폐합 되지 않을 시와 읍·면 중심학교에 대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표준학교로 지정해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투자계획서에 따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예산지원 기준은 유치원 원당 1천만원, 초·중·고등학교는 36학급 이상 1억5천만원, 35학급까지 1억원, 23학급까지 7천만원, 11학급까지 5천만원인데 실적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도별	실 적			계 획			합 계
		'94	'95	계	'96	'97	계	
계	학교수	76	240	316	270	246	516	832
	금 액	47억 3천만원	109억 7천만원	157억원	117억 8천만원	118억원	235억 8천만원	392억 8천만원
	유 치 원		75	75	101	113	214	289
	초	38	94	132	100	98	198	330
	중	38	60	98	59	26	85	183
	고		9	9	10	9	19	28
	특		2	2	(2)	(2)	(2)	2

기타 목적사업비(특별실, 특수활

동실) 및 학교현안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교직원의 의식개혁으로 사명감이 고취되고, 학교발전 종합 계획에 의거 계획적·종합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환영하는 학교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니 학부모는 자식을 맡기고 싶은 학교로, 학생은 폭넓은 학습이 가능할 학교로, 교사는 내 의견이 반영된 학교로 믿게 되었다.

향후계획은 본 사업을 사립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II.

靈岩郡 金井初等學校(校長: 金善鍾·校監: 安在憲)는 지난 7월1日本廳과 研究院을 포함한全體職員 朝會時 吳榮大 全羅南道教育監님으로부터 標準學校 가꾸기를 가장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는 評價를 받았다.

지난 7월9日 학교를 찾아가니 작년 12月22日 표준학교 가꾸기 실천보고회 이후 장흥교육청 나상열 교육장 외 9명을 비롯해서 지난 7월6일까지 42회에 걸쳐 4백70명이 방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영대 교육감, 교육위원, 박일재 영암군수, 전라남도 관내 표준학교

가꾸기 중학교 시범학교 교장단, 교육청 담당 장학사, 학교 단위 방문단 등 표준학교 가꾸기의 열기를 體感할 수 있었다.

1924년 2월1日 金正公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941년 6월1日 金正국민학교로 개명, 1981년 3월1日 병설유치원 개원, 1985년 3월1日 특수학급 신설, 1989년 3월1日 청룡·한대분교장 편입, 1994년 9월1日 金正북분교장 편입된 후 '95년 5월9日 第21代 金善鍾 校長 就任後 '96년 2월16日 제70회 졸업생 37명을 포함하여 총 6천1백76명을 배출하고, 1996년 3월1日 金正초등학교로 개명된 학교였다.

재학생은 1학년 16명, 2학년 17명, 3학년 17명, 4학년 17명, 5학년 22명, 6학년 24명, 특수반 4명 등 1백13명을 7학급 편성하고, 유치원 17명 1학급, 金正북분교 28명 3학급과 유치원 10명 1학급, 청룡분교 14명 2학급 편성으로 교원 19명, 일반직 6명 등 25명의 교직원이 가족처럼 보살피고 있었다.

교육목표를 활기찬 건강인을 기른다. 능동적인 자주인을 기른다. 탐구적인 창조인을 기른다. 실천하는 도덕인을 기르다로 정하고, 지도의 개별화와 학습의 개성화로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여 「꿈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로 발전하고 있었다.

주요 교육 활동은 첫째, 교과 활동을 알차게 실천적 도덕인 육성, 언어 사용 기능 신장,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수학·과학적 사고력 신장, 기초 체력 향상, 창조적 표현력 신장, 합리적인 생활 실천 등으로 학습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둘째, 특별 활동은 즐겁게 협의·클럽활동의 강화, 1인 1억 활동의 충실, 독서 활동의 생활화, 학예행사의 능동적 참여 등 개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재량시간은 융통성있게 시간 설정을 연속성 고려하고, 주제 선정은 다양성을 고려하며, 장소 선정은 지역성을 활용하고, 집단 편성은 연계성을 고려하며, 교사 조직은 자원 인사 활용등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넷째, 생활 지도는 귀엽게 「바른 생활과 예절」 독본 실천, 질서 생활의 행습화, 「조백」의 실천 지도, 「장점찾아 칭찬」하기, 5학년 시범 학급 운영 등 가치관 정립에 애쓰고 있었다.

다섯째, 지원 관리는 성실하게 교육과정 연수를 심화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며, 「학습 방법 학습」훈련을 통해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편리하게 교재·교구 기준량을 확보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정비하며, 학용품 공동 관리 등으로 교육의 질 향상

에 시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함께 가족의 대화 시간을 운영 하고, 경로·효친 활동을 전개하며, 학부모 교실의 활성화로 교육기능 회복에 힘쓰고 있었다.

중점 활동은 첫째 「마음 공부」는 예쁘게 바른 마음 가꾸기, 바른 행동 실천하기, 6학년 시범 학급 운영 등 품성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둘째, 「열린 교육」은 재미있게 지도의 개별화, 학습의 개성화, 2학년 시범 학급 운영 등으로 지적 희열감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셋째, 「독서 지도」는 폭넓게 독서의 즐거움 찾기, 나의 문집 갖추기, 4학년 시범 학급 운영 등 질 높은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

넷째, 「경필 쓰기」는 끈기있게 바른 글씨 경필로 쓰기, 바른 글씨 모필로 쓰기, 1학년과 3학년 시범 학급 운영등으로 격조 높은 삶을 다지고 있었다.

본교 교육에 기대되는 성과로 학생은 꿈을 가꾸고 슬기를 닦아가는 전인 육성의 기틀이 잡히고, 교사는 땀과 애태움으로 가르치는 존경 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고 있었다.

학교는 훈훈한 인정속에 영그는 즐거운 학교 풍토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자녀의 대견한 사람속에 희망찬 지역 사회 건설로 이어가고 있었다.

Ⅲ.

표준학교 가꾸기는 학교의 시설·설비·교재·교구를 획기적으로 현대화하여 교사는 능률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고, 학생은 즐겁게 활동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의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 지역 교육의 중심학교로 발전했다.

기본 방향을 가르치기 편하고 배우기 쉬운 학교로 풍부한 자료, 편리한 교구, 다양한 교실, 아름다운 교실, 합리적인 예산 운영 등 그 성과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첫째, 필수 교수·학습 자료 및 기자재 확충면에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필수 학습 자료의 확충으로 교육과정 정상 운영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폭넓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교과별 교재 교구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하여 전인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현대적 기자재(실물화상기·비디오비전·CD녹음기 등)를 확충하여 가르치기 편하고 배우기 쉬운 여건이 갖추어져 활용이 쉽게 되고 있었다.

둘째, 교실 복도 및 특별실의 시설면에서는 교실의 기본 시설이 완비되어 교수의 편익과 학습의 효율이 높고, 교수 자료함과 공동 자료함은 전 교과필수 자료를 분류

보관,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의 결손을 막고, 학생 중심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습 흥미가 높아졌으며, 복도에 학년 공동 자료를 분산 배치하여 자료의 활동도가 높으며, 과학실험실·어학실·컴퓨터실·도서실·방송실등의 특별실이 정규 설비를 갖추고 교과·특별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학생의 소질과 특기 신장을 통한 전인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셋째, 시설 활용 및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시설 및 교구의 부족으로 소홀하기 쉬웠던 예체능 교과의 영역별 균형지도와 실기 위주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교과의 특질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개성과 특기를 신장시키는 열린 교육의 실현이 가능하며, 교과별 교재 교구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하여 전인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넷째, 교사·학생·학부모의 측면에서 학교의 발전적인 변화가 가시화 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신뢰하고 선진학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 조성으로 도시 교육을 선호하는 의식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역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학교 가꾸기 영역별 추진 실적

(’95.12.22현재)

가. 교구 확충

교과	영역	교구종목	규격	기준량	표준학교전	표준학교후	과부족	지원		
								표준	교비	기타
전 교 과 공 통		1) 슬라이드 환등기		1	1	1				
		2) 투시 환등기		8	7	8		1		
		3) 실물 환등기		1	1	1				
		4) 카세트 녹음기	라디오 겸용	7		7		7		
		5) 사진기	보조기구 포함	1	1	1				
		6) 이동식 앰프	마이크 포함	1	1	1				
		7) 확성기	휴대용	1	1	1				
		8) 교내방송기기	조	1	1	1				
		9) 교내 CCTV기기	조, 1/2인치 이상	1	1	1				
		10) 스크린		7	6	7		1		
		11) 무암막 스크린	26인치 이상	1		1				
		12) VTR		5	1	5		4		
		13) VTR 촬영기		1	2	2	+1			
		14) 컴퓨터	교육용	28	21	21	-7			
		15) 지구본		2	7	7	+5			
		16) 원고 칠판	자형칠판 포함	7	4	7		3		
		17) 용판		7	7	7				
		18) 자석 칠판		7	7	7				
체	공통	1) 매트	대: 24m×5m 소: 12m×24m	8	8	8				
		2) 기세움대		7	13	13	+6			
		3) 보건위생에 관한 자료	폐도, VTR, 슬라이드자료	4	4	4				
육	기본	1) 장대	직경 대나무 40mm×2,000mm	5	5	5				
		2) 과녁판	목재600×700mm	5		5		5		
		3) 자동차 타이어	소(승용차용)	7	15	15	+7			
		4) 굴림쇠	소형 자전거바퀴	7	7	7				
		5) 줄다리기 줄	φ40mm, 길이50정도	1	1	1				

교과	영역	교구종목	규격	기준량	표준학교전	표준학교후	과부족	지원		
								표준	교비	기타
체	3. 기계	1) 빗발		3	3	3				
		2) 평균대		3	3	3				
		3) 트럼블링	φ2,000mm정도	1		1		1		
		4) 큰 고무공	(큰고무공)	5		4	-1	4		
		5) 막대(소)	φ30mm, 길이 600mm	13	13	13				
		6) 막대(중)	φ30mm, 길이 800mm	25	25	25				
		7) 막대(대)	φ30mm, 길이 1,000mm	13	13	13				
		8) 긴 줄넘기 줄	φ15mm, 길이 6,000mm	7		6	-1	6		
		9) 교구 운반용 차		1	1	1				
	4. 게임	1) 배구공		12	2	10			10	
		2) 축구공		7	2	7			5	
3) 농구공			7	2	7			5		
4) 핸드볼공			7	2	7			5		
5) 야구공(연식)			13	8	8	-5				
6) 배턴			7	7	7					
7) 허들			7	14	14	+7				
8) 높이뛰기대			1		1		1			
9) 스폰지 매트		500×2000×3000mm	1							
10) 줄긋기 기구			1	1	1					
11) 신호총			1	1	1					
육	5. 계절 민속	1) 살바		5		5		5		
		2) 널		5			-5			
체력 검사	6.	1) 초시계		3	2	2	-1			
		2) 줄자	50m정도	1	1	1				
		3) 윗몸일으키기대		3	3	3				
		4) 던지기공		10		7	-3			
신체 검사	7.	1) 신장계		1	1	1				
		2) 체중계		1		1		1		
		3) 좌고계		1	1	1				
		4) 줄자	1500mm정도	1	1	1				

교과	영역	교구종목	규격	기준량	표준	표준	과	지 원		
					학교전	학교후		부족	표준	교비
		5) 청력계		1		1		1		
		6) 시력표		1		1		1		
		7) 차안기		1		1		1		
		8) 색신부		1	1	1				
		9) 신체충실지수표		1	1	1				
음	1. 공통	1) 오선칠판		7	7	7				
		2) 매트로그램		2	1	2		1		
	2. 표현	1) 큰북	24인치(받침대, 체)	6	2	6		4		
		2) 작은북	14인치(포함)	12	5	12		7		
		3) 탬버린	8인치	9	12	12				
		4) 캐스터네츠	목재	9		9		9		
		5) 트라이앵글	중 또는 큰대형	7		7		7		
		6) 심벌즈	14인치	1	1	1				
		7) 우드브럭		6		6		6		
		8) 마라카스		6		6		6		
	2. 가락악기	1) 소프라노리코더		26	26	26				
		2) 목금	입주식, 3옥타브, 37건	1	1	1				
		3) 철금	입주식, 3옥타브, 37건	1				-1		
		4) 철금	책상용, 1옥타브 1/2	3		3		3		
	3. 건반악기	1) 피아노		1	1	1				
		2) 오르간	64건	7	7	7				
3) 멜로디언			6		6		6			
4) 아코디언		3옥타브	1		1		1			
5) 전자오르간		64건	2	1	1		-1			
4. 악기	1) 단소		26	16	26		10			
	2) 장구		13	10	13		3			
	3) 북		6	5	6		1			
	4) 징		6	5	6		1			
	5) 팽파리		6	6	6					
	6) 소고		26	13	2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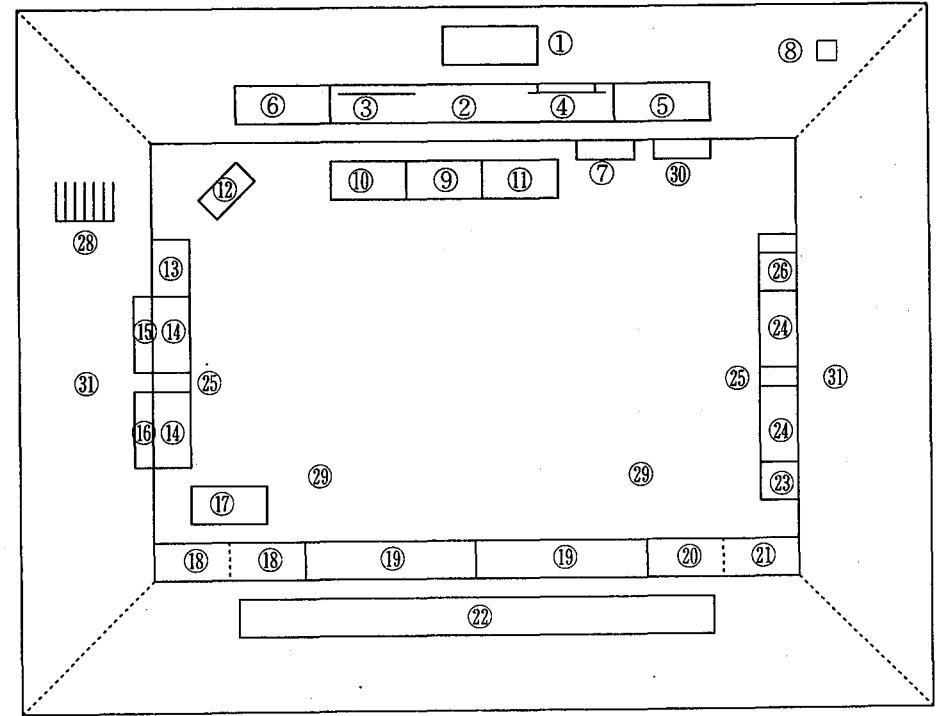
교과	영역	교구종목	규격	기준량	표준	표준	과	지 원		
					학교전	학교후		부족	표준	교비
미	1. 회화	1) 화판	4절	26		26		26		
		2) 판화잉크주걱		4		4		4		
		3) 판화로울러	길이 120mm 고무	4		4		4		
		4) 판화잉크판	300×300mm 이상, 유리	4		4		4		
		5) 프레스기	4절	1		1		1		
	2. 조소	1) 공작대		2		2		2		
		2) 공굴대	φ50mm, 길이 500mm	2		2		2		
		3) 두께자	3×50×500mm	2		2		2		
		4) 고무그릇	φ150mm이상	10		10		10		
	3. 디자인	1) 색채 표본	전지	1		1		1		
2) 10 색환			1		1		1			
3) 20 색환			1		1		1			
4. 공예	1) 카터		1		1		1			
	2) 초벌구이 가마		1				-1			
	5. 서예	1) 서예용구 세트	중형(붓, 베틀, 문진, 연적, 갈개)	26		26		26		
6. 감상	1) 미술연대표		1		1		1			
실과	1. 생활활배기	1) 상자 모판		7		7		7		
		2) 삽		13	5	9		-4	4	
		3) 레이크		7	1	4		-3	3	
		4) 호미		13	13	13				
		5) 팽이		7	4	7		3		
		6) 모종삽		13	3	6		-7	3	
		7) 물뿌리개		7		3		-4		
		8) 집짐승 사육장	(토끼장, 새장, 닭장)1	1				-1		
		9) 전정가위		13		13		13		
		10) 접칼		13		3		-10	3	
과	1) T자	1,000mm	7		7		7			
	2) 제도용 컴퍼스	3개 1조	1		1		1			
	3) 제도판	450×610mm	1		1		1			

교과	영역	교구종목	규격	기준 량	표준 학교	표준 학교	과 부족	지 원			
								표준	교비	기타	
실	1.2	4) 곱자		1			-1				
	생설	5) 직각자		1	1		1				
	활계	6) 양날톱		13	3	-10	3				
	기공	7) 등대기 톱		1	1		1				
	능작	8) 쥐꼬리 톱		1	1		1				
	및	9) 활톱		1	1		1				
	기	10) 대패		1	1		1				
	구	11) 끌		1	1		1				
	조	12) 장도리		13	13		13				
	작	13) 쇠마치		13		-13					
		14) 절자		3	3		3				
		15) 귀알		13	13		13				
		16) 펜치		13	13		13				
		17) 니퍼		13	13		13				
		18) 쇠톱		1	1		1				
		19) 삼각 줄		1	1		1				
		20) 반원 줄		1	1		1				
		21) 둥근 줄		1	1		1				
		22) 사각 줄		1	1		1				
		23) 평줄		1	1		1				
		24) 바이스		1	1		1				
	과	25) 송곳		13	13					13	
		26) 공작 칼		13	13		13				
		27) 전등갓 실물		1	1		1				
		28) 백열전구 스탠드	전등갓 썬우기용	1			-1				
		29) 나무마치	중형	13	13		13				
		30) 쇠 받침대	중형	7	1		1				
		31) 소형 분무기		7	6	-1	6				
		32) 아크릴 절단용 칼		26	26		26				
		33) 통 퓨즈		3	3		3				

교과	영역	교구종목	규격	기준 량	표준 학교	표준 학교	과 부족	지 원			
								표준	교비	기타	
실	1.2	34) 실 퓨즈		1		1		1			
	생설	35) 고리 퓨즈		26	26		26				
	활계	36) 뜨개 밸브		1	1		1				
	기공	37) 록		1	1		1				
	능작	38) 전기 안정기		13	13		13				
	및	39) 플러그		26	26		26				
	기	40) 수도꼭지		13	13		13				
	구	41) 핀셋		13	13		13				
	조	42) 바이스 그릴		13	6	-7	6				
	작	43) 드라이버		26	26		26			13	
	및	1) 바느질 용구 세트		26	26		26				
	과	4.2	2) 쟁반	2종(대, 중)1조	7	7					
		조	2) 접시	3종(대, 중, 소)1조	7	7					
리		3) 과도		7	7						
		4) 조리용 칼		7	7						
		5) 도마		7	6	-1	6				
		6) 찻잔		7	7						
		7) 찻잔 받침 접시		7	7						
		8) 찻 숟가락		7	7						
		9) 유리컵		7	7						
		10) 포크		7	7						
	11) 계량컵	200cc	7	6	-1	6					
	12) 계량스푼	2종(15ml, 5ml)1조	7	6	-1	6					
	13) 자동 접시 저울		1	1		1					
	14) 풍로	가스용 또는 석유용	7	6	-1	6					
	15) 냄비	중형	7	7		7					
	16) 양분	중형	7	7		7					
	17) 건지기		7	7		7					
	18) 국자		7	7		7					
	19) 화채 그릇		7	7		7					
	20) 집게		7	7		7					

교과	영역	교구종목	규격	기준량	표준		과목	지원		
					학교현	학교부		표준	교비	기타
실	2	1) 목재 실물 표본	4종(육송, 나왕, 미송 합판)1조	1		1		1		
		2) 판자 실물 표본		1		1		1		
공	통	1) 실물화상기	아카데미 7000	7	1	2	-5	1		
		2) 비디오비전	아남29인치	7		3	-4	3		
		3) 엔코더		1		1		1		
		4) 골등게시판		7		7		7		
수	학	1) 모형시계	교수용	13		13		13		
		2) 주사위		26		26		26		
		3) 삼각자		7		7		7		
		4) 각도기		7		7		7		
		5) 1M자		7		7		7		
		6) 컴퍼스		7		7		7		
		7) T자		7		7		7		
미술		1) 이젤		26		26		26		
통	합	교	과	1) 병원놀이 기구		2		2		2
				2) 망원경 모형		7		7		7
				3) 바둑돌		2		2		2
계	기준령 교구 (206종)			1162	417	1099	-63			
				100%	35.9%	94.6%	54%			
	기준령외 교구 (15종)			133	1	124	-9			
				100%	0	93.2%	6.8%			

나. 보통교실 시설 배치도



번호	시설명	번호	시설명	번호	시설명
1	태극기	12	TV, 녹음기, VTR대	23	도서 보관함
2	곡면 칠판	13	교수 자료함	24	사물함
3	스크린	14	공동 자료함	25	다목적 코너장
4	칠판 패도걸이	15	관찰 시설	26	학용품공동 관리함
5	원고, 지도칠판	16	수족관	27	패도걸이
6	모눈, 원고, 도형칠판	17	교사 책상	28	브라인더
7	칠판 털이	18	교사 사물함	29	원탁
8	스피커	19	공동 자료함	30	전자울겐
9	교탁	20	우산 보관대, 청소함	31	선풍기
10	OHP대	21	밀걸레 보관함		
11	실물화상기대	22	골든 게시판		

다. 표준학교 가꾸기 예산 집행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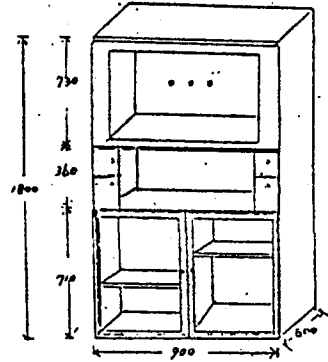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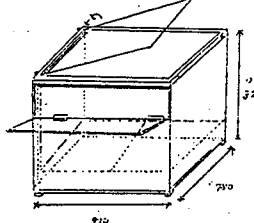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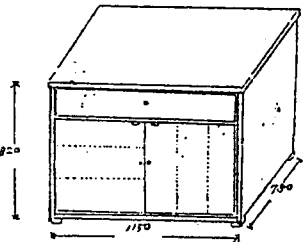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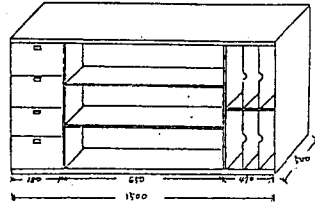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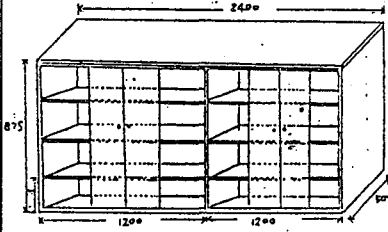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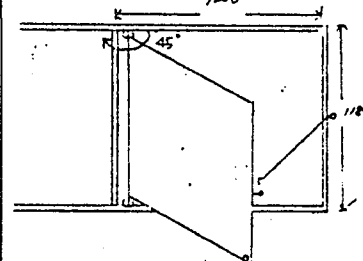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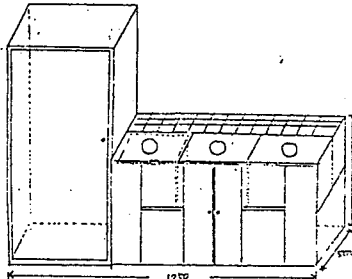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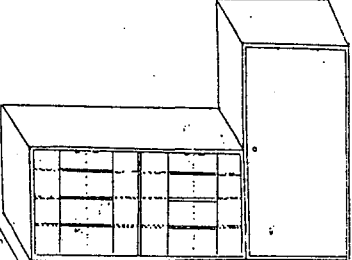
구 분	교구자료명	수 량	금 액	지 원				
				표 준	교 비	청 지원	기 타	
교 실 교 구 자 료	• 태극기	14	156				156	
	• 교탁	7	1,463	1,463				
	• OHP좌대	7	2,660	2,660				
	• 실물화상기대	7	2,660	2,660				
	• TV 보관대	7	2,310	2,310				
	• 보조 칠판	3	390	390				
	• 자료 제작대	6	360	360				
	• 투시 환등기	1	540.8	540.8				
	• 카세트 녹음기	7	2,450	2,450				
	• 스크린	1	100	100				
	• VTR	4	1,360	1,360				
	• 실물화상기	1	2,323.2	2,323.2				
	• 전자오르간의 1종	7조	711			711		
	• 비디오비전	3	4,839	4,839				
	• 기타(8종)		566	566				
	교실측면 (운동장쪽)	• 교수 자료함	7	1,720	1,720			
		• 공동자료함(2)	12	2,400	2,400			
		• 재배상자	6	1,200		1,200		
		• 수족관	6	1,200		1,200		
		• 브라인드	16	1,144				1,144
교실측면 (복도쪽)	• 폐도 보관대	7	910	910				
	• 사물함 보수	7	840	840				
	• 다용도 코너장	11	165		165			
	• 학급 문고함	6	300	300				
교실후면	• 학용품관리함 보수	7	350	350				
	• 골등계시판	7	2,464	2,464				
	• 공동 자료함(1)	12	4,056	4,056				
	• 청소분리수거함	6	2,160	2,160				
	• 교사용 사물함	6	1,810	1,810				
	• 기타(1종)		360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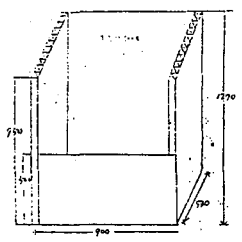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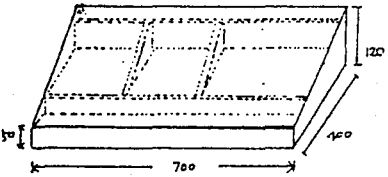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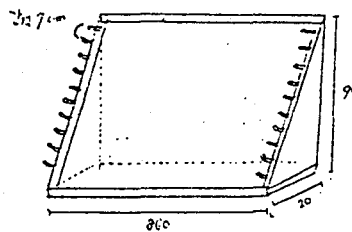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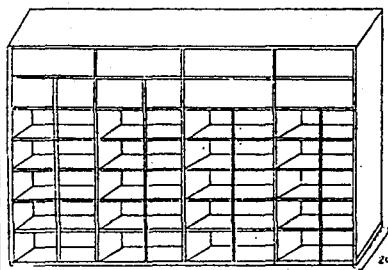
구 분	교구자료명	수 량	금 액	지 원			
				표 준	교 비	청 지원	기 타
특 별 실	복 도	• 지도걸이	3	240	240		
	방 송 실	• 방송책상	1	210	210		
		• VTR테이프 보관대	4	460	460		
		• VTR공테이프	70	140	140		
		• 녹음 공테이프	80	52	52		
		• EBS예체능 자료	3	1,503			1,503
		• EBS영어, 한자 자료	2	821			821
		• 편마이크외 1종	3	91	91		
	컴퓨터실	• 디스켓 보관대	2	300	300		
		• 디스켓	54	243	243		
		• 엔코더	1	660	660		
	자 료 실	• 자료보관대	4	960	960		
		• 자료대 천판	1	100	100		
	복도현관	• 환경 코너 설치	1	500			500
자연자료	• 과학 교구 구입	232	1,938			1,938	
교 과 자 료	공통자료	• TP마운트의 9종		2,067.15	1,035	1,032.15	
	미술자료	• 고무그릇의 15종		2,130.79	2,130.79		
	실과자료	• 뜨개밸브의 43종		1,532.31	1,532.31		
	체육자료	• 곤봉의 9종		862	862		
		• 체육교구 구입	2	260			260
	음악자료	• 단소의 15종		1,491.9	1,491.9		
		• 표준음악교실의 5종	6	323			323
	바생자료	• 바른생활 영상자료	1	301			301
	슬생자료	• 1,2년 슬생 자료	1	570			570
	슬생자료	• 병원놀이기구외 1종		100	100		
목 적 사 업 비	건물유지비	• 담장시설	57m	10,000			10,000
		• 교실 방수 공사	1	3,790			3,790
		• 교사 내외 도색		7,000			7,000
		• 부속 건물 도색		1,200			1,200
	시 설 비	• 창고 개축 공사	1	15,140			15,140
		• 지하수 개발	1	19,000			19,000
	• 교실 난방 시설	5	1,750			1,750	
합	계		120,704.15	50,000	35,971.5	64,807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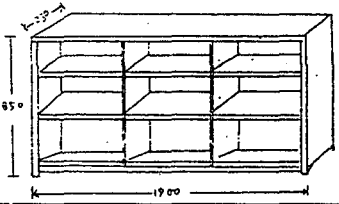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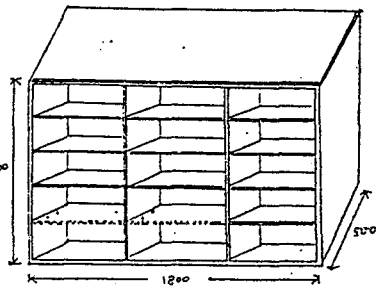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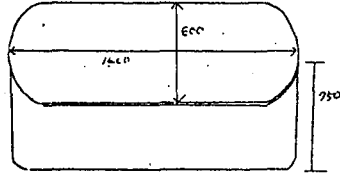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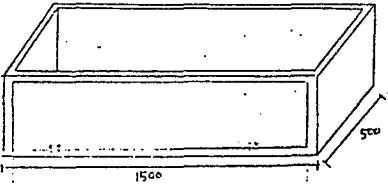
다. 표준학교 교구 제작

단위:천원

시설및 교구명	규격 및 도해	수량	금액	제작관점 및 기대효과
TV 보관대		7	2,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인치 비디오투시 보관가능 • 20인치 TV와 VTR을 사용할 수 있게 함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방송 인입선을 TV와 VTR에 동시연결 • 테이프 보관 가능 • 바퀴 부착
OHP 좌대 실물화상기대		7	2,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탁, OHP대, 실물화상기대를 결합하여 대면학습장으로 활용 • 윗판을 옆으로 놓고 시청각기가 자동으로 올라오게 자동화
교탁		7	1,4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의 서랍과 여닫이 문으로 제작 • 상판에 자료 제작대를 놓아 활용 • 교탁, OHP대, 실물화상기대를 결합하여 대면학습장으로 활용
교수 자료함		7	280 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바인더를 분류하여 보관 • 선반에는 교과별 제작자료(코팅, TP)등을 보관 • 서랍에는 학습지, 용지, 자료 제작 도구 보관

시설및 교구명	규격 및 도해	수량	금액	제작관점 및 기대효과
공동 자료함		12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은 여닫이 체제 • 교과별 학습자료 바구니에 담아 보관 • 배치도를 작성하여 자료찾기에 용이
보조철판		3	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석철판 1장을 2면으로 구분 학년 단지에 맞는 내용으로 제작 • 사용시 45도 각도 유지 • 철판 우측에 고정 • 다양한 철판 활용으로 학습효과 증대
분리수거 청소함 우산 꽂이함		6	2,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함의 높이는 밀걸레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 • 청소 용구함은 키가 큰것과 작은 것을 분리하여 보관 • 바닥에는 밀걸레 받침을 준비 • 분리수거 쓰레기 함은 3칸으로 분리하여 분리수거 • 우산꽂이 밑에는 물받이 통을 설치 • 문은 여닫이
교사용 사물함		6	1,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부분은 전지 크기의 길이가 긴 자료를 보관하고, 낮은 부분은 교사용 도서 및 학습지, 사물을 보관 • 높은 부분은 옷장으로도 활용 • 문은 여닫이

시설및 교구명	규격 및 도해	수량	금액	제작관점 및 기대효과
패도 보관대		7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복도에 보관하여 패도를 보관 • 전면 가로턱을 낮추어 키가 작은 어린이도 활용가능
자료 제작대		6	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작대 위에는 유리판 설치 • 자료 제작대 밑에는 칸막이 함을 두어 교사용 도구를 보관 • 자료 제작 및 교사용 도서 활용 • 이동식으로 장소 이동가능
지도걸이		3	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를 수평으로 걸 수 있도록 제작 • 복도 벽쪽에 설치 • 지도를 대, 중, 소로 구분하여 걸 수 있도록 3개 제작
VTR 테이프 보관함		2	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TR 테이프, 녹음 테이프를 학년 교과별로 구분하여 보관 • 공 TAPE 보관

시설및 교구명	규격 및 도해	수량	금액	제작관점 및 기대효과
디스켓 보관함		2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I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수업에 활용 • 학년-교과-단원별로 분류하여 보관
자료 보관대		4	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35cm를 기준으로 다보를 설치하여 높낮이 조절 • 자료실에 설치하여 자료를 보관 • 상판에는 부피가 큰 자료(국악기)를 보관
방송실 방송책상		1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용 책상으로 활용
관찰시설 재배상자		12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족관은 내부를 유리로 제작하고 외부를 합판으로 제작 • 전면 합판은 열릴 수 있도록 하고 관찰 관점을 기록한다.

라. 교과별 자료 확보

교과	TP자료	VTR자료	코팅자료	파일자료	녹음자료	수집자료
도덕	101	43		12		
국어	199	70	600	48	169	332
수학	239	46	600	22		438
사회	67	49	420	28	4	157
자연	117	75	84	62		247
체육	68	25				143
음악	87	10	320		68	435
미술	112	54	72	45		792
실과	38	36		34		122
바른생활	69	14	146	30	8	30
슬기로운생활	83	37	85	26		133
즐거움생활	133	24	184	23	25	132
공통		134	1,300	120		
계	1,313	617	3,811	450	274	2,961

표준유치원 가꾸기는 그 개요와 설계가 치밀하고, 실천면에서 선진유치원 비교 시찰, 실무위원회 활동, 교육과정 분석에서 교수·학습자료 정비를 위한 교육과정 분석, 영역별 공동자료, 유치원 교실 배치, 유희실과 화장실 배치 등이 독특하며, 예산 집행 내역과 교구 기준령 전·후 비교 실적, 표준유치원 교구 제작 등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투자로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척되고 기준설비 및 교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교사와 유아가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어 교육과정

이 정상 운영되며, 교육과정에 따른 주제별 영역별 다양한 자료가 확보되어 유아가 직접 활동하는 기회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金善鍾 校長은 「표준학교 가꾸기 결과 일반 시설 및 교재·교구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으나 이를 잘 활용하여 교육력을 높이는 것은 교사의 의지와 학교 경영의 효율화에 달려 있다.」면서 「학교 시설 설비 및 교구 설비의 법적 기준령이 교육과정과 직결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6차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필요한 학습자료를 보충·개발해야 한다.」면서 「학교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학부모 교실의 활성화를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정보 1, 2, 3호를 살펴보면, 제1호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변화해 가는 역할, 교육자로서의 부모, 지도자로서의 부모, 카운슬러로서의 부모, 가정관리자로서의 부모 등을 강조하고, 제2호는 「집에서 공부 도와주기」란 주제로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들,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 주려면, 공부하는 분위기 만들어 주기, 공부 도와주는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 지도하기,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치는 것이 좋을까? 부모가 본을 보이자 등을 다루었다.

제3호는 「문제 부모는 누구인가」란 주제로 부모 역할의 두가지 핵심 요소, 빗나간 부모 노릇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자녀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부모, 절제 없는 자식 사랑(과보호와 익애형), 일방적 과잉 통제(독재형), 과소통제(무관심한 방임형)

일관성 없는 훈육을 듣고,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빈도,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영향 등을 분석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해 보며, 자녀와의 좋은 관계는 큰 재산이니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서 유지하고, 자녀를 이해하려고 애쓰자고 강조했다.

또 일관성은 부모의 권위이니 가능한 한 일관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참을성을 갖고 스스로 자재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자고 부모님들을 일깨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월 1회씩 학부모 교실을 열어 한연자 교사가 국어과, 김원강 교사가 수학과를 개별 학습지를 통해 지도하는 방법을 연수하고, 한국화 실기 연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학생 농·어촌 체험학습 사례와 지난 5월3일 실시한 '96학년도 「민속어우렁 한마당」의 33개 경기종목을 비디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교실 수업 참관시 「폭넓은 학습」을 위해 「성실한 수업」이 진행되어 표준학교의 목적 달성은 물론,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했으며,

평소에 실행하고 있는 「주간 교육 과정 운영 일정표」는 열린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金井初等學校의 標準學校 가꾸기는 독창성도 뛰어나지만 學校長이 현대적인 조작 기능이 미숙한 교사와 학생들이 손쉽게 편하게 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독특한 교탁 양 옆에 OHP좌대와 실물화상기대를 설치하고 스크린과 거리를 조절해 놓았으며, TV보관대와 교수 자료함이 가까운 곳에 비치되어 쉽게 작동이 가능하게 배려한 착안점이 높이 평가 받고 있었다. 조작이 어렵고 불편하면 잘 쓰여지지 않은 현실을 충분히 읽고 결단한 教育愛와 教育哲學을 읽을 수 있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靈岩郡 名門學校 만들기 支援 施策가운데 「완전학습 성취 추천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추천한 교사의 수업 과정평가를 하기 위해 장학사와 평가위원이 4학년 수학과 수업연구를 하는데 참관하면서 영암교육청 장학지도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암교육청은 창의성을 조장하고 함께하는 교육행정으로 21세기형 꿈을 심고 가꾸는 인계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열린 교육 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대가 크다고 확신한다.

가장 유능한 자만이 고뇌를 뚫고 나가 환희를 얻는다.
<베에토벤>

人性 中心의 열린 教育을 指向하는 靈山聖地(高等)學校

<교육전남 編輯室>

I.

끝저도 주인이라고 강조한 靈光郡 靈山聖地學校(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각종학교) (校長: 柳元熙·校監: 郭眞英)를 찾았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농촌지역 아이들에게 중등학교 과정이라도 이수시키고자 고등공민학교로 출발하여 1975년 3월7일 영산선원부설 3년제 중등부 개설 후 1978년 12월 29일 영산고등공민학교로 인가되고, 1982년 1월30일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설립인가(보통과 3학급)로 1982년 3월1일 영산성지학교로 개교하였다.

1983년 1월6일 상급학교 입학

학력 인정학교로 지정받고 1992년 6월1일 現 校舍(백수동 길룡분교)로 이전한 후 '92년 7월30일 남자 기숙사를 신축하고, '94년 3월2일 여자 기숙사를 신축하였으며 '96년 2월13일 제11회 졸업생 5명(남3, 여2)을 포함해 총 2백15명을 배출한 학교였다.

재학생은 1학년 남자 19명, 여자 4명 등 23명이었고, 2학년은 남자 17명, 여자 4명 등 21명이며, 3학년은 남자 7명, 여자 2명 등 9명으로 전교생이 남자 43명, 여자 10명 등 53명이었다.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83년부터 '95년까지 2백15명이 졸업했는데, 진학 58명(27%), 회사원 48명(23%), 성직자 33명(16%), 공무

원 12명(5%), 자영업 27명(12%), 기타 37명(17%)으로 다양하고 바람직하였다.

학교 설립 주체는 재단법인 원불교인데, 1986년 농촌지역 학생수의 감소로 한때 폐교를 신청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학교를 맡고 있던 원불교 김현 교무의 제안으로 학생 중심의 인성교육을 하기로 방향을 잡은 후 그 代案을 영국의 「서머힐 스쿨」에서 보고된 여러 가지 성과와 방편에서 찾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오면서부터 오늘의 영산성지(고등)학교로 발전하고 있었다.

각 학년당 1학급씩 총 3학급에 학급 정원은 20명선을 고수하며 현재 학생수는 총 53명, 교사는 모두 10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5.3명이 된다.

영광읍에서 13km 정도 거리의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위치하여,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학교로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으며, 대체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 출신 학생이 75%나 되고, 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 학교에 부적응, 자율과 열린 교육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온 경우가 각각 반반정도였다.

校訓을 「마음을 맑히자, 마음을 밝히자, 마음을 잘쓰자」로 세우고

「정신력의 확립」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救濟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개인 존중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현대사회가 지향해 갈 중심가치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양하고, 이런 관점을 요약해 「모든 학생을 부처로 대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인성교육과 열린교육을 강조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으로 심신의 건강함을 갖춘 건전한 시민을 길러, 열린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일꾼을 기르는 기본 방향에 따라 「교육목표」를 「첫째, 자주적 판단아래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자주적 인간을 육성한다. 둘째,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실현하는 창조적 인간을 육성한다. 셋째, 공동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하는 도덕적 인간을 육성한다. 넷째, 심신을 단련하여 굳센 체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육성한다. 다섯째,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직접 간접의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건전한 시민을 육성한다.」로 정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경영방침은 인성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중심의 교과 운영, 민주시민 정신 함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건설에 두고 있었다.

이곳은 원불교 교조(少太山 朴重彬 大宗師)가 탄생하고 원불교를 창립한 곳이어서 원불교에서는 이곳을 靈山聖地라 부르는데, 영산성지 학교란 교명도 이런 관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학생들은 서울(16명), 부산(8), 전남(8), 광주(5), 경기(3), 전북(3), 충북(2), 경남(2), 인천(1), 대구(1), 경북(1), 대전(1), 충남(1), 해외(1)등 각처에서 인연따라 오고 있는데, 요즈음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 조기 유학을 갔다 온 학생도 있고, 미국에 이민 갔다 온 학생도 있었다.

다양한 이유와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친구들과 호기심에 담배를 한번 피운 것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잘잘못이 꼬여서 가출하게 되고 자퇴까지 가버린 학생, 일찍이 조기 유학을 갔다가 적응을 못한 학생, 학습부진으로 학교 생활에 취미를 잃은 학생, 폭력 서클에 가담했던 학생, 공부·공부하는 분위기를 못견뎌 뛰쳐나온 학생 등 복잡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갈등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제풀에 꺾이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진다고 한다. 밖에서 보기에선 언제나 악동 같지만 개개인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힘든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었

다.

II.

본교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인성중심의 교육을 통해 가정을 대신하는 학교였다.

학생 스스로를 인격의 주체로 세우고자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거의 대학생 수준의 자율을 허용하고 두발·복장·흡연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그런 것이 인간의 착한 본성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학생들의 외모는 다양하나, 입학 초기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이것 저것 마음껏 뽐내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내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알고 단정한 차림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과 성적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잘못쓰는 경우 꾸중을 듣고, 교사·학생이 동숙하며 「상시 상담체제」를 갖추고 전일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모든 과정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학교 경영주체가 학생을 수익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목적적 존재로 세우기 위해 자력재정의 원칙아래 5천마리의 닭을 키워 자연란을 생산하고, 전통 도자기 공장에서 분

청자기를 재현하여 그 수익금으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중심의 학습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하는 학교였다.

어떤 일이든 자발적으로 기꺼이 선택한 일은 신바람이 난데, 본인이 공부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갖추기까지는 수업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업중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① 자유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고 ② 학생개개인의 학습능력차를 고려한 사실상의 복식수업을 병행할 뿐 아니라 ③ 교실 수업 대신 노작·체험학습을 희망할 경우 일정범위 이내의 시간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며 ④ 정규 교실 수업은 대체로 오전중에 마무리 짓고 오후 시간은 실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시수의 최소단위로 운영하고 있었다.

능력별 분반 이동 수업은 금년의 경우 정규 수업시수 내에서 영어·수학과에 한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A, B, C 분반으로 편성하였는데 각 학년 4단위중 절반인 2단위×2과목, 총 4단위를 분반에 따라 이동하여 수업을 하고 있었다. 매주 月·火·水·木 4일의 3교시는 분반수업이며, 평가는 각 분반별로 하되 가중치를 곱하여 정기고사에 시수단위 배정 비율(50%)만큼 반영하고 있었다.

방과후 활동은 여가 활동과 자율 학습으로 나누고, 여가활동은 풍물반·컴퓨터반·운전면허반·농구반 등 자신의 취향에 따라 보낼 수 있고, 저녁 자율학습은 참가한 학생에 한하여 학과 보충·심화학습을 밀도있게 지도하고 있었다.

노작활동은 먼저 노작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부터 작업의 종류와 시간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학생의 선택에 맡기고, 매일 아침 4명 이내에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 「계사·도자기 공장·유기능 관련 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작업 시간을 누산하여 개인 생활기록의 자료로 활용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수업은 출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셋째,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으로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하는 학교였다.

학생 자신의 내부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리산 중주등반과 야영활동, 심성개발 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리산 중주등반(극기훈련)은 매년 5월중 실시하며, 누구나 3년동안 3번의 지리산 중주를 하고, 6, 7개조로 나누어 80km에 달하는 행군 전·후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놀랄만큼 많이 변하며, 야영활

동은 봄, 가을 2회 실시하고 있었다. 봄철 야영활동은 대체로 신입생과 재학생이 만나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되며, 금년에는 완도 청소년 훈련원을 2박3일간 일정으로 다녀왔고, 현장학습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1회씩 연중 8회를 유적지 답사·선진 산업시설 방문·교도소 방문·각종 행사참가 등 시기에 맞게 적절히 선택 지도하고 있었다.

방학기간 외에도 독자적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봄·가을에 농번기 휴가와 같은 형태의 휴가를 8일 정도로 개인별·그룹별로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고 짧은 여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나약함과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 강하고 주체적인 자세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넷째, 민주 시민 교육으로 모두가 주인인 학교였다.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청소·설거지·빨래·식당 당번·간식 만들기 등의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먹거리 입을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3학년 학생이 맡은 「사생장」의 주제로 자발적인 기숙사 회의를 열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율을 스스로 만들고 점검해 가면서, 가정과 사회 생활에서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규제나 간섭의 의미를 알게

되며 생활과정을 계획함으로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바탕을 기르고 있었다.

매주 금요일 6교시 부터는 전체 회의 시간인데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이 원할 경우 학생들만의 회의도 진행하며, 회의는 학교내의 모든 일들이 논의·결정되고, 잘잘못을 가리는 사법적 기능까지 포함되어 학생들은 간혹 교사의 지시나 학우의 처신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회의했어요? 회의에서 얘기해요.”라고 당당히 말하고, 간밤에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친구 문제, 수업 분위기 문제, 식당 메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들이 제한된 시간없이 때로는 다음 날까지 연장되어 이어지기도 하는 살아있는 시민교육의 기회로서, 일방적 지시나 통제로부터 시달려 온 학생들이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결과를 심판하는 주체로서 일어서가는 학습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소리 모아 축제」는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데,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해내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적으로 지원하고, 그 내용은 연극·풍트·시화전·춤·노래·장기자랑·먹거리 장터 등 다양하며, 학부모·마을 주민·사회 진출 선배·영산대학

학생들까지 초청하여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하나되는 종합축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자연·지역사회와의 조화로 더불어 함께사는 교육을 하는 학교였다. 학교를 찾아오는 외래 방문객은 학생 입학 상담차 연중 예고없이 찾아오는 사람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연관과 유기농을 배우고자 찾아오는 전국 각지의 농민들인데, 자연관과 유기농업은 ① 환경을 살리고 깨끗한 먹거리로 ② 사람을 살리자는 정신적인 바탕에서 관진영 교감이 창안해 성공한 사업이었다.

본교는 전국 유기농협회 영광지회 본부를 맡고, 주된 지도 작목은 자연란·태양초고추·야채·포도·黑米·다마금미 등인데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환경 살림운동을 선도하고 있었다.

매월 1회 이상씩 마을 도로변 오물줍기·하천변 정화사업 등의 단체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농번기철에는 노작·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을 노력 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속의 당당한 주체가 되고 있었다.

도자기 공장에서는 1천여년전 이 고장의 특산품의 하나였던 「분청자기」를 재현하는데, 학생들은 흙작업·초벌구이·재벌구이·가마불

지피기 등 견습 작업을 도울 수 있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과정에서 재학중에 기술을 다 배우기는 어렵지만,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도자기 만드는데 실패를 경험하면서 문화와 역사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체득하고 있었다.

Ⅲ.

학교내 집단 폭력으로 소년원에 들어간 후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몰린 P군의 경우, 만약 퇴학을 당하게 되면 구속이 될 처지여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마지못해 성지교에 입학했다. P군은 평소에는 암전하다가 술이 한 잔만 들어가면 야성이 표출된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 버릇은 여전하였다. 따끔하게 혼내주고 다시는 술을 못마시게 하면 간단할 것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삐뚤어지기만 할 뿐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에 교사들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애초부터 이 학교는 막는다고 안 할 학생들도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을 인정하였다. 단지 서로 약속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양 만큼만 허용하니 대부분 학생들이 이 약속을 지킨다. 학생들은 조금만 참으면 자신이 원

할 때 원하는 양 만큼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군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조금 많은 양의 술을 허용,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원없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내도록 했다. 그렇게 허락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폭력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다음엔 조금씩 양을 줄여나갔다. 나중에는 굳이 술을 찾지 않아도 되었다. 혹 술을 마시더라도 예전같은 횡포는 부리지 않았다. P군의 술 버릇이 고쳐진 것이다. 이제 술 외에 관심사를 찾게 되었다. 그렇게 하기 싫던 공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조금씩 글쓰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작년 가을 축제인 「소리모아」에 연극대본을 써 낼 정도로 P군의 글 실력이 향상되었다. 자신의 학우와 선·후배 30명이 자신이 쓴 대본으로 연극을 할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인정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P군은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글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한다. 뛰어난 극작가를 꿈꾸는 것이다.

언제부터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 K군의 경우, 부모의 권유를 몇번이나 정신병원에 다니

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입학하게 되었는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온통 두려움과 열등감 뿐이었다. 이곳 교사들은 K군에게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학교내 행사 중 작은 일부터 맡기기 시작하였다. 남들이 봤을 때 별 것 아닌 일이라도 하나씩 해 나가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기리라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K군은 행사를 며칠 앞두고 번번히 도망가곤 했다. 두려웠던 것이다. 물론 찾지 않았다. 언젠가 돌아 오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조한 것은 오히려 K군의 부모였다. 다시 K군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려는 것이다. 교사들은 K군의 부모를 극구 말렸다. 어떻게 자식보다 병원과 약을 더 믿고 의지하냐며 이왕 학교에 맡긴 이상 기다리라고 설득한 것이다. 결국 K군은 학교로 다시 돌아와 또다른 역할이 주어졌다. 이번에도 다시 도망갔다. 몇번이나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 낸다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과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 K군은 절대로 숨지 않는다. 피하지도 않는다.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자기 자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펼친다.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온 것이다.

졸업생들의 교육성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강문희(현21세 : '94년 졸업)

어머니와 사별한 후 아버지가 양육하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새 어머니가 들어오자 방황하고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아버지께 대한 배신감이 높아 가출을 시도하였으며 연합고사에 불합격 하였다. 성격은 온순하며 자신의 아픈 점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점이 돋보였다. 1학년에 입학한 뒤로는 아버지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다른 남학생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였다. 기숙사 생활 지도와 개별 상담 지도, 편지 상담 등을 통하여 아버지의 삶과 본인의 삶을 다시 한번 깊게 인식시키는데 노력하였다. 기숙사에서 대화를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본인의 열등감, 소외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의지가 생겼다. 현재 송원전문대 간호학과 2학년 재학중이며 1년에 2, 3차례 본교를 방문하고 있다.

2) 이형화(현22세 : '94년 졸업)

여상 재학 중 가출하여 유흥업소에 취업하고 가출이 잦았던 학생이었다.

본교 입학 후 3개월 다니다 다시 학교를 나가 유흥업소에 취업하여 선생님들이 직접 데려와서 학교를 다니게 하였다. 두번째 학교를 다닐 때에는 선생님들께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으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였다. 언제든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꾸짖기 보다는 호소하고 설득하는 태도로서 학생들 스스로 삶의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학교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유도하며 현재는 서강전문대 관광과 2학년에 재학중이다.

3) 권경두(현22세 : '95년 졸업)

집안이 부유하고 독자로서 과잉보호속에 자라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고 게으르며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특히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학교에 갈 때는 반드시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어야 했으며,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등교를 거부하고 부모님들 괴롭혔다.

본교 진학 후, 체계적인 용돈 관리로 생활 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였으며, 부모님과 수시로 전화하여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생활에서도 산만하고 게을러서 학생들에게 빨래를

시키기도 하였다. 본교는 기숙사 생활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3학년 때에 휴학시켜 다시 1년을 더 다니게 하여 생활 지도에 주력하였다.

졸업 후에는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기술학원에 입학하였으며, 현재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능공으로 취업하였다.

4) 이윤석(현23세 : '95년 졸업)

약삭빠르고 변명이 많으며, 학생들을 잘 선동하는 성격이고, 남에게 보이는 자리에서는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구타도 하였다.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 지도에 주력하였으나 변화가 없어서 2학년을 3년간 다닌 후 3학년에 진급할 수 있었다. 지도가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님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이의 교육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친척들에게 창피하여 지방대학에 다닌다고 거짓 행동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중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서 거짓말을 잘 했는데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다보니까 점점 실 자리가 없어졌으며, 전체 회의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을 받아 전교생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부모님과도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였다. 현재는 충남대 성악과 2학

년에 재학중이며 모교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고 후배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는 중이다.

5) 안재영(현20세 : '96년 졸업)

성격은 유순하고 책임감이 강하나 즉흥적이고 사람을 잘 믿지 못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했고, 어린 아이들을 협박하여 돈을 구하기도 하고, 본드 흡입 경험이 있어서 아버지가 놀라서 때리고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가 풀었으나 아버지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커져서 더욱 더 일탈된 행동을 하자 다시 정신병원에 보내졌었다.

본교 입학 후 온순하고 착한 성품이 드러나고, 선생님이나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강했으나, 개별지도·상담지도에 의하여 차츰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시각을 참아내지 못하고 더 어긋난 행동을 했었다. 상담시에는 최대한 본인의 본래 유순한 성품을 강조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배려하였다. 부모님과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현재는 전남전문대 환경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다.

IV.

영산성지(고등)학교의 운영은 재

단법인 원불교에서 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은 없고, 정부의 지원도 없기 때문에 철저한 자력갱생이었다. 학생들로부터 매월 기숙사비로 17만원과 1기분 17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는 것이 전부고, 나머지는 자연란을 팔고 도자기를 만들어 판 수익금과 약간의 후원금에서 확보되고 있었다.

공교육으로서 성격이 분명하고 더욱이 사회적 모순이나 교육제도의 부작용이 만들어 낸 부적응 학생들을 거둔다는 점에서 특별교육비 지원이 필요한데 「각종학교」로 인가되어 예산 지원이 없고, 원불교 재단에서 재정 지원이 없으니 圓佛敎靈山大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영산성지(고등)학교도 원불교영산대학 처럼 초현대식 건물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고 교육적인 성과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했다. 현재 본교 여학생 10명은 원불교 영산대학 기숙사에서 수용하고 있지만, 학교 시설이 열악하고, 현안과제를 지난 6월7일 安秉永 교육

부장관 방문시 건의하고 있었다.

현안과제는 시급한 기숙사 증설, 여가 선용 시설 확보, 교사근무 여건 개선, 정책적·제도적 지원 등인데, 표준학교 정도의 시설 환경이 시급하고, 헌신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기르고 있는 교원 봉급 인상이 절실했다. 국력과 국가 재정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이다.

방송 보도도 「제도권 교육과는 다른 이색 학교」「사다리가 되어주는 학교」「대안 교육의 현장, 사랑의 학교」「사랑의 학교 열린 교육의 현장」 등 13회 하였고, 각종 지면 보도도 「부적응 학생 환영하는 영광의 성지고등학교」「꽃피도 기죽지 않는 인성교육장」「성적보다 인간이 먼저다」「한국판 서머힐 스쿨 영산성지고등학교」「꽃피도 주인 인성 되찾는 배움터」 등 20회 되었지만 특별한 지원이 없었다.

이제 원불교 재단과 교육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간 교육의 모델학교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확신한다.

행복은 사람을 이기주의자로 만든다.

<톨스토이>

名門高로 자리 잡아가는 光陽高等學校

<교육전남 編輯室>

1.

지난 6月27日 진로 문제 조사를 위한 표준화 검사 및 학부모 설문 조사차 光陽高等學校(校長:趙湘元·校監:金重培)를 찾았다.

과거 「실력없는 학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 지역 명문고로 부상하여 지역민의 큰 화제가 된 연유를 알아 보았다.

그동안 광양고는 전남권 읍·면단위 高校에서 하급 수준의 학교로 취급되어 학생들은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져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자포자기 상태에서 탈선하는 학생이 많았다.

또한, 광양지역에서 실력이 우수한 중학생들은 순천지역으로 빠져

나가 신입생 모집에도 큰 차질을 빚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3학년 학력 수준은 전남권 군 단위에서 최하위로 평가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지난 '94년 9월1일 就任한 趙湘元 校長은 실태를 파악한 후 「名門光陽高 育成을 위한 3個年 計劃」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해 학사운영의 중점을 3학년 학생들의 진학에 두고 진학실 5명의 교사를 순천권에서 영입해 담임으로 배정했고, 학생들은 정규 수업 이후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으로 밤 12시까지 자율학습계획에 따라 공휴일과 방학도 반납한 채 끈질긴 노력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해 전기대학 입시에서 19명의 합격생에 비해, 올해는 4년제 대학에 1백6명의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켜 지역 명문고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특례입학(박종민 : 연세대 상경계열)과 단국대·광원대·명지대·경기대 등의 수도권 대학은 물론 전남대·조선대·순천대 등 전남지역 내에 많은 합격자를 내어 그 실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후기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하여 졸업생 1백88명 전원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어 광양고의 개교 이래 최대의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지난 5월30일 광양청년회의소 成東一 會長은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名門校로 發展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業績이 至大하다」는 功勞牌를 趙湘元 교장에게 수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趙교장은 「광양인의 자존심으로 광양고를 명문으로 가꾸는 데 동참해 준다」면 「교사들이 정성어린 사랑으로 질높은 교육과 학생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名門高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II.

광양고등학교는 1986년 3월16일 설립인가(15학급)되어 1987년 3월

12일 개교 및 입학식을 하였고, 1989년 10월14일 학칙 변경 인가(18학급)되었으며, '94년 9월1일 제5대 趙湘元 교장이 就任한 후 '96년 2월10일 제7회 졸업생 1백88명을 포함하여 총 1천4백83명을 배출한 학교였다.

재학생 7백89명을 18학급 편성하여 교직원 48명이 가족처럼 보살피고 있었다.

재학생 7백89명은 광양읍(452), 동광양(87), 옥곡(17), 옥룡(23), 봉강(35), 진월(19), 진상(3), 다압(11), 순천(5), 여수(21), 여천(9), 기타 도내(5), 도외(5) 등으로 분포되어 있고, 학교 위치는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75번지로 학교 앞 도로를 읍기고 운동장을 정위치로 확보해야 하는 현안과제가 있었다.

교원 41명의 평균 연령은 42세이고, 교육경력 평균은 16.5년으로 질 높은 수업을 기대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었다.

교직원 모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으로 불철주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일요 자율학습, 밤 12시까지의 심야 자율학습, 보충학습, 우수학생들의 심화반 운영 등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수많은 학습 시간의 투여와 학교의 노력은 도내 어느 학교에 뒤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면학 풍토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

다.

학교 위치에 따라 교정이 비좁기는 하지만 내부의 교육 시설면을 살펴보면 보통교실(18실), 관리실(3.5실), 특별교실(10실), 수세식변소(31칸), 숙직실(1동), 창고(2동), 실습실(1동), 급수대(2식), 생활관(14실)등 도시 명문학교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금년도 표준학교 가꾸기 대표 학교로 선정되어 교실 분위기가 일신 되었으며, 깨끗한 교복에 밝은 표정의 학습 태도가 너무나 진지해서 여학교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趙교장은 「1년 전에는 '학교에서 무엇을 하며 놀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하고 공부에 재미를 느껴가고 있다」면서 「제가 이 학교에 취임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우리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소설로 쓰라고 한다면 실로 10여편을 쓸 것 같은 심정이고, 금년 일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에서 교육의 보람을 가슴 가득히 느끼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어서 「학생들에게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도록 여러가지 자극을 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학생들이 한량없이 정겹고 사

랑스러우며 자랑스럽다」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는 자부와 긍지로 가득차 있고, 학력은 일취월장하여 도내 어느 학교 못지 않는 실력을 과시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익 작사, 김승일 작곡 교가는 「수려한 백운산의 정기를 받아/ 밝고 푸른 광양만 바라보면서/세게 향해 우리 모교 우뚝 솟았나/새 역사의 선구자 꿈을 펼치며/영원히 빛나리 광양고 광양고등학교//성실한 마음으로 배우고 익혀/새 문화 창조하는 개척자 되어/세계의 등불로서 갈길 밝힌다/면면히 이어나갈 모교의 전통/영원히 빛나리 광양고 광양고등학교」이고, 학교를 상징하는 校訓은 「誠實·創造·奉仕」이며, 校木은 잣나무로 기상·절개·지도를 상징하고, 校花는 동백으로 결백·인내·의지를 상징하며, 校色은 녹색으로 안정·평화·희망을 상징하고 있었다. 학교장 경영관에서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교사와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학생」을 강조하면서 「학교상」을 사랑과 정열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애가 넘치고, 푸른 기상과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학교로 세우고 실천하고 있었다.

「교사상」은 학생을 사랑하고 책임의식이 강한 열성적인 교사와 화합과 관용으로 학생과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사였다.

「학생상」은 지혜롭게 사고하고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과 진취적인 국제 감각을 가지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학생으로 정해 큰 꿈을 심어주고 있었다.

본교 교육목표는 첫째, 인간을 존중하고 질서·책임·협동·봉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학생(民主人). 둘째, 기초·기본교육의 충실로 지혜롭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실력 있는 학생(知識人). 셋째,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 함양과 국제이해교육의 충실로 국제 감각을 가진 학생(世界人). 넷째, 기초 과학 교육의 충실로 과학적 탐구능력을 길러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科學人). 다섯째, 보건·체육의 내실로 심신이 건강하고 명랑하게 생활하는 학생(健康人)등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95학년도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교육 목표 첫째번인 민주인 육성을 위해 명상의 시간 1백회 운영과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2백20회 지도가 돋보였다.

두번째 지식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의 충실과 자율학습 정착이 돋보였다.

세번째 세계인 육성을 위한 시사·계기교육 강화와 화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 강화, 컴퓨터 시스템 기본교육(1, 2년) 등이 돋보였다.

네번째 과학인 육성은 과학경시

대회 참가와 과학교구 확보 계획 수립 및 기자재 구입 등이 돋보였다.

다섯번째 건강인 육성은 전천후 중간체조 실시와 1교 1운동인 태권도를 2백회 지도하여 제7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입상하여 曹圭河 全南道知事로부터 全南 體育進興을 爲한 優秀選手 育成校로 그 功勞를 인정받은 功勞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도 사회체육과와 광양군 등의 지원으로 '95년 8월 60여명의 훈련장을 겸비한 태권도 선수 합숙소를 완공해 태권도 명문고로 부상하여 특기자 대학 진학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목포대학교로 연계 지도되고 있었다.

본교 노력중점인 명문고 육성면에서 면학 분위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2백20회, 수능시험 대비를 위한 보충·자율학습 3백60회 지도, 수도권 대학인 연세대 상경계열 1명을 포함한 5명 진학, 전기대 70명, 후기대 63명, 전문대 74명, 위탁생 자격증 획득 15명 등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교 특색사업인 독서의 생활화면에서 학급 문고제 운영을 위한 학급도서함 17개 배치, 필독도서 1백권 선정 및 100% 확보, 학급별 독후감 발표회 15회 개최, 독후감 쓰기 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다

독자 16명 선정 표창 등이 돋보였다.

생활지도 및 특별활동면에서 기본 생활 습관 지도 2백20회, 안전 사고 예방지도 34회, 음주·흡연 금지 지도 2백20회, 학교주변 폭력배 순회지도 34회 등 하교 교통 안전지도 2백20회,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 장려상 입상, 전남학도체전 종합우승(급4), 실험·실습을 통한 사고력·탐구력·문제해결력 신장등이 돋보였다.

지원관리면에서 학습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10회, 자율·보충학습의 효율적 지도 2백20회, 교사·학생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민주적 교무 운영, 교원연수 및 공개수업 18회 실시, 수세식 변소 증축 및 수리 23칸, 전기 공작물 및 배전판·조명·보수 교체 2백매 등이 돋보였다.

Ⅲ.

'96학년도 중점시책인 교육목표별 실천내용, 노력중점인 명문 광양고 육성, 특색사업인 독서의 생활화를 살펴보면, 민주인 육성을 위해 맑은 심성 계발로 애국조회·명상의 시간 운영·우리 고전 읽기·생활일기 쓰기·보은 자성의 편지 쓰기가 있고, 예절 및 효행 생활화의 내면화를 위해 기본생활습관 형

성, 바른 인사·바른 행동·고운말씨 생활화, 예절 교실 운영, 경로 효친의 날 운영 등을 실천하고 있었다.

정서 교육의 충실을 위해 명시명구 외우기 및 낭송회 개최, 명곡 감상, 음악 교육 운영의 내실(가창력 배양·합창부 조직 운영·1인 1악기 지도), 미술 교육 운영의 내실(교내 환경 계획 수립 및 실행·교내 미전·교외 미술대회 참가)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라 사랑 교육을 위해 국기·국가·국화 사랑 운동 전개, 이달의 문화인물 교육, 국경일 및 명절의 계기교육 등을 하고 있었다.

민주 시민 자질 향상을 위해 준거집단 활동 강화, 학생 야영 수련 활동, 학생 생활규범 제정 및 실천, 백운산 등반활동 활성화, 모범학생 표창 등을 하며, 협동·봉사활동 강화를 위해 사랑의 나눔 활동 실시, 불우 이웃 돕기, 어머니회 운영 활성화 등을 실천하고 있었다.

환경 보전교육 강화를 위해 환경 기본 교육 강화, 맑은 물 지키기, 쓰레기 분리 수거 습관화, 근검·절약 저축의 생활화, 자연보호 봉사대 활동의 활성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지식인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 정상 운영은 수업일 수(220일) 확보, 교육과정 이수 단위 및 배당시간 준수, 교과별 협의회 활성화, 공정

한 평가 관리 협의체 운영, 실기 평가의 합리적 운영, 6차 교육과정의 합리적 운영, 교육개혁 홍보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우리학교 달라져야 합니다' 교직원 탐독 등을 실천하고 있었다.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을 위해 능력별 개별 학습 강화, 단위별 필수 학습요소 지도, 생활영어·생활한문 교육 충실, 전국 모의고사 실시 및 분석 철저, 학습 부진 학생 개별지도, 자율학습 정착 등을 실천하는데 교사들의 정성이 돋보였다.

개성교육의 신장을 위해 학생회 활동 활성화, 방과후 교육활동 전개, 클럽활동의 다양화 등을 하고, 교수·학습 및 연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수·학습 지도의 충실, 교육 연구 및 연수를 자율적인 철저를 실천하고 있었다.

교육평가의 작성 및 개선을 위해 실험 실습 실기평가의 적정, 서술형 주관식 평가 강화, 다양한 시상제 실시, 영어 듣기능력 평가 강화, 영어대화대회 참가 등을 실천하며, 진학 및 진로지도를 위해서 진학지도 계획 수립, 대입모의 수학능력고사 실시, 대입 본고사 모의고사 실시, 비진학생 진로지도 등을 과학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었다.

세계인 육성을 위해 국제화 교육으로 시사·계기교육 강화, 세계화

코너 설치운영, 회화중심 외국어 교육 강화, 각종 경시대회(영어·불어·독어)참가, 어학실 활용 활성화, 내 고장 내 학교 자랑 발표대회 개최, 원어 및 영어 보조교사 활용 등을 실천하고 있었다.

정보화 대응교육 추진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 기본교육, MS DOS 교육, 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PC경진대회 참가 등을 하고, 통일교육 충실을 위해 한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통일 글짓기·통일 토론대회를 개최하며, 생애학습 교육을 위해 진로·직업 교육 강화, 주제적 자기 학습력 배양에 힘쓰고 있었다.

과학인 육성을 위해 실험·실습교육의 충실은 과목별 실험 지도계획 수립, 필수 실험단원 실험 충실, 과학 교구 확충, 탐구능력 평가 척도표 작성 활용, 과학실험 평가자료 활용 등을 하고, 과학 교육 여건 조성은 시청각 기자재 정비·자료 구입, 실험 재료 구입을 위한 육성회비 5% 예산 확보, 교내방송 운영, 기자재 점검 및 수리, 실험·실습 실시 내용 누가기록을 하고 있었다.

과학의 생활화를 위해 과학주간 행사 실시, 각종 행사 실시 및 참가(과학퀴즈 대회·과학경시대회·교내경시대회·자연탐구대회), 과학도서 읽기, 발명품 아이디어 모집,

해양 탐사교육 충실, 환경교육 충실을 기하고 있었다.

건강인 육성을 위해 보건·체육교육의 충실은 체육과 시수 확보 및 영역별 균형지도, 단위별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 작성 활용, 체육 시설 및 교구 확충, 건강기록부 관리 및 활용 등을 철저히 하고 있었다.

기초체력 단련은 전천후 중간체조 실시, 교내 육상경기대회, 학교간 육상경기대회 참가, 교내 체육대회, 체력 검사, 1교1운동(태권도) 지도 및 각종 대회(전국체전 전남 예선·학도체육대회·전남 태권도 선수권대회·전국대회 등) 참가를 하고, 건강·위생관리 철저를 위해 보건·위생 연간 운영계획 수립, 양호실 운영계획 수립 및 실천(요양 및 학생지도·약품 구입·교사내외 주변 소독), 각종 검사 및 예방접종(간염·일본뇌염)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교 노력중점인 명문 광양고 육성은 학부모 및 지역인의 인식이 인근의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 시켜야 한다는 막연한 선호의식으로 우수 중학생의 순천시 유출이 많고, 지역 중학교 진학 담당자 인식이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진학이 훌륭한 진학지도라는 잘못된 편견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의식은 지역의 학교라는 뒤떨어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잘못된 인식과 좌절의식 속에 있어서 名門高 육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1차년도('95학년도)는 진학 분위기의 조성으로 자율학습 습관 형성과 학생의 자긍심 고취를 하고, 진학생 학습 의욕을 고취하였다.

2차년도('96학년도)는 진학지도의 효율성 제고로 자율·보충학습의 정착과 심화반 운영의 효율화, 진학지도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3차년도('97학년도)는 진학지도의 정착을 위해 수능·본고사 지도의 철저, 과제중심의 토의학습, 진학지도 90% 달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의 인문계고교 최대단위 이수, 자기 성취목표 설정으로 자각 학습 능력 신장, 면학 분위기 정착을 위한 학습 습관 형성의 지속적 지도, 보충·자율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력별 보충수업 실시, 심화반 운영의 효율화, EBS방송 시청 지도 철저, 학습 부진학생 특별 보충수업 실시 등 효율적인 진학지도 방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본교 특색사업인 독서의 생활화는 학급문고제 운영, 필독도서 1백권 선정 지도, 학교 도서실 운영의 활성화, 개인 독서록 구비 및 활용, 교내 독후감 쓰기 대회, 다독자 표창 등을 통해서 책 읽는 습관이 몸

에 배어 학습력이 높아 지고, 독서를 통해 폭넓은 지혜를 얻고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정성을 쏟고 있었다.

독후감 작성과 신문 사설 분석을 통해 이해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독서를 통해 고등정신기능이 계발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효를 거두며,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인생과 사회에 대한 식견이 길러져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교육과정 운영 단위 배치와 교과별 운영 계획이 치밀하고, 생활지도의 실태 분석과 시사점, 세부 실천 계획 등이 실천되고 있었다.

특별활동은 학급활동, 실태 및 시사점, 연간 지도 계획, 학교활동, 클럽활동의 태권도부·과학부·미술반·합창단·준거집단·영어회화반·독서반 등이 상설 활동하고, 일반 클럽 Y-teen부·과학부·영어회화부·사물놀이부·미술부·문예부·컴퓨터부·태권도부·독서부(19개반)등을 27명의 담당 교사가 열심히 지도하고 있었다.

단체활동은 극기훈련, 탐사활동, 안전구조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종합훈련 등 시간을 확보하여 1, 2학년을 중점 지도하고 있었다.

지원관리면에서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내장학의 활성화,

표준학교 가꾸기, 내 고장 명문학교 가꾸기, 교육발전공동협의회 운영을 하고, 교원연수, 시설관리, 학습자료관리, 각종 위원회 조직 운영 등 민주적인 학교경영에 힘쓰고 있었다.

IV.

'96학년도 진학 지도 계획을 살펴보면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켜 희망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다.

보충학습을 1, 2학년은 학기중 수능교과 매월 40시간(주당 10시간), 여름방학 1백시간, 겨울방학 1백20시간을 확보 지도하고, 3학년은 학기중 수능교과 매월 40시간, 여름방학 1백20시간, EBS 생방영 매일 22:20~23:40, 일요일 녹화 방영을 13:50~15:00까지 하고 있었다.

자율학습은 1, 2학년 전체 학생이 19:00~21:00까지 매일 2시간씩 연중 실시하고, 3학년은 평일 19:00~23:40, 토요일 13:50~18:00, 일요일과 공휴일 09:00~17:00까지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화학습은 1, 2학년 학력 우수 학생 1백명을 각각 선정하여 국어·수학·영어를 21:10~23:00까지

매일 2시간씩 연중 지도하고, 3학년은 학력 우수학생 80명(인문 40명, 자연 40명)을 계열별 수능교과만 21:10~22:00까지 매일 1시간씩 연중 실시하고 있었다.

평가는 1, 2학년 교내 평가 연중 4회, 교외 평가 연중 5회(3.27, 4.23, 6.19, 9.19, 11.8), 수능 모의고사 결과분석 교과협의회 연중 5회를 실시하며, 3학년은 교내 평가 연중 4회, 교외 평가 연중 7회(3.27, 4.23, 6.19, 8.30, 9.10, 10.2, 10.25), 수능 모의고사 결과분석 교과협의회 연중 7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校誌 第5號인 「光陽」은 국판 2백74쪽으로 편집되어 있고, 표지와 목차 컷을 박형걸 교사 작품으로 해서 「명문 광양고 육성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란 조상원 교장의 권두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자」는 김중배 교감의 격려사, 「궁지와 자부심을 갖자」는 학생회장의 회고사, 교사논단, 학생논술, 교양·기타, 해외 여행기, 졸업생 특집, 외국 문학 산책, 광양 문단, 교사문예, 만화, 시 19편, 수필 8편, 기행문 2편, 독후감 5편, 서간문 8편, 익살코너, 소설, 교직원 주소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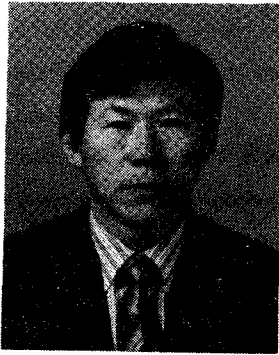
졸업생(제7회)명단 등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좋은 作品들이었다.

3학년 조혁 군은 詩 「우리 실장 진환이」를 「그리 크지 않는 키지만/웬지 크게만 보이는 진환이// 어디에선가 늘 본 것같은/은근하고 촌스러운 친밀한 얼굴//롱다리에 딱 벌어진 어깨/버티고 선 저 모습을 보아라/그의 팔을 보아라/우람찬 근육과 저 큰 손을/언젠가 지구를 그의 품에 안을 것 같으니//저토록 믿음직한 사나이/그가 바로 우리반 실장/진환이……」로 표현했으며, 이병악 교사의 「그리운 아버지」란 時調는 「지나간 후에서 답답이 그리운 정/사무치는 이 마음을 배어 내어 새겨 보니/가신 님 고운 손길 짚으로 피어나네//악귀가 탐할세라 고드름에 다칠세라/생각고 생각하다가 이름도 병악이라/떠오르다 지워지는 그 모습 붙잡을까//가시고 난 후에서 이토록 간절하여/거룩하신 그 모습 흐름속에 영원하나/歸不歸 아버님을 애달다 어이하리」로 表現되어 있었다.

마음을 나타내는 좋은 글들이 학생들의 큰 꿈과 스승의 인간다움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特殊學級 擔當教師를 爲한

同僚獎學의 模型 探索



金 上 門

(全南道教育廳 獎學士)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케 하는 작용이며, 아동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교육의 대상이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한다면 아동각자가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교육적 욕구에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와도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특수교육은 정상아동보다 심신의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더 강조된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아동의 이러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1980년대에 들어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시작한 이후 1991년 현재 3,248개 학급을 두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대상아동의 75%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800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교육부, 1981). 이러한 특수학급의 급격한 팽창은 장애아동에게는 교육기회가 다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질도 동시에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보다도 특수아동의 발달 심리와 특성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과정의 개발과 작용 개인차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조치, 일반학급과의 교육적

통합기술을 지녀야 하는데 현재 특수학급을 담당한 교사들은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광웅(1983)이 조사한 특수학급에 대한 장학지도 실태를 보면 특수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장학지도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35% 교사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65% 교사는 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임호(1989)와 양성언(1988)도 특수학급에 실시하는 장학지도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부(1985)의 특수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의 문제점으로 특수교육의 장학 기능이 미약하고 전문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삼환(1988)은 장학활동의 문제점으로 첫째, 학습지도 보다는 행정관리면에 치우쳐 있고 둘째, 지시·확인 성격이 강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기 보다는 일시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특수교육의 장학지도는 특수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효율성은 낮다고 본다. 따라서 종래와 같은 장학지도로서는 특수교사의 자질과 지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에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료장학은 특수교육의 장학지도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장학담당자의 특수교육에 관한 장학활동이 형식에 지나지 않아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이 현장학습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지도 조언을 주로 동료교사로부터 받고 있다(양성언, 1988). 임상 장학 담당자로서 동료장학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게 하며 동료 교사 사이에 상호 존경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장이권, 1989). 본 연구는 일반학교내에 설치된 특수학급 담당교사들만이라도 상호장학을 할 수 있는 동료장학의 모형을 구안하고 이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담당장학사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위에 제시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먼저 특수학급에 입급될 아동의 특성과 이에 적절한 학급운영 및 교사의 자질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료장학의 개념과 유형 및 기본과정을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동료장학의 모형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상호협동적인 동료장학을 통해 특수교사의 학습지도력과 자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하

에 구안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교육 분야는 특수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장학실태와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동료장학 분야는 문헌연구에 근거하여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의 현실에 부합되는 동료장학모형을 수립하였다. 모든 연구는 완벽할 수 없으며, 이 연구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에서 구안된 모형 자체가 실제로 교육현장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동료장학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한 것인바 풍부한 문헌연구에 의한 연구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특수교육의 장학활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치 못하여 동료장학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의 폭이 두껍지 아니하였고 또 있다 하더라도 조사연구에 지나지 않아 이러한 제한은 이 연구가 결과적으로 몇 편의 문헌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대상에서 특수학교는 제외하였다. 그것은 특수교육 대상의 차이에 따른 교육내용,

방법, 운영의 성격 등에서 특수학급과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II. 특수교육과 동료장학과의 관계

본 장에서는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을 위한 동료장학 모형을 구안하는데 기초가 되는 특수학급과 특수교사로서의 특성을 고찰하고, 동료장학의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의 특성에 적절한 동료장학 모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특수교육

(1) 특수학급 교육의 성격과 학급경영

특수교육이란 일반아동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도한 결과를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이룰 수 없는 아동에게 특수한 활동을 전개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수용하여 교육하기 위해 조직된 학급을 특수학급이라 한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입급할 아동들을 정신박약아 가운데서도 그 정도가 가벼운 정도 장애아(Mildley handicapped), 교육지체(Educationally delayed) 또는 학습장애아(Learning handi-

capped)라고도 하여 IQ 50~70의 지능과 표준화된 사회 적응력 검사 SQ85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박병란, 임재율, 강선보, 1980). 이와 같은 정의는 검사도구의 적정과 검사 방법의 오류에서 빚어지는 학습 부진아와 혼재될 가능성을 안고 있어 판별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수학급 경영 원리는 일반학급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리이나 특수학급에서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지적, 사회적, 정의적 능력이 정상아동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장애 영역을 보완하는 측면에 학급경영의 중점을 둔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특수학급이란 특수아동의 교육적 욕구에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특성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종합해 볼 때 일반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외에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즉 발달 특성의 이해, 개별화 교육과정의 설계, 일반 학급과의 통합 교육, 특수교육의 전문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은 일반적 지식외에 전문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지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기술, 경험, 그리고 사명감을 동시에 겸비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특수교육은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 정신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숭고한 사명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특수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특수교육에 있어 동료장학의 위상

(1) 개념과 성격

특수학급의 동료장학이란 교사 상호간에 교수 기술향상과 전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특수학급은 일반학교내에 하나의 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특수교육이라는 단일 과업을 추구하는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이 지역내에 혹은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팀을 이루어 동료장학만 실시할 수 있다면 특수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래와 같이 일반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특수교육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지시, 상담, 확인, 평가하는 권위적, 지시적 방법으로서 특수장학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특수학급의 동료장

학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볼 때 접근되고 실현성이 높은 형태의 장학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료장학의 유형

주삼환(1988)의 여섯가지 체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조병호(1981)의 동료장학 유형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첫째, 수업연구 중심 동료장학이다. 경력교사와 초임교사가 상호 수업을 공개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수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거나 Team teaching을 위해 서로 도와 협력하는 형태이다. 이는 임상장학보다 덜 체계적이고 덜 집중적이다.

둘째, 협의 중심 동료장학이다. 동료 교사들 간에 공식적·비공식적 일련의 협의를 통하여 어떤 주제에 관해 서로 정보, 아이디어, 도움, 충고 등을 교환하거나 공동과제와 관심사를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업중심의 협의를 동료교사들의 전문적 발달 영역 중 교과 지도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면 협의 중심 동료장학은 교과외에 행사, 특별활동, 생활지도, 시청각활용, 학부모교육, 지역사회 유대가 협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연수 중심 동료장학이다. 교과별·영역별·소집단 연구·연구시

범 등 자체연수를 계획, 추진, 평가함에 있어 공동연구자로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협력하는 장학을 의미한다.

자체연수 방법으로는 강의식, 토의식 전달식 실습, 현장방문, 견학연수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동료장학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의 독특한 상황과 조건을 갖게 되는 조직체로서의 교사의 자율성과 지역단위 형태의 형편에 따라 교사의 참여에 관한 의욕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특히 동료교사들간에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비공식적 조직들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 동료장학의 기본 과정

동료장학의 기본과정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Stufflebeam(1971)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 평가모델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은 투입→과정→산출외에도 투입 이전의 상황(Context)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CIPP모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평가하는 데는 상황→투입→과정→산출의 각 단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상황평가는 어떤 활동이 전

개될 것인가 명료화하고 그 환경의 바람직한 조건과 실제적인 상황을 기술하고 요구(Needs)하며 이 요구의 충족됨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작업을 통하여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근거를 제시한다. 특수학급을 담당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CIPP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수업 결손이나 잦은 출장은 타교사의 근무와 아동 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적인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계획 수립시 충분히 이를 예상하고 교사들이 원활하게 참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체제모형을 근거로 이윤식과 윤현숙(1989)에서도 계획→실천→평가의 삼단계를 근거로 한 교내 자율 장학이나 동료장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과정을 구분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협동하는 과정을 발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업중심 동료장학모형은 교사의 수업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수립, 수업관찰, 환류협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협의중심 동료장학은 교사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를 통하여 어떤 주제에 관한 경험, 정보교환, 아이디어, 충고 등을 교환하거나 공동문제에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의 과정을 의미한다. 학교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학년·동교과 지역별 협의회 등이 대표적인 협의활동이다. 협의중심 장학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 영역은 교사의 개인적·전문적 학교의 조직적 발달에 관한 전영역을 다룰 수 있다. 이외에 교사의 교육관, 학급경영, 지역사회 문제등 각종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다양한 협의과제가 주제로 등장한다. 이상과 같이 동료 장학모형을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업 협의과정 운영은 학년초에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되어 사전 준비과정에 대한 시간절약의 필요성이 있다. 이는 특수아동을 위한 개인차에 적응하는 지도계획의 실천에 단절을 가져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둘째, 참여교사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과정을 특수담당장학사가 전화공문 형식으로 안내하고 협의하는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계획수립 활동에 투입되는 인적·물적·시간적 낭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특수교사는 지역협의회에 참가해야 하므로 수시 학교를 비우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수업협의 과정의 운영은 연간지침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일반동료교사·학교장의 협조를 사전에 얻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전모임이나 계획반성과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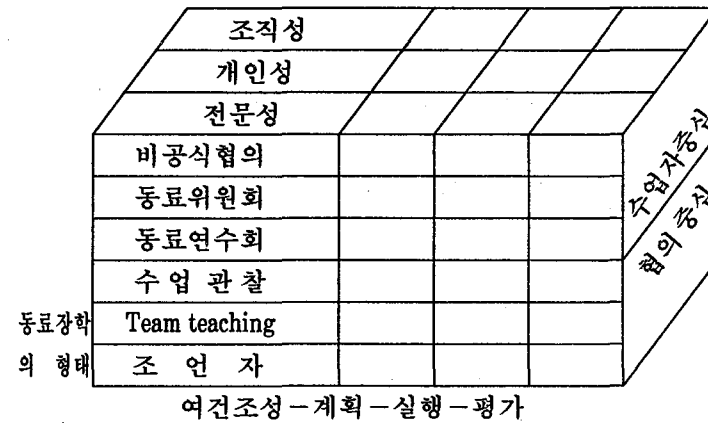
비공식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특수교육과 동료장학에 관하여 논의를 종합해 보면, 특수교사의 특수교육에 관한 높은 수준의 자질을 교육현장에서 동료장학을 통해 기본모형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동료장학의 유형은 누가 주도하느냐와 어느정도 공식적이냐에 따라 2차원의 도표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특수교사들은 단일의 과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동료장학의 기본 형태를 주도성과 공식성에 따른 여섯가지 과정을 대비시켜보았다. 이 표에서 보면 협의중심이나 수업중심이나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식성을 띠었느냐에 관한 구분이고, 장학사의 주도나 교사주도나 하는 것은 협의활동에 가까우면 장학사의 주도이고, 수업활동에 가까우면 교사주도, 즉 Team의 지도자 역할이 추가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수교사 혼자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례들은 행정기관 단위나 지역단위 협의회를 통하여 해결되 장학사의 매개역할로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아동들의 개인차를 극복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수업 개선을 위한 교실수업 중심은 지역

내의 Team의 조언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되 여건조성이나 평가 단계는 역시 장학사의 조력을 받아 순환적으로 모든 교사가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동료장학 기본형태를 동료장학의 기본 과정과 종합하여 보면 동료장학의 기본 모형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기본모형은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의 지역내 혹은 단위 행정기관(교육청)에서 특수교사들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동료장학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는 기본모형이 된다. 즉 위의 세 가지는 장학사 및 Team에 의해 지역 및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협의중심이고, 아래 세 가지는 지역 및 수업자 중심의 연수형태이다. 아래의 동료장학의 기본과정은 동료장학 형태의 4단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서 4단계 과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건조성과 평가단계는 장학사와 Team지도자에 의하여 계획되므로 장학단계에서는 계획-실행의 과정만이 진행된다.

위층의 영역에서는 수업과 협의 중심 과정에서 전문성이 수업의 대상이 되고, 조직 및 개인은 협의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 자율장학의 기본과정

자료: 이윤식과 유현숙(1989) : 전게서,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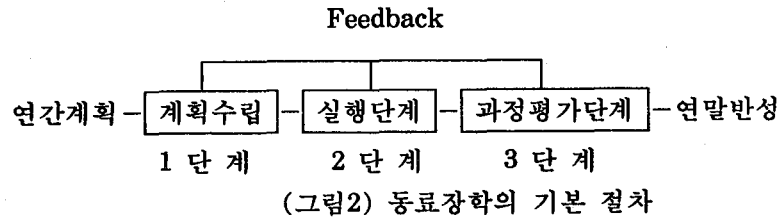
Ⅲ. 특수학급 담당교사를 위한 동료장학의 모형구안

교수·학습 개선이라는 장학의 본질은 특수교육이나 일반교육이나 동일하더라도 장학대상의 차이에 따라 장학지도 방법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장학활동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수교육은 전문 분야이고 일반교육 분야를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일반장학사가 특수교육 분야를 지도한다는 것은 비전문가로 보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장학지도 방법으로 제도화하여 장학 인력의 절감과 더불어 특수학급 담당교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료장학의 모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동료장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역할과 동료장학모형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1. 모형의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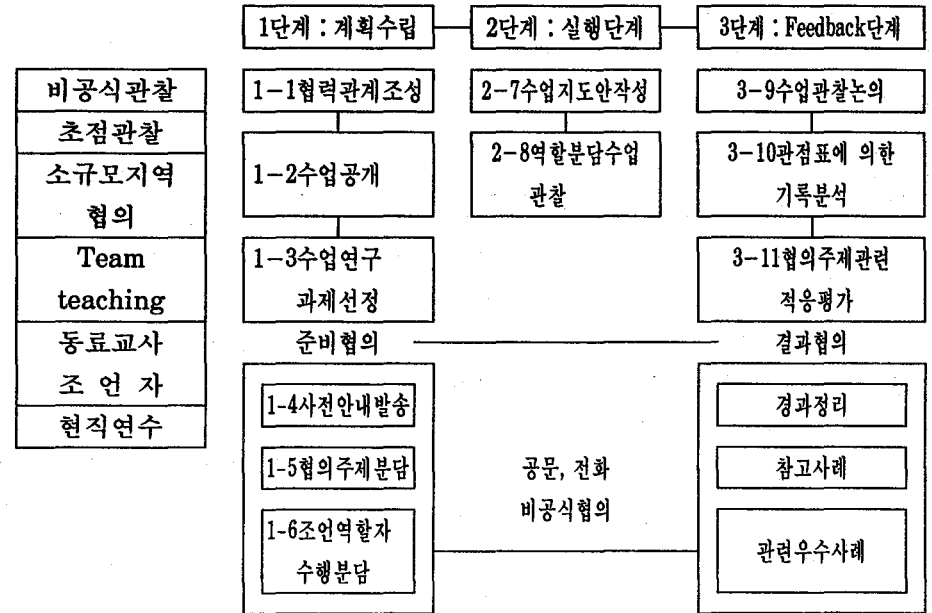
동료장학 모형의 개발 및 적용은 임상장학 활동의 구체적인 실현과정으로서 임상장학 연구의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다. 동료장학에 관한 모형을 개발하려면 우선 모형 개발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자원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그러한 자원을 이미 연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이윤식과 유현숙(1989)의 임상장학 모형으로부터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2」는 이윤식과 유현숙(1989)교내 자율장학의 기본과정(p.55)을 특수교육 동료장학에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과정으로서 전 과정이 주기적으로 순환되며 특수교사들의 연간계획에 의거 교사 자신들의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구안하였다. 이 기본절차는 형식상 5단계나 연간계획과 연말 반성단계는 장학사가 협의과정에서 주관하므로 실제상으로는 3단계 과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3단계라도 전 교사의 참여는 실행단계에서 뿐이고 계획수립-과정평가단계는 장학사와 Team의 지도자에 의해서 주관되므로 교사의 부담은 감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 교사들의 수업결손과 아동 개인지도, 학습지도 및 관찰기록, 자료제작의 과업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는 특수학급의 동료장학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과 절차를 수업중심과 협의중심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수업중심 동료장학

특수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사가 먼저 수업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본시 수업에 관련되 과제해결, 수업방법의 개선, Team teaching을 위해서도 협력하고 분담하는 일들이 전형적인 수업중심 동료장학의 형태이다. 실제로 이 단계는 3단계이나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협의회 운영자, 동료교사 조연자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지고 Feedback 협의회에서도 관찰논의, 기록분석, 문제점협의 등은 소규모 지역협의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업자(발표자)의 공개활동은 그 단계에서만 실시된다. 따라서 수업중심 동료장학활동의 중심적인 연계체계는 지역협의장의 주관아래 전화, 공문 또는 비공식 협의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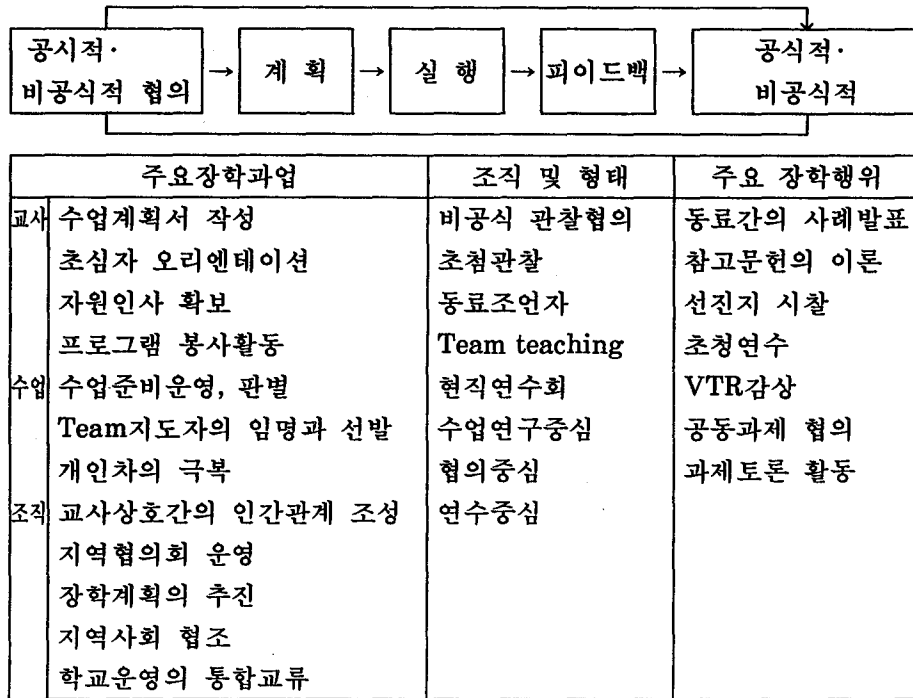


「그림3」 수업연구중심 동료장학모형

(2) 협의 중심 동료장학

협의중심 동료장학은 지역단위로 구성된 소집단의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함께 협의하여 토론하는 동료적 장학이라 할 수 있다(이나미와 윤점룡, 1989). 이는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관점을 비교하여 토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동료들이 장학에 관한 전문적 훈련도 받지 않으며 긴 시간을 사용하지도 않고, 엄격한 협의회 과정도 생략할 수 있고, 공식적 관계도 유지하지 않고서도 운영할 수 있다. 특수교육활동분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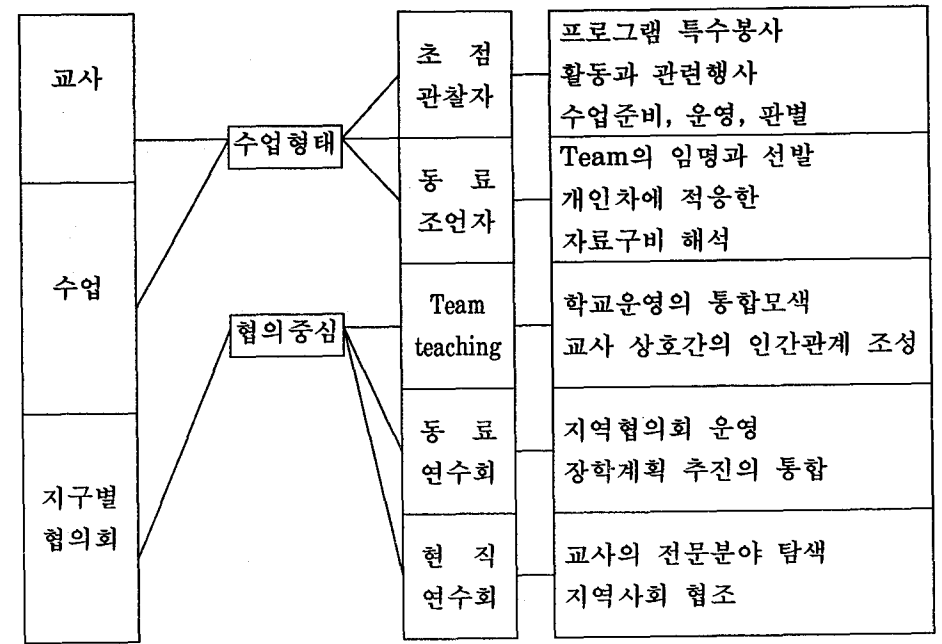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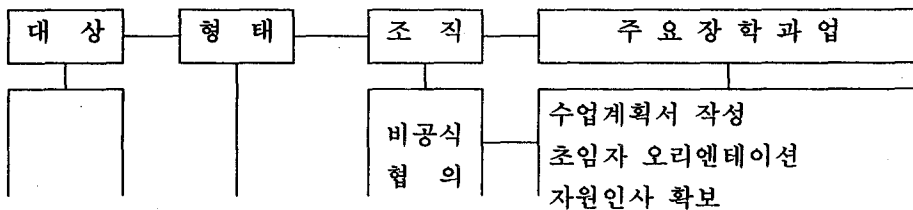
는 교사한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특수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특수교육에 장학 인력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주제영역도 광범하고, 조직형태도 다양하고, 장학행위도 규칙을 정하지 않은 협의중심 동료장학이 현직 연수의 하나의 대안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 중심 동료장학은 「다음표와 같이」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운영되거나 공식적·비공식적 일련의 협의를 통하여 수시 진행되거나 연간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반드시 단계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림4」 협의중심 동료장학의 모형

동료장학은 수업중심과 협의중심 동료장학으로 이루어진다. 수업중심과정은 3단계 11과정, 협의중심은 장학과업과 조직활동으로 전개된다. 환언하면 동료장학과업의 대상은 교사, 수업, 협의활동이며, 형

태는 수업중심과 협의중심이며, 조직은 여섯가지 유형이다. 특수교육 활동에서 전개되는 주요 장학과업은 대상 형태 조직과 관련시켜도 표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5」 특수교육 동료장학의 장학과업

2. 동료장학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

특수교육은 '공식적인 행위'이며 그러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그 절차관리를 위해 엄격한 책무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동료장학을 위해 모형을 구상하고자 시도해 보는 것도 이 책무성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질적인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료장학의 전제조건으로서 장학사의 역할과 학

교장의 지원 그리고 일반학급 교사들의 협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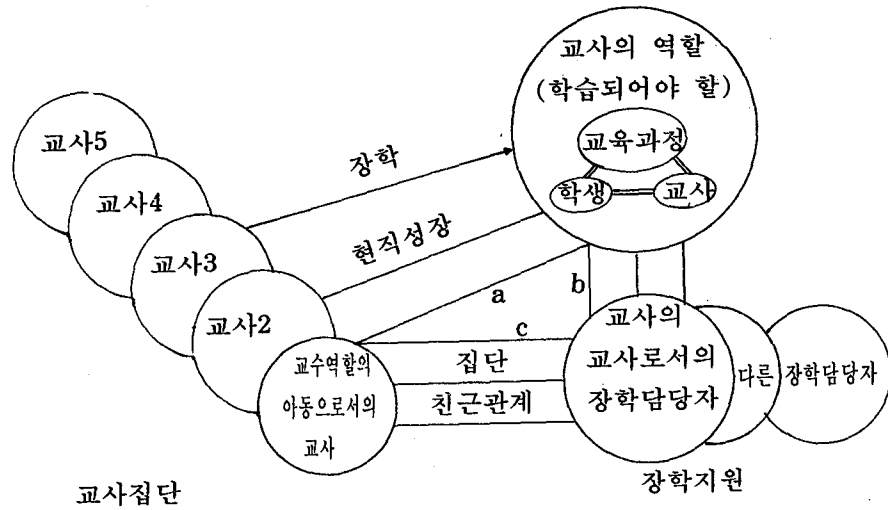
특수교육 장학지도는 특수교육의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측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 봉사활동으로서의 기능수행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전 신장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고 건강하면서도 유용하고 행복한 생활의 기초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 활동은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의 협조, 학부모 지역사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하여 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 상호간의 협동적인 교육활동을 조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

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Katz가 “기술적·인간적·통합적인 기술 자체가 장학이며 인간적인 면이 장학의 기본태도”라고 주장한 바와도 일치한다(오은경, 1985).

Anderson은 장학이란 사실상 교수 역할이라고 제창하고 장학과 교수 역할의 관계를 아래 그림과 같이 발전시켰다(장세진, 1980).



「그림6」 장학담당자의 역할 차원

자료 : 장세진(1980),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연계적 임상장학모형,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p.63

위 그림은 교사들이 교수역할을 잘 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담당자가 행사해야 할 세가지 종류의 지식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수

평차원(Horizontal dimension)에 는 교사들의 욕구를 진단하는 방법과 신뢰에 기반을 둔 친근관계를 확립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빗변차원(Hypotenusal dimension)에는 교사들의 현직성장을 도와주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다. 수직차원(Vertical dimension)은 장학사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지식의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의 역할은 특수학급 및 교사의 장학 과업에 적절하게 인간적 기술, 전문적 기술, 통합적 기술을 발휘하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장학사의 주도성과 교사의 주도성은 수업중심과 협의 중심의 과업 형태 속에서 여섯가지의 장애행위가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진다고 보겠다.

(2) 학교장의 지원활동

특수교육의 성과는 학교장의 지원과 역할 수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특수학급은 독자적인 조직, 교실, 시설,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그의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아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 분리 특수학급은 학교의 프로그램과 횡적 연결을 갖지 못하고 단지 학교내에 교실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독립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수학교나 다른 바 없다. 특수학급을 일반학교에 설치하게 된 것은 실질적 부분통합을 전제로 한다. 특수학급은 학교교육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과 분리의 비율, 그 내용, 방법, 혹은 시간, 공간 및 운영하는 교장의 방침에 의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제가 의미하듯이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이 동료장학을 펴고 있는 것도 학교장의 이와 같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특수학급의 운영은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 속에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학교장으로서 특수학급 지원에 관한 책임과 역할수행을 자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3) 일반학급 담당교사들의 특수교육 이해 증대

85학년도부터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학급아동들의 원적을 일반학교에 두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이원화 조직을 일원화시키기 위함이다. 즉 일반학급 담임이 학급운영에서 학습이나 생활에 문제가 있고 아동을 위해서도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수학급에 지도를 의뢰하고 특수학급은 잠재능력의 개발이나 특정행동의 교정을 통해서 원소속 학급으로 환급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학급만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수 없으며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모든문제를 걸머진 문제해결자가 아니라 일반교사가 여건 부족으로 성취하지 못한 방법적 결점을 보충해 주는 일반학급 담당교사의 조력자임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특수학급 담당교사를 도와주고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과 이해를 가짐으로서 특수교육의 성과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교사들의 동료장학 활동도 그 기본은 일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이해 활동이 특수교육의 장학과업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수 아동이 예체능 수업을 받으러 오거나 혹은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출장으로 인하여 올 때 담당교사의 따뜻한 배려나 언행은 곧 일반아동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자기학급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아동은 모든 생활면에서 적응능력이 낮아 일반아동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소외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일반학급 담당교사들이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때 특수아동들은 건전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의 수업지도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협력장학의 모형을 구안하는데 있다.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동료장학에 있어서 특수교사의 특성과 요구되는 자질, 그리고 동료장학의 필요성과 개념 및 기본 절차를 탐색한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 동료장학 모형이다.

먼저 이론적인 배경에서 특수교육과 동료장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특수교육에서의 교사와 경영의 특수성과 이에 요구되는 자질을 밝히고, 특수교육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장학의 형태로써 동료장학의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동료장학의 필요성을 특수교육의 차원에서 논술했고, 개념과 유형 그리고 동료장학의 절차를 특수학급 담당교사 입장에서 논술했다.

다음으로 동료장학의 접근방식에서 동료장학이 특수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함과 논의하고, 유형·개념·절차를 실제 현장의 적용과 관련지었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동료장학의 기본 절차를 여건조성-계획-실행-평가의 과정을 기본 모형으로 하고, 여건조성 단계에서 교사 상호간의 접촉·연수기회·협의 과정에 관한 계획 수립을 마침으로

서 교사들에게는 성취목표 수준을 제공하고 장학을 추진하고 Team의 추진자로서 사전 준비에 관한 절차를 대비케 하여 교사들이 동료장학연수에 과도하게 시간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계획단계에서는 동료장학의 형태에 따라 수업중심활동이 주된 것인가, 협의중심이 주된 것인가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 참여교사의 활동범위,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행단계에서는 수업중심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수업관찰, Team teaching 조연자로 나뉘어지고, 협의중심에서는 동료위원회, 동료연수회, 비공식 협의에서의 협의주제, 내용에 따른 역할수행을 논의된 사항, 문제의 해결점과 방안, 제시된 의견의 협의사항 및 논의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문, 장학통신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 장소에서 전달되었다. 다음으로 운영의 주체는 지역협의회 또는 ○○전체 협의회 Team의 지도자에 의해 주관되고 추진되는 담당장학사의 역할로서는 영역별 전문 교사의 출장지원, 수업교사 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해결 관련이론과 선행 사례의 정보제공, 소속 학교장의 협조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저해되는 요인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동료장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장학사의 역할, 학교장의 측면 지원, 일반학급

동료교사의 협조라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였듯이 결국 특수교육의 질도 특수교사의 질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 자료, 교육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투입하는 교사의 능력과 태도, 성실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아의 발달 속도나 한계는 정상 능력을 가진 아동에 비해 현저히 저열하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력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기에 특수교육에 있어서 훌륭한 교육이란 훌륭한 교사의 인격, 교육관, 전문적 지식과 소양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면 동료장학은 이러한 훌륭한 교육을 하기 위한 토양을 가꾸는 일이라고 보겠다.

2. 제언

(1) 특수학급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통합시켜 각 학생에 적합한 환경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전담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학급 담당교사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일반교사나 특수교사 교류를 가능케 하는 상호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특수학급 담당교사를 위한 동료장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장학사·학교장 및 일반장학사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격 강습 및 일반연수시에는 특수교육에 관한 강좌를 개설토록 한다.

(4)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일반학급 담당교사와의

상호통합 활동의 저해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특수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특수전담장학관을, 시군 교육청에서는 전담장학사를 배치하여 일반장학활동으로부터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직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친구를 충고할 때는 몰래하고, 칭찬할 때는 여럿이 있는데서 하라.
<보르테르>

☒ 現場研究 ☒

特殊學級の 問題點과 改善 方案



李 在 同

(麗水中央初等學校 教師)

I. 서

우리 나라의 특수학급은 1971년 대구칠성국민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특수학급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 이후 일반 학교에 교육 가능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년이 넘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나 질적인 교육정책 보다는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여 왔다.

최근에 와서 “자료실 교사” “방문교사”제도와 아울러 문제를 가진 아동을 일반학급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합교육 차원에서 진일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운영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판별상의 문제와 특수학급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특수학급 교육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아동에게 “장애”라는 낙인을 갖게 하는 부작용과 교사들이 특수학급에 속한 아동에 대한 인식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본고에서는 특수학급을 운영하면서 느낀점을 토대로 하여 특수학급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특수학급의 운영을 위한 반성적인 기회를 갖고자 한다.

II. 특수학급의 문제점과 개선점

우리 나라도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만을 통합교육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특수학급의 편성도 일반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아동들을 행정적인 지시나 교사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등 특수학급의 입급의 문제, 특수 학급 운영의 실태, 특수학급 아동의 학습지도(개별화), 장애자관, 교사의 인식, 행정가의 역할, 시설 및 관련서비스 등 특수학급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급의 문제점

1) 특수학급의 입급의 문제점

특수학급에 입급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확한 관찰과 다양한 표준화 심리검사를 통해서 아동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입급하여야 하는데도 아동을 평가하는 데 70년대에 사용했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정밀 검사보다는 집단 검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통해서 입급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우리나라의 특수학급 아동들은 50~90% 정도는 정신지체나 학습 장애, 학습부진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다.

2) 특수학급 아동의 학습지도 문제점

이 부분은 특수학급의 운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학급의 아동은 개별화 지도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교사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개별화 지도 프로그램은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도구로써,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별화 지도 프로그램이 장애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니 만큼 학생수, 학생 개개인의 기초적인 능력, 교사의 교수 능력 등의 제반 조건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문서가 되고 교육의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동의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통해서 개별화 프로그램을 구안 작성하기보다는 여러가지의 잡무나 실질적인 작성 방법과 지도 방법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개별화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3) 교사들의 장애자관

며칠 전 텔레비전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무척 당황하였다. 그때 이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가 3세때 자폐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지금은 7세인데 일반 아동과 함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 어머니의 교육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여러 교사들이 장애자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

아나운서가 이제까지의 어머니가 하신 교육 내용을 질문하자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에게 다양한 자연의 경험과 물놀이를 시킨 이야기를 하였지만 가장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하였다. 솔직히 아이가 자폐라는 진단이 내리기 전까지는 나의(어머니) 생활이 매우 중요하여(어머니의 직업은 시인, 아버지는 의사) 자녀보다는 나의 생활을 중요시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으나 4년간은 나의 생활을 버리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던 결과라고 말을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폐라는 진단은 교육적이나 의학적으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도 사랑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특수학급에 속한 아동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교사나 학교관리자들도 특수학급의 교사보다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4) 일반아동과 특수학급 아동의 관계

통합교육의 성패와 크게 관련된 요인은 일반 아동의 태도이다. 일반 아동들이 특수학급의 아동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특수학급 아동들을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있다. 일반아동의 따돌린 행동이나 놀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특수학급의 아동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일반학급으로 돌아가지 않고 특수학급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특수학급의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일반학급의 아동들의 눈총이나 소외감으로 인해서 일반학급에 돌아가지 않고 학교에서 방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도 있다.

5) 학교 행정가의 역할

학교 행정가의 특수학급에 대한 태도는 교사와 학교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수학급에 대한 재정, 행정적 지원에 따라 특수학급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도 학교 행정가들은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관심이 부족하거나 중학교에서는 입시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상급학교에 진학율에 따라서 학교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경향도 있어서 더욱 더 특수학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학교장들은 특수학급의 아동들이 문제만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적절한 통제만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된다.

6) 관련서비스 및 시설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효과적인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아동의 장애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의료, 재활, 복지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나 심리치료 전문가 등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학급에서는 장애가 각각 다른 아동들이 학급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전문가의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급은 일반학급에 비해서 다양한 시청각 도구나 학습자료가 필요로 하는데도 지원이나 설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학습자료의 구입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기관이 없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습자료를 구입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특수 학급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야만 특수학급의 본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특수학급의 개선 방안

특수학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장애 아동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교사와 특수 학급의 교사 및 일반 아동들을 중심으로 그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일반 아동들의 학부모 인식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학부모나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가 일반아동이 듣고 있는데에서 말 한마디가 편견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반 교사들은 인식하고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학급의 교사는 특수학급의 아동에 대한 편견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녹색 어머니회나 학교의 여러 학부모의 모임을 통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특수 학급의 교사는 한달에 한번 정도 일반 학급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특수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나 일반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장애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사가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장애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에서나 사범대학에서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은 없더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지 않도록 기초적인 특수 교육은 이루어져야 하며 임용시에 있어서도 연수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일반 아동이 장애 아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사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특수학급에 가서 장애자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만 보완된다면 일반 아동들이 장애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합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4) 특수학급에 대해서 학교 행정가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장이나 교감 강습회에 특수

교육의 영역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장의 인식의 변화는 특수학급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의 시각도 변화됨으로 학교장들이 특수학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갖도록 적극적인 연수교육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특수학급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교사와 학교장, 학부모가 일심동체가 되어 특수학급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정한 헌신과 사랑으로 교육을 임한다면 특수학급의 아동들도 일반 아동과 함께 일상생활을 잘 적응하고 생활해 나갈 것이다.

III. 결론

특수학급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나 현재의 특수학급이 보다 진일보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교육을 경험한 교사들이 더욱더 솔선수범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학급을 담당했던 경험있는 교사들이 장애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특수학급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하여도 제도로서의 역할

만 할 뿐이다. 특히 특수학급을 담당했던 경험있는 선배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후배교사에게 가르침을 주고 아동 개개인에 대해서 특성을 알림으로써 후배교사들이 특수학급을 맡고 나서 어려움을 겪은 정도는 훨씬 적어 질 것이며 특수학급의 본래 목적을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수학급을

맡은 교사는 일반교사보다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헌신적이고 노력하라는 사명감을 주는 것이므로 특수학급의 교사는 진정한 사도의 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가르친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통합교육에 진일보 할 것이다.

* 사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훌륭한 죽는 이유가 된다.
*
* <까뮈>
*

舍 廊



宋 泰 洪

(長城珍原東初等學校 教師)

한 평생 대숲을 지킨 할아버지 작은 궁엔
큰 기침이 한지 위에 해서채로 돌아나네
긴 세월
여원잠의 길손
채운들도 돌아나네.

저 어둠 헤쳐오는 새 때며 달빛이며
지팡이로 내리치던 식민지의 바람이며
때로는
젊은 소리꾼의
잠을 깨는 쑥대머리.

뒷개, 그 살여울이 을 넘어 와 슬렁이고
취마 끝 날선 대숲 밤 새도록 서걱이고
썰렁한
저울 함 안팎
아, 장작불 지피곤킬네.

장 날

산이 아이에게 주는 선물

-비 갠 후-



고 정 선

(光陽製鐵南初等學校 教師)

꼭두새벽 토방에 홀는

여린 풀빛

새물내어

어슴새벽 머슴새 울어

고살 얼비친

새물내어

햇숨인

화룡장 오십 리

어머니의

새물내어.

비 갠 후

산이 더 커졌어요.

모두들 하늘로 하늘로

숲이 푸르름으로 뛰어 오르고

산새 소리도 맑게 맑게 날아 오르고

하얀 안개 바다 위로

두둥실 산이 떠 올라요.

아이는 두 손으로

산을 안아보다가

커 가는 산만큼

마음을 키우기로 했지요.

산이 아이에게 주는 선물

- 숲 길 -

숲길은
서둘러 뛰어가는 길이 아니지요.
숲길은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가는 길이 아니지요.
숲길은
노루막이 갈 때까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길이지요.
길옆 나무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발밑을 지나는 작은 벌레들과
얼굴을 익히며
때로는 허리 펴서 하늘도 쳐다보고
숲을 마음 속에 담고 가는 길이지요.

아이는
귀 열고 마음 열고
숲길을 걸어갑니다.
양손에 매달린 수 많은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황금 들녘



김 재 용

(목포연산초등학교장)

이
가을이
쉬-
떠나기 전에
들녘으로 나가 봐요.
여름내내
따스 손길
방울방울
땀방울의 온기만큼
순이 아빠
땀방울의 무게만큼
차곡차곡 알곡이 된
자랑스런
벼들을 만날 거예요.

황금 주머니마다
차곡차곡
알곡이 되기까지
획이-획이-
참새때
외 발로 쫓아준
허수아비 아저씨
그
사랑 못잊어
꼬맹이 실바람이
사알람 지나만 가도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머리 곱게 빗질하고
춤추며 인사하는
벼들을 만날 거예요.

할매와 까치감

小 滿



김 재 석

(목포마리아회고 교사)

키 작은 겨울 해가
 흐려 밝은
 노을 자락
 고갯마루 너머로
 그리움 하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손주 기리다가
 노을따라 할매 눈에
 그리움 하나

작작
 까치가
 언제
 울꼬

할매마냥
 앙상한 감나무
 그 꼭대기에
 바짝 마른 까치감
 그리움 하나.

마늘밭이
 마을을
 찌안고 있는
 두동

등지에 새끼
 먹이 심부름에
 정신이 없는
 제비

축사 올라리에
 고개를 가우똥
 젓소와 눈이 마주친
 까치

뛰어다니다 말고
 까치와 젓소를
 번갈아 보는
 바둑이

◎ 할매 : 할머니의 토속말
 ◎ 까치감 : 겨울에 까치밥으로 감나무 꼭대기에 남겨둔 감.

겨울 白蓮寺

반쯤 열린 冬柏 꽃방울이
바다만 바라보더니
바다만하 부푼 꿈
어찌할 줄 모릅니다

잔설 없힌 佛頭花 결
배등아리 노란 새 한 마리
노래하다 토라져
이승의 門 밖으로 날아갑니다

산의 옷고름 풀어
속살 어루만지려다가
風磬을 흔들어, 大雄寶殿 벽화
文殊菩薩의 눈길과 마주치는 바람

산승은 陽地널에 풀썩 주저앉아
이루지 못할 꿈
저다 버리려
싸릿대로 바지개를 엮습니다

무위사

강 정 삼

(강진성전초등학교 교사)

짜갈 짜갈 덩구는
천연의 默秘에 널려 있는 자갈은
세월을 한조각씩 쪼개놓은 설화이다.
허물어진 벽면에 무아의 세계를 날으는
벽화들의 보드러운 살결이
저승 세계의 초월한 이상향인것을
갈 길 멀지 않는 달마가 가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
윗 산 천황봉의 암벽에 박힌
바람 한 점 이여라.
은은한 풍경 소리에 녹아 흐른
노 스님의 독경 소리 산울림이 되어
산에 묻히고
범종 소리 멀리 하계를 흐른다.
무위사 오는 등허리 고부랑 길 가에
반색을 하는 수줍은 시골 민들레
정을 주고 눈 길을 피하는
사바의 동승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바라보이는 것은 평산과 벽계수요

멀리서 들리는 문명의 소리 뿐
옛 화승들의 초월된 나라의 성토만
바람이 되고, 단청 무늬로 되고,
뜬 구름 속에 머물고 있으니
사리사육에 가득한 탐방객들은
걸 모양만 보고 찰칵 찰칵 사진만 찍는다.
옛인은 모두 길 따라 갔고
욕망도 부귀도 권세도 상실하였지만
무위사 벽화속에 피안의 세계는 아직도
신비의 상상력으로
몰입시킨다. 기둥 없는 단간주에
펼럭이는 천년의 빛이
가슴 허전한 사람에게 의미들 주고
돌아 오면서 뒤돌아 보는
성역의 터에 산 그늘을 지우고 간
바람만 스친다.
관음 진신 도량 무위사 벽화처럼 영원한
향수여!

땀기머리

……限이었으며 愛國 抗爭의 표리일체는
兵帖없는 뿌리없으며 나약한 조국 愛鄉
導火의 불씨 盟休의 용단 자주 독립 魂……

시월의 통학열차는 하얀연기 한 이권만
예의법도 가르친한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진 무리……오, 왜놈의 건달패
……

삼단갈은 땀기머리
더러운 손으로 채웠으니
울분이어
화산이어
하늘을 솟는 불꽃이어
도둑이 배를 들다니
뺨에 사무친 분노와 수치였어라
역사를 도둑질하는 명치의 나라 후손들이
도덕으로 자란 귀여운 딸을 회통하는
무식한 문화
나라 잃으며 자주권을 강탈당하며
민족은 숨을 감추고
말을 잃고
사상과 학문과 전통 문화를 뺏겨버린
야속한 역사의 장난끼리는 통곡이다.

통학 열차 무시와 편견과 가난의 약한
조국의 아이들은
눈물을 씹으며 배웠드래요
이 고장을 모르는 무지함 무리들은
화산의 불꽃을 보았으리니
광주학생의 독립 만세 소리 들린다.
응어린 가슴에
피는 열물로
열물은 피로
허공을 가르는 만세의
외침의 소리가 들린다.
[십일월삼일.명치의생일.음력계천절]
불구재천의 날이요
민주 항쟁의 독립의 날이요
생명과 재물과 하나도 남김 없이 쏟아
붓고 일어선 날이요
나주 사람들

五段階 人生 行路



金 鶴 來

(務安初等學校長)

인간의 한 평생을 모체로부터 오
단계 분리 과정이라고 풀이해 본
다. 1단계 분리는 출생이요, 2단계
분리는 젖배기, 3단계 분리는 유치
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이며 4단계
분리가 결혼, 마지막 5단계 분리는
사별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5단계 분리 과
정까지 이르지 못하고 1,2,3, 단계
에서 불행히 사망으로 이어지는 분
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 채 독신자로 산다거나 학교 입
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
나 이들 경우는 예외 단계일 뿐이
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섯가지 단
계를 밟는 것 같다.

제1단계 출생을 생각해 보자 아
기들은 모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울

음부터 터뜨린다. 울지 않는 출산
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
든 영아들은 태내에서 박차고 나온
직후 꽤 요란한 울음소리를 낸다.
그러기에 출생했다는 말을 呱呱의
聲을 발한다고도 한다.

그 답답하고 비좁은 배속에서 빠
져나와 세상 구경을 하게 되니 좋
아서 웃음이라도 웃어야 될 것 같
은데 어째서 갓난아기들은 울기만
하는 것일까?

실제로 태어나면서 웃는 아기가
없고 말을 하는 아기도 없다. 그러
니까 인간이 울음부터 시작하여 웃
기도 하고 지각이 시작되면서 말을
하는 것 같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
리는 생태를 두고 재미있는 풀이를

하는이가 있다.

세상에 나왔노라고 제일 성으로 신고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이가 있으며, 회노에락으로 얼룩진 세상에 나왔으니 앞날이 따분한 고생길이기 전에 미리 울어 버린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출산아의呱呱의聲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산모가 벌써 몇 시간 째 산통을 겪으며 신음을 하다 못해 울고불고 할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헛비질을 하며 애타게 기다린다. 이때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서 가족들에게 아주 확실한 신고를 하는 소리가 울음소리이다.

그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렸던가. 더구나 산고가 시작하면서는 잠을 못 이루고 산모 못지 않은 마음의 고통과 조바심을 했을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리는 '저 나왔습니다.'하는 회소식인 것이다.

갓난아기는 모유를 먹고 자란다. 눈도 못 뜨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유방을 찾아서 빨 줄 아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자라다가 엄마의 젖을 떼는 시기가 이유기이다. 여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유아기 젖을 떼는 시기의 특징은 여러 가지라는 것이다. 엄마의 젖꼭지를 꼭꼭 물어뜯는다든지 젖이 떨어진 후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엄

마의 사랑을 빼앗아 버린 동생을 꼭꼭 꼬집어본다든지 어쩔든 인간의 이유기는 모체로부터 한결음 더 물러서는 분리 시기인데 이것도 옛날 말이지 요즘 세상에는 모유 아닌 이유식으로 아기를 기르는 사람도 있고, 아예 유모를 두는 집안도 없지 않으니 인생의 제 2분리기인 젖떼기 단계가 아예부터 없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다.

이유기를 넘기면 아기는 아장아장 걸다가 방바닥이 제법 통통 소리를 내며 울리도록 뛰는 귀염둥이가 된다. 말을 배우고 텔레비전을 보며 노래도 부르게 된다. 이럴 때쯤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니 엄마와는 하루 몇 시간씩 떨어져 생활하게 된다. 이것이 제 3단계 분리이다. 엄마도 좋지만 친구들이 생기니 재미를 느낀다. 그렇지만 엄마의 품속은 역시 그리운 곳이고 좋은 곳이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귀가하면 맨처음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면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도 공통된 정서인 줄 안다.

제 4단계 분리는 결혼이다.

결혼에 의한 분리는 큰 분리를 의미한다.

부모에 의존하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발전하여 자립을 하는 것이고 인간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모 슬하를 떠나는데 어렵고 서러워 우는 신부도 있고 딸을 시집 보내며 눈물짓는 부모도 있다.

요즘 세상에는 결혼식장에서 웃음과 박수와 폭죽 소리가 요란하지만 그 옛날 결혼식장의 신부들은 울기만 했고 신랑들이 웃을 경우 처갓집 보리밭이 마른다고 농을 하기에 웃긴커녕 심각한 표정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다. 무촌사이가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엄마, 아빠보다는 배우자가 더욱 소중한기에 매우 큰 분리를 하는 것이다.

모체로부터 마지막 분리는 사망이고 사별이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사람은 죽으면 모두 끝나는 것이다. 잘잘못은 고사하고 죽어 버리면 그만이다. 출생, 성장, 사망이 인간의 일생이고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이 기약된 것이지만 죽음은 가장 큰 분리임에 틀림없고 가장 큰 아픔을 안겨 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인간사회에서는 죽음을 애도하고 안타까워 하지만 그러나 어떤 종족들은 사람이 죽을 경우 이 사악한 세상을 떠나서 세상 낙원으로 가니 얼마나 좋겠느냐며 축하를 하고 반대로 애기가 태어날 경우 고생하러 세상에 나왔느냐면서 울리준다는 것이니

출생이 반드시 기쁜 일ियो. 사망은 언제나 슬픈 일이라는 논법도 무리한 것일는지 모르겠다.

이상과 같이 인간의 다단계 분리 과정을 적고 보니 내 인생이 생각난다. 나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 어디까지 온 것일까?

1단계 출생 나는 유독 거꾸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세상을 역으로 나온 것이고 나오면서 고생계나 했을 것 같다. 2단계 이유기 나는 젖을 꽤 오래 먹었다는 전언이다. 3단계 초등학교 입학 때는 일제 말엽 흠고 배고픈 시대였다. 4단계 결혼 설혼이 다 되어 갈 때 만혼을 했다. 마지막 5단계가 남아 있다. 어머님께서 병석에 계시지만 아직은 이 세상 사람이니 나에게는 사별이란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머지않은 앞날이라고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후회되기도하고 현재의 내 생활에도 불만스럽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지 환갑이 넘은 사양길에서조차 회미하기만 하다.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세월들, 절대로 되풀이 할 수 없는 나의 인생 행로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비우고 욕심없이 되돌아보고 앞날을 바라볼 일이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마지막 단계를 미화하기 위해 오늘의 삶에 충실할 생각이다.

뜨거운 가슴을 위하여



金 奉 根

(務安一老初等學校 校監)

“교감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놈은 *이 빠져라고 달아나고, 한 놈은 물총을 들고 쫓아가며 그래도 제학교 교감이라고 인사를 한단다. 옆에 지나가는 다른 애들도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는데 모두들 입에는 무엇인가를 하나씩 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소풍은 즐겁다 우리가 어릴 때 일년 중 그래도 가장 즐겁던 기억은 운동회나 소풍이 아니겠는가?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날이 가까워 오면 날씨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었고, 그 귀하던 운동회라도 한 컬레 얻어 신는 날이면 그 기분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즐거운 소

풍이니 요즈음이라 해서 달라질 리는 없다.

점심 시간이 되어 점심을 먹고 있는데,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린이가 다가오더니

“엄마가 교감선생님 드리래요.” 하며 박카스 한 상자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네 엄마가 누구시니?”

“예,○○○세요.”

한 20년쯤 되었나보다.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는 봄 소풍이었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 교사들 몇몇이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반 여학생이었던 ○○○가 살며시 나에게 다가와서는 무엇인지 가만히 놓고 달아나

는 게 아닌가. 겹겹이 찢 종이를 펴 보니 삶은 달걀 2개가 들어 있었다. 얼마 전에 가정 방문을 했을 때도 그 애 어머니가 일손을 놓고 달려와 달걀을 삶아 껍질을 벗겨 주면서 막무가내로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었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그 아이가 엄마가 되어 자기 아들 손에 박카스 한 상자를 들려 보낸 것이다.

인정은 사라지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아는 세상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정이 남아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인정 어린 환경에서 자란 때문이 아닐까? 울적 솟아오르는 감동에 복바쳐 점심을 다 먹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일어서면서 교사에게 주어진 시련과 영광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교육자의 길을 가면서 ‘得英才 教育之 三樂也’라는 경지까지는 되지 않을지라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즐거움을 느끼면서 20여년을 살아 왔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도안을 쓰고 자료를 만들고, 부진아를 돌보면서 앞만 보고 살아왔던 그때는 그래도 선생님을 부모 이상으로 존경하며 따라주던 시기였다. 그러나 농업사회가 공업사회로 발전하고 제3차 산업이 부의 상징이 되면서 점차 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가족 제도는 붕괴되고 인척도 점차 멀어진

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이제 형제라는 낱말을 무색케 만들어 놓았다. 농촌은 몰락의 길을 걷고, 시골 길을 걸으면서 동무들과 어울려 끈끈한 인정을 나누던 자연 환경도 이제는 사라졌다. ‘便利’하나만을 위한 문명의 도구들이 인간 그 자체를 잡아먹는 세균이 되고 말았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길거리에 버리고 달아난다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한 경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이니 무조건 죽이고 싶다고 땅 속에 생매장하는 경우, 불량배에게 맞아 죽은 친구를 실족사 하였다고 꾸미는 경우 등 인륜을 벗어난 일들이 이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일상적인 뉴스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모해 가는 사회를 어찌 한 교사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만 그래도 우리 교사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리요.

우리 나라는 고래로 ‘孝’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아 왔다. 조상과 가문을 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 이었다. 이런 사회 윤리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지탱해 오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런 ‘孝’정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는 부

모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시며 큰기침 한 번하면 땀들 아래까지 벼선탈로 뛰어 내려가 인사 드리던 아름다운 정경은 이제 찾을 길 없게 되었다. 존경이 없는 단순한 남녀 평등이 가정의 자녀 교육이라는 역할을 약화 시키고 있으며, 나만 편하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길거리의 청소년들에게 말 한마디 타이르는 사회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고 말았다. 학교에서도 입시 교육이 기계적인 경쟁심과 좌절감만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5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여 인성교육에 치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은 평생교육의 기초교육으로서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담임이 일년 동안 어린이들의 성격이나 개인적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에는 열린 교육의 차원에서 개별화·개성화 교육, 다양한 활동 중심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첫째는 '孝'의 생활화에 있다고 본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孝'를 근본으로 한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학교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웃어른을 존경하고,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가정은 도덕적으로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사회는 모든 젊은이들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돌보아야 한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잔소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훌륭한 교육방법을 구사하였었다. 귀가 닳도록 매일 듣는 잔소리가 죽도록 싫었지만 그 잔소리 덕택에 우리들은 곧고 바르게 자라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 한 말을 내일 또 하고, 또 모래도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첫걸음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밥상머리 교육'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형, 동생 모두 둘러앉아서 밥상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선 마음이 열리게 된다. 둥그런 상상에 앉아서 할아버지들이 살아오셨던 이야기, 세상사는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공동체 의식이 길러지고, 연대의식이 생겨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남에게 피해가 되면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하게 된다. 이것이 인성교육의 훌륭한 장이 되지 않았나 한다.

우리는 연구수업을 할 때마다 어린이 위주의 학습을 해야 한다고

한다. 어린이가 스스로 찾아서 활동할 수 있는 장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요즈음은 열린 교육이 선풍처럼 일어나 어떤 때는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 근본 취지는 인성교육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개인을 존중하고 개성에 따라 학습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학습의 성취감을 갖게 되어 심정적 열등아가 줄어들 것이다. 또 협력 학습을 강조하므로 친구들과 서로 어울려 활동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이 길러지므로 원만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해 본다.

물은 영원히 흐른다. 흐르다가 멈추기도 하고, 되돌아 흐르기도 하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어디론가 흐르고 있다. 흐르면서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어느 부분에서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오염이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깨끗이 정화하여 다시 지하수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우리 지구는 수 억년이 지나도록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로 들어서서 혹은 악한 자도 있었고, 인류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지라도 인간 스스로 반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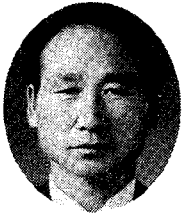
고, 회개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왔다. 물이, 자연이 자정 능력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영원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 자정 능력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전제가 되고 있다. 교육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 틀림이 없다. 그 교육의 담당자는 물론 교사이다.

이제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 없던 인성교육을 새삼스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점차 사라지려고 하는 인성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내장사 단풍도, 백암산 갈대도 깊어 가는 가을을 노래하고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연에 묻혀 단풍잎을 모아 보도록 하자. 논 가운데 서 있는 허수아비와 이야기도 해 보고, 누렇게 마른 잔디밭에서 씨름도 해 보도록 하자. 아파서 누워 있는 친구 위문도 가보고, 먼 시골 친척집에도 들러 보는 과제도 내어 보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와 정을 나누는 우리들의 예쁜 제자들을 위하여 뜨거운 가슴의 미래를 심어 주자.

왜 그랬을까?



朱 曠 賢

(潭陽昌平北初等學校 教師)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자 학교 생활은 또 다시 활기차게 돌아갔다.

학년 초부터 상설 문예반을 조직하여 지도해 오던 것을 2학기 개학하고서는 더욱 심층 지도를 하느라고 퇴근 후 여가 시간 까지도 이에 보태고 있었다.

서울신문 주최, '제3회 깨끗한 산하 지키기 전국 어린이 글짓기' 공모전이 지상에 발표되었기에 이 공모전에 응모시켜 보고 싶어서 창작 지도는 더욱 당차게 열기를 뽐었으리라.

기간 내에 작품을 우송하여 공모전에 응모 시켰다.

발표되도록 까지 여간 마음이 쓰이질 않았다.

9월 하순 어느 날이다. 기다리던 소식이 지상에 발표됨과 동시에 학교로 공문이 날아들었다.

전국에서 3만 1천 5백 48명의 작품이 공모전에 응모해서 그 중에 기초 심사를 거친 4천 5백 26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결과 62편을 최종 입선작으로 결정했다는 지상 보도다. 가르치고 애 쓴 보람이 이런 것인가 보다. 그 날은 온종일 들뜬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다.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 별 입선자 수를 보았다. 서울이 15명으로 제일 많았고, 우리 전남과 제주도도 각각 1명으로 제일 적었다.

최종 입선한 62명 어린이들은 10월 9일 한글날, 서울 덕수궁 중화전 앞뜰에서 백일장 결선 대회를

갖게되므로 지도 교사가 인솔하라는 협조 공문도 왔다.

우리 전남에서는 우리 아이가 유일하게 입선했기에 우리 도의 명예를 걸고 결선 대회에 참여시키기로 교장 선생님께 출장 허락을 받았다.

결선 대회에 참여키 위해선 하루 전날 출발해야만 한다.

출발하기 전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11시에 광주 고속 종합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을 했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 지자 애와 그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출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중 전화 부스에 들어갔다. 순간 종이 태운 냄새가 역겨울 만큼 코를 찔렀다. 부스 안에는 종이를 태운 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옆에 있는 부스에도 들어가 보았다. 거기도 마찬가지다.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공중 전화 부스가 모두 종이 태운 냄새와 재가 불에 탄 흥가의 내부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부스 밖으로 나왔다. 부스 밖 서너 걸음 앞에 두 권의 두꺼운 책이 알맹이는 불에 거의 타고 껍질만 불똥 사납게 시꺼먼 물골로 밤이슬에 젖은 채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부스에 들어 갈 때는 전화를 급히 하려는 생각에 미처 보지못했던

것이다. 그 책은 전화 부스 안에서 안내 역을 맡아 고객에게 서비스 하던 전화 번호부 책이었다.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던 전화 번호부가 불한당 같은 자에게 불 세례를 받고 재생의 여지도 없이 길바닥에 버려진 것이다.

대체 누가 이 따위 저질 행위를 했을까? 무슨 억하심정(抑何心情)으로. 그 행위를 한 시각은 언제쯤이었을까? 심야?, 자정?, 밤 한시?……

단독 행위였을까? 동반자라도……

해답이 없다.

의문점은 더 가지를 친다.

그 자의 나이는 10代?, 20代?…… 당시 음주량은 500 ml?, 1000 ml?…… 술의 종류는 맥주?, 소주?, 양주?, 혼합 폭탄주?…… 이것 역시 오리무중, 짐작할 수 없다.

서울행 고속 버스 속에서도 그 자에 대한 생각이 꼬리를 이었다.

그 자의 환경은 기혼자?, 미혼자?, 식구는 몇?, 학벌은?, 현재의 직업은? 불씨를 당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직접적인 가슴의 불덩이는?

왜 하필 전화 부스가 화풀이 대상이며, 전화 번호부 책이 목표물이 되어야 했을까?

죄와 벌.

이 자에게 人性的 數値를 매긴다면 가능한 일일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괴로워진다. 이 책에게 줄만한 人性의 數値가 영점이하로 밀돌기 때문이다.

인성의 잣대보다는 차라리 수성(獸性)의 잣대로 재는 편이 쉽지 않을까 하는 고약한 마음으로 흐르고 있음을 어찌하라!

이런 상황으로 내가 만일 검사가 되어 이 행위의 죄값에 대해 논죄를 하고 벌을 구형한다면, 또 판사의 입장이라면, 가벼운 경범죄로는 구형하지 않을 것 같아 더욱 괴로운 것일까?

학교에선 인성 지도를 잘 해야 한다. 작년부터 인성 지도가 학교 교육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느낌이다.

과거의 학교 교육은 인성 지도에 소홀했던지,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아 박사학위에 현직 대학 교수까지도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행위를 하여 세상을 충격으로 흔들어 놓고 말았었다.

이렇게 人性과 獸性이 뒤섞인 듯한 價値錯誤인 사례가 분노와 슬픔으로 우리를 곤혹스럽게 흔드는가 보다.

그래도 인성 교육은 학교 교육 몫으로 남아 일선 교사의 어깨는 무겁기만하다.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도 사회의 악습과 가정에서의 이기적인 편익 주의가 기승을 부린

다면 바른 인성 육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사랑을 담보로 하는 TV멜로드라마를 비롯한 워험 천만의 애정물들이 쾌락을 앞세워 윤리 도덕을 깔아 뭉개고 人性을 마비시키는데는 有口無言이다.

패륜(悖倫)과 부도덕의 불감증 환자를 量産시키는 온상이 TV 박스라면 너무 가혹한 매도(罵倒)행위라고 지탄받을 것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생물 선생님께선 학습 흥미 유발로 옛날 얘기를 가끔 해 주셨다.

공자님이 행차시에 공자님의 행차를 가로 막고 있는 꼬마가 있었다.

공자님이 가마를 멈추게 하고,

“애, 무슨 일이나?”

“네, 공자님께선 뭣이든지 잘 알고 계신다죠?”

“그래, 무엇이 알고 싶나?”

“네, 공자님,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모두 몇 개나 될까요?”

“흐음, 그건 내 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공자님 눈에서 제일 가까운 공자님의 속눈썹은 모두 몇 개나 되는지요?”

“엑키 이놈!”

공자는 꼬마의 攻勢에 말문이 막혔다.

거짓으로 꾸며 낸 얘기지만 논리적으로는 공자가 꼬마에게 진 것이리라.

이 옛 얘기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가장 가까운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못하면서 멀리 있는 남의 눈에 있는 작은 가시는 들춘다는 말이 있다.

마음을 비우라고들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일까?

말로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면서

도 그것은 남에게 하는 말이지, 자신에게는 해당 없는 말이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리라.

마음을 비우라니 누구더러 비우라는 애긴가? 바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어야 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 간 윤동주님의 서시가 오늘따라 마음을 당긴다.

서 시

윤 동 주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나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세진(世塵)에 얼룩진 마음을 서시에 행구하고, 이 밤엔 나도 별을 노래하고 싶다.

全南教育의 方向

1996學年度

全羅南道教育廳

編 輯 後 記

*吳榮大 全羅南道教育監은 지난 10月10日 第181回 定期國會 教育委員會에 1996年度 主要業務 報告했는데 그 內容을 卷頭言으로 실었습니다. 아울러 黃仁圭 全羅南道教育研究院長의 「學校運營委員會의 參與的 意思決定」을 실었습니다.

*이번 第88號 特輯은 「人性教育」으로 엮었습니다. 필자 選定은 '96학년도 교육부 및 도지정 人성교육 자율시범학교 중에서 실적이 우수학교 校長先生님들로 하였습니다. 玉稿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論壇은 教育의 정보화, 열

린 학습의 문제점과 대안, 都市 學生 農漁村學校 委託 體驗學習에 대한 內容입니다.

*企劃取材는 示範 標準學校, 代案教育 現場, 名門高等學校를 探訪한 內容입니다.

*研究(碩士)論文과 現場研究는 特殊學級 運營을 바람직하게 運營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실었습니다.

*表紙畫·속表紙畫·目次 컷은 順天新興中學校 金龍根 校長 作品인데, 表紙畫는 「雪景」을 選定하였습니다.(萬)

新韓國 創造를 위한 人材 育成

教育行政指標

1. 폭 넓은 學習
2. 성실한 授業
3. 공부하는 社會
4. 합리적인 行政

主要施策

1. 道德的 人間教育의 實踐
2. 基礎·基本 教育의 充實
3. 世界化 對應 教育의 強化
4. 教育하는 社會의 造成
5. 學校 運營의 活性化

教育改革的 基盤 造成

全
人
教
育

행
정

編輯委員長 黃仁圭 (教育研究院長)
指導委員 吳清美 (指導普及部長)
編輯委員 朴萬澈 (教育研究士)
" 文鍊烈 (")
" 張潤植 (")
" 朴弼守 (")

『교육전남』

-통권 제88호-

1996年 12月 25日 印刷
1996年 12月 30日 發行

發行: 全羅南道教育廳
編輯: 全羅南道教育研究院
印刷: 光州報勳福祉印刷組合